

여성태권도인 구술채록

2024. 10.

(주)다락컴퍼니

2024년도 여성태권도인 구술채록

<김영숙외 6인 구술 녹취록>

면담자 : 이종천, 이영림, 곽정현

녹취자 : 구현성, 이영림, 김기범

2024년 10월

 **목 차** 

I. 사업 개요	1
II. 구술자 선정	3
1. 구술자 후보 및 선정	4
2. 수행 범위	5
3. 수행 결과	5
4. 구술결과 산출물 생성·정리	6
III. 구술자 서식자료	7
IV. 구술자료 개요	13
V. 구술자 신상기록부	14
VI. 구술자 사진	20

VII. 구술자 질문지	27
VIII. 구술채록	28
1. 김영숙사범	28
2. 남궁명석 사범	55
3. 장정희 사범	76
4. 정효심 사범	96
5. 서영애 사범	126
6. 임신자 교수	150
7. 서용문 회장	176

사업 개요

□ 여성태권도인 구술채록의 의미

- 태권도는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무도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현재는 세계화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적 상징이다.
- 초기의 태권도는 남성 중심의 활동과 경기가 이루어지고, 여성들의 체육 활동은 사회적 인습과 종교적 관습 등으로 이 분야에서 많은 제약과 성적 차별이 형태 및 참여 제약을 받았다.
- 1960년대 사회적, 문화적 장벽 불구하고, 몇 명의 여성들이 태권도 훈련을 시작하였고, 이들은 단순히 생활체육이 아닌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기술력을 구축하는 수단으로 여성태권도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 1960년대 후반 1980년대를 걸쳐 여성태권도 선수들이 국내·외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대회에서 태권도 여성들의 뛰어난 기술과 정신력을 선보이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어야 했던 불리함을 넘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 1980년대 말부터 여성태권도 지도자들이 점점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중점으로 태권도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태권도 교육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 구술채록을 통해 수집되고 정리된 여성태권도 주요 역사는 기 확보된 기록물과 함께 태권도의 발자취와 한국여성태권도사의 변화와 흐름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 사업 목적

- ‘여성태권도인 구술채록’ 사업은 여성 태권도인들이 걸어온 길과 그들이 이룬 업적을 기록하고 보존함으로써 태권도 역사 속에서 여성의 역할과 기여를 알리고, 그들의 역사를 올바르게 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여성 태권도인들의 구술을 통해 그들의 도전과 성취,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태권도 후학들이 이를 교훈 삼고 발전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여성 태권도인들이 스포츠 분야에서 발휘한 리더십과 사회적 역할을 조명하여 그들의 기여를 널리 알리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다양성을 장려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사업기간

- 2024년 6월 ~ 2024년 10월 4일

□ 구술 참여자

구분	이름	기여부문	구술시간	비고
1	김영숙	해외최초사범	2:16:36	
2	남궁명석	국내최초선수	1:45:24	
3	장정희	최초심판	1:42:21	
4	정효심	최초사범	2:22:28	
5	서영애	최초폼새국가대표	2:10:29	
6	임신자	최연소 국가대표	2:07:15	
7	서용문	여성연맹 후원자	1:25:20	

□ 수행내용

- 사전 질문지 마련
 - 구술 대상자가 활동했던 시기의 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사전 질문지 작성
 - '60년대 후반기 여성태권도인 2인(김영숙, 남궁명석), 70년대 최초 국내 심판 1인(장정희), 70년대 도장경영자 1인(정효심), 세계품새대회 9연패 1인(서영애), 최연소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 1인(임신자), 추가 구술 한국 여성태권도연맹 전 회장 및 후원자(서용문) 총 7인 13.49시간 구술채록
- 구술기록 생산
 - 구술자 면담 진행 및 구술기록관리 방법론에 따른 동영상 기록, 음성 기록, 녹취문 등 생산
 - 구술 범위: 구술자의 수련 배경 및 시기, 선수 활동, 지도자 활동, 단체활동 활동, 태권도 발전 관련 활동, 기록물 기증 배경과 주요 기록물에 대한 설명 등
- 구술기록 관련 서식 작성 및 매체변환 등 산출물 생산·정리
 - 구술기록 개요, 구술자 신상기록부, 면담일지 등의 각종 산출물 작성과 동영상, 음성파일 등에 대한 매체변환 및 보존매체 수록 등 관련 후속조치 수행
- 구술자별로 홍보용 5분 영상 제작
- 구술기록 상세 내용을 작성
 - 이번 사업의 구술자별 구술기록 상세목록 작성

II 구술자 선정

1. 구술자 후보 및 선정

- 1) 구술자 선정
 - 태권도 발전에 기여한 선수, 지도자, 행정,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구술을 채록하고 태권도사의 기록으로 보존하고 여성태권도 학술자료로 활용할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참여자를 엄격히 선정함.
 - 선정방법 : 태권도 5개 단체 추천 및 자료를 활용해 15명 후보 선정 개인 의 참석여부와 면담이 가능한 수준의 구술채록 참여자를 선정.

구술자 선정기준	
- 태권도 아시아, 세계 선수권 또는 AG에서 최초 입상 선수 또는 메달리스트 * 이 밖에 국외 지도자 및 특수 직업군 등에서 활약한 태권도인도 포함 - 선수 발굴 또는 훈련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우수선수 양성에 기여한 지도자 - 탁월한 지도력과 행정력으로 국위선양 및 체육 발전에 기여한 태권도 행정가 - 스포츠 발전을 위해 몸소 헌신하거나 적극적인 후원 활동으로 봉사한 후원자	

구분	이름	기여부문	국적	비고
1	김영숙	지도자, 해외사범	해외(미국)	
2	남궁명석	최초 여자9단	해외(미국)	
3	장정희	선수 및 임원	국내	
4	정효심	선수 및 임원	국내	
5	서영애	선수 및 지도자	국내	
6	임신자	선수 및 지도자	국내	
7	서용문	여성태권도후원자	국내	

* 개인 참여 의사와 태권도진흥재단 협의 후 선정

2. 수행 범위

1) 조사·연구 및 질문지 작성

- 다락컴퍼니는 2024년 태권도진흥재단 국립태권도 박물관 태권도 지식자원 3차 아카이빙 여성태권도인 구술채록 사업을 통해 구술이 가능한 여성태권도인들의 구술기록의 생산을 완료하였으며, 국내·외 역대 주요 인사로 최초 여성 태권도 선수, 심판, 여성지도자, 세계대회 우승자는 물론 여성태권도 역사와 관련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 구술 인터뷰를 통하여 여성태권도의 발전 과정에서 여성이 참여하게 된 시점과 과정, 이들의 경험을 통해 태권도 역사 속에서 여성의 위치와 역할 변화, 주요 인물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태권도를 인문하고,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취를 이루어내며 태권도 안팎에서 여성들의 기여와 업적 등에 대한 내용을 확보할 수 있었다.
- 본 사업은 여성태권도인들에 대한 구술을 채록하는데 있어서 첫째, 개인신상정보 및 태권도 입문 경로. 둘째, 태권도 훈련과정에서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 셋째, 특정 업적에 관한 내용이나 여성태권도연맹과의 관계 및 활동 등도 질문의 대상으로 삼았다.
- 하지만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한 구술이 일반론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구술자의 지위와 역할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여성으로서의 태권도 수련 입문의 어려움, 국내·외 여성지도자로서의 역할, 여성태권도인으로서의 어려움, 장벽, 여성태권도연맹 조직 구성과 운영의 어려움 등, 여성태권도 발전 전체의 여성태권도인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진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질문지를 설계하였다.

3. 수행 결과

- 조사·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고, 역대 주요 인물 구술채록을 시행하였다.
- 여성태권도 인사에 대한 구술채록은 구술자의 생애를 바탕으로 활동 이력을 밝히고, 그때 그 시절 활동에 대한 확인과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의 발

굴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였다.

- 여성태권도 주요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구술은 구술자의 생애를 바탕으로 주요 사건 및 활동 일정 해당 시기의 역할과 당시의 주요 사건과 성과, 현재까지 이르는 다양한 활동과 여성태권도 발전 방향과 미래 비전 등을 중심으로 구술채록을 수행하였다.
- 대부분 구술자들의 생활 지역과 건강 상태, 시기적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구술시간을 설정하여 수행하였다.
- 구술자 확정과 구술채록 수행에 이르게 되면 구술자의 개인 이력과 사전 조사·분석한 질문지 작성 프레임을 적용하여 사전 질문지를 작성하고, 접촉, 면담, 검독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절차대로 진행하였다.
- 각 단계별 산출물을 생산하고 결과물 관리 방법론에 따라 최종 제출하였다.

4. 구술결과 산출물 생산·정리

- 구술채록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산출물을 작성하고 제출했다.
- 구술과정에서 생산되는 구술결과 산출물은 태권도진흥재단 기록보존실의 자체 생산기준과 정리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 제출했다.
- 2024년도 녹취문의 내용을 분석하여 구술 상세 목록을 작성했다.
- 구체적인 구술 기록에 따라 인명, 사건 등에 대한 주제 검색어를 추출하였다.
- 구술 기록에 따라 전체 동영상을 제작하고, 구술자들의 구술 내용 중 일부를 편집하여 구술자 한 명당 약 10분 분량의 영상을 제작하였다.

출연료 및 저작권 위임 동의서

본인은 태권도진흥재단이 실시하는 구술채록/영상녹화에 대한 출연료 및 저작권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개 및 이용에 동의하며 그 권한을 태권도진흥재단에 위임합니다.

아 래

□ 위임 동의 내용

- ① 본인은 구술채록/영상녹화 제작을 위한 출연료 및 이용 권리와 저작권을 전부 양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에 대한 보상으로 (주)다락컴퍼니로부터 소정의 금전을 지급받는 것을 동의한다.
- ② 본인은 (주)다락컴퍼니가 홍보/연구/교육/출판/전시/기타 활용 등을 목적으로 본인의 구술채록/영상녹화 및 제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갖는 것에 동의한다.
- ③ 본인은 (주)다락컴퍼니가 본인의 구술채록/영상녹화 및 제2차적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통해 구술자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베이스 및 콘텐츠를 구축하며 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다. (주)다락컴퍼니는 나의 이름, 초상, 이미지, 목소리, 영상, 녹취문 및 내가 기증한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디지털화, 공개, 전시, 이관, 방송할 수 있다.

2024년 월 일

구술자 성명 : (인)

생년월일 :

거주지 :

(주)다락컴퍼니 귀중

구술 동의서

(구술채록 기관 및 단체, 개인)은 (채록 주제나 대상)을 수집/보존하고, 그 의의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술채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구술채록은 녹음, 녹화 파일 및 녹취록으로 작성/보관되며 녹음, 녹화파일 및 녹취록은 구술자의 요청에 따라 일부분 공개 혹은 비공개가 가능하다.
2. 구술 채록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녹음/녹화 데이터와 녹취록은 (구술채록 기관 및 단체, 개인)에서 보존/관리한다.

구술자는 상기 사항을 인지하였으며, (구술채록 기관 및 단체, 개인)의 구술 채록 작업에 동의합니다.

일 자 : 년 월 일

구술자 성명 : (인)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IV 구술자료 개요

구술자료 개요

과 제 명	국립태권도박물관 태권도 지식자원 3차 아카이빙 여성태권도인 구술채록		
구 술 자	김영숙, 남궁명석, 장정희, 정효심, 서영애, 임신자		
면 담 자	이종천, 이영림,곽정현		
녹 취 자	구현성, 이영림, 김기범	검 독 자	박정호
촬 영 자	구현성, 김기범		
참 관 자	조재동		
면담일시	2024년 7월 23일, 2024년 8월 12일 2024년 9월 11일, 2024년 9월 24일		
면담장소	상암 DMC첨단산업센터 다락스튜디오		
면담횟수	총 4 회	면담시간	13:49:53
공개구분	<input type="checkbox"/> 전체 공개 <input type="checkbox"/> 전체 비공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분 비공개		
이용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 안함 <input type="checkbox"/> 조건부 동의		

V 구술자 신상기록부

구술자 신상기록부

(주)다락기업

구술자 인적 사항	성 명	한글 : 김 영 숙 (한자 : 金 英 淑)		
	생년월일	1947. 6. 2. (음력)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여
	출 생 지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85-88		
	현 주 소	variel Ave #2 Canoga Park CA 91304 USA		
	전화번호	818-470-8267		
	E-mail			
	종교	기독교	기타교육경험	510-778-4858
관련분야	태권도			
가족상황	딸1	직계가족 연락처	비상시 연락처	
주 요 경 력 (대표경력 및 선수경력)	연도	활 동 내 용		
	1970. 5.	세계 최초의 여성만의 태권도장개관		
	1979	한국여성태권도연맹 창설		
	1981	Miami시장 공로상 수여		
	1994	사회봉사상(청소년선도) 로스엔젤레스 의장		
	1996-98	우드랜드힐스초등학교 태권도 지도		
	1998	제 1급 국제심판 취득		
	1998-99	밸리 한인회 체육담당 이사		
	1987~현재	월드태권도스튜디오 태권도장 운영		
	2002-05	세계태권도연맹 여성분과 위원회 임명		
2010	나사렛대학교 객원교수 임명			
기 타				

구술자 신상기록부

(주)다락컴퍼니

구술자 인적 사항	성명	한글 : 남궁명석 (영어 : Myong Mayes)		
	생년월일	1952. 11. 07. (음)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여
	출생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현주소	54 Night Heron Ct Sanford NC27332 U S A		
	전화번호			
	E-mail	Gmnamkung@gmail.com		
	종교	기독교	기타교육경험	골프
관련분야	태권도			
가족상황		직계가족 연락처		
주요경력 (대표경력 및 선수경력)	연도	활동내용		
		인천전문대학교 졸업		
		대한태수도협회 1기 시범단원		
		국가대표 전국대회 1회 우승		
		국가대표 전국대회 2회 우승		
		국가대표 전국대회 3회 우승		
		1회 외국인사범자격증 취득		
		3회 지도자 교육 수료 국기원		
		국기원 창설 시범단원		
	현재	미국 태권도장 운영		
기타				

구술자 신상기록부

(주)다락컴퍼니

구술자 인적 사항	성명	한글 : 장 정 희 (한자 : 張 貞 禧)		
	생년월일	1952. 12. 10. (음)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여
	출생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2가		
	현주소	서울 용산구 청암동 181번지 청암자이A 105-1002호		
	전화번호	010-5475-0924		
	E-mail	hgc7979@hanmail.net		
	종교	가톨릭	기타교육경험	
관련분야	태권도			
가족상황	배우자/2녀	직계가족 연락처	010-8577-0924	
주요경력 (대표경력 및 선수경력)	연도	활동내용		
	1975	주한외국인 국내여자 선수권대회 1위		
	1979	경기지도자 1급 자격취득(대한체육회)		
	2006	대한태권도협회 대의원		
	2007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여자 코치		
	2010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장년2부 1위 우승		
	2010	대한민국 체육훈장 거상장 수여		
	2018	태권도진흥재단 이사		
	현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		
	현	대한체육회 대의원		
현	태권도 9단			
기타				

구술자 신상기록부

(주)다락컴퍼니

구술자 인적 사항	성 명	한글 : 정효심 (한자 : 鄭孝心)		
	생년월일	1957년 12월 22일 (양/음)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여
	출 생 지	전남 영광군 대마면 홍교리 438번지		
	현 주 소	서울 은평구 연서로 13길 13-8범빌라 B101호		
	전화번호	010-3759-0070		
	E-mail			
	종교	무	기타교육경험	
	관련분야	태권도		
가족상황		직계가족 연락처	비상시 연락처	
주 요 경 력 (대표경력 및 선수경력)	연도	활 동 내 용		
	1986~2014	태평양태권도장 운영		
	전	서울시, KTA, 국기원, WT, 여성분과 위원장		
	2002	여성태권도연맹(이사)		
	2011	세계태권도한마당(경기지원부위원장)		
	2012	세계태권도한마당(대외협력 부위원장)		
	2017	김운용컵오픈대회 품새:기록위원장		
	2023	춘천세계태권도문화축제 비치품새 기록위원장		
	현	대한태권도협회 품새 부의장		
		고단자 평가위원(국기원)		
	겨루기 심판, 승품심사감독관, 경기분과위원장			
	태권도 9단			
기 타				

구술자 신상기록부

(주)다락컴퍼니

구술자 인적 사항	성 명	한글 : 서 영 애 (한자 : 徐 榮 愛)		
	생년월일	1961. 5. 9(음)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여
	출 생 지	경기도 수원		
	현 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550		
	전화번호	010-5037-5054		
	E-mail	sya6500171@daum.net		
	종교	기독교	기타교육경험	석사
	관련분야	태권도 품새		
가족상황	최동열(남편)	직계가족 연락처	010-2926-2276	
주 요 경 력 (대표경력 및 선수경력)	연도	활 동 내 용		
	2006~2016	품새 국가대표		
	2014~현재	국기원 품새강사		
	2012	맹호장 훈장		
	2021	공인 9단승단		
	2011~현재	전주비전대학교 객원교수		
	1975.3~현재	태권도 수련중		
기 타				

구술자 신상기록부

(주)다락컴퍼니

구술자 인적 사항	성명	한글 : 서 용 문 (한자 : 徐 容 文)		
	생년월일	1958년 2월 14일 (음)	성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출생지	충청남도		
	현주소	서울 성동구 금호로 173 신금호자이A109-1504호		
	전화번호	010-2284-5550		
	E-mail	ymseol14@gmail.com		
	종교	무	기타교육경험	
관련분야				
가족상황	1남 1녀 자녀	직계가족 연락처	010-9419-1308	
주요경력 (대표경력 및 선수경력)	연도	활동내용		
	현재	(주) 심코 대표이사		
	2001~2010	한국여성태권도연맹 부회장		
	2011~ 2019. 3. 9.	한국여성태권도연맹 회장		
	2016	한국여성태권도연맹 6대 회장		
	2012	한국여성태권도연맹 5대 회장		
기타				

VI 구술자 사진

구술자 사진



구술자 사진



구술자 사진



구술자 사진



구술자 사진



구술자 사진



구술자 사진



기본 공통 질문지

구분	질문내용
출생 및 가정환경	<o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연월일을 알려 주십시오.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력, 직업, 성품 등) 형제자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력, 직업, 성품, 결혼 등) 집안 분위기와 가정형편은 어떠했습니까? 가혼이나 집안에서 가장 강조되던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학창시절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 진학하셨습니까? 학창시절(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을 돌이켜볼 때,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습니까? 학창시절(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장래희망과 관심 있었던 과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년시절/학창시절에 본인에게 태권도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태권도 입문 및 초기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제부터 태권도에 관심을 가지셨나요? 태권도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태권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기억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태권도를 배우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처음 태권도를 가르쳐주신 스승님이나 중요한 인물은 누구였나요? 처음 태권도 수련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어떻게 다른가요?
태권도 경력 및 업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태권도인으로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태권도장이나 경기장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에피소드는 무엇이 있었나요? 태권도 지도자로서 활동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제자나 에피소드가 있나요? 태권도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목표와 그것을 어떻게 달성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성 태권도인으로서 겪은 도전과 극복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태권도와 관련된 직업을 선택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권도와 여성의 역할	<ol style="list-style-type: none"> 태권도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 태권도인으로서 활동하면서 겪은 성차별이나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여성 태권도인으로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여성의 태권도 참여가 증가한 현대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 태권도인으로서 사회적 인식 변화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개인적 경험 및 태권도 철학	<ol style="list-style-type: none"> 태권도를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인가요? 태권도가 교수님의 개인적인 삶에 미친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태권도 수련 외에 즐기시는 취미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태권도 철학 중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태권도가 인생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녹취록 본문

과제명	여성태권도인 구술채록		
구술자	김영숙	면담자	이종천
녹취자	구현성, 김기범	시간	136분 36초
면담일시	2024년 9월 11일	면담장소	DMC다락스튜디오
파일명	OH_24_김영숙_07 편집영상(mp4)		

<OH240911:김영숙_03>

- 면담자 00:00 본 인터뷰는 태권도진흥재단 국립태권도 박물관 태권도 지식자원 3차 아카이빙 여성태권도인 구술채록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면담입니다. 일시는 2024년 9월 11일 수요일 오후 4시이고 장소는 DMC 첨단산업지 다락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구술자는 김영숙 사범이며, 면담자는 이종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범님 안녕하세요.
- 구술자 00:3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면담자 00:32 이렇게 미국에서 직접 와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범님을 뵈는 지가 한 9년 8-9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이런 장소에서 만나 뵈게 돼서 더욱더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 구술자 00:47 저도 이런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 면담자 00:51 감사합니다. 이번에 구술 채록은 여성 태권도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후대에 전하기 위한 진행되는 중요한 사업이고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범님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들이 기록되리라 생각하고, 오늘 편하게 저하고 이야기하시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막 틀리면 짧은 것들이 다 편집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릴 때 이게 구술채록이다 보니까 이렇게 통합 자료로 써 쓰기 위해서 공통 질문 사항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 미리 사범님이 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통 사항을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범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고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시나요?
- 구술자 01:52 제가 태어난 데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 그리고 고향 본적은 종로구 홍파동 그리고 원래 그 시절에는 6·25전쟁 나고 이래서 원래는 1947년인데 저 서티켓 같은 거 증명서를 보면 47년도 있고 48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변해서 48년으로 돼 있는데 진짜는 47년생이요. 47년 6월 2일생
- 면담자 02:21 47년 6월에 태어났지만, 호적상에는 48년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 구술자 02:26 근데 많은 서티켓이 아이디가 47년짜리가 또 많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그거 움푹 이런 걸 다 뭐나 이런 거 안 따지니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자료에서도 그게 47년짜리 그게 많아요.
- 면담자 02:42 아현동이면 그 아현동 시장이 있고 골레 방아다리 있고?
- 구술자 02:46 그쪽은 반대고 이쪽은 남아 있어. 그래서 태어나서 미국 갈 때까지 한 번도 이사도 안

가고 그 집에서 살다가

11. 면답자 02:55 등에 사셨어요.
12. 구술자 02:56 아현동에서 살다가 미국 갔어요.
14. 면답자 03:00 외람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15. 구술자 03:08 혹시 아동문화가 방정환 선생님 아세요? 미동초등학교 6회 졸업생이신데 우리 아버님은 4회 졸업생이셔 순 서을 그리고 어머니는 경상도에서 김천에서 시집을 오셨고 그래서 아버지가 왜정 시대 때 공부도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교육열 이런 거는 똑바로 아주 강하게 저는 그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엄마를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 옛날에는 왜 동네에서 교사씩 같은 거 하잖아요? 이렇게 돌리면 저희 집에서도 누굴 돌리면 얼마 막내야 제가 막내거든요. 팔리팔리 갖다 드려, 그리고 엄마 우리 좀 뜨듯할 때 먹자 그러면 남에게 좋을 때 따뜻할 때 줘야 된다. 그리고 남에 또 뭘 음식을 가져오면요. 엄마가 어디 가시고 안 계시면 아빠가 엄마 들어오시면 보고 먹어. 그렇게
16. 면답자 04:03 그 작은 원칙과 작은 교육이었지만 아마 그런 것들이 오늘날의 반듯한 김영숙 사범을 만들지 않았나 벌써 저는 짐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 구술자 04:17 감사합니다.
18. 면답자 04:18 그 시절에 참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가르침을 받으신 것 같아요. 사범님의 집안 가정 형편은 어땠어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19. 구술자 04:28 경제적으로 6.25 나고 이후니까 많이 어렵죠. 그래서 저는 4살 때 부산 외갓집 김천으로 피난 갔다가 부산을 거쳐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집은 있었고 그래서 감히 그때 운동하는 그런 상상도 못 하죠. 말하자면 그런 데 오빠가 중간에 한 분 돌아가시고 그래서 6살 차인 오빠인 김영삼 씨가 태권도하셨는데, 4·19 때 초대 학생을 회장 했어요. 충무중·고등학교에 왜 태권도를 접하게 됐냐면 그 분위기상
20. 면답자 05:06 사범님이 이렇게 이제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좋은 가르침을 배우셨는데 받으셨는데 형제 자매는 어떻게 되시나요?
21. 구술자 05:17 형제 언니가 셋 오빠가 셋 그랬는데 6·25 때 세 분 돌아가시고
22. 면답자 05:23 3남 3녀였다가
23. 구술자 05:25 어 그런데 언니 하나가 지금 95세인데 살아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찾아뵈야 하고 제가 막내예요.
24. 면답자 05:34 그럼, 이제 4남 3녀의 막내
25. 구술자 05:38 4남 3녀지
26. 면답자 05:41 4남 3녀의 막내 그때는 다자녀들을 많이 둘 시절인
27. 구술자 05:46 그럼요. 그런데 전쟁이라는
28. 면답자 05:48 그렇죠. 특수한 환경이 있었는데 그러셨구나! 그러면 사범님은 제 한국에서 초등학교부터
29. 구술자 06:00 쪽 계속 그 집에서 살고
30. 면답자 06:03 그럼, 이제 초등학교부터 어떻게 다니셨나요? 초등학교는 어디 나오시고 중학교는 어디 나오시고?
31. 구술자 06:07 초등학교는 봉래동 서이초등학교 있었죠. 서울 서이초등학교 거기를 다녔고 근데 제가 피난 갔다 와서 1학년을 들었는데, 아홉 살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그렇게 됐지. 근데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선생님과 아버지가 애기가 돼서 2학년을 안 되고 3학년으로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2학년에 구구단 다 하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벼찬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나왔고, 중학교를 갈려고 그러는데, 집안 형편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아버지는 그냥 옛날 한국식으로 암전하고 그냥 그런 적이야. 그래서 엄마가 이제 가게 나가서 일하시고, 이렇게 해가 지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그렇게 나오고, 고등학교 이제 또 야간 나오고, 그리고 저는 계속 태권도를 했기 때문에 그 오빠를 찾으러 도장에 가다 보니까 막내 오빠 가서 빨리 와서 밥 먹으라고 그래라 그래서 이제 들락날락거리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그 당시에 집에 어디 감히~ 그런데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내가 꼭 해야겠다.

32. 면답자 07:23 그럼 이제를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김영숙 사범님의 태권도 입문 과정과 또 인문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범님이 태권도를 처음에 시작하게 된 어떤 동기 또는 계기가 있었을까요?
33. 구술자 07:42 그게 이제 오빠를 찾으러 갔다가 도장에서 하는 거 보고 나도 좀 하고 싶다. 오빠나 엄마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런데 도복은 그때 시절에는 파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외할머니 돌아가신 옛날에 상복 입으면 광목으로 된 치마 저러잖아요. 그 광목 치마를 뜯어서 제가 도복을 만들어 입었어요. 제가 바느질을 좀 잘했어요. 찢고 계집에 안 돼. 근데도 저는 끝까지 오빠 없는 시간에 가서 운동을 했고, 오빠가 또 교사들이나 사범들한테 내 동생 영숙이 와서 운동하면 절대 가르치지 마! 이랬는데 저는 새벽반 아니면 저녁 늦게 가서 했어요. 태권도를. 그래서 저는 내가 반드시 이걸 꼭 하리라 언젠가 내가 성공하리라 하여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쪽 했어요.
34. 면답자 08:35 오빠가 이제 다니던 도장에 오빠를 찾으러 가다가 보게 된 태권도가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교육비가 얼마였을까요? 기억나시나요?
35. 구술자 08:44 승단 심사비가 50원 그리고 회비가 30원 할 때예요. 근데 그걸 못 낼 때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뭐 봐주고 이리저 않았는데 오빠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계집에 나오지 마! 오지 마! 이거죠. 이제 체육관에 오지 마! 이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이쁨을 받은 게 옛날에는 바닥이 나무잖아요. 나무인데도 고른 나무가 아니고 그 체제소에서 버리는 정도인 거 껌땀기를 갖다가 이렇게 갈아서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발이 빠지고 막 그러는데
36. 면답자 09:21 다치기도 하고...
37. 구술자 09:23 다친 정도가 아니죠. 그리고 라커룸이 있겠어요? 없어 샤워룸도 전혀 없죠! 그런데 제가 이쁨받은 이유가 끝나면 클래스에서 그걸 청소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도복은 이렇게 오픈 도복이기에 제가 그거 할게요. 그리고 청소도 하나씩 이뻐할 수밖에 없지.
38. 면답자 09:42 그럼 그거 몇 살 때셨어요?
39. 구술자 09:43 그거 12살 13살 14살 그때예요.
40. 면답자 09:47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 당시는 초등학교에서~
41. 구술자 09:50 초등학교 나오고 나서
42. 면답자 09:53 그러면 중학교 1, 2학년 정도 그러면 처음에 입관을 하신 도장 이름 또는 사범님 기억하세요?
43. 구술자 10:00 서울시 본 관장 한영태 관장님 아현동 한영태 관장님 그분이 도장을 많이 차렸어요. 저기 울지로서도 했고 미아리도 했고 신당동에도 했는데 그 당시에 정서는요. 자기 클래스 외에 딴 클래스를 가지면 돌림방으로 맞아요. 그런데 저는 여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인지 영숙아, 오늘은 너 미아리 도장 가서 그러면 네! 그리고 가야 돼! 가서 제가 이제 여자 혼자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거 아니예요. 그럼, 우리 딸도 가리킬까 이런 마음들이 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 시절에는 하루도 도장을 빠지면 안 돼. 일주일 내내 주일만 빠지고는 다 일주일 내내 다니잖아요.
44. 면답자 10:47 그럼 처음부터 재미있었어요?
45. 구술자 10:49 재미는 없는데! 이걸 해야겠다는 집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왜 그렇게 이쁨을 받다

- 보니까 무슨 시범이다. 이럴 때... 저를 추천해 주면 거기 가는 그 분위기도 좋은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던요? 극장에 가면 대한 뉴스도 나와요.
46. 면답자 11:10 영화 시작하기 전에
47. 구술자 11:12 영화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거기에 이제 태권도가 나오죠. 이제 그 후에 이제 월남전도 막 좀 생기고 그러니까 그러면 전쟁 이후니까 건강들이 안 좋으니까 1m 70 이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도 그걸 추려서 유단자들 추려가지고, 그 촬영을 하기 위해서 국립제작소에다가 애기하고 경복궁 잔디에서 그 시범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 저 하나죠. 그러면 그 당시에 남자들은 스파링 그 팀 대련이라고 그러죠. 대련 붙으면 돼 자기 거 그다음에 또 호신술 자기들이 하면 돼요. 그다음에 격파하면 돼요. 그런데 저는 그때는 밀티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호신술 받아야 해. 남자하고 하는 거 격파도 해야 해요. 스파링도 받아야 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하는 거를 그렇게 저는 어렵게 대련을 받고 그 격파하기 위해서는 이걸 고치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치면 안 되니까 3개월 100일을 굳혀야 여기가 군살이 좀 배껴~ 근데 저걸 그걸 관장님들이 나중에 어느 대회 때 좀 애를 데리고 가서 해야겠다 그러면 제가 아파서 울까, 봐 저쪽에서 막 보고 계셔~ 그런데 제가 그거를 격파 연습을 할 때 그때는 새끼를 꼬아가지고 했잖아요. 무슨 생각 하나 하면 내가 언젠가 이걸 성공해서 외국에 갈 거야. 그러면 외국에 가면 그 당시의 정서는 시범 끝나면 한복을 입어요. 제가 그때 미8군이랑 이쪽에 외국 분들을 가르쳤어요.
49. 면답자 12:52 이 나이가 어떤 나이셨어요?
50. 구술자 12:54 나이가 17, 18 그때
51. 면답자 12:57 그럼 그때 이제 도장에 입문을 초등 그러니까 중학교 1, 2학년 때쯤하고
52. 구술자 13:02 근데 단을 빨리 못 댔지 안 댔지.
53. 면답자 13:04 그때는 이제 오래 걸렸죠.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몇 년간의 수련을 거쳐서 그런~
54. 구술자 13:10 돈도 내야 하고 여러 가지가 맞아야 승단을 시키는 거
55. 면답자 13:14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도장에 여성들이 많지 않을 때
56. 구술자 13:20 전혀 없었어요.
57. 면답자 13:22 그때 어렵지는 않으셨습니까?
58. 구술자 13:23 그러니까 저는 그 사춘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데로 분화기를 막 했는데 저는 도장에 가서 그 소리 지르고 그거 하는 게 제가 그게 너무 좋았어. 그리고 공부 좀 하고 싶었고 원래는 그렇게 그러서 난 불란서 유학을 가고 싶었던 사람이예요. 그런데 나는 성공도 해야겠어.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하던은... 이걸 격파를 연습하는데 내가 언젠가 외국에 가서 그 시범 끝나고 나면 한복을 입는다 이거예요. 태권도 사복 한국 여자니까. 그럼, 한복을 입으면 그 정서에는 비선을 신어야 해요. 그러면 비선을 신을 때는 비선을 팔아서 풀 먹여서 다듬어질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외국 가는데 어떻게 그 다듬어질을 가져 다녀요. 아 나는 이걸로 다듬어 이런 생각을 하고 아파도 울고 돌아서서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옛날에 선배들이 교사 교범이죠. 이쪽을 300번 치면 너 30번만 쳐 그러면 저 300번을 연습해 그러면 이쪽도 이제 벨런스가 맞았어? 그걸 안 해줘 가지고 나중에 미국에 와서 날씨가 좋거나 이러면 이걸 작두로 잘라내는 것처럼 아팠어요. 제가. 그런데 그거 고충을 받았지
59. 면답자 14:41 이제 사범님이 쪽 해서 입문을 하고 과정을 거쳐서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신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한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60. 구술자 14:58 어떻게 뭐 맞았다는지
61. 면답자 15:00 도장에서 있었던 일 중에서

62. 구술자 15:03 제가 선배님하고 하다가 코피가 두 번 나왔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선배가 애를 강하게 주변에서 저한테 코치를 하는 거 이제 보는 거예요. 제대로 해주어야 그러니까 여기 꼬부랑 꼬부랑꼬부랑 옛날에 신선파스였잖아 맨날 막 울고 그 당시에는 심폐도 안 패도 없었잖아 허기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돌아서서 아파서 울고 막 그런 적이 있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 창경원이 원승이라고 그러나 그런 저기로 그래도 나는 이걸 해야 하는데 내가 성공을 해야겠다. 뭔가 남이 하지 않는 거를 해서 나는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63. 면답자 15:44 그러면 김영숙에게 태권도라고 하는 것은 성공을 위한 긍정적 수단으로 여기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잘 이겨내셨네요.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은 이렇게 성공한 태권도인이 되셨지만 한참 사춘기고 어렵고 여성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이겨내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나 그 원칙들이 있었습니까?
64. 구술자 16:12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란서 유학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보다 뭔가 특출해야 된다! 이거예요. 특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저를 이쪽 도장도 가고 저쪽 도장도 가고 가라고 하니까 아, 이거 여성 인구를 늘리게 하는구나 이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동 끝나면요. 그 당시에 제가 이만한 상수 하이힐에 미니스커트 입고 딱 걸어가면 제가 모델인 줄 알았어요. 제 칭찬 같지만... 그러면 내가 태권도를 여자가 익세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여자같이 운동 끝나고 나면 치마 입고 저러면 우리 딸도 태권도시켜도 되겠다! 이런 걸 내가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때 들고 그 사춘기 때 뭐 친구들은 웃을 입는다 뭘 한다 어딜 간다고 했는데 저는 그 분화기를 체육관에 가서 소리 지르면서 운동하면서 그걸 푸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이때 들 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금 손해 보고 아파도 참고 하면 대우를 받았어요. 어 (웃음)
65. 면답자 17:16 조금 역사적인 명칭에 대해서 한번 여쭙보고 싶은데요. 그때 당시에는 태권도라는 말도 쓰기도 했지만, 태수도라는 말도 썼을 것이고 당수라는 말도 썼을 것이고 처음에 이제 중학교 1, 2학년 때 입문을 하셔서 수련을 하던 때부터 매셨는데 그때의 도장 환경과 현재 이제 미국에서 도장에서 현 지도자로 뛰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66. 구술자 17:48 첫 번째는 여기는 무조건 에브리데이(언제나) 가야 돼요. 매일 같이 그런데 미국은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단을 받으려면 3년을 해야 되죠? 미국에서는 3년을 해야 1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여기는 시키면 그대로 해야 해요. 순종하잖아요. 한국은 그런데 미국은 클래스 중에 순종 이런 거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런데 태권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하던은 부모들이 감동이 오고 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그 학생 중의 하나 학부형을 며칠 전 식당에서 만났는데 부부 없고 저는 선배가 한국에서 오셔서 저녁을 먹었는데 자꾸 쳐다봐! 누구세요? 그랬더니 제가 고영배의 엄마 그래서 어머니 30년 만에 만났는데 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들 들 있었어요. 영배하고 동생. 네 우리가 일 갔다 오면 저희들 학교 갔다 와서 배 이렇게 깔고 엄마 왔어! 이러는데 체육관에 다니면서부터 저는 하나씩 개인적으로 딱 타치를 해요. 그랬더니 너 이제부터는 엄마 아빠가 일을 힘들게 하는데 너희들 데려다주고 돈 내서 엄마 오시면 아빠 오시면 벌떡 일어나서 인사하고 수고했다고 해라. 그게 왜가지고 우리 아들이 지금 40이 넘었는데 필 쥐도 꼭 두 손으로 준대! 그거 관장님 덕이에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랬더니 개하고 이제 통화할 했어요. 그랬더니 관장님 나 장가가서 애 낳았는데 6살짜리 애가 있는데 딸이 있는데 관장님 한국 가신다면서 갔다 오시면 제가 사인시킬게요. 말하자면 그러면 밀청하 게 큰 어른이 외국 아이가 와서 하이 마스터 누구냐? 그러면 저한테 중학교 때 배운 애가 변 호사가 돼서 오고! 그리고 제일 보람 느끼는 게 마켓 같은 데를 가면은 그냥 다른 도장에서 운동했거나 다른 뭐 쿠투 뛰니 하면 가르치면 H!! 그런데 저한테 일단 배운 애들은요. 학부형까지도 꼭 그런 마스터.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운동은 기계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신적인 면도 같이 심어줘야 해. 머리 여기, 여기 너희 라이프(생활)에 내가 남아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일기 검사도 해요. 그리고 손톱 발톱 이발 주어서 다 해요. 코카콜라 못 마시게 그러니까 부모가 안 좋아할 수가 없지! 자기네가 못하는 교육음... 그래서 그런 거를 여자니까 처음에 우습게 보다가 야! 이 근처에 도장 많아 코치 국가대표 코치 한 사람 있어? 없어

- 인터넷서널 레프리 나 퍼스트 클래스야! 그리고 여자라고 우습게 봐? 딱 들어오면 신랄 똑바로 나와 되구요. 호트러진 걸 저는 못 봐요. 그게 계속되니까 소문에 소문이 나는 거야. 말하자면
67. 면답자 20:46 이제 그것이 미국 도장의 몇 가지 성공 요인 중에 어떤 태도의 변화 가치의 변화가 이제 가장 중심에 있었던 요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기술적 질문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도장에서 태극 품새 지도하시나요? 그러면 사범님이 하셨을 때 품새 형은 뭐였었나요?
68. 구술자 21:08 그때는 무덕관 무덕관 형 지도관은 지도관 형 오도관은 천지당 우등산 그렇게 했는데 조금 제가 그렇게 해서 여기서 도장을 했잖아요. 여성만의 도장을 했을 때! 정부에서 불러서 여군을 가르키게 됐어.
69. 면답자 21:30 그러면 그 기술적인 차이가 사범님이 어린 시절에 했던 지도자가 되기 직전까지 했던 태권도와 지금 가르키고 있는 태권도는 엄밀히 말하면 타입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범님이 보시기에 이 두 타입의 기술적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70. 구술자 21:51 그러니까 먼저 저는 제가 했던 거는 정말 무도예요. 무도 정신과 동작이 하는 무도인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강요를 하잖아요. 말하자면 좀 쉽게 가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지도자의 능력에 따라서 재미있게 하려고 좀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 브 보면 옆차기 꼭 올라가죠. 사람들이 와 그래요. 저는 그거 아니예요? 중심 이게 딱 하면 거기 가서 하고 여기 딱 하고 해야죠. 이걸 무용이야! 말하자면 그런데 그냥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잘한다.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훌륭하다고 그럴까 좀 그래요. 거기다가 정신적인 교육까지 없으면 그냥 태권도가 높아야. 그래서 한 번은 중학생 아이가 왜 오버 어게인을 하나 이거야? 똑같은 걸 한다! 이거야~ 너 그걸 하면서 인내를 기른다 이거야. 참을성.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옛날 걸 배웠고 지금도 그걸 이제 도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겠죠. 그 설명을 해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책을 하나 읽어봐. 몇 페이지 읽다가 접어던지지도 또 하지 너 재미없어도 끝까지 읽어! 그러면 그게 인내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태권도 사범은 동작만 가르키는 게 아니예요. 정말 정신적으로 안 가르치면 무너지고 안 돼요. 기계지 뭐 로봇지 뭐 저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71. 면답자 23:39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범님을 파악하는 중에 67년부터 도장 지도자를 하신 거로 저희가 알고 있어.
72. 구술자 23:51 전부터 했어요. 교사 생활
73. 면답자 23:52 몇 년부터 하셨나요?
74. 구술자 23:53 그러니까 제가 70년도에 제가 여자만의 도장을 차렸을 때 그전에는 교사 노릇을 했어요.
75. 면답자 24:01 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76. 구술자 24:04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사범 밑에 조교라고 해야 하나?
77. 면답자 24:08 아하 도장 그리고 보조 사범
78. 구술자 24:11 그러면 애들이 오면 남자들이 좀 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니까 좀 부드럽게 하면서 똑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67년도에 가르쳤던 그 제자가 지금 치과 의사가 돼가지고 그 래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79. 면답자 24:28 그러면 나이를 좀 이렇게 역순으로 계산해 보면 지도자 생활을 일찍 하셨네요.
80. 구술자 24:33 일찍 한 거죠.
81. 면답자 24:34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82. 구술자 24:35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입관을 하러 오면 꾸뻑꾸뻑하죠. 그리고 바깥에 이렇게 보면 여자들이 들어다볼 때 남자들만 있으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나가서 다 들어와서 구경하라고, 그리고 제가 하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러면 사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범님들도 관장

- 님들이 저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을 자꾸 불러들이고 그리고 그 아이가 오면 어느 정도 쓸 때까지는 제가 지도를 개인 지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말하면 개인 지도예요. 개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편안하게 제가 도와주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루는 거 학생을 다루는 걸 그때 이제 제가 터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한테 그래 너희들 태권도장에서 2, 3 단 돼서 성공하면 어느 사회에 나가서도 너희는 매니저급 or 성공한다. 사람을 다룰 줄 아니까 그렇죠.
83. 면답자 25:28 이제 사범님이 여성 사범으로서 여성 지도자로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제 긍정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사회적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의 편향적인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특히 태권도 도장에 여자 사범님이 이때 그런 현상에서 어떤 차별이라 그럴까?
84. 구술자 25:55 무지무지 됐죠.
85. 면답자 25:56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실까요?
86. 구술자 25:59 일단은 쉽게 얘기하면 같은 동료 같은 선후배라도요. 자꾸 수근거는데 오빠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직설적으로는 좀 피하면서 그러니까 오빠가 자기가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오지 마! 오지 마! 네 동생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관장님은 저를 많이 좋게 말하면 사용한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그냥 뒤라 그런데 다 잘하거든 운동도 잘하지만 사람 이걸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가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로 인해서 여자들이 운동을 쉽게 받아들이는 게 바깥 사회에서 나쁜 일을 당할 때! 호신을 개념도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잘해야만 되고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고, 그리고 저는 그런 어려운 경험도 많이 겪고, 또 가르치다 잘 받아들이면 재미있잖아요. 말하자면 제가 나를 따라오고 인정해 주고 저는 인정받는 수준에 왔는데 제가 열심히 했어요. 정말로 이게 내 길이다. 나는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가르게 보면 착하고 잘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럼 더 주고 싶고 막 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저도 나쁜 일을 당할 뻔도 하고 바깥에서 막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코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 이거 굳인한테 저기 하는데 그런 에피소드가 또 많아요. 저가 그 시절에 맞고 다니면요. 동료들이 어떻게 찾아내서 해결해 주고 사범님한테 혼나지! 제가 이게 그때서 빠진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참 (웃음)
87. 면답자 27:33 김영숙 사범에게 김영숙 사범을 가르킨 사범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88. 구술자 27:41 그러니까 어~우리는 그때 한 사람이 정해진 게 아니고 유단자들이 선배들이 돌아가면서 가르키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봐서 잘하는 사람 그 동작을 흉내 내는 거야.
89. 면답자 27:54 그럼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선배는 어떤 분이 계셨을까요?
90. 구술자 27:58 지금 한 분만 살아계시고 두 분은 삼총사가 있었는데 황호연 씨 스페인 그다음에 캐나다에 오명근이 그다음에 LA에 윤의안이 그런데 그분들은 돌아가시고 아주 나비같이 날라 난 언제 이렇게 좀 해볼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식이냐? 하면요. 이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 판 데 가서 하다가 레슬링도 배우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야 우리 도장에 여자아이들이 있는데 잘한다. 너희들 한번 올라 어느 날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여자 들이 와서 앉았어. 레슬러들이야 여자들 그러니까 그 선배 하나가 옛날에는 왜 판 거 켜어서 이렇게 똥똥 감고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앉아서 스파링을 해야 되는데... 야 너 나와! 그래서 왜 저 아까 했는데요. 돌아가면서 했는데 나와 그랬는데요. 이분은 속셈이 있어서 우리 자랑을 했던 게 있어요. 옛날 여자들한테 보여주려고 안 막으면 맞잖아요. 열심히 막고 하다 보니까 바디가 피가 벌개 발톱이 거기에서 이 발톱이 빠진 거야. 그런데도 그 아프다는 말을 못 하고 한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보니까 애네들 도망갔어. 저 여자한테 걸리면 큰일 난 줄 알고 그런데 저기처럼 그러니까 시키면 무조건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거야. 선배들이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면서 내가 오늘 영숙이 요 동작 가르쳐줄게! 그러면 네 참 돌아가면서 저한테 잘해 주셨어. 그러니까 이것도 30번만 하라는 걸 저는 300번을 쳤으니 얼마나 마음은 못 이쁘겠어요? 말하자면 연습을 그러니까 하여튼 오버하게끔 제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70년도에 이제 도장을 허허허

91. 면답자 29:54 그러셨구나!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그 어른이 된 김영숙 사범에 대해서 좀 여쭙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71년 정도의 한중 합작 영화의 위험한 영웅 출연도 하시고
92. 구술자 30:09 협기
93. 면답자 30:11 무슨 지도도 하셨다고 하는 데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94. 구술자 30:18 타이틀이 위험한 영웅은 한중 합작이니까 그 독립군들이 이제 싸우는 그런 저기를 하는데 그 사범 유소형 친구 정준이라는 사람이 클래스를 하는데 이제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그때가지고 밤에 촬영을 하는데 경희대학교 거기를 이렇게 하는데 여자 학생들 가리키는 장면을 찍어야 되니까 웬만한 도장에 여학생들이 없거든 태권도 그러니까 영화사에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저를 찾고 여자도 찾았고, 제가 여자 여고생들만 가리키니까 그래서 태리고 가서 이제 하는데... 운동 끝나고 샤워하는 장면도 찍는데요. 어떻게 하면 명동에 명동탕을 빌려 목욕탕을! 통행금지가 있으니까 안 돼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 우리 학생들한테 의박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부모 모르게 다니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가서 사정을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딸이 운동했다는 거 난리 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중에서 추려가지고 이제 그 촬영도 했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 영화가 한중 합작에서 독립투사 여성 두목이야 말하자면 그렇게 그래서 영화사 측에서 저를 찾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역도 하고 제 역할도 하고 가리키기도 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 몇 편을 3편 출연했었어요. 그 태창 영화사
95. 면답자 31:54 그러면 그 위험한 영웅 이후에 여성 전용 도장을 만들기 시작하신 건가요?
96. 구술자 32:01 아니요. 그러기 전에 도장을 먼저 만들었지
97. 면답자 32:03 그러니까 영화 촬영 전에 여성태권도장을 먼저 개관을...
98. 구술자 32:08 70년도에 개관을 했고, 오픈닝 사람이니까 개관식은 71년도 5월 15일날 했어요. 그러니까 협회예다 의뢰를 하니까 그 당시에 엄윤규 관장님이 다 계시잖아. 그러니까 우리 여성만 하는 도장 있어 거기 가서 여자들
99. 면답자 32:25 그러면 지금의 관점으로 봐도 여성 전용 태권도장을 개관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100. 구술자 32:34 전혀
101. 면답자 32:35 그런데 그 시절에 벌써 1970년대에 그런 생각을 하신 계기나 또는 두 번째는 시작은 하셨으니 경영 상태는 어떠셨나요?
102. 구술자 32:45 팔도 못 하게 렌트를 한 번도 짐세를 그때 3만 원이었는데 제대로 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관원들이 오는 건 제가 메스컴을 타니까 저 시골에서 또는 6.25 지나고 나서 가난하니까. 근데 신문은 봤어. 그러니까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제가 청소라도 할 테니까 공짜로 좀 가르쳐 달라!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미국 대사관에 한국 여잔데 대학원까지 나와서 미국에 유학을 가는데 호신술 하는 차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태권도를 모르면 자기 부스신발을 벗으면서 미스김 이거 좀 저기다 갖다 놔 저한테다가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분위기를 알았죠. 그리고 절의 스님도 자기방어를 하기 위해서 저한테 오고, 그러니까 아주 각종 각종으로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나쁜 일을 당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부모가 개인 사람들은 앞으로를 봐서 애를 단단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돈이 좀 들어오면 이쪽에 못 내고 이제 하나가 무지무지 어려웠어요. 그런데 우리 집 자체에서도 저 그건 안 되지 오빠고 뭐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중에 그래도 한 아이를, 여자를 키워서 나중에 학교니까 고등학교까지 나왔대. 그래서 그러냐? 그랬더니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져서 여자 운전수를 하면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자한테 강도를 만날까 봐! 그래서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살살 물어보니까 중학교도 안 나 중학교 겨우 졸업했어. 그래서 개를 제가 태리고 먹고 자고 하면서 체육관에서 개를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미국에 데려와서 시집까지 보냈어요. 제가
103. 면답자 34:34 그러면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104. 구술자 34:38 도장? 남자들 속에 있으니까, 여자들이 오고 싶어도 못 일른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설사 부모가 깨어 있어도 남자들 도장에 자기 자식을 일른 못 보내요. 말하자면 못 보내요. 그러니까 여자 사범이니까 일단 안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어떻게 간에 여군 교관도 했고, 하나씩 이대도 가리키고 뭐 다 이제 얘기가 된 거죠. 남자들이 실패한 때는 저를 어떻게 갖다 집어넣어서 제가 여자인데 우습게 볼까, 봐 제가 더 단단하게 가리켰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상공수도 가리켰고
105. 면답자 35:23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을까요?
106. 구술자 35:26 당췌. 제자들 많지! 근데 여자들은 생명이 짧아 결혼하면 끝! 말하자면 그런데 저는 내일 아이를 낳으러 가는데도 미국에서 저는 운동을 가리켰고 했어요. 그러니까 임신부들이 와서 상의하면 이럴 때는 이런 운동이 좋다고 해주면 그게 맞아! 그러니까 제가 어 이화대학교 체육대학에 들어가서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이 좋은 작품을 해야 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근데 애들이 사범님 사범님 우리요 졸업 작품을 이렇게 사무엘 아이처럼 머리들을 하고 태권 동작을 넣어서 태권도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107. 면답자 36:09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면 71년도에 있었던 일 70년도에 있었던 일은 이제 대략 영화와 도장 개관으로 하신다면 그럼 이제 72년도로 넘어가 보면 여군 훈련소에서도 태권도를 가르치시기도 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별도로 태권도를 배울 만한 여군들이 따로 있었나요?
108. 구술자 36:37 특별히 여군의 훈련 여러 가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여군들도 가르쳐야 돼 이거 사교육이라 하나 그러니까 노재신 국방장관님 그쪽으로 해가지고 남자들이 사병들이 태권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가서 가리키는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초당 바늘에서 어떤 무리를 주면서 가리키라! 그러면 지도 방법이 없어요. 몰라요. 자기 것만 먹은 거야 그냥 말하자면 고려 쫄새 이런 식이죠. 그런데 연결이 돼서 여자 남자가 안 되니까 저한테 도장을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 여군 훈련소는 폐쇄된 적이니까 사복을 입은 사람은 못 들어가요. 삼각지에 훈련소니까 제가 그날 첫날 들어갔는데 미니스커트 딱 입고 왔는데 얘기고 그리고 들어갔어! 그랬더니 이제 그 잠시 몇 달을 못 했대요. 역시 중대장도 여자잖아요. 태권도 할 거니까 애네들 하려면 안 해 싶은 거야. 힘드니까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강당에 모이라 그리고 하나씩 막 도망들 가는데, 가는 사이에 사회에서 입는 여자가 웃을 일고 오니까 호기심에 어떻게들 들여다본 거야. 그래서 중대장이 딱 저를 앞애다 놓고 앉으라고 하고 저를 소개했는데 나는 태권도 사범이다! 이렇게 눈이 둥그래져. 그러니까 제가 첫 클래스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여자다. 이를 억센 운동보다 우리 미용체조부터 먼저 하자. 제네들은 군복을 입었지, 저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전에는요 위생하잖아요. 그거 운동 안 하려고 빠졌는데 제시간에는 총집어 던지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장이 화가 났어. 태권도 시간은 화가 나서 끌어내는 거야 이렇게 자극제를 주고 제가 그렇게 해서 참 성공을 했어요.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우간다 나라에서 정보를 듣고 한국 여군 태권도를 보고 우간다 여군 창설한다고 그러고 또 와서 할 때 그 2월달에 얼마나 추운지요 이렇게 하면 살이 갈라져요. 근데 도복만 입고 연병장을 뛰는 거야. 그 팀들 왔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에피소드 참! 여러 가지로 그때 중의 하나 열심히 가르쳤던 아이가 제네들이 우리 아버지가 들어가셨을 때 외부 출입 못 해요. 그러니까 뭐 여성용품 뭐 사러 간다고 쓰레빠 일부러 신고 나오는 척하고 우리 집에 와서 그 조의금을 주고 가더라고. 그중의 하나가 국가 축구선수 조영중 누나도 있어.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그 사람을 통해서 만났더니 사범님 지금도 60이 넘었죠. 말하자면 그런 참 여러 가지 있고 그중에 하나를 제가 왜 사격을 하게 되는 다 이거 연결이 되는 건데 통반장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우리 윗집 윗집에 여자아이 또 막내가 있는데 예식이야 한식이. 근데 개네가 고등학교까지 나왔는데 여유가 없어. 예식이 개를 우리 도장을 차려니까 생판 모르니까 못 오잖아. 그래서 개를 데려다 일론 제자를 만든 거야. 열심히. 근데 너 있잖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언니라고 그랬지 이제 언니 아니야 너 여군 들어가 그래서 거기 가서 공부해. 그래가지고요. 제가 계획적으로 초단 탄 걸 여군을 보냈어요. 부모 허락받아. 그런데 애가 너무 잘하는데 사격 자체가 나오니까 여군에서 애를 뽑아가지고 사 선수를 만든 거야. 그럴 때 제가 여군 들어갔을 때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랬더니 사실 제 제자 1번이 여기 있다. 그래서 개를 조교로 뽑아서 쓰고

개는 군대를 빙내주고 말하자면 제가 언젠가 나는 여군에 가서 가르칠 거야 이런 생각을 그 때 도 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나는 성공할 거야. 언젠가 나는 외국에 가서 할 거야 알릴 거야. 이런 게 항상 저한테 꿈이 있어요. 지금도 저는요. 계획하는 꿈이 있어요. 절대 내 생명이 다 하는 날 전 세계에 내가 여자태권도 보급을 어떻게 한다는 플랜이 있어요. 저는

109. 면답자 40:57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74년도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110. 구술자 41:01 74년도에

111. 면답자 41:02 그럼 74년도에 김영숙 사범님의 발자취에 검색을 해보니까 마포경찰서에서도 경찰을 지도했었고 여자대학교 최초로 태권도를 커리큘럼에 넣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데 어떤 기사가 있었을까요? 경찰서에 가서 여자 사범이 지도한다라는 게 지금도 쉽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더 어려웠었고 그러니까 또 여자대학의 생소했을 태권도 과목이라고 하는 것을 커리큘럼 넣었다는 것은.

112. 구술자 41:37 그걸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요. 마포경찰서에 들어가게 된 거는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형사인 오빠보다 선배가 양대기 형사님이 경찰들을 가르쳤어요. 그 전투경찰이랑 근데 이게 자기도 업무가 바빠데 힘든 거야. 그런 태다가 머리를 쓴 거 야 영삼아, 너네 동생 한번 짚어놔. 그래서 제가 들어갔을 때 첫 클래스 에피소드가 있는데 120명이에요. 운동장이 저기 경찰서 안이 좁아요. 그러니까 버스 2대에다가 60명씩 태우고 오빠 나 좀 도와줘. 그래서 오빠가 저쪽 버스에 타고 저는 이쪽 버스 탔는데 제가 그때 도복을 안 입고 튜리닝 웨어를 입었다고 튜리닝을... 그리고 가는 사이 가니까 애네들이 막 담배 피우고 차 안에서 떠들고 막 정신을 못 차리지. 그래서 운동장에, 효창운동장에 가서 10명씩 딱 서는데 12줄인가 120명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사회에서 운동하는 사람 손 들어올 때 파란 띠 노란띠 너희들 나와 10명 나오더라고요. 오빠 애네들 가르쳐 나머지 내가 할게! 그래 놓고 하는데 그 중령이 마이크를 주더라고요. 우리 운동은 실내 운동이 돼서 소리 지르면 퍼져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저는 필요 없었습니다. 내 목소리로 하겠습니까. 그래 놓고 그때 90분인가 주는데... 앉아. 근데 그때는 싸 나게 나와야 돼요. 적당히 나오면 안 돼. 웬 여자가 이제 이르다가 저희들도 이제 중령이니 뭐니 다 있으니까 앉아 자 나한테 배당된 시간이 3시간이다. 너희들이 말을 잘 들으면 나는 이걸 2시간 1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해라. 그래서 하는데 저 끝에 한 놈이 허적거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마포경찰서 위에 도장이 있었거든. 그래서 다 앉으라고 야 몇 줄에 누가 누나 뭐야? 그랬더니 치질 앓았대. 그럼, 야 인마 너 거기 앉았어! 그러지 1시간 끝나고 질문 상황 손 들어봐. 그랬더니 고놈이 손을 드는 거야 뭐야 그랬더니 사범님 우리 지나가다 관장 사범님 도장에 가면 커피 한 잔 주실 수 그랬어. 이 양반이 쉽게 너는 치질 걸린 놈이 무슨 커피야? 그냥 받아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렇게 먹혀들어 가서 제시간에 2시간, 2시간 반 끊어. 그 때 가지고 제가 경찰서에 데 미국 갈 때까지 가르쳤어.

113. 면답자 44:00 그러셨구나. 그럼 대학교 수업은 어떠셨습니까.

114. 구술자 44:03 그리고 이제 이화대학은 이거 정말 제가 가니까 이화대학교 체육대학장님이 그때 성중순 여자 교수님이었는데 제가 70년도 71년도 오픈닝 세러모니 할 때 정부에서 좀 내놓으라 하시는데 분들이 하는데 그분들 제가 권택을 해서 여성연맹 단체가 있어요. 저 그 아이디어가 있는데 드릴 거야. 이제 그건 안 가져왔는데 그 단체는 각 여성 대표들이 모여서 세미나도 하는데 저는 태권도 단체의 1인자로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를, 누구를 소개해 주냐 하면 여성단체 협의회장이니 이화대학교 체육대학장님이 다 소개를 해줘서 그때 유경숙 여사님이 제 오픈닝 사람에 오시기로 그랬는데 급한 일로 못 오시고 그러니까 대장을 누가 해주셨냐 하면 그 성중순 여자 교수님이 해주셨어요. 여성만의 도장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이 끝나고 그다음에 한성일 학장님이 체육대학장이 됐는데 제가 이화대학교 태권도부 좀 창설하자고 하자 그랬더니 너 어디 감히 이화대학에서 태권도 불러? 근데 이분이 유럽에 시찰을 갔다가 아니 대학에 당신네 나라는 태권도가 있네당 당신네 대학은 태권도를 얼마나 하나요? 질문을 받으니까 아무 말도 못 하고 오신 거야. 그 길로 돌아와서 저를 불러가지고 그래서 여자 이화대학교 태권도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누가 했다면 대학장이 또 김숙자 선생님이 체조 출신인데 국가대표 그분이 저한테 교수인데도 운동을 하고 학생들과 같이했는데 이분이 발이 나중에

줄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틀리거든. 그래서 자기는 그만두고 하는데 진짜 허트치는 얘기가 자기가 여학생들을 데리고 유럽에 시찰을 갔는데 태권도장이 처음에는 저기 안내를 받아야 하나까 영사관을 찾아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사관에 가서 사정하니까 이화여대에서 왔다가 우리나라 최고 영사를 하나 불러줘서 관장을 하는데 그 사람 일 못하거든. 별렀어.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태권도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수가 학생들 데리고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 사람 사범은 외로워요. 그러니까 한국 걸 자꾸 빙내야 풀어야 되는데... 저의 얘기는 들었겠지! 들었다고 그러더라고. 김숙자 교수님이 저 한국에서 왔는데요. 이화대학교 교수입니다. 우리 학생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 너무 좋아가지고 클래스에 소개를 다 하면서 우리 남은 일정이 이만저만한데 어딜 가고 싶고 어디를 가고 박물관도 가고 싶었더니 그 학생들을 누가 안 내니까 외국 사람이 전부 손을 드는 거야. 그래서 더 좋게 더 잘 시찰을 하고 와가지고 그 후부터는 누가 외국 간다고 그러면요. 만 데 갈 거 없어 태권도장만 찾아가 다 해결이 돼. 그래가지고 그 후에 아주 수십 년이 흐른 후에 교수님하고 연결이 됐는데... 우리 김영숙 사범님 애네들은 이제 없어졌어요. 저 미국 가고 밑에 누구한테 왔는데 개가 끊어졌어. 그런데 이 교수님하고 연결이 된 거야. 그랬더니 김 관장님 절대로 김 교수님 그래 저기 우리 이화대학교 이게 맥이 끊어지니까 특강을 한번 해달라고, 네 그래요! 그때가 환갑 대야. 그래서 애들을 다 보내고 그 자료 사진 가져왔어요. 제가 해놓고 그거 자기가 운동을 어떻게 했고 그 교수님이 이랬고 이렇게 이제 이거를 해주는데 아이들도 그러니까 거기서 뭐 케이크 사다 전해주고 얼마나 제가 부담스러워요. 여성연맹 처음에는 이학선 총재님 하다가 이등자 회장님 할 때야. 그래서 제가 또 그런데요. 그리고 연세대는 간호학과 유학 갈 애들

115. 면답자 47:58 그러면 이화여자대학교 이후에도 몇 개 대학이 가서 사범님이 태권도를 지도하셨었나요?

116. 구술자 48:09 예 그러니까 대학교

117. 면답자 48:10 어디 대?

118. 구술자 48:11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는 태권도 플러스 호신술 유학 간 애들 간호학과 아이들 그다음에 성신사대는 그때 학도호국단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 진행이 아니고 그거를 이렇게 팔로업 해주는 교수들이 있죠. 그런 교수들이 태권도를 몰라요. 이걸 운동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맥이 끊어지는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 여자들은 3개월 이상 군대를 갔다 와라. 저는 그 주장을 옛날부터 했어요. 군대 가면 알잖아요. 태권도 그런 소리 처음 듣는데 제가 꺾 송하지만 낯 나자 이 먹었만 나는 아직도 할 일이 있다. 이거야. 아직도 할 일이 있어 비실비실 저 실버 태권도? 얼마든지 제가 말하자면 그리고 꺾송한 얘기지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걸 하는데 이걸 왜 하느냐 이거야?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래타기 할 때 옛날에 하던 방이죠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주먹을 쥐고 나와요. 높였다가 딱 하면 이게 파워가 더 나와요. 말하자면 그런 것 자체도 몰라요. 지금 사범들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걸 알아요. 더 하나 할까요? 박해만 관장님 아시지? 미국 하셨는데 저는 오셨길래 세미나에 갔지! 그래서 제가 준비 자세를 하는데 딱 하니깐 김 관장 그걸 누가 가르쳐줬어요? 전체가 다 터득한 거예요. 배꼽 밑에 몇인지 배꼽 사이가 이거 사이가 몇인지 이 사이 몇인지까지 제가 딱 해놨어. 그러니 자기도 그런 소리 처음 듣는데 저는 이걸 연구하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나 지금 이렇게 뭐 어디 가면 무용화하는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늙어서 열차가 아직 그만쯤 잘 안 해도 나는 그 원리를 알고 바닥부터 어떻게 피지컬이 되는지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우 안다고 내가 나 더 늙기 전에 썰먹어야 해 정말로 아셨죠? 관장님 어

119. 면답자 50:24 그러면 이제 태권도 도장에서 입문을 하고 태권도 도장에서 성장 과정을 거처서 대학교 경찰서 군인들을 지도하게 된 김영숙 사범인데

120. 구술자 50:38 대사관

121. 면답자 50:39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기관에서 태권도를 지도한 한국의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최초의 여성 지도자로서 이제 그 명성을 쌓기 시작을 하셨는데 혹시 그때 태권도 대회나 이런

곳은 출전하지 않으셨었을까요?

- 122. **구술자 51:00** 그때는 제가 할 때는 태권도 대회가 없었어요. 여자는 없었고
- 123. **면담자 51:04** 태권도 대회는 있었는데 여자가 없었던 건가요?
- 124. **구술자 51:06** 여자 대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한 외국인 및 여자 개인선수권이 71년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그때 도장을 하는 사람이었잖아. 그래서 저는 출전이라는 건 상상도 못 하고 저는 지도자의 길을 걸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잘났다는 것 같지만 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남자들도 못 하는 아이디어도 있고, 여자의 신체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 맞춰서 해주면서 하니까 저하하고 이렇게 좀 친밀해지면 이게 지도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리고 야 운동을 하면 땀이 나지 너희들 화장하나? 화장하면 두드려야 해 스킨을 오픈해서 이 더러운 걸 빼내야 하는데 운동해 봐 스스로 스킨이 오픈돼도 땀이나 피부 좋아지면 이런 게 얼마예요. 그걸 말을 해주고 나는 여지껏 화장 안 하고 살았다!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재료가 있는데 그걸 꾸짖을 해야 되잖아, 어떻게 맛있게 하느냐 엄마가 그것처럼 저는 그 재료를 알아요. 어떻게 꾸짖는 것을 말하자면 그러니까 딱 들어가는 거야 말이
- 125. **면담자 52:31** 그러면 그 이력 중에서 한국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단을 이끌고 지도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 126. **구술자 52:41** 그러니까 제가 이 도장을 하다 보니까 프리월드가 우리 국제 게임으로 처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게
- 127. **면담자 52:48** 몇 년도입니까?
- 128. **구술자 52:51** 78년 78년 저기 제가 자료 가져왔어요. 사진도 다 있어요. 보시면 딱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제 사범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 여자팀이 생겼으니까 여자 지금 이제 코치 감독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참 어려운 게 제가 그 당시에는 태릉선수촌에 못 들어갈 때야. 그러니까 우리 후에 하나의 아버지가 저기 이대 뒤에, 절에 행사의 주지 스님이었어. 기꺼이 연습을 하게끔 내주셨어. 그래서 남자팀 여자팀같이 했는데,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훈련 엑스 사이드도 해주고 요가도 동작도 배우고 제즈도 좀 배우고 해서 그렇게 해서 몸을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절대 안 다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세력이가 김세력이! 누나 우리도 좀 해줬어요. 야 너네 남자 코치가 화내 안돼! 제가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준비운동이 다 되니까 잘 안 다치잖아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저는 그 프리월드 때 제가 코치 감독이 될 줄도 모르고 잘 몰랐어요. 그 게임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계획을 해서 하는데 이제 누구를 시키느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제 감독이 되고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감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운 에피소드인데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세상에 훈련을 하는데 배랑 간에 뭐 인터뷰한다. 그러면 도복 입었다가 막 웃 기린다 하면 시간을 절약해야 되거든요. 그렇고 하는데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남자들은 해주고 여자들은 단복을 안 해줬어요. 예산이 없잖아! 그래서요. 지금, 이 여자아이들이 나중에 알았는데 마포경찰서 서장이 소 프라우드 한 거야. 제가 마포구에서 경찰 들어가 그러니까 부르더니 그때 돈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몇천만 원 되는 가치야. 그 돈을 가지고 저도 도장 절절때는 데 써야 하는데 제가 미술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동대문시장에 가서 옷감을 딱 끊어다가 아는 양장점 미술서 투피스 하면 옷감이 많이 드니까 애네들 8벌 해줘. 모자란 건 내가 해줄게. 그래서 그 단복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도 뭐 그러냐면 그때 좋았다. 사범님은 다리도 예쁘고 그랬는데 우리 무다리에 이런 데 원피스 해줬다고. 근데 그것도 협회에서 해준 25년이 지난 후에 내가 해준 줄 알아. 애네들이 잊고저게도 하나 만났는데 이래요. 왜 그때 힌트 좀 주십시오. 그래서 너희들은 철따구니도 없는데 내가 뭘 얘기해 그런데 학부형이 하나 또 10만 원을 주는 거야. 그래서 구두를 똑같이 해 신겼어요. 그랬더니 저는 돈이 안 돼서 못 해. 신고. 그러니까 제가 잘났다는 것보다 넉넉한 마음으로 내 팀에 대한 책임감.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밥 안 먹고 그러잖아요. 임신자 이런 애들 어리니까 집 떠 나고 오잖아요. 그리고 밥도 안 먹어. 야 우리 국가대표 이거 태극기 달고 치면 어떡하니 나도 안 먹어! 말하자면 그 엄마 역할까지 다해야 되는 거예요. 손톱도 안 잘라내서 자르면 진다는

이런! 예! 그리고 여자애들 죽이던 거 있잖아요. 이거를 엄마 내지는 다 관리를 해야 돼.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니까 79년도에 자유중국 초청 경기에 이제 또 팀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코치로 갔는데 감독은 여성연맹의 도내이션을 많이 한 여자를 그냥 감독이라는 직책을 주고 제가 가서 그 관리를 다 했죠. 근데도 그때 갈 때도요. 야 우리가 분명히 게임 끝나고 나면 저녁에 만찬을 할 거야. 그럼 우리 한복들입는다. 그러니까 누가 노래하는 아이 있어 한복 고전 무용하는 아이 있냐? 한 아이가 고전 무용했다. 오케이 노래는 내가 부른다. 그리고 단복 입혀가지고요. 동대문시장에 가서 부쳐 있죠. 태극 그거를 우리 여자애들한테 10개를 사서 여기다 딱 넣고 입장식 할 때 본부석 지나갈 때 딱 던져라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힘드니까 애네들이 그 한복 입고 갈라고 그러면 코피를 쪽 흘려. 그리고 이제 한복 끝나고 이제 한복 입을 때 애네들이 한복을 입어봤나? 하나 입혀놓고 나면 딱 나 입혀야 되고 땀이 대만 태극 놈들이 에어컨도 안 켜져요. 호텔 방에서 근데 한 아이를 편급 안성기를 입혀서 내보냈더니 딱 아이를 입혔는데 안성기가 저는요 헤비니까 크니까 제가 입을게요. 이게 아사 이렇게 얇은 걸 입었는데 세상에 속치마를 안 입고 고쟁이만 입고 나가니까 이게 다 미치는 거야. 이 에피소드예요. 안성기 들어와~ 그러니 이거를 제가 얼마나 진짜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그렇게 이제 79년 했고, 박지영 그 필턴 박이 그때 저기 해줬고, 그리고 이제 80, 79년도 미국 가자마자 몇 달 안 돼서 제가 미국 팀 미국 태권도연맹의 여성분과 위원장 직책을 맡았어요. 그런데 코치가 가 달라 이거야. 근데 그때 임신 5개월 때인데

- 129. **면담자 58:34** 그럼 이제 79년도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그러면 이제 사범님의 변천사 한 인간의 변천사가 도장을 입문을 해서 수련생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지도자로서 사범을 지나서 이제 지도자의 과정까지 오셨거든요. 그럼, 이제 79년도에 보면 대의 활동으로써 여성연맹을 만드는 해로 저희가 기록으로 돼 있죠. 그러면 그때 그 여성연맹은 어떻게 만들게 되셨어요?
- 130. **구술자 59:09** 제가 그 이학선 총재라는 분 지금 아프셔. 그 여자분이 유경숙 여사 태어난 그곳에서 태어나서 부갓집 딸로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고대에 나와서 기자를 하시는데 인지도가 있으니까 미국의 레턴 대통령 취임식 때 정부에서 김종필 유희상 이학선 제가 하나 또 뭘래 그렇게 해서 그 취임식에 가지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가서 보니까 미국에 왔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거는 태권도하고 새마을밖에 없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분이 돌아와서 대한체육회, 태권도 전례 몰라 체육회 사무실에 가서 내가 여성태권도를 좀 발전시키고 싶다. 그러니까 여자를 좀 소개해 달라 그러니까 제가 1호로 딱 소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귀하게 생각하고 미팅 때마다 자기 돈으로 남자를 와이셔츠 하나씩 사주고 그 여성을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창립총회를 3월 31일날 국기원에서 했을 때 저는 이제 저기 제가 가져왔어요. 그 명단을 다
- 131. **면담자 1:00:27** 79년 3월 31일 그러면 이때 당시에 사범님의 직책은 전무이사였나요?
- 132. **구술자 1:00:35** 업무 이사로 했는데 다른 사람 주고 제가 경기 이사로 딱졌지. 근데 그 취 창립할 때 취지문 이런 거 다 가져왔어요. 제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 133. **면담자 1:00:49** 원본입니다. 원본이 귀한 자료네요
- 134. **구술자 1:00:51** 원본은 있고 제가 카피해서 가져왔어요. 제가 하여튼 그래서 그때 시범을 또 창설을 좀 해서 그날 시범을 했고 그날 창립하는 여자들 유단자들
- 135. **면담자 1:01:05** 그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태권도의 소중한 가치를 아셨던 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여성연맹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게 됐고 그 조직을 만들에 있어서 사범님은 전무이사직 향후에 경기 이사로 가셨다고 했지만, 전무이사직을 수행하면서 한국의 한국 여성태권도 연맹이 만들어지는 계기를 놓으신 거네요. 주춧돌을 놓으신 거네요.
- 136. **구술자 1:01:37** 예 그러니까 거기 한국여성태권도연맹의 이사들요. 이학선 총재님이 얼마나 유식하고 머리가 좋은지 우리나라에서 1인자들 여자들 비즈니스든지 여류 비행사든지 여러 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끌어다 뒀어요.
- 137. **면담자 1:01:58** 그럼 역사적 맥락을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 그러면 그 79년도에 이학선 총재와 함께

여성연맹을 만들었고 그러면 그때 만들었던 그 여성연맹이 현재의 대한 한국여성태권도연맹의 어떤 모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138. **구술자 1:02:18** 모태가 아니 진짜죠! 오리지널이죠 그랬는데 제가 미국을 가게 됐고 그리고 초등학교 연맹 중고등연맹 대학연맹 여성연맹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때 그랬는데 제일 잘 나가는 게 이분이 돈도 쓸 줄 알고 그러니까 여성연맹이 잘 나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저가 오리지널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끌어다가려니까 벽났어. 이 양반이 그리고 집 안에서 반대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남편도 뭐 태권도인도 아닌데 그걸 그렇게 정성 쏟냐고... 그런데 남편이 좋게 말하면 후원자인데 저녁 잘 드시고 하루 두근 돌아갔어. 심정을, 그런데도 이분이 그 꿈이 있어 가지고 그 단체를 이어가면서 대한태권도협회 옆에 한 자리에 여성연맹의 책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집을 두 채를 팔면서 한중 대화를 한 거예요. 여자들. 그런데 어느 날 책상이 없어졌어. 그래서 그 지금 자녀들이 태권도하면 어머니 우리 만나지도 말아요! 이렇게 하다가 시피 했는데 이분이 계속 포기할 못하는 거야. 계속 포기할 못하는 거야. 그러가지고

139. **면담자 1:03:42** 그분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140. **구술자 1:03:44** 태권도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중앙본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여자야. 그런데 그것보다도 태권도에 저 알고서도 완전히 매력이 빠진 거지. 그런데 지금 여성연맹이 어떻게 됐나? 이제 자기 그만두고 여성연맹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중간에 저를 막았어요. 누가 그러다가 제가 세계 여자 대회를 혼자 했잖아. 미국에서 그걸 계기로 해서 저는 이분하고 연락처가 안 됐는데, 왔는데 임진출 국기원이 자기가 여자 대회를 하고 싶다. 그리고 단양의 군수가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1위를 했으니까, 여자를 하라고 자료를, 재료를 다 줬는데 임진출 이 여자가 다 줬는데 딱 빼고 자기가 한 거야. 물론 실패했지. 그럴 때 이 양반이 그 대회에서 이학선 씨를 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 부여안고 울었어요. 말하자면 그때 연결이 돼가지고 야 나 여성연맹 다시 만들 거야 없어졌지 만들 거야. 김영숙이 만났으니까. 그래서 이동자 씨가 여유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동자씨 부르고 똑똑한 우리 임진자가 이걸 다 알잖아. 애는 제가 끼고 놀았고 불려서 전부 이 사람 그게 새로 창립된 거 건 건 제가 내가 불 인불 브가 안 돼서 그러니까 2002년 넘어서요. 2003년 대회 때 제가 왔으니까 1년이나 2년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동자씨를 불려서 그 여자가 탁구협회와 관계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임신자 딱 놓고 너 나도 아무것도 몰랐는데 했거든 너 탁구 때려치고 태권도 여성연맹 회장이예요. 그 자리에서 돈 5천만 원 냐게 하고, 이동자 회장 시키고 전무이사 시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비행기 표 주면 이제 특별하다 오고 이제 고문도 시켜주고 그랬는데 하다가 이제 자꾸 색깔이 변해지면서 지금은 남자가 여성연맹 회장이예요. 돈줄이니까. 그런데 저는 그러면서 이제 이학선 씨에게 도태시키는데 제가 살아있는 한은 절대 아니지.

141. **면담자 1:06:13** 그러면 이제 다시 이야기를 최초의 여성연맹을 구성할 때 이야기를 잠깐 좀 더 여쭙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의 예산이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산 규모

142. **구술자 1:06:26** 저는 모르는데 거의 다 이학선씨 주머니에서 나왔어. 100%

143. **면담자 1:06:31** 보통은 이제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협회든지 연맹을 구성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첫 번째가 임원의 구성이고 두 번째가 사업을 구성하고 세 번째가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따라야 되는데 혹시 그런 거.

144. **구술자 1:06:50** 저는 이제 그때는 운동만 했으니까 전혀 모르지, 그러니까 전무기사 시켰지만 저는 운동이니까 전무이사는 도네이션 내고 들어와라! 이거야. 이제 말하자면 그때는 그러니까 그 도네이션들을 받고 모자라는 건 이학선 총장님이 다 넣어서 여성연맹이 굴러간 거예요.

145. **면담자 1:07:06** 그럼 최초의 임원을 구성했던 분들 중에 혹시 기억에 나는 이름들이 있으십니까?

146. **구술자 1:07:11** 아니 내 명단 가져왔단니까 그럼 제가 그런 게 진짜 제가요. 그거를 다른 사람 못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가져왔어요. 제가

147. **면담자 1:07:23**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학선 씨랑 한국 최초의 여성연맹을 조직하신건가요?

148. **구술자 1:07:30** 회장이지만 진짜는 제가 다 한 거죠

149. **면담자 1:07:33** 그렇죠. 실무적인 일들은 사법님이 하셨었고, 그 일을 진행을 하다 보면 지금은 이제 추억이 되겠지만, 어려움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속상한 일도 있었을 텐데...

150. **구술자 1:07:48** 그러니까 일단은 그 사람들이 다 이사 들어올 때는 여유가 있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남편들이 무슨 태권도야? 여성연맹이 참 고난을 많이 받으면서 그래서 사무실 자체를 제도장으로 해서 그 봉투 주소 가져왔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가장 이학선 총장님이 제일 어려우셨겠지만 그래도 보람을 느끼고 또 이제 고문 추대식을 했어요. 그때~ 5월달에 그러니까 3월 31일 창립총회를 하고 5월 26일날 외교통상부를 빌려서 각계각층의 사람을 이학선 총장님이 다 모았는데 그때 별자리들이 6명인가 8명이 왔어요. 그게 왜 왔나? 남편이 상군사관학교 웃을 땀어. 그러니까 그 연줄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때 김운용 총장님이 피아노를 치셨어. 김 총장님이 옛날에 잘 사셨잖아. 그 옛날 시절에 그러니까 김 총장님이 우리 여성연맹을 인정 안 할 수가 없고 자기가 저를 미국 대사관에 소개해서 들었는데 제가 8개 대사관을 가리켰어. 그러니까 김 총장님이 제가 엇그저께 지금 열흘도 안 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저에 대한 칭찬을 하는 걸... 돌아가셨지만 미국에 한국일보 주필 하시던 분이 대단한 분이야. 80이 넘었는데 근데 저 이제 취재도 하고 그러는데 저라면은 꿈쩍도 오리지널 똑바른 여자 이렇게 하는데 2002년에 김운용 총장님이 LA에 왔을 때 취재를 했대요. 자기가 그런데 그 얘기를 여담으로 해주시는 거야. 김 관장님 사실 내가 얘기 안 했지 김 총장님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 어찌다가 취재하다가 제 얘기가 나왔더니 김영숙이가 답자였으면 내가 이 자리에 없었어. 그러셨대. 말하자면 그 2000년대 그러니까 저는 아이디어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떠올라요. 그래서 그거를 그 길을 가려니까 이해 못 하는 사람들 이걸 시키고 하니까 내가 저는요. 정말로 의롭고 힘들어요. 이 지금 얘기를 하려는 데도요. 제 포레 남자들은 벌써 리타이어들하고 태권도가 생활의 목적이었지 저거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구단이라고 폼 잡아도 어떤 철학의 개념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그렇죠? 그런데 동료 사법들은 우리 선배들도 그렇고 동료들도 그렇고 밑에 애들은 저하고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개척자로서 이런 경험을 가지고 너무 의롭고 힘들어서 며칠 전에 울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 개신 신동기 관장님이 월남도 갔다 오고 미국 정부 초청으로 했던 분인데 제 얘기를 듣고 6시간 운전해서 와서 밥 사주면서 김관장 대한민국에 가서 2주만 쉬었다 와이 번아웃 죽을 것 같아 안 되겠어서 저는요. 일주일 이상 도장을 못 빼요. 제가 클래스를 띠니까. 근데 왜 그렇게 살아 너무 힘들게 산다. 그래서 그래도 관장님 같은 분이 살아계셔서 저를 이해해 주셔서 그러니까 애네들 있잖아요. 아까 정효심이니 뭐 이런 애들 이제 애네들이 제 이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제 이 심정을 상상도 못하는 거 그러잖아요. 내가 오태주 한 거 엇그저께 하나 만났는데 사법님 그때 힌트 좀 주시지. 야 너희들 코딱지 칠없는 애들이 뭘 이해를 해 내가 그 얘기를 해주니 난 그래도 넉넉한 마음을 가졌었다.

151. **면담자 1:11:48** 우리가 이제 그 긴 시간을 김영숙이라는 어린이가 오빠를 계기로 해서 도장에 입문을 하고 쪽 수렴 과정을 거쳐서 지도자를 거쳐서 이제 태권도의 조직의 일을 시작을 하는 데까지 왔는데 김 총장님 얘기가 나오니까 눈물 눈이 예전 생각이 나시는 것 같아요.

152. **구술자 1:12:15** 저기 저 두 분이 찍은 사진도 가지고 다녀요.

153. **면담자 1:12:18** 그러신 것 같은데 참사람 일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저도 김 총장님에게 민주화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저는 그분의 영정을 제가 늘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154. **구술자 1:12:41** 영정 드신 분이구나

155. **면담자 1:12:44**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법님의 전번 이야기를 쪽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태권도를 통해서 받은 혜택도 있었던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156. **구술자 1:13:00** 많이 받았지

157. 면담자 1:13:01 이제 한국을 떠나는 입장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으세요?
158. 구술자 1:13:11 질문이 언더스탠이죠.
159. 면담자 1:13:14 질문을 좀 짧게 해보면 이제 1년 후면 미국을 가셔야 돼요. 79년이나 그러면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해 보면 어떻게 정리를 하고 싶으세요?
160. 구술자 1:13:25 저는요. 내가 꿈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외국에 나가고 그러니까 이 도장을 오후한테 맡기고 우리 한충선 감독님 중매를 해 주셨어.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가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처럼 사실 주변에 남자들도 있고 그런데 웬만한 남자들은 저를 못 받아들이요. 그냥 보통 여자나 받아들이지만 제 고집이 세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내딸이니까 그때 33살인 거야. 우리 막내 시집가는 것 좀 봐서 그러니까 효도가 뭐가? 그거를 또 생각했어. 그리고 내 꿈을 펼쳐야겠다. 그래서 중매로 한 거예요. 가자마자 바로 도장을 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우리 선택예요. 그러니까 태권도 코리안 가라테아
161. 면담자 1:14:14 그 이야기는 이제 미국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그전에 이제 한국을 떠나야 되는 1년 전에 1년 전에 이제 다 종합해 보면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아가 말씀을 또 짧게 드리면 태어나서 도장에 입문해서 성인이 되고 어른이 돼서 태권도에 이런 일들을 했어. 그 이런 일들을 한 게 국가대표 선수들을 데리고 대회도 나가보고 여성연맹도 만들어 보고 한국 최초의 여성 전문 도장도 만들어 봤는데 그것을 다 회고를 해 봤을 때 김영숙이는 이랬었어라고 정리를 하시면 사법님이
162. 구술자 1:14:48 태권도에 미친 포라이지! 말하자면 그렇죠. 그게 아니면 못 해요. 정말로 못해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 대신 내가 여자로서 할 수 있는 거 이거를 내가 무시하면 인간으로서 대접을 못 받고 대접받는다기보다 이게 언밸런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보다 나의 24시간은 다른 사람보다 더 시간을 지금도 저는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 시간에 뭐 하고 이 시간에 뭐 하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아는 사람은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으니까, 전화를 안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테두리를 만들고 이렇게 그 테두리에 갇혀서 내가 나를 피곤하게 하는 거야. 정말로 그러니까 이거 타고 나온 성 어떻게 그리고 또 자존심 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제가 지금도 몸을 풀고 있는데 남자들 뭐 들리는 말이에요. 60 넘으면 한국에 도복 안 입는다는데 나는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입고 내가 하는 거야. 본인이 되기 위해서라도 제가 너희들 봐 나 하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 죽을 때까지 했으면 해. 끝까지. 그러니까 다들 중간에 그만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100명이 태권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1년 후에 한국 얘기로요. 1년이면 반이 떨어져서 50명이 초단을 받아 그러면 일단 2년 해야죠. 미국은 더 시간이 가지만 그러면 거기서 또 반이 떨어져요. 그러면 3년도 또 반이 떨어지면 4년부터 사범이 라면 100명 중에서 10명 나오기가 힘들어요.
163. 면담자 1:16:27 그러면 그 말씀이 이제 그 김영숙이라고 하는 나는 태권도를 통해서 정말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한국에서 그러면 이제 사법님의 인생 2막은 미국 생활인데 근데 이제 한국에서의 생활을 좀 이제 지도자로서의 생활을 조금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 제도권에서 이제 일들도 많이 시작을 하셨고 또 다양한 곳에서 여러 지도의 경험에 있으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 사법님을 파악하는 중에는 대사관들의 여러 나라의 대사관들에서 경험이 있으셨다고 들었거든요. 대사관에서의 지도 경험 좀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64. 구술자 1:17:12 그때는 제가 대사관에 들어가게 된 동기는 국기원이 지어졌을 때가 아니에요.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김윤용 총재님이 외국에서 근무하시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부르셔서 이 행정관을 청와대에서 하실 때 이제 경험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태권도를 말아라. 누구는 뭘 말아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식한 태권도 안 말고 싶으셨대. 그래서 하여튼 말았어요. 그레가지고 하다 보니까 국기원 같은 데 이제 그때는 국기원 없으니까 지워야 될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상식으로는 도내이션을 한국말로 뭐라고 하여튼 도내이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에 참사로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대사를 이렇게 해서 파티를 하셨어 하셔서가지고 내가 이제 이런 대한민국의 국기원의 성지를 하나 짓고 싶다 도내이션을 부탁한다 그랬는데 그중에 미국 대사 참석을 한 사람이 당신 이렇게 해서 돈 받아

- 서 할 줄 알았더니 그때 심사비가요. 1천 원 1만 원도 안 되는 그럴 텐데... 만 원 만 원 되겠다. 어떤 사법님이 대사 아들딸을 가리키면서 돈을 많이 받은 거야. 너무 많이 받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알아보지 본다 본다 다 못 했다가 그걸 그냥 그 자리에서 김 총장님한테 당신 말이야 다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했어. 너무 부끄러우셨어. 그레가지고 알겠습시다. 알았다. 그리고 그 사범은 딱 데로 뛰었어. 다른 나라로 그러니까 그 명예 회복을 위해서 저를 부르셔서 갔더니 어 일체의 돈을 받지 말고 내가 가는 데로 가라. 그때는 대한태권도협회 근처에도 못 갔어요. 너무 성지야 무서운데 그래서 몇 시까지 오라고 그래서 1시간 전에 갔더니 너 나갔다 이따 와~ 위의 분들이 그래서 내 그러니까 그레도 이제 앞전하게 옷 입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갔더니 총재님 차를 자기 뒤에 타고 운전 옆에 타고 가는데 어디 가십니까? 또 묻지도 못하고 하여튼 갔더니 미국 대사관 판자로 가~ 갔더니 어느 집에 갔더니 그 여자가 미세스 케네디 미스 테스 클 밴드 이었는데 그 딸들을 가르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 영어 잘 못해요. 팔고는 다 냈지만, 고급 영어 못해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리고 하여튼 알았다고 그리고 저를 달랑 내리 놓고 그냥 가시는 거야. 그래서 날짜를 정해놓고 일주일에 세 번씩 가서 가리키면서 아이들은 태권도를 가르치고, 거기서 엄마들이 왔다가 저한테 해서 제가 엑서사이즈를 가리키고 기본 동작이니까 한 3개월만 하면 이 서클 레이션이 되니까 몸이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대사 부인들이 중국 대사, 필리핀 대사 이태리 대사관 8군데 대사관을 하는데 자기들이 못 오면 중국은 중국 대사관에 가는 거예요. 이제 안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3개월을 그냥 가리켰더니 이분들이 좋아진 게 먼저 사범은 돈을 받았잖아 그 남자 그것도 못 이긴 여자가 와서 더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김 총재님한테 좋은 이미지가 갔나 봐. 총재님이 부르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우리 임운규 관장님 이종원 관장님 이거 제정해서 또 거기 가서 무슨 일을 저질렀나? 걱정이 되다 하던데 갔더니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그때 또 비서가 어려더라고요. 이제 춘지 주실 거야. 그런데 그때가 최고 반응이 5천 원이야. 그때도 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든지 필요한 거 얘기해야 돼. 그리고 이 화학도 연세대학도 자기가 해주겠다. 근데 이미 저는 벌써 오픈이 됐어. 그런데 기록한 거야.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요. 2만 원이 들었어. 그래서 그가 갖다 혼자 안 쓰고요. 나 우리 관장님들한테 와이셔츠 하나씩 다 사서 들렸어. 그러니까 내거 이쁜 것들 한 거야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무슨 대사관에 파티가 있다 그러면 김영숙 사범 불러! 그래서 절 데리고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신경을 내가 없어도 깔끔하게 이렇게 잘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셔서 나니까 나중에 아들 보내고 딸 보내고 제가 아들딸을 다 가리키게 됐죠. 그중에 소개가 되자 소개돼서 노신용 국방 외부 장관 그 아드님이 노경수인데 여기 이제 국기원에 왔어. 그래서 대도 남자지만 가리키게 되고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심사를 보는데 국기원에서 엘로벨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8월 17일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관장님들이 다 어쨌든 총재님이 오시는 거 총재님이 아니라 회장이었지 그때는 그런데 15일날 유경수 여사님이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못 나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무전기로 김영숙 사범 도착했다 대사 도착했다? 누구 도착했다? 그래서 그 가족사진 찍은 것도 가져왔어.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되니까 여러 군데 이제 순회 사범을 했죠. 그러니까 하여튼 사람도 많이 받고 최선도 다했고 그 아이들이 낳는 그 후에는 이제 대사 부인들은 주로 엑서사이즈를 하는 거야. 그때 제가요. 사실 나 엑서사이즈 그거 에어로빅 이거 나 참사랑이요. 내가 그 동작을 만들어서 가르쳐주면 그게 그렇게 효과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가 임으로 임으로 전달이 돼서 그러다가 제가 이제 미국 간 거지.
165. 면담자 1:23:07 그럼 말씀을 들어보면 사회적으로도 자리를 잡고 또 제도권에서의 진출을 해서 여성연맹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또 지금 말씀처럼 여러 대사 또는 그의 가족들을 이렇게 지도하시는데 그렇게 일종의 탄탄대로라고 그럴까요? 성장하고 있는 김영숙이 갑자기 이제 미국에 가시게 됩니다. 어떤 가시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166. 구술자 1:23:36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도 해야 되었고, 그런 데다가 아무나 할 수가 없어. 나하고 내가 잘난 게 안 맞는 거야. 이상적으로 그러면 나를 태권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택이 미국에 사는 선택을 중매를 하신 거야. 그래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면 저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스폰서가 생겨서 저 비행기 표니, 뭐니 다 보내주시는데. 그런데 그때가 어디냐면 미시간에 육군 중장 장도영 박사님 그분 동네에 사시는데 이런 여자라면 와서 잘 살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주셔서 이 비자를 받

아아 돼. 지금 아무도 몰라요. 지금 다 가리키고 있어 이대니, 뭐니 다 가리키고 있는 상태야. 도장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오빠한테 이제 물려주고 이대는 후배한테 했는데, 개가 이제 땅가뜨려서 끝났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된 거지 그랬는데... 어! 내가 비자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절대로 10월 15일 안에 들어와야 된대. 스폰서가 추우니까 딱 더운 데로 간대. 근데 비자 받으러 9월 아니야 10월 10날인가 하여튼 갔어요. 갔더니 영사가 내가 가르쳤던 영사가 너 지금 미국 가니? 너 그럼 그러면 너 어떻게 우리 누가 가르치니? 그래서 우리 오빠 오빠는 해병대도 가르쳤고 다가 이거 받을 거야 했더니 그래 내가 지금 나 모래 출발해야 되는데 나 비자를 주려면 제일 먼저 줘라! 인터뷰 이제 그리고 알았다고 그래서 거기서 인터뷰 받고 1번으로 받고 뭇문으로 나와서 바로 어디로 가냐면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반납하고 그리고 그다음 날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그래 왔더니 총재님이 나중에 아시고 한 달도 안 돼서 미국 체육회 태권도협회에다 걸어서 김영숙이가 미국 갔으니까 일 좀 하게 해라. 그래서 그다음 달부터 미국 체육회 또 일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바로 그 해에 이제 포도를 입고 뭐라 그럴까? 미국팀 코치도 맡았고 말하자면 그래서 도장도 그대로 하고 있는 우리 선배가 도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두 인간한테 저는 제 도장을 또 따로 했죠.

167. 면담자 1:25:56 그러면 개인적인 선택이고 개인적인 영역이기는 합니만 그렇게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관계를 넓혀가던 중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도미를 생각한다고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168. 구술자 1:26:16 그러니까 아무 사람이면 아니고 도장을 하는 사람 같은 무덕권의 선배 예를 들어서 그래야 나를 이해할 수 있잖아. 나는 이걸 끈을 놓고 싶지가 않아. 외국 가서도 그전부터 꿈이 있어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콘셉트 맞은 거지
169. 면담자 1:26:32 알고 지내던 분이였나요?
170. 구술자 1:26:34 아니 전혀 모르고 사인테 중매쟁이가 잘한거지 말하자면 우리 선배가 황중성 광장님이 중매를 잘한 거야.
171. 면담자 1:26:41 미국 가서 남편을 처음 만나신 겁니까?
172. 구술자 1:26:43 아니야 프리월드 때 그 몇 달 전에 미국 팀으로 왔어요. 왔는데 이제 우리 선배님이 저기 하나가 어떡냐고 좀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본 거고 그다음에 그때는 편지잖아. 그래서 거의가 뭐 같은 무덕관에다가 도장도 하고 있고 나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아 그렇다면 뭐 나한테 구박했다는 우리 선배한테 혼나잖아. 말하자면 그리고 활동을 하는 사람이 도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다 그대로 두고 간 거예요. 그게 왜
173. 면담자 1:27:18 몇 살이셨습니까?
174. 구술자 1:27:19 1979년 10월 11일에 가서 12일날 결혼식 했어. 10날 비자 받고
175. 면담자 1:27:29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그렇게 외부적 활동을 많이 하시던 분이 미국을 가셨습니다. 미국에 가서서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시고 그럼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가서 자마자 또 미국에서 도장도 하고 그리고 국제대회의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운영요원이지만 그런 활동도 하셨는데 미국에서의 첫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176. 구술자 1:27:57 나는 여기서 이미 외국 사람들 대사관이니 8군이니 김포에 있는 미군들을 가리켜 봤기 때문에 하나도 낯설고 이리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 되는 사람이 도장을 몇 개를 했으니까 하나 내가 말아서 하나 그러니까 이제 바쁘지 그 대신 말하자면 그런 데 이제 여러 가지로 이 얘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살림을 하면서 제가 좀 고집이 있고, 나는 책임감이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될 거는 잠이 모자라도 그렇게 다 해놓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쪽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가정적으로 내가 여기서 제자를 길렀었어요. 체육 선생을 했잖아. 또 고등학교 태권도도 가르치고 그래서 내 후계자를 만들던 아이가 있었는데 개는 이제 저기고, 아무튼 가정적으로 남편이 이제 이제 왜 저기를 해서 내가 그냥 나가야겠다. 그런데 캘리포니아가 너무 좋더라고 날씨도 좋고 거긴 내 시간은 추워.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가서 아주 거기서 뿌리를 보기 위해서 내렸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오면요. 첫날 도착해서 잘 데가 없으면 열로페이지를 그

전에 보면 태권도장을 쳐줘요. 한국 사람이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연결이 돼서 먹여주고 채워주고 그러니까 그런 중의 하나가 내가 2000년대 여자 대회를 할 때 이 저기 나하고 그 그럼 이렇게 그걸 하는데 어머 그중에 한 사람이 날 알아보는 거야. 김영숙 사범님 이 시간에 내가 그랬더니 제가 그때 가서 밥도 얻어먹고 잠도 자고 너무 고맙었어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인연이 진짜 이렇게

177. 면담자 1:29:46 참 인연이 무섭죠
178. 구술자 1:29:48 예 그러니까
179. 면담자 1:29:49 사범님이 처음에 미국에 가셨던 도시는 어디였습니까?
180. 구술자 1:29:54 미시간 클라 마주 그러니까 어디냐 하면 시카고에서 디트로이트에 가는 중간길이야. 칼라마주 거기에 육군 장병 장도영 박사님이 이렇게 돼 가지고 갔을 때 거기 가서 대학교수를 하셨어.
181. 면담자 1:30:08 그럼 이제 결혼을 하시고 남편분의 도장을 같이하시다가 이제 독립을 하시게 됐잖아요. 그럼, 독립은 어느 곳에서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단독 도장을 하시게 될 텐데 지금까지 그곳에서 제가 갔던 곳이 그 도장입니까?
182. 구술자 1:30:28 어 그럼 지금 거기만 40년 넘게 했죠
183. 면담자 1:30:32 그러셨구나.
184. 구술자 1:30:33 그러니까 저는 다 두고 와서 딸 둘 데리고 와서 했는데 딸 둘이 다 6단이야. 그중의 하나가 이제 하나는 의료계통이 있고 하나는 이제 법조계 개통에. 근데 그 작은 아이가 버클리 타
185. 면담자 1:30:50 아이고
186. 구술자 1:30:51 안장석 교수 알죠? 그 자기 입으로 그래 김 광장님 아무리 유명해도 버클리에서 우리 소피아가 제일 저 알려져서 그러니까 팀 코치도 하고 내셔널팀 대학연맹
187. 면담자 1:31:03 한국에서 이제 태권도 교수 김영숙이가 가서 LA에서 단독 도장을 시작을 하셨던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좀 많이 알려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미국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의 낯선 곳에서 여성의 몸으로 도장을 더군다나 동양인이 그 조그마한 여자 여성이 한다. 어려움 없으셨습니까?
188. 구술자 1:31:30 알죠? 아주 쉬운 얘기로 미시간에 첫날 그러니까 오늘 비자 받고 내일 가서 모래 결혼식을 한 거야. 그리고 그다음 날 도장을 출근을 했는데 2층인데 비서가 타이핑을 외국 여자지 타이핑을 치는데 어떤 검은 남자가 들어와 이 여자가 달달달달 뿔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 것도 몰라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어! 그랬더니 이 흑인이 뱅글뱅글 뱅글뱅글 돌다가 내가 눈을 똑바로 보니까 조금 이따 나가더라고 그랬더니 그 세크레타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강도였는데 내가 너무 딱 주시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건 있었는데 이쪽에 와서 할 때 저는 항상 미국 사람들이 뿔 하면 이렇게 두들겨 보잖아요. 인터넷에 나는 최초의 여자 사범이야. 그래서 사인을 하려면 남자들은 막 찌찌찌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자의 특유로 자세히 동작이 뭐니 알아듣게끔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난 거야. 그래 나는 도장하는 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었어요. 한국에서 외국 사람 가르쳤던 경험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성실하게 태도를 가니까 아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예의주시 이런 거 가르쳐주니까 소문이 나잖아. 말하자면 광고 안 해도
189. 면담자 1:32:51 그러면 그 세계연맹의 일은 몇 년도부터 하시게 된 겁니까?
190. 구술자 1:32:56 세계연맹?
191. 면담자 1:32:58 세계태권도연맹에서 여성 분과에서 품새 분과 위원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192. 구술자 1:33:05 그게 몇 년도가 기억이 안 나 내 명함에는 다 있는데 내가 그 명함을 사진 찍어가지

고 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튼 김 총재님 계실 때 그렇게 해서 제가 세계연맹에도 인
블브 됐고 또 조경원 총재님께서는 품새 분과 저한테 세계 품새 분과

193. 면답자 1:33:29 응 응

194. 구술자 1:33:31 세계 세계 품새 분과가 있잖아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제심판을 1기까
지 났으니가 1기까지 났으니가, 국제대회를 또 많이 가잖아.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그런 데 가
면 에피소드가 무지무지 많죠. 예를 들어서 필리핀을 갔는데 자고 있는데 아침에 몇 시까지 일
어나면 심판들은 일찍 나가서 그 체중도 조절하고 해야 되는 것도 참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건 정말 누구한테 얘기하는 건데 갑자기 송상근 국기원의 차장님이 룸을 찾아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들어왔어. 그래서 네 저 지금 기도하는 중인데 그랬더니 아니 잠깐만 빨리 좀 나와! 그
래서 갔더니 지금 화이트 룸에서 여자 화이트 룸에 남자가 들어갔다. 이렇게 경기위원으로 그
러니까 좀 참석해달라 그러니까 제 시간을 뺏기는 거야. 말하자면 나는 그리고 옷 입고 이제
나도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보니까 코치들이 한국인들이 많잖아요. 근
데 어떤 아이는 오버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의 여자 그래도 운동을 경한 임원들이
들어와서 몇 명 있었어 이제! 그다음에 남자가 있고 이러니까 남자 내보내니까 여자가 이렇게
했는데 다 여자도 남자처럼 다 이렇게 저기하고 귀중한 저기만 하고 하는데 오버되니까 나가
서 코치한테 애 데리고 한 바퀴 뛰고 오라고 그럴 땐 오면 목이 마르니까 물 마셔서 더 웨
이트 더 나가는 거야.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 또 한 나라에서 편급 편급 풀라인데 말하자
면은 풀라이로 내보내고 싶어 하나를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하나면 이 펜티 가상사리예다가
남덩어리 있죠. 남덩어리를 꼭 넣는데 그걸 남자는 터치할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들어가니까 심판부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냐 하면 이 펜티에 가상살이가 꼬여져 있잖아. 그
걸 뜯고 넣는데 어머 옛날에 6.25사변 나고 나서 그 이가 많잖아. 그래서 너네들이 너무 가난
해서 내가 이따 끝나고 가면 반스하나 사줘야겠다. 펜들은 이런 마음을 딱 보니까 그게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탈락시켜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그 여자 남자가 모르는 그 여자로서 그런 에
피소드가 참 많아요. 그 외에도 그리고 또 여기서 흑시나 해서 딱 토크팀 뛰게 해 남덩어리가
나고 그건 상상하세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심판 보고

195. 면답자 1:36:29 또 미국 가셔가지고 FBI도 지도했다고...

196. 구술자 1:36:34 FBI는 아니고 제가 경찰서들 인연이 많아서 미국 가셔도 가르치고 하니까 조사하는 아
이디를 제가 카피해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합부로 이제 내뺐지 못하지. 그렇지만 제가 FBI
쪽에 특별 교육을 좀 받았어. 받아가지고 청소년들을 어떻게 이 사회에 바르게 인도하나 그리
니까 거기서 누가 또 추천해 줘서 가서 교육받고 왔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 경험을 하니까 태
권도라는 것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게 다 오는 거죠. 그리고 저건 빼도 스페셜 VVIP들이 와요.
박근혜 씨도 제가 경호 대장을 하는 거야. 말하자면 그런 이제 김연아 같은 경우는 남자 싫어
한다. 그러니까 위에서 정부에서 좀 해줘. 그래서 나 머리 허연테 뭐 애를 가지고 하라고 그래!
그랬더니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딱 우리는 눈치 보면 알잖아. 그러면 이제 얼마큼
떨어지고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할 때는 이게 한국 같으면 모르겠는
데 총이 어디서 들어올지도 몰라. 그럼 그러면 어떤 때는 이 행사가 취소됐으면 좋겠어. 말하
자면은 그런데 예정대로 했잖아. 그러니까 남자 대원들 데리고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
자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경영학에 연구를 좀 했지! 측근 경호나 외부 경호나 몇 미터 떨어지느
나이게요. 참 재미있는 것도 있지만 식은땀이 줄줄 흘려요.

197. 면답자 1:38:17 사범님 또 특별한 이력 중에 도복 모델도 하셨습니까? 도복 모델도 해본 적이 있으세
요?

198. 구술자 1:38:25 했었어! 이영희 한복

199. 면답자 1:38:29 전문가

200. 구술자 1:38:30 그 여자가 연결이 돼서 이거 처음 이거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했을 때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 그 얘기 잘해 주셨는데 남자들 위주잖아. 그럼 그걸 제가 잠깐 바꿔서 제가 이제 3
급 2급 1급이잖아요. 국제심판이 그러니까 한국태권도협회에서 그때 세계연맹이 국기원 자리에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국제심판한테 통보를 해서 편지를 보내면 사이즈를 해서
보내라 이거야. 그리고 나는 공문이 오면 맨날 미스터 김이야. 맨날 미스터 김이야. 그런데 나
한테 미스터 김으로 바꿔라 이제 그랬지. 근데 이걸 재라. 이 서버 재가요 심판 노란 심판복이
있잖아. 국제심판 제서 보내면요. 남자 윗도리가 양복인데 이거 생각 안 하고 이게 끼는 거예
요. 그래서 제가 보내고 나는 여자다. 여자 나 하나야. 그러면 두마면 또 역시 여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는 화가 나서 양장점에 가서 한국에 와서 양장점에 가서 옷감을 끊어서
그 색깔을 끊어서 양장점에 가서 내가 맞춰 입고 그걸로 국제심판 복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복 모델 할 때 보통들은 그냥 남자라니까 이영희 씨가 이제 채택이 되니까 여자도 기운을
좀 해줘라!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된 거고요. 더 깊이 들어가서 초창기에 우리 시합할 때요. 호구
옛날에는 없었어요. 호구.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냐 하면 대나무를 만들었어. 나 그거 모델 한
여자예요. 대나무 대나무! 그 사진이 그때는 카메라도 없었고 그러니까 없지! 솔직한 얘기 내가
이렇게 꼼꼼히 해도 그때는 그리고 어른이 시키면 왜 그랬지. 이거 하지 무슨 사진이야? 이러
면 꼼짝도 못 해. 옛날에는 하나님이잖아. 대한태권도협회를 쳐다도 못 보던 사람인데 그래서
저기 뛰야 한성여고 운동장에서 마당에서 맨발로 그냥 시합을 뛰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안
되니까 만든 게 제 대나무로 그거 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재가

201. 면답자 1:40:45 그 대나무 몸통 보호대는 찬 사람보다 찬 공격을 한 사람 발등이 더 아프죠

202. 구술자 1:40:52 그게 돌아가신 김일상 씨가 서울대 농대를 나왔는데 좀 여유가 있으셨어. 근데 판을
초월해서 저를 이쁘게 봤어. 그러니까 아! 남자 새끼를 그러니까 너 와봐라 그래서 모델을 해
서 딱 해서 입혀가지고 근데 이게 구부러지지가 않으니가 아파요. 상상도 못 해요.

203. 면답자 1:41:16 제가 처음에 도장을 입관을 했는데 선배들이 이제 그것을 겨루기를 착용하고 겨루기하
더라고요. 이제 어느 때가 되니까 이제 그 겨루기를 시켜주더라고요. 해보니까 착용을 하고 맞
는 게 낫지 발로 차는 게 더 아프더라고요.

204. 구술자 1:41:39 그렇다고 딱 갔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 가면? 그냥 밀고 나가 차야 되잖아. 말하자면

205. 면답자 1:41:46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그때 당시에 도장을 할 때는 제가 도장의 변천사를 적용시켜
본다면 지금처럼 태권도 도장이 아니라 태권도 가로 열고 가라테라든지 혼용해서 썼을 때

206. 구술자 1:42:06 시간에 가니까 코리아 가라테입니다. 태권도를 바꾸자

207. 면답자 1:42:09 변천사의 현장에 계셨던 역사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신데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
지만 현재 미국에서의 태권도 도장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208. 구술자 1:42:25 정말 먼저 가신 선배들이 참 제대로 해서 머리가 있으신 분들은 사인을 받으러 오잖
아요. 그러면 그날 사인 안 받고, 어피이먼트잖아. 미국은 그러니까 일부러 내일 몇 시에 오라
고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더 저 도장은 특별한가보다 순진한 사람은 다 따라와요. 근데
이제 개 중에 좀 안 좋은 사람들은 장난을 치든지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바깥에 가서 사용
을 하든지 이제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중에 학생 하나가 제가 미시간에서 기억에 남는데 그때
당시에 한 30살쯤 됐을 거예요. 저야 30이 넘었지만 저보다 몇 살 아래다. 애가 우리 체육관을
저기 한단다. 내가 집에 페인트를 좀 해야된다! 그러면요. 우리가 좀 도와줘 그러면 손을 들어
요. 그럼 내일 몇 시에 페인트를 할 거다. 그러면 무슨 색깔로 칠할 거냐? 그래!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 대중 이런 거다. 그러면요. 한국 사람 같으면은 우리가 가면 주는 거 하고 밭도
대접받고 이러잖아요. 미국 아이들은 자기가 도시락 싸고 페인트 사가지고 와서 치료를 해주고
가요.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개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 회사에서 일할 때 다 끝나고 청소들
하지? 그럼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게 화장실일 거다. 니가 가서 화장실 해라 그랬더니 why?
그러더니 오케이 두 번만 하면 애들이 저 세 번만 하면 매니저 딸에 매니저한테 그 말이 들어
가면 너는 출세하는 데 올라갈 거야. 추라스트 하니까 믿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잘 전
갈 때오르도 그러면 평상시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한들이 퍼센트 오케이고 그렇게 사람들
마음에 잡고 마음을 잡고 이렇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코리아 가라테가 태권도로 바꾸면
서 그게 이제 주변까지 이렇게 퍼져가서 그렇게 저기 해서 그러니까 선배들도 막 뛰는 사람이
있고 그런 철학을 갖고 어퍼먼트를 받으면서 사인을 받는 분도 계시고, 지금은 옆에다도 차

러... 그러니까 좀 무너졌지 무너졌지. 그 세계연맹에서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나면은 좀 떨어졌어. 한심한데 한국분들인데 하도 이 미국 나이가 말을 안 들으니까 잘라버렸어. 그 블랙벨트인가 봐요. 그랬다. 그러니까 이놈이 이로 간 거야. 가면 우리는 꼭 그걸 해요. 어디서 왔나? 너 사범님의 허락을 받고 왔느냐? 이걸 물어봐. 제대로 된 사람은 그러니까 애가 술술술 말 을 한 거야. 그냥 뭐 어찌고 찍찍고 했는데 아, 이게 가니까 나 초단이니까 이제 2단을 컸네. 여기서 이분이 좀 그냥 그러니까 이 초단 만들어 준 사범님이 화가 나잖아. 세계연맹에다 연락 했어. 그때 세계연맹이 국기원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질서 있게 잡아주려면 현지에 나가서 조사도 해야 되고 봐줘야 하고 잘라진 거 싸우면 안 되니까 화합도 시키고 하는 거 를 누가 해야 되나면 세계연맹이나 국기원에서 해줘야 돼요. 암행어사처럼 나가서 그거를 강신 철이가 누나 누나는 미국의 맑은 도장을 알잖아. 누나가 미국에 있으니까, 사실은 국기원이나 세계연맹에서 누나가 그 화합의 장소에 그 역할을 했으면 참 좋겠어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 싸가지들 말아야 개가 초단이 아니다. 레드벨트였는데 가가지고 다 됐으니까, 초단도 가 초단이 이 사범이 화가 났지 그러면 화가 나니까 진짜 전쟁이 나잖아. 그러니까 죽일 놈 살릴하면 이게 소문나면 큰일 나잖아. 말하자면 태권도장이

209. 면담자 1:46:29 그 미국에서 이제 그 도장을 하면 한국인들의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건데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하죠.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사범님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보면 한국에서도 도장을 하였고, 미국에서도 도장을 하고 계시고 또 지금 현재도 현역으로 수업까지 하고 계시고 김영숙 사범이 갖는 도장에서의 철학은 어떤 것입니까?

210. 구술자 1:46:59 인간이 돼야 된다. 우리가 의사한테 예를 들어 나는요. 여자 도장 할 때 내가 그 책 가져오라고 그래도 안 가져왔는데 여성만의 도장 할 때 나는 한 달에 한 권씩 돈이 없어도요. 세계 문학 현집을 샀어요. 그래서 그 여성 도장 스탬프가 딱 찍혀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미국에 그걸 읽고 독후감을 써오라는 거야. 저는 우리 여자 관원들한테 그걸 시켰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꽃꽂이를 가르쳤어. 내가 그러면 개네들이 그걸 쓰면서 작문 실력이 늘잖아. 난 미국에서 도요. 애들한테 꼬마들 저 저거 한 10살 10살 넘으면 너희들 다이어리 좀 일기 쓸래 그러면 다른 거 쓰지 말고 흰 페이지에 몇 시에 일어났나 몇 시에 잤나 그리고 아침 뭐 먹었나 중심 이거만 써. 그럼 나 영어 잘 니 거 안 볼게 프라이베싱 사인해 줘. 그게 되면요. 그다음에 오늘 역사이던 했던 거 그리고 기분 나빴어. 그러다 보면 애가 초단까지 하면요. 장문 실력이 늘려요. 그럼, 대학교 가는데 애써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211. 면담자 1:48:10 가장 중요하죠. 미국

212. 구술자 1:48:12 교육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런 거 못 해요. 솔직한 얘기를 못 해요. 그리고 귀찮아요. 조사하러니까 힘들어요. 가지 사인했는데도 4시간이 나가는 거예요.

213. 면담자 1:48:25 그러면은 그 일관성 있게 사범님이 경영하던 도장에서의 인간의 워메트를 가장 중요시 여기신 것 같은데 그럼 그것을 수련생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어떤 사범님만의 어떤 스펙셜한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까요?

214. 구술자 1:48:44 특별한 건 없고 각 나라에서 오잖아요. 다양하게 그러면 저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미국 가서 진실한 교인이 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나면 우리 클래스 할 때요. 제가 한국말로 기도해 국가에 대한 경례하고 플레이할 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끝날 때 제가 안 하고 누가 하겠나? 그러면 꼬마들이 미미하고 손들어요. 그럼, 개네들 시켜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태권도 하면서 기도하는 도장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중에 뭐가 있나 하면 다른 나라의 신앙적으로 나는 기도 안 한다. 이래 오케이 내가 여기 왔으니까 틀을 따라야 되니까 그냥 넌 하지 말고 이렇게 앉아서 눈만 감아 줬어요. 제가 그러니까 부모들이 와서 볼 때는 이 도장에 오면은 어떤 애들은 차에서 그냥 맨발 벗고 뛰어오잖아. 그럼, 너 이거 누가 청소하니? 내가 한다. 더러우면 너희 집에 니 배드가 더럽고 그다음에 라운드를 빨래하러 가면은 뛰야 비누 들어가 되고 물 들어가 되고 시간 들어가 되고 그럼 너네 엄마 아빠 너무 힘들게 일하지 않나? 그래서 신발을 꼭 신어라. 오케이. 그러니까 부모가 오케이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바닥서부터 조그만 거 하나서부터 그리고 저는 경험자인데 큰 시험에 갔다가 그때 이거 호 흡이 별로 이게 없을 때예요. 그냥 이렇게 조금만 있는데 상대 쳐서 발뺌에도 이게 나갔잖아.

아이가 그다음서부터 저는 어떻게 하나 하면 손뼉 발뺌을 일주일 에 한 번씩 조사를 해. 그래서 그 경험담을 얘기해 주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애들이 미처 못 짚은 아이들이 차에서 안 내려 보면 손뼉 갖고 있어요. 부모가 이거 잘라주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나쁜 거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운동만 잘해. 운동은 그래요. 재가 너 동작 하나 내가 가리키면 그거 오버어 개인 하면 3시간 일주일이면 다 다 배워. 근데 사람이 성장하는 거는 그게 안 돼. 같이 몸통하고 이 정신적이고 같이 올라가야 해.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명이라도 오케이 나는 그런 식으로 내가 내 생명을 바치고 가지고 있고 철학을 가지고 하나까 저 여자 옆에 가면 나빠지지는 않는다. 말하자면 저 도장은

215. 면담자 1:51:20 지금 이제 그 사범님께서 70이 훌쩍 넘는 나이에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도복을 입은 이 자체만으로도 한국 도장과 한국태권도 지도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하고 있던 캠페인 중에서 하나가 70세까지 도복 입는 당당한 지도자가 되자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이걸 좀 늘려야 되겠어요. 75세나 80세로 여담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의 사범들 젊은 층, 특히 미래의 태권도 지도자들을 꿈꾸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범님은 한국에서도 하시고 미국에서도 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러면 그 후배들에게 태권도 지도자 또는 태권도 도장의 경영자를 꿈꾸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좀 있을까요?

216. 구술자 1:52:22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초단까지는 멋도 모르고 해 명령층에는 부모가 시켜서 하고 그다음에는 일단 저는 이 말을 해요. 체육관에 오는 시간에는 나쁜 말 못한다. 나쁜 말 못 듣는다. 그리고 어텐션이 된다 그러면 머리가 클리어가 된다. 공부도 더 잘하게 돼 있어. 그걸 부모한테 얘기하고 아이한테 얘기들 해요. 근데 최근에 있었던 얘기는 제가 흰띠를 3개월을 땀어요. 왜 땀냐? 11학년이던 지금 고2 고1 그런데 제가 작년 재작년에 2만 명 광화문에서 모여서 태극 1장 했지요? 저 책이 있어요. 여기 우리 국기원에서 보세요. 재창간호 재창간호에 나와요. 근데 사범 하나가 그러니까 한 천 몇백 명이 왔는데 자기가 그 태극 1장을 시연을 하겠대요. 그렇다고 저보고 관장님 그것 좀 말아 해달라. 그런데 저는 또 하던 전체를 보거든. 시험도 보고 심판 잘못되면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느 테이블에 그 심판 보는 기록하는 사람들 다 외국 사람이죠. 저 테이블에 물 갖다 줘. 초콜릿도 갖다 줘. 그리고 딱 보면 비실비실하 저 뒤에 가서 바닥 한번 닦아줘. 제가 그런 거를 전체를 다 보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24시간이 하루인데 한 20시간 이상 제가 가서 일찍 가서 도와주다 보고 시연도 하고 그러니까 오른쪽 무릎이 나갔어. 그래서 줄줄줄 매는데 그다음 시험에 가니까 며칠 있다. 또 시험이 열렸어. 그 사람이 휠체어를 준비해 놔서 내가 휠체어를 타고 이제 다니면서 토너먼트 트랙터가 감소하니까 밀고 그러니까 못 가는데 우리 학생 중에 사범이 그날 무슨 일이 있어서 안와가지고 학부형들을 앉히고 블랙벨트를 앉혀줬는데 그 블랙벨트 11학년짜리가 자기가 그냥 사범 흉내를 내고 싶으니까 2층에 대기 저기 스탠드가 있고 난 미친데 이게 내 허락 없이 미트를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연습을 한 거야. 그런데 미국은 보합 관계가 까다로우세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 잘못되면 토나 디렉터가 그 폼 그러니까 학부형이 잘하는 그 학교 선생이야. 그러니까 애 너 왜 여기서 이거 하고 있니? 그랬더니 관장님이 하라고 시켰어요. 이러는 거야. 관장님이 휠체어를 타고 아래층에 와서 언제 너한테 와서 이 층에 와서 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캐스천이 생겼어. 그러더니 그 후에 나한테 그날 끝나고 그다음 날 난 아파서 그러는데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했어. 3일 동안 전화가 와서 관장님 애 여기 왔는데 애도 내가 가리키는 아이니까 알고 보니까 애를 클리어 해야 되니까 관장님이 시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네 엄마한테 선생이니까 선생님 내가 아래층에서 2층을 언제 올라갔습니까? 그랬더니 글썽 말이에요. 그래 바꿔 바꿔더니 관장님이 시키셨잖아요. 이러는 거야. 그래 나도 모르게 애가 이제 한국 아이야. 근데 한국말을 받은 아이들이 천벌을 받을 놈야. 전화로 그리고 만나니까 내가 실수했구나. 이제 그 말이야. 그다음에 갖 퍼니 시멘트 오케이 너 내가 언제 시켰니? 근데 시켰다 이거야. 너 선생님 바꿔. 선생님 애 내일 엄마 아빠 데리고 체육관에 오라고 그러세요. 딱 그랬어. 그러더니 엄마가 왔어. 저쪽 방에 가서 앉아 무릎 꿇어 무릎 꿇었어. 나 너 티내이거든 한 아는데 관장님이 이렇게 살아 있는데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근데 오기 전에 그랬대. 사실은 관장님이 안 시켰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한테 고백을 한 거야. 근데 오라 그래. 그래서 난 너한테 잘못했으니까 벌을 주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초이스 줄 테니까 내가

플라라. 그리고 얼마한데도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2단을 초단으로도 아니고 끝내든지 없앨 거야. 너 거짓말을 했으니까 두 번째는 청소를 얼마큼 하고 그것도 나는 사실 싫다. 너 도장 그만 둘래 그랬더니 관장님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래서 제가 너 그러면 3개월 화이트 벨트에 하던 때. 네 그러서 개를 화이트 벨트를 메게 하니까 내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수근수근수근하잖아요. 그래서 개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애들한테 애가 사범님한테 뭘 잘못했는데 애가 블랙벨트다. 칼라벨트 같으면 오케인데 그래서 내가 벌을 주는 거니까 나도 잘못했다. 나도 내가 잘 못 가르쳤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화이트 벨트를 땀다. 그리고 3개월 동안 화이트 벨트 같이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고 이거 다 써오라고 그리고 반성문 써오라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 이거 주소 이런 거 번호 다 받아와. 이제 컨택은 안 했지 안 했지만 일단 접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서 제가 그렇게 그럴때 이 벨트를 다 그러니까 그 파장이 주변이 가잖아요. 우리가 자세한 얘기를 거짓말 했다는 건 인격이 문제가 되니까 하여튼 잘못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제 하나가 야단을 하려면 내 시간을 뺏겨야 되고 예를 어떻게 핸들링 하나 이거를 알아야 맞는 벌을 줘야지 덮어놓고 야! 이러면 이래 안 돼요. 그러니까 애 하나가 들어오면 주변에 부모를 잃어야 돼. 잃어야 되고 아직 애는 실력이 안 되는데 심사를 빨리 보고 싶은 아이가 있고 부모가 애는 잘하는데 심사가 안 된대 부모는... 그러니까 그거를 부모하고 어머니 마음이 내가 이거 프로페셔널 아니야. 그러니까 애는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달래야 돼. 말하자면 그러니까 운영관계가요. 지금 운영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하루 체육관에 주일 되면 다른 거로 힘이 들어도요. 살 것 같아. 머리가 쉬는 거야. 딱 도장에 가면 애들 들어오는 것부터 신발장에 신발 똑바로 안 넣으면 안 돼. 제자리에 안 두면 안 돼. 체크프로테 호구도 제자리 걸어 다 제자리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너 신발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 이거를 본인이 내게 보여주는 거야. 말하자면

- 217. 면담자 1:59:27 그러면 사범님 아까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그 질문을 드리면 아직 미국에서 비즈니스적으로 태권도 도장을 할 만하다고 보십시오.
- 218. 구술자 1:59:43 그럼요 할 만하죠. 사범님 관장님들의 철학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고 애가 잘못하면 서리를 배워가지고 나가서 학교 가서 애를 때리던 말이에요.
- 219. 면담자 1:59:55 그렇다면 미국에서 도장을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적으로 또는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한국
- 220. 구술자 2:00:05 그것은 한국에서 한번 제가 인턴 사범을 써왔어요. 그랬더니 한국식으로 애들 말 안 듣는다고 영어도 물론 못하지. 근데 이건 재미있는 게 한국말로 이제 하다가 설명할 때는 영어가 필요한데 애들 벌을 세우는 거 이거 이거는 큰일 나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벌을 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은 제가 아까 크게 생각을 질문해 주셨는데 지도자 교육 이렇게 가지는 안 돼요. 제일 해야 되는 게 참을성을 배워야 돼. 아까 제가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어 그리고 지도자가 지도자는 참아야 돼요. 뭘 찾냐면 한 동작을 해도 오버를 해보면 어떤 놈은 이렇게 하면 여기가 맞는 줄 알아 어떤 놈은 여기야. 그런데 딱 와서 여기 이렇게 되면서 여기 이거 맞고 이거 맞고 다 하게끔 그거를 반복을 하다 보면 인내심이 길러지는 거야. 그러면 참을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운동 때 그다음에 제가 아까 책 얘기하다가 말았죠. 적어도 책을 좀 읽어야 돼요. 위인전을 읽든 삼국지를 읽든 그래서 이게 들어가야 사람이 되면서 그것도 인내가 없으면 난 체육관에서도 그래요. 뭐 하나 이 책 너 부모한테 이래요 애한테 북 좀 읽게 하라 그래 이제 책 좀 읽게 하라고 그러면 애가 재미없다고 몇 페이지에다가 집어던지면 끝을 내라고 하라. 부모는 들어가는 사람 같으면 언더스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도자요. 여기서 그러면 사범님한테 적어도 책을 몇 권을 골라서 읽고 독후감을 써오라 이거예요. 그러면 읽은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도 발전이 되고 들어가고 제 생각은 그래요. 나는 진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나 지도 자격 내가 하고 싶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내가 몸이 굳어질까 봐 아픈데도 난 수술받고 와서도 체육관에 앉아서 그리고 딱딱 머리 깎았는데 가발 쓰고 내가 한 사람이야. 적어도 생각은...
- 221. 면담자 2:02:19 그런 부분에서는 사범님이 시작한 태권도가 12-3살 4살 때 시작한 태권도가 지금의 나 이까지 와서 한국과 미국의 문화와 환경과 경제를 다 경험한 이 입장에서 아가 말씀하신 것저

를 심지어는 후배들도 다 리타이어해서 편안한 노후를 사시겠소. 그럼에도 이제 현역처럼 도복을 입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이 모습 자체가 본인과 후배들 또 동료들에게 주는 커다란 메시지가 또 울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범님들이 이제 친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좀 더 이렇게 이런 길하고 소신을 가지고 한국과 미국에서 사셨고 살고 계시구니!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시다. 이제 인터뷰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쭙고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제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쭙고 싶은데요. 사범님은 미국 가서도 제도권에서 일을 해보셨고 한국에서도 제도권에서 일을 해보셨고 현재 현역으로서 한국의 태권도와 관련된 제도권에서 여러 일들을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는데 한국 제도권에게 좀 이렇게 미국에 있는 사범으로서 조언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 222. 구술자 2:03:53 그러니까 설치지 말라 이거야. 설렁설렁설렁해 설렁설렁하는 게 그제 안 읽어졌고 제가 책을 읽으라는 얘기가 그렇게 책을 읽다 보면 자기를 보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체워지고 설렁거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편파적인 거 많잖아요. 나 옛날부터 그 협회 싫어! 그리고 내가 너무 깨끗하니까 내가 진짜 깨끗하게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많았지 돌아왔으면 그러니까 내가 아파서 알 걸렸다 그럴 때 내가 아직은 내가 공개하지 말아라. 근데 공개할 때 해라 했는데 내가 기자가 물길래 공개해 왜?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기도를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날 싫어하는 사람도 내게 계속 나가면 저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아파도 내가 여자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저희들한테 아는 사람은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것이다. 제가 그런 그래서 협회 많고 제도권 많은데 그 사람마다 우리 손가락도 틀린 것처럼 그 왜 이게 지금 지도자 교육이 좀 제가 무너진다고 이렇게 안 좋으냐 하려면. 자기가 배운 사범님이 있잖아요. 스승님들이 이 사범들이 자기 배운 스승님이 최고인 줄 알고 그걸 하다 보면 자기 쿠세가 나와요. 그런데 좀 변형을 해서 보면 제가 제가 아까 그랬죠. 준비 자세를 연구 연구했다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그냥 이렇게 제가 이것도 했잖아 이게 이렇게 힘이 빠져요. 여기서 딱 들어가야지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힘이 덜 들어가 난 그런 설명까지도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것도 배워야 돼요. 제가 코치 아카데미 나왔다고 그랬죠? 그게 74년도인데 꼭 태권도만이 아니고 유도, 스키이트, 체조, 이런 거 다 각 단체에서 두세 명 추천 받아가지고 100명 정도 하는데 대한체육회에서 그 강사들은 다 박사예요. 그러면 끝나서 어떤 논문을 쓰는 줄 아세요? 각 종목에 운동 안 한 고등학생 20명씩 주는 거야. 그러면 유도 코치한테는 20명 주면 영양학적으로 뭘 먹이고 심리적으로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논문들 쓰게 만들어요. 그러면 유도나 레슬링 같은 게 먹어서 좀 체중을 나가게 해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우리 태권도는 스피드가 나와야 되지? 그럼 어떤 음식을 먹어서 어떤 심리적으로 해가지고 스피드가 나오게 하느냐? 저는 그거를 코치하게 되면 4명 들었는데 떨어지고 김호근 씨하고 정찬모 씨하고 저만 했는데 여자가 저 하나였어요. 그래서 하루만 저기 시간 되지만 잘라 끝이야. 그런데 저기 개근상 맞고 내가 거기 받은 아까 그 코치가 같은 배지 그거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상장 받은 것도 다 있고 가져왔고 말하자면 그러니까 열심히 제가 뛰든지 열심히 세계연맹에서 저 이렇게 데려다가 선수 시키려고 그러니까 저 얼마나 가늘어요 아령 들고 이렇게 서서 그러다 보니까 경험도 하게 된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주 최선을 다하고 빠르게 살았어요. 정말로...
- 223. 면담자 2:07:37 사범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인생을 열심히 사셨고 적극적으로 사셨고 태권도를 사랑하고 특히 이제 공감이라까? 동질이라 그럴까? 여성태권도인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여성태권도 후배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224. 구술자 2:07:58 그전 뭐냐 아무리 우리가 운동을 해도 여자가야 나 본분을 지키고 하라 이거예요. 난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은 게 막 이렇게 걸음 어그정어그정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운동 끝나면 딱 여자 치마 입고, 내가 똑바로 해야지 딸 가진 부모가 태권도를 시킨다. 이거예요. 제 꿈을 얘기할게요. 뭔가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그러셨죠? 나는 언젠가 전 세계를 다 날 거예요. 왜 다니냐? 예를 들어서 스페인 옛날 초창기 사범들은 다 한국 사람이예요. 지금 후배들이 제자들이 하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안 봤어도 떠들어댔기 때문에 사신을 보고 저를 알아요. 공항 같은 데 가면 경찰들이나 시끄럽까지가 태권도 하는 사람 많아요. 저희들이 알아보고 대우해 줄 때 너무 보람 느끼지 그럼 뭐냐 내가 더 늙기 전에 이제 기독교인이

됐고 하나씩 이제 그 마음도 있는데 그 나라에 내가 세미나에 좀 가고 싶다 그러면 세 가지가 난 붙는다. 내가 이른 일곱이야 최초의 여자 사범이야! 현역이야. 세미나 하러 가서 나 큰 동작은 못 해줘. 통역 붙이고 하는데 너희가 인적 도장에다가 광고를 해 이런 여자가 온다고 그걸 나를 한번 불러고 사범들이 올 수도 있고 여자 관원들한테 인크리지를 주기 위해서 올 수 있단 말이예요. 부모들도 왔다 가면 여자 인구가 늘어요. 그렇죠?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냐? 30년 전쯤 어느 영국에 있는 한국 사범이 전화가 왔어. 저는 몰라 그러니까 김영숙 관장님 저는요 관장님을 알지만 관장님 저 몰라요. 그래서 왜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미국 잡지에 커버 표지 나온 걸 봤는데 그래서 그런데 오늘 어떤 엄마가 대학생 딸을 데리고 인포메이션 문을 왔다! 이거야. 그 얘기를 하더니 여자는 뭐 안 되겠다고 나가는 거를 붙잡고 제 표지 책자를 보여줬더니 오케이 하고 사인을 하더라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도 있다. 이런 여자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비행기표 숙식 다 해드릴 테니까 한 번만 다녀가셔달래. 그럼 제가 간다는 걸 광고를 하는 거야. 그럼 이모도 오고 조카도 오고 다 와 여자들은 불려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근처 사범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희들 심사할 때 나 한 번씩 불러 그렇다고 너하고 나하고 거리가 있는데 내가 네 학생들 내가 뻗어 오겠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나 가끔 웃도 한 벌 사주고 밥도 한번 사줘. 제가 하는 얘기가 웃은 필요 없고 근데 또 하나 나가 내가 클래스 하기 때문에 도장을 못 배워 그렇지만 너희가 그런 자체로 나를 이용해서 써먹어 봐. 말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말이 틀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여자 인구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그 아직까지는

225. 면담자 2:11:21 음...

226. 구술자 2:11:22 그러니까 도복을 내가 왜 입고 있어? 말하자면 그런데 어떤 때는요 다 쉬고 싶어 정말로 개척자는 외롭고 힘들다는 거 아시죠? 나 진짜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아쉬웠던 게 한번 여기 국내대회를 왔는데 심판들이 꼭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이렇게 스탠드에 앉았어요. 그러면 그 심판들 중에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다 있는데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 심판 분장 담당관이 저를 부르고 제 생각에 그 심판들한테 다 내 아래야 아래야. 그러면 김영숙 사범님이 국제심판 1호다. 너희들 격려 좀 하자고 다 일어나서 서로 이치하자 인사하는 그게 얼마나 보기 좋았어요. 그걸 모르더라고 심판하는 그게 뭐냐 이게 든게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나 그렇게 책을 읽었던 사람이 지금은 못 봐 눈이 안 보여요. 잘. 그러니까 기본은 배워야 돼. 의사가 칼 잘못 들면 어떻게 돼 우리 이거 왜 가르켜 너 호신술 하고 나쁜 일을 당할 때 네가 가서 막아주고 봉사해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널 따라와. 내가 사범이라는 거는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을 받는 거야. 똑같이 이러면 안 돼 말하자면

227. 면담자 2:12:51 사범님 그 말씀은 기독교 정신인데-

228. 구술자 2:12:54 아니 그거 아니래도 기독교 아니래도 사랑하면 되는 거야. 내가 손해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기독교 지금 많아지고 있잖아.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주지 안 그런 사람은 기도 안 해주죠. 내가 그랬잖아. 나 아픈 걸 아는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은 기도를 해줄 거고 아닌 사람은 속된 말로 막 뒷발 할 거다. 제가. 그러니까

229. 면담자 2:13:18 사범님 우리가 이제 오늘 이 긴 시간 인터뷰는 이제 태권도진흥재단에서 본 사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인터뷰에 응한 사범으로서 우리 진흥재단에 한 말씀 좀 남겨주시죠.

230. 구술자 2:13:38 감사하게 생각하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이랬어. 저기 박물관장님한테 나 아프기 전에 죽기 전에 다 써먹으라고 내가 시합장 가면요.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3천 명이 왔는데 미국은 체육관을 빌리잖아요. 그런데 학부형이 반이야. 그런데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쓰는데 3천 명 이상 되면 안 된다는 계약서를 써요. 그러면 어떤 아이 하나의 부모가 하나 오는 아이 3명 4명 오는데 샴을 하고 있는데 토너먼트 드래퍼가 과장님 어떡해요? 지금요 삼천 명이 넘었다고 이 사무실에서 셔터 내리는데 전기 끈대요. 그래서 바보같이 이리 와 봐 어떡하나 하면 아침에는 오전에 일부에 품새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쉬지 않고 그다음에 스팅 들어가 그러면 품새 끝난 아이들한테 사범을 시켜서 공기도 좋고 그러니까 나가게끔 하

면 죽 아이들이 따라오면서 학부형이 따라 나가 그럼 3천명이 안돼. 네 그러니까 저는 시합장 가도요. 그 사범들이 이래 사범님은 오셔서 앉아만 줘도 좋겠대. 이걸 내가 그랬잖아. 초콜릿도 가져라! 풀 줘라! 바닥 닦아줘라. 이게 보이는 거야. 나도 모르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231. 면담자 2:14:59 사범님이 그 감각의 능력이 굉장히 좀 탁월하신 그런 영역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여간 오늘 우리 사범님하고 긴 시간 오랜만에 뵙고 인터뷰를 했는데 사범님 늘 건강하시고 또 현장에서 이렇게 도복 입은 현역으로 남아계시고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현재 태권도 사범을 하고 있는 분들이나 또는 하려고 하는 그런 미래의 후배들에게 아마 큰 메시지가 되고 울림이 되고 또 본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범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32. 구술자 2:15:44 그래서 도와주세요. 제가 아직도 활동할 수 있게끔 제 주변을 도와줘야 돼. 그러면 내가 나 사실 국기원 그래 세계연맹은 경기 단체니까. 그러나 여기 무주에 와서 정말 예를 들어난 올 수는 없지만 와서 일주일이라도 그렇게 하고 여자들 학교에 여자 선생님들한테 이걸 물론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하는데 여자는 여자가 좀 봐줘야 되는 게 또 있어. 그러니까 날 써 먹어라 이거야.

233. 면담자 2:16:19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은 아마 진흥재단에서 또 후속 작업을 할 것 같고요. 사범님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234. 구술자 2:16:30 제가 실수를 했더라도 이해해주시구요

235. 면담자 2:16:32 아 별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36. 구술자 2:16:35 감사합니다.

주요 색인어	여성연맹	여자사범	김영숙	관장	도복
	이화여대	김운용	태권도장	여성지도자	대사관
	위협한영웅	태권도영화	최초여자도장	지도자	여군
	여성전용도장	학부형	남영동	예의	미국도장
	어민규	해외파견	LA태권도장	김운용	미국태권도협회
	남영동	최초여성심판	여성태권도부	국가대표	한영태

녹취록 본문

과제명	여성태권도인 구술채록		
구술자	남궁명석	면담자	이영림
녹취자	이영림, 김기범	시간	105분 24초
면담일시	2024년 7월 23일	면담장소	DMC다락스튜디오
파일명	Oh_24_남궁명석_01.mp4		

<file:Oh_24_남궁명석_06 녹취록 공개본>

1. **면담자 00:00** 사범님 안녕하세요? 네 본 인터뷰는 태권도진흥재단 국립태권도 박물관 태권도 진흥자원 3차 아카이브 여성 태권도인 구술 채록 사업인 일환으로 수행하는 면담입니다. 일시는 2024년 8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이며, 미국 현지시간은 8월 11일 오후 9시로 장소는 DMC 첨단산업단지 다락스튜디오에서 화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구술자는 남궁명석이며 면담자는 이영림입니다. 지금부터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범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거기는 일요일 저녁시간. 네 지금 거기는 일요일 저녁 시간이지요?
2. **구술자 00:52** 네 네
3. **면담자 00:53**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까마득한 후배인데 사범님한테 대사범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사범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어떻게 호칭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그래도 그러면 아무래도 짧게 사시는 것 같아서 사범님이 대사범님이면 되게 연륜이 있어 보이시니까 제가 사범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럼 사범님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사범님의 업적과 경력을 찾아보고 많이 감탄하면서 신기하면서도 궁금한 점이 매우 많았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사범님의 소중한 업적과 경험을 직접 듣고 많은 것들을 공급해서 그거를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이 기회를 얻어서 경험을 직접 듣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4. **구술자 01:58**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5. **면담자 02:01** 네 그러면 사범님이 여성 태권도인으로서 걸어오신 그 과정을 마주하면서 도전과 경험들을 현재 성공에 이르기까지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구술자 02:15** 시작한 것부터요?
7. **면담자 02:18** 네 지금 네! 아니요. 과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 **구술자 02:23** 네 물어보세요.
9. **면담자 02:25** 먼저 사범님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사범님은 언제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10. **구술자 02:35** 서울 용산구 이태원 2동에서 태어났어요.
11. **면담자 02:41** 그러면 가족 구성원 관계는 어떻게 되셨나요?
12. **구술자 02:47**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우리 4형제 4남 2녀예요.

13. **면담자 02:57** 그러면 부모님은 어떤 분이요 어떤 환경에서 자라셨나요?
14. **구술자 03:03** 우리 아버님은 사업을 하셨어요. 옛날에 60년도에 쌀 장사를 했어요. 쌀집 딸이에요
15. **면담자 03:17** 그러면은 그 옛날에 쌀집이면 잘 살지 않으셨나요?
16. **구술자 03:23** 좀 이쪽에서는 유지였죠!
17. **면담자 03:26** 그러면 아버님이 좀 엄한 성격이셨어요? 그래도 딸이라서 좀 이해해 주셨나요?
18. **구술자 03:38** 우린에 4남 2녀였지만 저희 아버님도 운동을 하셨고 옛날 그 당시 때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오픈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래서 이 시대에는 여자도 운동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시켰어요.
19. **면담자 03:59** 그러면 그 시절 어린 시절에 사범님은 아버님이 오픈 되셨지만 사범님의 꿈이나 목표가 무엇이었나요?
20. **구술자 04:09** 그 당시 때도 나는 태권도를 내가 한 거는 몸이 약해서 했지만은 태권도를 하면 내가 태권도에서 시작 그런 거는 몰랐고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거는 몰랐지만은 나도 사범이 멋진 사범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은 있었어요. 처음부터
21. **면담자 04:34** 그러면 그 시절에 그럼 사범님은 그 시절에 학교 국민학교 그때도 국민학교였나요? 그러면 국민학교였어요.
22. **구술자 04:44** 국민학교 5학년 때
23. **면담자 04:45** 그러면 초등학교 학교를 학창 시절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24. **구술자 04:59** 이태원 국민학교 나왔어요.
25. **면담자 05:05** 그럼 그리고 중학교는 중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그럼 가셨나요?
26. **구술자 05:19** 신광중학교, 고등학교는 숭실
27. **면담자 05:21** 그 시절에 여자는 학업을 이어가기가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 사범님은 다 하셨네요?
28. **구술자 05:29** 그리고 대학교는 그때 인천체전 워낙에 그때 내가 경희대를 들어 가려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경희대 선배들이 말성을 일으켜갖고 경희대 태권도부가 없어졌어! 그 시절에 그래 가지고... 네 그래서 그 시절에 나는 그 운동을 그 시절에 해병대들하고 했거든요. 해병대답하고
29. **면담자 06:02** 그러셨군요. 그러면 어린 시절에 태권도 말고 어떤 놀이를 하면서 노는 걸 좋아하셨어요?
30. **구술자 06:09** 나는요 톰보이였어요. 톰보이
31. **면담자 06:13** 갠보이요?
32. **구술자 06:16** 톰보이 그건 이제 보편적으로 톰보이라는 거는 그냥 남자들하고 운동을 하고, 남자들하고도 막 신진도 하고 말타기도 하고 또 뺨이치기 딱지치기 그런 거 다 하고 전생놀이 하면 내가 1등 해야 되고, 칼 싸움하고 그래서 옛날에
33. **면담자 06:45** 어렸을 때 좀 허약하다고 하셨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많이 톰보이하고 놀으셨나 보네요.
34. **구술자 06:53** 허약하면 몸은 저기 약했어요. 근데 굉장히 터프하게 놀았지! 노는 거는 내 나이도에서 나를 이기는 사람이 없었어. 싸움으로 싸움답이었어.
35. **면담자 07:09** 그러셨구나... 그러면 사범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사진을 보면 “태수도” 라고 적혀 있는데 그 시절에는 태권도가 아니라 태수도라고 했나요?
36. **구술자 07:22** 네 태수도, 태수도로 해서 태권도로 바뀐 거예요. 그게

37. 면담자 07:29 그럼 지금은 태권도가 저희한테는 익숙한 용어이고 용어의 통일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질문에서는 태권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린 시절에 태권도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38. 구술자 07:50 태권도를 처음 봤을 때는 어떻게 지나가다가 태권도 도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 같고 이렇게 보니까는 아주 그냥 저한테 딱 맞더라고, 저런 저런 게 있었나? 운동도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39. 면담자 08:11 그럼 이태원에 있는
40. 구술자 08:14 집에 바로 가! 가지고 우리 뭐야 아빠한테 그 당시 때 우리 아버지한테 나 태권도 한다고 그래, 같고 이제 쌀집을 하나 태권도 회의비를 갖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나는 돈을 썼거든. 그 당시에 그냥 돈통에서 꺼내가지고서 그냥 입단시켜가지고 내가 그때서부터 했어요.
41. 면담자 08:39 그때 흑시 도장 비용이 얼마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42. 구술자 08:46 뭐 그때 당시에 우리가 50원? 회비가 60, 50원? 100원? 그렇게 받는 데가 많았어요.
43. 면담자 09:03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바로 태권도장에 들어가서 태권도를 하게 되신 거였나요?
44. 구술자 09:09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울지로 상가에, 옛날에 본관이 있어요. 한국체육관이 라고 우리가 한체라고 그러는데 한체에 가죠 이제 운동을 했죠. 거기서
45. 면담자 09:24 그럼 이태원 도장은?
46. 구술자 09:26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다 그냥 그 당시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 거기 와서 했으니까, 운동을 그 공간에서 많이들
47. 면담자 09:37 그럼 그러니까 거의 메인으로 운동하는 데가 한국태권도에서 하신 건가요?
48. 구술자 09:44 예 한국체육관이라고 돼 있었어요. 왜냐면 거기는 종합도장이었거든. 종합도장에서 이제 태권도 펜싱 유도 레슬링 웰리딩 그다음에 그런 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이제 내가 딱 가니까는 이제 하는 걸 보더니 우리 사범님이 그때 당시에 회비 내지 말고 그냥 와서 해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49. 면담자 10:19 근데 그때 들어가셨을 때는
50. 구술자 10:22 집이 어디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저기 삼각지 지나서 이태원이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너 그냥 와서 그냥 운동만 하라고, 그랬더니 바로 그냥 그 당시 때 이병로 사범님이 계셨었는데 이제 제가 미국에 막 오고 나서 들어가셨어요.
51. 면담자 10:50 그러면 처음 가르쳐준 스승님이 이병호 사범님이신 건가요?
52. 구술자 11:01 이병로사범님이었었어요.
53. 면담자 11:03 그러면
54. 구술자 11:05 한국태권도협회에서 그분이 사무차장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무총장은 이제 엄윤규 관장님이었었고 그 양반은 이제 사무처장인가 아마 그 당시 때 때에도 잘 기억이 안나요.
55. 면담자 11:28 그러면 사범님 처음 들어가셨을 때는 그 도장에 여자가 많이 있었나요?
56. 구술자 11:36 우리가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딱 한 명씩 또 그 양반이 45년생인데 권옥희라고 권옥희 사범님 권옥희 사고 있는데 그 양반이 최초로 한국 여성으로 최초로 외국을 갔었지. 상으로. 근데 이제 결혼하고 4년 4단까지 다 그만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계속 올라가고
57. 면담자 12:14 그럼 사범님이 처음 태권도를 수련한 환경에는 어땠으며 그때의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58. 구술자 12:25 그때는 참 서러움을 많이 받았어요. 여자로서 선배들이 다. 이 계집애가 운동하면 뭐 하나고 그리고 똑똑 집에서 살림하라고 그리고 그게 그리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제 여자 탈의실이 없었다고요. 그 당시는 그냥 막 벗으라고 그리고 그래 남편이 도복 팔아 입고 막 그랬었거든. 그 당시 때는 안 되잖아.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지도가 공간이었으니까는 거기 이제 탈의실을 갖다가 하나 조그만 걸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입었지.
59. 면담자 13:06 처음 태권도를 시작한 게 그럼 몇 살이신 거예요?
60. 구술자 13:12 한국 나이는 그러니까 11살 12살
61. 면담자 13:16 앞으로 5학년 그러니까 5학년. 네. 제가 기사로 봤는데 5학년 때 시작하신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5학년 네. 한국의 학년으로 5학년. 음 네 그러면은 수련은 시작하셨고 선수 생활을 시작하신 거는 어떤 계기로 선수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경기를 시작하게 될?
62. 구술자 13:43 남자들이 이제 시합을 많이 나가니까 나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 도장에서 뭐 이렇게 남자들이 대련하고 그래도 그때 당시 때는 겨루기지 대타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대타 대타하라고 그랬다가 대련이라고 그랬다가 그다음에 이제 경기를 많이
63. 면담자 14:02 대타 대련 겨루기
64. 구술자 14:05 맨 처음에는 대타라 그리고 그다음에 대련이라고 그러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겨루기로 바뀐 거예요. 명칭이 이제 겨루기하는데 나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 갖고 해다가 이제 남자들 왔는데 이제 나한테 게임이 안 됐거든 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왜 우리는 시합이 없냐? 그래서 내가 이제 시합을 나갔어요. 시합을 그 당시 때 나갔는데 남자들 내가 다 내가 얼굴을 차 가지고 하나 KO를 시켰어. 그 당시 때 그러니까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냥 딱 그쪽에 반대편 사범하고 그 학부모이 여자를 갖다가 왜 여기 시합에 보내서 망신을 시키냐고 막 그래가지고 경기가 중단됐어. 나중에 못하게 해가지고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킥플랜을 했지. 협회에다가 그럼 우리가 하나 만들어줘라 그래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게 시합이
65. 면담자 15:13 그런데 그러면 그때는 지금은 남자 여자가 경기가 나뉘져 있고, 체급이 나뉘져 있는데 그럼 그 사범님이 나가셨을 당시는 남자 여자가 경기를 같이했나요?
66. 구술자 15:27 맨 처음에는 같이 했죠. 그거는 같이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임원들하고 그냥 높은 분들이 그 당시 때 각 관장님들이 다 이거를 하셨으니까,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마는 한분? 아마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 당시는 그래가지고 더 이상은 안 된다.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차가지고 저렇게 KO시키냐? 고 이거 창피당하다 그래가지고 stop 했어. 경기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런 우리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 갖고 전국 체전이 그때 이제 여자를 전국 체전이 그때 생긴 거야. 그럼 나는 66년도에 이미 시합을 나갔었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67-68년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세히 지금 모르겠어. 상장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지금 어쨌든 그래가지고 1회 때 2회 때 3회 때하고 이제 최우수 선수까지 내가 도를 했어요. 우승을 그때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고 그러니까 중량급 경량급 중량급 그런 식으로 있었어.
67. 면담자 16:52 두 가지로
68. 구술자 16:53 어
69. 면담자 16:55 그럼 2부로 나뉘워서
70. 구술자 17:01 그 당시 때는 이제 이미 이제 티네이저가 됐으니까 티 레이저 때는 전부 다 남자들 하고만 했지, 운동을 해병대팀이랑 같이했어. 해병대 창선 템버들하고
71. 면담자 17:19 그럼 군인들이랑 같이 운동하신 건가요? 군인들 군인들이랑 같이 훈련하신 건가요? 그럼, 군인들이 체육관으로 와서 훈련을

72. 구술자 17:32 그 군인들 그렇죠. 군인부대 해병대 팀들이 저기 한국체육관에 와서 했거든 a b 급이 왔는데 나는 a급들하고 같이 운동을 했어요.
73. 면답자 17:48 그러면은 그때도 지금처럼 몇 분 3회전 이렇게 해서 경기나 이런 방식이 동일했나요?
74. 구술자 17:57 그러니까 중량급 경량급 그거 있었었다니까 옛날에 두 체급밖에 없어서 중량급 경량급 단체전에서도 단체전에서도 몸무게 따는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뽑아서 나오는 거예요. 다섯 사람이 나와가지고 시합을 하면은 그냥 두는 게 그 사람 초대예요.
75. 면답자 18:19 그러면 그때 그럼 지금 개인전부터 얘기하면 3회전 동일하게 3회전 한 건가요?
76. 구술자 18:29 그렇죠. 그 당시 때는 2분 2회전
77. 면답자 18:34 2분 2회전 그리고 단체전이 그때 있었어요?
78. 구술자 18:41 단체전도 있었죠. 단체전은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단체전 할 때는 우리는 지금같이 경희대 무슨 대 그런 게 있는데 그치면 그러니까는 해병대팀 육군팀 해군팀 공군팀 그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체육관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판으로 나갔어요. 무척관 지도관 창무관 이런 식으로 지도관 이런 식으로 나갔지! 급으로 나간 게 없어요.
79. 면답자 19:21 그러면 그때는 솔직히 말하면 성인들이 훨씬 많이 수련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시네요.
80. 구술자 19:30 무척 많았죠.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어린이들은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다들 고등학교 이상씩 다들 돼 있었고
81. 면답자 19:42 그러면 그때 그 정도면 사범님은 거기서는 나이가 어린 편에 속하셨겠네요. 선수 중에서도.
82. 구술자 19:50 선수는 내가 a급이었었죠.
83. 면답자 19:53 그럼 나이도 어린 편이었겠네요. 나이가?
84. 구술자 19:58 그렇죠. 나이가 어리고 여자고, 또 몸무게도 가벼웠지만 실력이 최고고 수비도 하고 그런 거니까 몸무게 빠지는 게 아니고
85. 면답자 20:19 그러면 사범님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한 게 보내주신 사진에서 보면 호구 입고 찍은 사진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면 네 호구 입고 있는 사진이잖아요. 이 사진이 그럼 경기 복장이신 건가요?
86. 구술자 20:37 그렇죠. 그것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87. 면답자 20:39 그러면...
88. 구술자 20:41 그거밖에 없었어요. 우리 시작할 때는
89. 면답자 20:45 헤드기어
90. 구술자 20:47 그런 게 아니고
91. 면답자 20:48 그러면 맞으면 정말 아플 텐데
92. 구술자 20:55 그 안에 그 호구 안에 대나무가 들어가 있었다고요. 우린
93. 면답자 20:59 이게 지금 대나무 호구인가요?
94. 구술자 21:03 네 속에 스펀지 같은 거 넣은 게 아니고, 대나무예요. 대나무로 했는데 진짜 실감 나요?
95. 면답자 21:15 그럼 소리가
96. 구술자 21:20 이렇게 소리가 그냥 한 번 차면 실감 나죠! 한번 잘못 차면 발 나가고(웃음)

97. 면답자 21:27 그러면 그때는 아대하고 이런 거 전혀 없이
98. 구술자 21:35 마디는 우리가 들어온 거 전혀 없고 좀 얇은 사람들은 가서 살 그런 데 가가지고 추구할 때 쓰는 거 이거 돼 있는 게 있었어요. 이 대나무 만든 거 옛날에... 그것도 그것만 했어요. 그럼 이게 한 것 같아요. 그것도 돈 없는 사람은
99. 면답자 21:59 못하는 거죠.
100. 구술자 22:00 쓰지도 못하고
101. 면답자 22:04 그러면은
102. 구술자 22:05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당시 때는 뭐 도복 사는 것도 사람들이 힘들었으니까 그럼 경기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못 사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나 그거 사가지고 가서 시합 끝나고 딱 걸어놓으면 없어요
103. 면답자 22:29 그때는 진짜 그러시나 사진 뒤에 보면 도복 이렇게 이쁘게 접어가지고 뒤에 다 걸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없어 새거나 좋은 것들은 없어진다는 얘기신 거네요.
104. 구술자 22:43 내 거는 잘 없어졌어요. 이거 그리고 시합 끝나면 다 뺏어가고 벨트니, 뭐니 다 가져갔어! 그 당시에
105. 면답자 22:56 그때는 그때 도복은 광복이었죠. 지금처럼 도복이 좋은 게 아니
106. 구술자 23:04 그렇죠. 옛날에 꼭 포켓자루 같은 거지 뭐 근데 그때 당시 때는... 근데 나는 좋은 거는 맞춰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66년도서부터는 66년도부터는 협회에서 나한테 도복을 이렇게 뭐지 스폰서 해가지고 나는 받았어요. 그때 당시 때 이제 이제 협회 시범단 초창기 시범단이었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다 이제 1년에 두 번씩 나오는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체육사에서는 가면은 나는 그냥 이렇게 산 우산이 옛날에 교복 하는 데서 공짜로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 그때는 또 이제 이제 그 당시 때는 내가 이제 이름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이제 등등 이름이 있었으니까는
107. 면답자 24:14 지금 국가대표 후원해 주는 것처럼
108. 구술자 24:17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는 받았어요.
109. 면답자 24:22 그래서 제가 이력을 보니까 1970년대 국내 최초 여자 우수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셨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 훈련을
110. 구술자 24:36 68년도인가 69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첫째가 그다음에 70년도 이런 식으로
111. 면답자 24:47 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기사에는 최초 여성 우수선수를 차지했고 그래서 거기 에 사범님 기사가 이렇게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최초 여자 우수 선수권대회였고 여기에 우승자는 남궁명석이다! 해서 사범님 사진이랑 이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기 훈련은 어떻게 했고 이 대회에서 에피소드가 있으시며 어떤 것들이 있으셨는지 최초 여자들만 모인 그러니까 사범님 말씀대로 그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여자들이 보이는 우수 선수권대회였으니까 어땠는지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기억나시는 대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12. 구술자 25:32 시합이야 뭐 이거 뛰는 거니까. 근데 이제 나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 나보다 키가 컸었어요. 그 사람이 배구선수였나 아마 그럴 거예요. 배구선수인가 한 농구 선수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보다 머리 하나만. 근데 내가 키가 작으니까 안 되니까 봉 떠가지고 내가 친 게 그게 지금 저 미국 볼렉벨트 메거전에도 나온 게 있다고... 옛날에 얼굴 얼굴을 차니까 얼굴 차고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사람이 약이 올랐는데 확 밀려더라고요. 에피소드야 뭐 많죠
113. 면답자 26:20 그러면 훈련은 거의 그러면 훈련도 그때까지도 울지로에 있는 태권도장에서 계속 하신 거였나요?
114. 구술자 26:30 미국 올 때까지는 나는 울지로에서 했어요. 울지로3가에서

115. 면답자 26:37 그때 이 기사에서는 보면 그때 6년 우리 때는 뭐 수련 뭐 이런 게 아니라 서생인 데 거기 기사에 보니까 2단이었고 6년 수련생이 우승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얼마 안 되셨고 그러면 한 고등학교 1학년 때 최초선수권대회를 나가신 건가요?
116. **구술자 27:05 그때는 이제 그때가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그때 시합을**
117. 면답자 27:12 그래 선수 때
118. **구술자 27:14 다른 사람들은 1년 2년 한 거고 나는 이제 좀 더 오래 한 거고 그래요.**
119. 면답자 27:19 그래서 지금 사진이나 기사를 보면 정말 너무 옛되었어요. 사범님! 그래가지고 그 게 사진을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사범님 그러면 한창 선수 하셨던 68년 67년 69년 70년도가 여성으로서는 2차 성장이 이루어지고 월경을 할 때잖아요. 여자들은 그런 사범님 말대로 보호 장비도 없는데 그 시절 여성용품이 잘 나오지도 않았는데 여성으로서 곤란하고 난처했었던 적은 없었는지 여쭙봐도 될까요?
120. **구술자 27:59 그때는 이제 내가 17살 때니까 17살 때인데 이제 또 이 미8군을 내가 참 잘 다녔어요. 그 당시 때에 왜냐하면 친구가 지금 여기 에일랜드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는데 그 친구가 우리 친구가 미8군 학교에 다녔었거든. 그래 같이 다니면서 이제 하면은 여성으로서 이제 이제 뎀스를 하고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바깥에는 없었어요. 그냥 있었어**
121. 면답자 28:37 맞아 맞아 그래도 우리는...
122. **구술자 28:40 그 당시 때는 이 안으로 집어넣는 게 있었어요. 나는 조금 고급스러워 가지고 그 당시 때에는 미제라고 그랬지. 미제**
123. 면답자 28:54 맞아요. 네
124. **구술자 28:56 미제는 미제를 다 쓰고 했어.**
125. 면답자 28:59 그래도 우리가 도복이고 운동을 하면 그 날짜도 겹치고 막 이러니까 사범님은 그냥 일반 여성이 아니라 운동을 하시고 다리를 돌려차야 되고, 이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난처했었던 적이 있고, 도복은 금방 번지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네 그런
126. **구술자 29:21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돈복도 꼭 두 개를 갖고 다녔어요. 그럴 때는 그죠. 그리고 이제 같이입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실수를 할 때도 있었어요. 빨리 나와서 이제 같이입어야지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127. 면답자 29:37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아무래도 여성이고 저희 때는 많았지만 사범님이 아까 말대로 여성이어서 좀 힘들거나 사람들이 고정관념도 있었을 때고 저희보다 더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 여성이어서 태권도 수련을 하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거나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 시절
128. **구술자 30:03 힘들었죠. 그 당시 때는 왜냐하면은 야 여자가 뭘 해? 그리고 이제 괜히 와가지고 이제 운동하자고 그러면 괜히 툭! 치고 그래 그러면 악착같이 앓으면 달려들었지, 뭐 이제 우리 해병대 이제 이제 선배들하고 막 하는데 어떨 때는 일부러 안 봤죠.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은 안 받아가지고 저기 하면은 막 자꾸 약이 올라가지고 탈의실에 와서 막 영영 울고 그랬어! 그러면 우리 사범님이 불러다가 또 이병만 사범님이라는 분이 그냥 이 알밤을 그렇게 때렸다고요. 이제 또 이제 또 그만큼 또 운동을 했으니까 이제 그래도 참 이 선배들한테는 귀여움을 많이 받았어요. 귀여움을 내가 많이 받은 편이야 왜냐하면은 악착같이 해서 실력도 그 당시 때는 시범이라든가 품새라든가 겨루기라든가 그런 거를 나는 누가 나 싸우는 거를 내가 용납을 못했으니까**
129. 면답자 31:16 느껴지시는군요.
130. **구술자 31:18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악착같이 하려고 그러고 하루에 6시간 8시간씩 했는데 뭐 나도 진짜 많이 있어요. 시간 거기서도 하고 또 학교에 가서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

131. 면답자 31:35 학교에서도 팀이 있으셨나요?
132. **구술자 31:39 아니 그거는 이제 대학에 가서 한 거고**
133. 면답자 31:44 그러면 지금 도복을 입고 찍은 단체 사진은 체육관의 지도관 단체 사진이신 건가요?
134. **구술자 31:52 그것도 있고, 어렸을 때도 있어요. 이것저것 있는데 나는 어디 가도 그런 거 생전 안 갖고 다녀 사진 같은 거 절대 안 갖고 다녀요. 난 이거에 도장을 해도 딱 내 단종 하나 딱 걸어놓으면 그만이에요.**
135. 면답자 32:06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단체 사진 도장에서 찍은 도복 입은 단체 사진은 네 지금 어디서 찍은 사진인가요?
136. **구술자 32:17 그거는 저거예요. 그거는 대표 선수 했을 때 대표팀이에요. 이게**
137. 면답자 32:24 근데 유일하게 여자는 사범님 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면 네 연습 상대는 누구랑 하셨어요?
138. **구술자 32:34 뭐 남자들이랑 했죠**
139. 면답자 32:36 계속 남자들이랑만 하신 건가요?
140. **구술자 32:41 나하고 할 때는 나하고 상대할 여자가 없었어요. 아예 없어 가지고 아예 없어가지고 나는 남자들하고만 했지! 여자들하고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운동을**
141. 면답자 32:57 그거 아무래도 실력 향상에 더 도움이 되셨다고 보십니까?
142. **구술자 33:01 당연하지**
143. 면답자 33:05 그러면 여성 태권도인으로서 어디 지금 국내나 국외에서 활동하시면서 겪은 성차별에 대해서는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없으셨는지 여쭙봐도 될까요?
144. **구술자 33:20 그때는 많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협회에서 이제 일을 하고 그랬을 때 그 당시에 태권도 협회하고 지도관 공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는데 그게 차이가 뭐냐면은 대표 선수를 그렇게 하고 시범단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외국 갈 때만 때는 거야. 그래서 아니 어떨 때는 홍일점 홍일점 해놓고서 부러 먹을 때는 인제고 외부로 나가고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을 때는 왜 뺏냐고 여자니까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좀 좀 나쁜 말로 할게요. 이런 게 같은 경우가 어디 있냐고? 실컷 언 여자라고 하면서 부러 먹으면서 시범도 가고 태권도 해갖고 순전도 다 그렇게 해놓고 막상 나한테 기회가 있어서 외국에 갈 때는 나는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차별을 하는 게 여자라고 차별하는 게 어디 있냐고?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해서 옛날에 협회하고 지금 저 뭐야 테니스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내 생각이나 부러 먹고 그렇게 해놓고서 말아야. 나도 이 태권도 발전에 진짜 한몫한 사람이에요. 우리 김정원 회장님 회장 되기 전에도 같이 나가서 인터뷰하고 시범하고 TV 방송국 나가고 막 그랬거든 그때 당시 때**
145. 면답자 35:03 그러면 협회에서도 일을 하셨었나요?
146. **구술자 35:07 끝고 나가서 직접 하고 그랬죠. 시범단이었고 하니까 대표 선수였으니까**
147. 면답자 35:13 저도 협회의 행정을 봤던 사람으로서 그러면 사범님이 또 여성 태권도 행정으로 1호이네요?
148. **구술자 35:22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하고 내가 심판 교육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외국인 사범 자격증하고 그다음에 우리 3기 지도자 교육하고 그 내가 제일 먼저 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 때는 아무래도 처음 근데 이제 나와서 나중에 걸 나중에 한 거지**
149. 면답자 35:57 그래서 지금 또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면 외국인하고 악수하는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150. **구술자 36:08 그제 준공식이에요. 그제 국기원 그제 준공식인데 그때 당시 때에 김윤용 회장님이 이렇게 취임해 가지고 얼마 안 돼 가지고 외국 사람들을 부르는데 그분들이 누구냐 하**

- 면 좀 늦은 사람들이예요. 아씨 멤버도 있고, 또 거기에 미국에서 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이제 내가 대표 선수 했을 때 시범 끝나고 약속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게
151. 면답자 36:53 저희한테 까마득하게 그냥 지금 국기원이 오래된 곳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준공식에 그럼 사범님이 시범을 보이신 거네요?
152. 구술자 37:03 그렇죠. 그때에도 대표 선수니까
153. 면답자 37:11 그럼 그 옆에 있는 분이 제가 보던 대로 김운용총재님 지금 고 김운용총재님이 맞으신 거네요. 너무 젊으신 사진이예요.
154. 구술자 37:24 그분이 회장 되면서 이제 이 지면서 이제 준공식 하면서 그거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전에 이제 회장 되기 전에는 네, 같이 나가서 이제 시범을 하고 이제 있긴 이제 그분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통역관료셨군이 그러거든 그 당시 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유경숙 여사 일 터지고 나서, 서거하시고 나서 이제 박정희 비서실장이고 또 실장이고 뭐고 했을 때 이제 임시 이제 이제 그런 흥기를 당했으니까 유영숙 여사랑 그러고 나서는 이제 조금 계셨을 때 이제 태권도 협회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 그분이 전에 이제 우리가 민물 작업을 다 했지 같이 이 회장으로 하고 그랬을 때 이제 같이 다니면서 이제 내가 같이 한 거예요. 일도 하고 시범도 하고 막 그럴때
155. 면답자 38:30 지금 한국에는
156. 구술자 38:31 각 관장들이 그때는 여자들이 없었지 많이
157. 면답자 38:39 그러니까요. 지금은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 그리고 아시아태권도연맹 전부 시범단이 있어요. 국기원 이렇게 해서 각 기관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여자 시범단원들이 있는데 그러면 정말 사범님은 또 여기에 여자 시범단원 한국의 여자 시범 최초 시범단원인이거나 마찬가지로 시네요. 정말로 그러니까요. 사범님이 진짜 여자 단원 1호, 여자 시범 단원이셨네요. 이런 거를 저도 처음 듣고 뵈게 돼 가지고 정말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사진! 네 지금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사범님 제가 신기해서 그리고 이제 옷깃의 옷깃이랑 메달 선의 색깔이랑 같이 가지고 계속 봤는데요. 메달이 목에 4개나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종목인지 여러 종목이 있고, 어떤 이 기념사진 촬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158. 구술자 39:54 그게 이제 여자 전국 체전 그게 1회 2회 3회 그다음에 이제 최우수할 때 그거를 하면서 방송인가 뭐 어디에서 나에 대해서 그거를 내가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낸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달
159. 면답자 40:18 그러면 지금 인터뷰하면서 기념 촬영으로 찍게 된 사진이신 거네요.
160. 구술자 40:25 그 당시에 근데 정확하게 어던지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오래됐으니까 벌써 50년 전에 이제
161. 면답자 40:36 그러면 그때도 그러면 그때 솔직히 사범님은 많은 인터뷰나 매스컴을 매스컴이 많이 없어도 많이 인터뷰나 그런 게 타셨나요?
162. 구술자 40:49 그때는 여성 잡지 그런 데서 내가 탐으로 나온 게 있어요. 탐으로 어디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여성 해가지고 스포츠 그거 해갖고 나온 거 있고, TV KBS MBC 그런 데 많이 나간 게 있어요.
163. 면답자 41:12 그리고 또 다양하게 또 어디 또 다양한 활동하신 게 있으신가요?
164. 구술자 41:18 그럼 이제 한 거 있고, 김동건 아나운서하고도 몇 번 하고 그다음에 돌아가신 송해 동생 백화점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있어요. 아니 태권도를 대표해서 내가 많이 나왔어요.
165. 면답자 41:40 정말 그 시절에 그러면 태권도 진짜 홍보대사셨네요. 근데 외모가 사진으로 봐도 아

- 주 아주 사진으로 봐도 너무 서양인 이목구비에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래서 인형 같으셔서
166. 구술자 42:00 지금은 늙었어요.
167. 면답자 42:02 그래서 진짜 그래서 지금 앞서 말한 대로 정말 최초 1회 이런 앞에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사범님이 한국의 첫 여자 국가대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도부터 하신 건가요?
168. 구술자 42:21 국가대표 선수여? 그때는 내가 처음으로 해가지고 그때는 국가대표 선수 뭐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외국에서 누가 오면은 내가 대표로 나가서 같이 하고, 이제 옛날에 월남에서도 또 월남인가 또 누가 월남 여자들이 와가지고 처음으로 한국에 와가지고 시합할 때도 내가 나가서 하고 시합이라고 할 수도 없지! 뭐 그거야 뭐 그 당시 때는
169. 면답자 43:00 그러면 그때는 국가대표 그럼 국가대표 선발은 안 하고 사범님밖에 없으니까, 사범님이 거의 해외에 나오면 아 근데 사범님이 은퇴하기 전까지도 이제 기사를 보면 사범님이 은퇴하기 전까지도 사범님이 은퇴하셔야 다른 선수들이 메달을 딸 수 있다. 그래서 사범님 선수 생활이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사범님이 본격적으로 은퇴하신 선수 생활은 언제까지 하신 건가요?
170. 구술자 43:35 12년도에 내가 완전히 은퇴를 했어요. 70년도인가 71년도인가 그래서 대표 선수 생활은 72년도에 그만했어요. 내가 그리고 나서 이제 안 한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제1회 월드컵을 했어요. 한국에서 근데 나보고 이제 코치를 하더라도 코치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때... 내가 코치하면 누가 또 감독이예요? 그랬더니 이제 김영숙 사범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때... 그래서 아니 후배가 어떻게 코치를 하고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내가 선배인데 내가 어떻게 코치를 하고 재는 어떻게 감독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재능 운동을 못하니까 내가 코치를 해야겠다고 그랬어. 그랬어. 아니 나 기운 나빠서 안 한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그만두고 내가 지도자 교육 3급 받고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니면서 졸업하면서 바로 미국에 간 거예요.
171. 면답자 44:43 그러면 지금 류리닝 입은 사진 네 지금 류리닝 입은 단체 사진이 보여드리는데 그 당시 국가대표 그럼 단체 사진인가요? 이 류리닝 입은 단체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172. 구술자 44:56 그거는 이제 태권도 협회 시범단 대표 선수
173. 면답자 45:03 이게 시범단 단체 사진이신 거구나 그러면
174. 구술자 45:10 국기원하고 태권도 협회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때는
175. 면답자 45:15 그러면 이게 그럼 이게 지도자가 누구셨어요?
176. 구술자 45:21 지도자는 또 따로 있어요. 내가 여기 사진이
177. 면답자 45:26 그러면은 그때 특별히 기억났던 시범이나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178. 구술자 45:33 그래요. 에피소드는 이제 시범을 하다가 이제 옛날에 판 싸움이 그런 게 굉장히 좀 심했어요. 판 싸움이 옛날에는 근데 이제 각 관장단들이 다 관장단들이 아 너 우리 관으로 와라 막 그랬다고 그런 데 내가 내가 아버지가 돌일 수는 없잖아요. 내가 내가 아니라서 그래 갖고 어떨 때는 미움도 받고 그랬거든요. 다 관장님들한테 네 그러가지고 했는데 이제 시범을 하다가 이렇게 내가 옛날에는 기왓장이었어요. 기왓장 송판이 없었을 당시 기왓장도 그냥 굉장히 강한 거 지금 경복궁 같은 데다가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 항상 소리 나는 게 있어요. 새소리 나는 기왓장 그거를 갖다가 이제 깨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시범단들이 이렇게 잡다가 골탕 먹이는 이렇게 짝 들린다고 그러면 그 모서리에 맞아가지고 내가 여섯 바늘을 찌어서 이게 깨졌거든요. 찌어졌거든 깨졌거든 찌어졌거든 그렇게 해. 그렇게 이제 했을 텐데 이제 그때가 아마 내가 세계 대회 때문이 아마 그럴 거예요. 세계 대회 때문이 그랬는데 내가 이제 국기원을 갖다 꼭 정문 그때는 한참 바깥을 댤니까 정문까지 정도까지는 타는데 거기서부터 못하게 했어. 그 밑에서부터 그래서 내가 이제 찢터쩨터 거러니까 아니 발을 다쳤는데 여기까지 타고 오지 왜 택시를 불러서 여기까지 안 탔냐고? 그래서 내가 딱 사람들 다 걷는데 나도 걸어도 돼요. 그랬어

- 니 거기에서 지키는 사람들이 달려가지고 가라고 그랬는데 그거 올라가기 전에 어떤 남자가 와서 말을 지키는 거야. 아니 다리 그렇게 하는데 저기 왜 가요? 그래서 태권도하세요. 그래서 내가 네 생각도 조금 해요. 그러더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가 잘 안 데 남궁명석이라는 사람은 잘 아는데 그 사람이 여자로서 친구라고 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180. **구술자 48:10**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기서 이제 내려오다가 이제 근데 태권도 하는 사람이 아주 좀 미스남궁 어떻게 그 다리를 알고 걸어오냐고 그랬더니 제 옆에 있던 사람이 자기가 남궁명석하고 친하다고 그러는데 왜 남궁명석이라니가 일곱이 빨개서 도망가더라고요. 이제 시험 끝나고 하면은 이 생이 많아가지고 그 당시 때 막 시계 주는 사람 목걸이도 주고 막 그랬다. 그러는 데 도움도 많이 받았고 옛날에는 그렇긴 훨씬 나면은 괜찮았어요. 얘기가 그래가지고 시계 주는 사람 반지 주는 사람 목걸이 주는 사람들 많았어요.
182. **면답자 49:04** 활동을 위낙에 왕성하게 하셨고 마스크에서도 그렇게 많이 홍보가 되고, 하셨으니까 또 그렇게 또 외모도 특출하시고 인기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범님 그러다 보면 오랜 시간 지도자님들을 걸쳐서 하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지도자나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까요?
183. **구술자 49:27** 아무래도 옛날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같이 해병대 팀들하고 같이 운동했을 당시에 같이 스타킹하고 그랬던 사람들 보고 싶죠. 많이들
184. **면답자 49:43** 그분들이 더
185. **구술자 49:46** 세계 대회 때 1회 때 코치했던 이영우라고 있어요. 그 양반도 그치 해병대 팀이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 지도가 관장인 이승환 관장님도 있고, 저 관장님들 옛날에 이종우 반장님 임운규 관장님 홍 휘야 홍종수 반장님 이남숙 반장님 관장님은 다 각 관장님들은 꼭 보고 싶지만은 이제 다 가셨는데
186. **면답자 50:24**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저는 잘 알지 못해도 관은 나눠져 있지만 그래도 관에 대해서 사범님들을 다 이빠해 주셨나 봐요.
187. **구술자 50:40**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딱 관에서도 시골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도장을 열면 개관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어느 관 그거 따지지 않고 시범해달라면 가서 해주고 그랬거든 가서 시간도 해주고 막 그랬으니까
188. **면답자 51:02**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최초 여성대회를 하고 그게 3년 있다가 국제대회를 하면서 국내대회에 여성뿐만 아니라 해외 여성들로 하고 대회가 남녀까지 참석을 해서 국제대회로 대회가 변경돼서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가지고 본격적으로 국제대회로 전향이 됐는데 그러면서 사범님은 아무래도 거기에도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대회가 좀 커지긴 했지만, 사범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키가 생각보다 국제대회 나가기엔 크지 않았는데 국제대회 나가서 키가 작아서 좀 외국 선수들이 이렇게 무시하거나 힘들게 했던 점은 없으셨는지 좀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면 아까 전에도 밑었다거나 하거나 더
189. **구술자 51:56** 나는 키에 대한 그런 것 생각 안 했어요. 전혀 왜냐하면 내가 키는 딱딱 젊었을 때는 152cm거든요 내가 작아요. 작지만 미국 선수도 여기 오면은 헤비급 같은 데는 에벨러브라고 올림픽 금메달 선수가 있어요. 내가 코치했거든. 30.4예요. 6피츠머는 한 180 한 4, 5대예요. 그런데도 난 머리차고, 그랬거든! 얼굴차기로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하체가 이렇게 키는 작아도 굉장히 높이 차요. 내가!
190. **면답자 52:45** 그러게 비율이 좋으신 거네요. 또
191. **구술자 52:50** 근데 지금은 발도 안 올라가
192. **면답자 52:52**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사범님은 솔직히 여성 태권도 선구자로서 한 분 여성 선수권대회 경기력 향상을 높이는 데도 일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 사범님의 이제 눈으로 봤을 때 해외 선수들의 경기력은 어땠던 걸로 기억하세요? 그 당시
193. **구술자 53:20** 그 당시 때는 왜냐하면은 연기력이 그거보다도 그래도 우리한테는 그 당시 때는 많이 따죠. 한국 사람들에겐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스피드가 있잖아요. 그리고 받아차

- 기 같은 거를 참 잘한다고 근데 이제 외국 선수들은 골격이 이상으로 크잖아 그러니까 느려요. 그러니까 빠른 빠르면 속도가 나오니까는 거기서 이제 파워가 나온다고 그렇죠. 근데 느린 사람은 느리니까는 안 나와 그때. 근데 이제 골격 자체는 외국 여자들에게도 한국 남자들 같은 골격이 중해요. 뼈대가 굵으니까
194. **면답자 54:13** 맞아 요즘에는
195. **면답자 54:19** 그러니까 요즘에는 경기력이 많이 평준화됐잖아요. 얼마 전에 올림픽에도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전에는 어머셨는지 사범님이 또 같은 경기력의 수준에서 여쭙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범님이 보내주신 단증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도 이런 단증이나 이런 것들이 발급됐었던 건가요? 지금 보여지는 대로
196. **구술자 54:49** 그렇죠. 그러면 다 선수중이니 뭐니, 그거 다 줬다고요? 옛날에는 등록하게 되면은 그게 다 나와 그게 없으면 시험도 못 뛰었어요!
197. **면답자 55:01** 이거 시범 단증인데 시범 단증으로도 시험을 띄웠나요?
198. **구술자 55:06** 시범 단증 그건 시범 단증이 아니예요. 선수중이지
199. **면답자 55:11** 아니 시범 선수중이에요? 그게 태수도협회 그럼 그럼 매년 매년 발행되는 건가요?
200. **구술자 55:25**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201. **면답자 55:27** 똑같네요. 지금이랑
202. **구술자 55:30** 그렇죠.
203. **면답자 55:31** 너무 신기해가지고 밑에 수도 대한태수도협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204. **구술자 55:39** 선수 단증이예요.
205. **면답자 55:42** 한자로는 그렇게 돼가지고 시범 단증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선수 단증이었군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보고 그래가지고 너무 그러면 그걸 매년 그 사진 찍어가지고 저희가 지금도 나오긴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도 선수증을 내고 시험을 뛰고 이렇게 했던 거네요.
206. **구술자 56:05** 네 등록을 해서 해야 돼.
207. **면답자 56:10** 네 그래가지고 네 저희가 그거를 다 보고 확인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08. **구술자 56:19** 조금만 어린 거 있잖아요. 그게 내가 이제 운동 시작할 때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선수 등록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사진 찍은 게 없어서 내가 그거를 낸 거지.
209. **면답자 56:30**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때 시범단 선발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210. **구술자 56:42** 선발이요? 그때는 시험했죠. 각 관에서 그것도 관에서 뽑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각 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무덕관 지도관 한무관 청도관 이렇게 해갔고 총무관 해가지고 거기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 뽑아서 한 거예요. 그게
211. **면답자 57:06**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범님 사진을 봤는데 지금 사진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시면 호신술도 하시고 격파도 하시고 다 하고 계세요. 포지션이 지금 요즘에는 자기들의 주특기들이 있거든요. 그럼, 사범님은 모든 걸 다 하셨나요?
212. **구술자 57:27** 했죠? 나는 그러니까 폼새도 하고, 폼새를 내가 예쁘게 잘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이 교육 같은 거 하면 내가 시범도 보이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것도 하면서 이제 격파도 하고, 호신술도 하고, 호신술도 여러 가지로 했어요. 그냥 한 게 아니라 백으로도 하고 우산도 갖고 하고, 벨트도 갖고, 하고 부채도 갖고 하고 이를 나래 그리고 이제 격파도 그냥 빨간 벽돌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하고 우리는 옛날에 송판이 1인치 같은 거 지금같이 이렇게 그냥 시범 그게 아니고 진짜로 가갔고 막 손팔찌르게 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것도 신문에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외국 기자들이 와서 사진을 이

제 손으로 비디오를 찍으면은 내가 이제 손끝으로 찌르는 저걸 어떻게 하나고 진짜 단단 했거든요. 잘못하면 막 이거 나가고 그랬는데 이거로 내가 처음으로 태권도협회에서도 내가 소품으로서 처음으로 그것도 한 거 있어요. 신문에 한 것도 있고,

213. **면답자** 58:44 그러면 그때그때

214. **구술자** 58:46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왔을 때도 내가 이걸로 하고 그런 게 있어.

215. **면답자** 58:51 그러면은 그때 시범 단원에서도 유일한 여자고 유일한 흥일점이셨나요?

216. **구술자** 58:59 예 그렇죠. 나밖에 없었어요. 시범단에서도 대표 선수도 그렇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생긴 거지 그런

217. **면답자** 59:12 그러니까 그때도 여성 태권도가 보기도 드물었고 계속 사범님이 홍보했지만, 사범님밖에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도 없었나 보네요. 계속했음에도

218. **구술자** 59:29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하고 좀 이제 조금 이제 연수가 이제 있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제 내가 학교 졸업하고, 선수 생활 끝나고 나니까 이제 여기저기에서 이제 막 생기고 그랬죠.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생기고 다 그런 거죠.

219. **면답자** 59:55 그러면 여성 태권도인으로서 그렇게 막 활동하시고 뉴스에도 나오고 외국 홍보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인기가 각광을 받았다고 아가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화 촬영도 하셨었다고 홍보도 찍고 한국

220. **구술자** 1:00:12 어떤 영화 영화 한 거 있어요. 여기, 여기 있을걸... 여기도 있네. 이게 에 우리 침묵하면서 하는 게 있고, 여기 보여요.

221. **면답자** 1:00:46 네, 그건 어떤 기기로 어떤 목적으로 찍은 건가요? 그러면

222. **구술자** 1:00:58 목적은 회복도 있고, 시험했을 때

223. **면답자** 1:01:04 귀한 사진이나 영화 진짜 남자분들이

224. **구술자** 1:01:08 이거는 아시안 때 아시아 2회 때

225. **면답자** 1:01:13 시범 그래서 그 츠리닝 입고 있는 거 맞네요.

226. **구술자** 1:01:18 네. 소개하고 여기 나왔네. 여기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

227. **면답자** 1:01:29 진짜 벽돌 완전 진짜 진짜 빨간 적벽돌을 깨셨네요. 사범님 저희는 지금 적벽돌을 안 깨고 3구 깨고 있는데

228. **구술자** 1:01:43 여기, 여기 이거 있네요. 여기 옛날에 씨름할 때 손톱 찌르는 거. 네

229. **면답자** 1:01:56 그래, 확실하 이제 송판이 두꺼운 걸 하나까 남성 두 분이 받쳐서 잡고 있네요.

230. **구술자** 1:02:05 안해요

231. **면답자** 1:02:11 그럼 그 영화는 어떤 계기로 촬영하게 되신 거예요?

232. **구술자** 1:02:16 이게 흥분하고 합작한 거예요. 옛날에... 처음 주장을 할 때 우승해가지고 한번

233. **면답자** 1:02:31 네. 종합 우승하신 건가요? 그러면 종합 우승

234. **구술자** 1:02:38 30세 후반에서 40세 후반 정도... 여기 어디 다 있을 거예요! 영화 촬영한 것도 있고, 다 어디 있는데 워낙 많으니까 내가 어디에다 뒀는지 몰라요.

235. **면답자** 1:03:15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국 오실 때 조금이라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범님 그러면 촬영에 대해서는 사범님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촬영할 때 사범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236. **구술자** 1:03:38 예 저 중국 주인공을 내가 수현 가리키는 역할이

237. **면답자** 1:03:48 태권도 가리키는 역할이었어

238. **구술자** 1:03:50 가르치는 거 이렇게 해야 너는 이길 수 있다! 해가지고 가르치는 역할

239. **면답자** 1:03:57 그 시절에는 중국 태극권이나 소림사 영화가 우리나라에 한참 들어올 때 아니었습니까?

240. **구술자** 1:04:06 그때 당시 때는 72년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 막 한참 이소룡 그런 게 했을 때니까.

241. **면답자** 1:04:18 그런데 어떻게 태권도를 가르쳐서 이길 수 있다는 거를 그거는 아주 획기적인 시도 아니셨습니까?

242. **구술자** 1:04:27 그러니까... (웃음)

243. **면답자** 1:04:29 그것도 여자 태권도인이 그걸 가리키는 걸 찍으신 겁니까? 정말 인기가 많긴 많으셨으나 봅니다. 사범님이... 그렇게 지나서 1988년 국가대표 선수팀 코치를 맡으셨는데 어떻게 그럼 그렇게 돼서 아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맡게 되신 건가요?

244. **구술자** 1:05:03 아니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미국에 와서 내가 78년도에 왔거든요. 미국을 근데 84년 동안 내가 어느 누구한테도 내가 연락을 안 했어요. 그냥 미국에 온다는 연락은 안 했지만은 미국에 오자마자 내가 한 달 만에 도장을 차렸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도장을 이제 빌드업하면서 어떻게 보는데 이제 주니어 올림픽이라는 게 있는데 잭슨 비어에서 여기 플로리다주죠. 플로리다주에서 주니어 태권도 올림픽으로 한다고 그래서 갔죠. 갔더니 거기에서 회장 그 당시에 미국태권도협회 회장인 양동자 회장이었는데 회장님이셨는데 김운용 총재가 나를 찾으라고 그렇게 오더를 내렸는데 내가 어디에 숨었는지도 몰라서 못 찾았다고 어디서 나왔냐고~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이제 나를 갖다가 이제 이제 미국태권도협회에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이가지고 내가 그렇게 이력이 있는데 왜 이렇게 태권도에 봉사를 안 하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인베트 된 거죠. 협회하고 미국태권도협회하고 그래서 하고 그 이후로는 내가 이제 코치를 맡아서 했죠.

245. **면답자** 1:06:46 그럼 88년도가 한국 코치가 아니라 미국 국가대표 코치를 맡으신 건가요?

246. **구술자** 1:06:52 그렇죠. 미국 세계 대회니, 워니 쪽 이제 미국팀 코치를 하다가 88년도도 미국팀 코치를 하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만한 거지 뭐

247. **면답자** 1:07:11 그러면 그럼 미국에서 임원으로 감독 코치 하시고 선수 구성은 어떻게 됐었나요? 그때

248. **구술자** 1:07:22 선수 구성은 50주 50주에서 이제 선발을 해요. 각 스테이션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내셔널에 와가지고 이제 전국 한국식으로 하면 전국 체전이지 거기에서 이제 선발을 또 해요. 그다음에 이제 내셔널에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해요. 또 팀에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파이널 해가지고 이진 사람은 이제 올림픽 트레이닝센터에서 이제 그걸 시키죠. 시작을 시켜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선수들을 이제 추려가지고 나가 는 거죠.

249. **면답자** 1:08:09 그러면 그 88올림픽 때 미국도 그러면 출전을 했나요?

250. **구술자** 1:08:15 그렇죠

251. **면답자** 1:08:16 그런데

252. **구술자** 1:08:17 미국이 한국 팀을 이겼어요. 다 한국에서 금메달 미국에서 금메달이 3개 나왔어요. 여자팀에서만 한국 팀을 이겼어요.

253. **면답자** 1:08:33 그럼 사범님이 감독 코치를 하셔가지고...

254. **구술자** 1:08:38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때는 이제 제대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다 미국에 왔거든 애들 그때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많이 받았는데 한국 미국팀 남자팀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지만은 한 사람 그때 우리 팀이 하나 금메달을 한참 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

팀은 3개 땀어요. 금메달을 그러니까 해비하고 그다음에 웰터하고 그다음에 라이트인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들하고 라이트 그러니까는 해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지숙 그 후배도 아마 저기한테 졌어요. 미국 팀한테 아버지 마사한테 지고 그다음에 다 나 히도 이기고 그레가지고 3개 하고 실버 메달이 2개고 그다음에 동메달 하나 그니까 내가 코치 했을 때 최고로 많이 메달을 땀어요

255. 면답자 1:09:48 네 미국에서 사범님 하시고 아주 최대의 큰 성과를 얻었다는 미국 한인 기사에 대서특필 난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보를 얻었는데 근데 88올림픽 때 태권도는 정식 종목이 아닌데 어떻게 경기가 진행됐는지 저는 그 시절이 아닌데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까요?

256. 구술자 1:10:11 그게 저기 정식 종목이 아니, 아니지만은 서울 올림픽에 있을 때 시범 종목으로 들어갔거든요. 그게 첫 시범 종목이에요. 지금 아니 도대체 몇 년생이에요? 우리 저 영립 씨는

257. 면답자 1:10:30 저 81년생입니다.

258. 구술자 1:10:33 그래요. 우리 딸 나이네

259. 면답자 1:10:37 그러면 88년도에 시범 종목인데, 저희가 2000 시드니 때 정식 종목이 됐을까 좀 오래 걸렸네요. 시범 종목하고도

260. 구술자 1:10:50 왜냐면 시범 종목하고 그다음에 92년 88년도 하고 92년도에 시드니 하고 나서 이제 채택이 된 거거든. 근데 이제 거기에 했는데 모든 경기가 한꺼번에 안 돼요. 몇 번씩 해서 수업을 하고 나서 IOC 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거기서 통과를 해야지만이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잘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몇 번 세 번의 그게 있어요. 올림픽 때 하던 그렇다고 거기서 모든 의원들이 찬성을 해야지만이 올림픽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261. 면답자 1:11:30 그래도 해외에 가서서 이런 좋은 성과나 해외에서도 이런 선수들이 많이 발굴이 돼가지고 저희 종목이 이제 채택되서 지금 정식 종목으로 된 것 같습니다. 사범님 그러면 지금 그 그러면 그렇게 국제대회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한마디로 한국에서는 제일 큰 태권도로서는 최초로 큰 대회 국제 큰 대회가 된 거잖아요. 그때 분위기랑 상황은 어땠는지 한번 그때 기억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262. 구술자 1:12:11 분위기야 뭐 우리 태권도 태권도는 참 이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이예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사실 한국이 경제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잖아요. 1년 이래 한 65불 70불도 안 되는 1년을 링카인데 그거 갖고 어떻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보니까 저 위에 계신 분이 참 한국사람을 위해서 참 불쌍하게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태권도를 한번 나라를 키워봐라! 하고 선물 준 것 같아

263. 면답자 1:12:54 그렇습니까?

264. 구술자 1:12:57 선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대한민국을 선전을 했어요. 각 나라에 가서 이 외교관들이 못하는 거를 갖다가 태권도가 들어가면 태권도 사람들이 다 외교를 했으니까. 내가 여기 왔을 때도 미국에 왔을 때도 70년대인데도 그때 당시 때 아니 회장이든 판 사람들이 가서 말을 못 붙였어요. 근데 태권도 사범으로서 내가 딱 가게 되면은 시장들이 나와서 딱 텔레비전 같이 나와 가지고 인터뷰하고 막 그랬었거든. 그 당시에 그러니까 태권도가 얼마나 위상이있었던 거예요. 참 좋았죠.

265. 면답자 1:13:42 사범님이 태권도 외교관이라는 별명이 있으실 정도로 사범님이 그만큼 활동해 주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266. 구술자 1:13:50 아 조금 더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267. 면답자 1:13:56 그러면 사범님

268. 구술자 1:13:59 네 말씀하세요.

269. 면답자 1:14:01 그러면 사범님이 그때는 미국 코치님으로 나오셨지만 우리 한국 선수들의 경기 수준을 봤을 때 어땠습니까?

270. 구술자 1:14:15 근데 요즘에는 물론 열심히 하고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자꾸 이게 테크닉이라는게 자꾸 변화되는 거니까 우리 당시 때는 우리대로 또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로 또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나오니까 물론 우리 때는 그냥 필사 일격으로 한 번 차면은 그냥 상대를 갖다가 그냥 죽인다는 그런 거로 각오를 했고, 지금은 그나 코인 시스템이니까 그냥 텡텡하는 거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걸 태권도도 아니지 뭐 공중에서 막 뛰고 막 그러니까 시범하는 것도 이런 본도인지 기계제조인지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시범 같은 것 정말 실력으로 했거든.

271. 면답자 1:15:19 그 시절 또 수련하시면서 또 차이점 과거랑 지금 현재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범님은 그때 하시고도 미8군 장교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수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계기로 일반인도 아닌 장교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수업을 하게 되신 건가요?

272. 구술자 1:15:42 우리 그 당시 때는 태권도에 미8군에 들어갔는데 태권도 사범들이 있었어요. 있기는 몇 명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도 연락이 왔어요. 태권도 장교 클럽에서 장교 클럽이라는 거는 장교들만 운동하는 체육관이에요. 그게 이제 양쪽에는 한쪽이 이제 사병들 하고 한쪽은 장교가 하는 데예요. 옛날에는 그게 따로 분리돼 있어요. 장교들하고, 사병들하고 운동하는데... 근데 이제 문의가 왔어요. 그래 가지고 태권도 사범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가서 남자 이제 사범 한 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하고 가서 이제 한 거죠. 끝

273. 면답자 1:16:32 근데 그 시절에도 미국은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한국에 대해서는 되게 선입견이 있었던 시절인데 한국 여자애다가 체구도 작으니까 사범님이 가서 교육을 했을 때 편견이나 그런 건 없었나요?

274. 구술자 1:16:53 그거는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은 미국 사람들은 완전히 그 당시에 가도 참 오픈이 돼 있었어요. 많이 모든 게 그냥 레디퍼스트고 여자들한테는 와서 막 굉장히 신기하게 보고 막 그냥 미국 사람 뭐야? 이 장교들 군인들 와서들 하는 진짜 제가 진짜 심하게 가르쳤거든요. 그거 막 하다가 막 그냥 막 토해내고 막 그랬어요. 워낙 심하게 가르쳐가지고 주로 우리가 이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시험에 날아 가지고도 또 또 잘하고 우승도 하고 우리 학생이 아마 그런 사진도 다 있을 거예요. 나한테 애들 선수 테러러 나가서 이제 시험에서 우승하고 그런 예도 있고,

275. 면답자 1:17:53 그러면 주로 겨루기 기술을 어떤 기술을 많이 가리키신 거예요?

276. 구술자 1:17:58 나는 다양성 있게 가르쳤어요. 굉장히 다양성 있게 하고 앞들러차기에 뒤들러차기 같은 거 차 종류는 아주 거리낌 없이 다 찼으니까 이제 여기 미국에 와서도 내가 이제 최초로 아미턴 그러니까 두 팀을 내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혼도 협회애다가 내가 팀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내가 시험도 나오고 그래서 그것도 내가 레첸데리로 해갖고 이름이 돼 있다고 지금 리코팅

277. 면답자 1:18:42 그러면 사범님이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했음에도 그리고 한국에서 코치 국가대표 코치를 제안했는데 그거를 다 뿌리치고 25살에 미국행을 결정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시고 여러 말들이 있던데 여기서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278. 구술자 1:19:09 그때는 내가 미8군에서도 운동을 가리키고 이제 협회 일 지도관에서 일하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내가 거기서 이 도장을 차리고 뭐 그렇게 한다는 게 나한테는 조금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 때... 그래서 내가 태권도를 좀 더 멋지게 내 마음대로 좀 한번 크게 한번 펼쳐보고 싶어서 내 꿈을! 그래서 여기에 올 당시에 그거 하면서 난 미국 할리우드에 가서 태권도를 해가지고 영화를 한번 개입해 보고 싶었어. 내가 그거 더 미8군에서 했어도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영화배우로 가려니까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바로 와서 그냥 도장을 낸 거지

279. 면답자 1:20:10 그러면 영화에서 볼 수 있었는데 안타깝네요. 사범님 조금만 더 하셨으면 그러면 사범님이 느끼셨으면
280. **구술자 1:20:21 통과했었어요. 통과했어. 진짜 테스트를 했는데 영어가 안 돼서 못 했어요.**
281. 면답자 1:20:29 안타깝네. 요즘에는 아니어도 다 했을 텐데 그러면 사범님은 한국에서도 코치를 잠깐 하셨고, 바로 미국 가서도 코치를 바로 이제 올림픽 88 올림픽 코치도 했었는데 한국과 미국의 훈련 시스템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점이 다르거나 같은 게 뭐 애 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282. **구술자 1:20:55 체계죠 일체 한국에서 하고 보편은 일단 시스템 자체가 틀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올림픽 트레이닝센터에 들어와서 이제 전부 다 하나가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죠. 뭐... 근데 여기서는 다 올림픽 트레이닝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거기서 다 먹고 다 생활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고 아무래도 낫죠. 그 당시에는 제가 비교할 때는 그랬어요.**
283. 면답자 1:21:30 그때는 더 잘 그러면 사범님 지금 미국 고단자회 명에 명단에 올라가 계시고, 그리고 2009년 코치 상도 수상하셨던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84. **구술자 1:21:46 그거야 뭐 선배님들이 이제 여자가 혼자 그러니까 또 코치도 하고 그러니까 이쁘게 봐준 거지 뭐 내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니지**
285. 면답자 1:21:59 그래도 한인에서 그렇게 살면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가시자마자 1개가 아니라 10개 이상의 도장을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86. **구술자 1:22:11 도장은 많이 했죠. 근데 이제 하면서 나중에는 관리를 못 하겠더라고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제자들 다 뒀어요. 주고 이제 내 메인 도장만 여기서 이제 하죠 하고 이제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는 이제 그냥 미타입 한식으로 그냥 한타임으로 해요. 지금 도장**
287. 면답자 1:22:41 그럼 도장 운영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으세요?
288. **구술자 1:22:50 교편이라는 거는 제자들이 잘해서 의사 변호사같이 다 성공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일부는 또 다 개개인이 다 성공했을 때 찾아왔을 때 그런 게 뿌듯한 거죠. 음**
289. 면답자 1:23:11 그럼 지금 한국 도장 시스템이 미국으로 간 거나 마찬가지로 미국 시스템이란 한국 도장 시스템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은 다르고 이런 것들은 한국에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290. **구술자 1:23:27 일단은 저는 옛날식이라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 당시 때는 막 애들이 막 때려 가면서 했는데 지금은 없어요, 여기가 커지면서 그렇지만은 이제 시스템 자체는 한국 사람들은 요즘에는 전문 대학교에서 전문적으로 하니까 영어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경영하는 거 우리 당시 때는 태권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교육도 많이 안 받고 또 이런 운영하는 거를 그런 거를 많이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는 들어와가지고 그냥 땅에다가 해당하는 식으로 그냥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거고, 근데 저는 좀 체계적으로 참 잘했어요. 그때 갔을 때 그런데 이제 이제 호흡이 커지고 뭐고,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이제 나라에서 이제 연금도 나오고 먹고 살 만하니까 그냥 이제 천천히 하는 거죠, 이제 보장을 받을 수는 없고 이제는 그래도 그래서 내가 하니까.**
291. 면답자 1:24:49 사범님은 한인인데도 미국 가서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접견할 만큼 유명 인사였었다는 기사를 제가 미국 기사로 봤어요. 그게 어떤 사연인지 알 수 있을까요?
292. **구술자 1:25:06 많이 그냥 체육 같은 거. 이제 체육에 대해서도 많이 하고 또 동네에서도 내가 이제 커뮤니티 서비스를 많이 했어요. 노네이션 같은 거를 여기서, 도네이션도 자주 하고 경찰에서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뭐 그냥**

293. 면답자 1:25:32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줄곧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지역 봉사활동도 하고 여러 미담이 엄청 많이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많은 일을 또 하고 계신 건가요?
294. **구술자 1:25:49 하여튼 많이 하고 있죠. 이제 우리 학생들 돈 없는 사람들이 라면은 이제 그 학비도 대학교 학비도 한 6명, 내지 10명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이제 학비도 대주고 또 이제 동네 동네 전도 많이 하고 한인회 같은 데 나가서도 많이 했어요. 이것저것**
295. 면답자 1:26:19 그러셨군요. 그럼, 사범님 이제는 최근에 와서 국기원 여성 태권도 최초 9단 등록된 자로 제가 국기원 기록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 중에 9단 최초 등록자이신데 응시하실 때 어떤 심정으로 신청을 하셨나요? 아무도 없었는데...
296. **구술자 1:26:41 그 당시 때는 모임이 이제 제가 이제 이제 9단 딸 때도 됐고, 또 한국에 간 김에 이제 그때 당시 때는 제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죽더라도 9단은 받아갖고 죽지 뭐! 해야 되고, 그러고서 이제 한 거예요. 또 그때 당시에는 조금 또 했으니까, 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297. 면답자 1:27:10 그러니까 지금 사범님이 또 말을 아끼시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하자면 접수를 해 놓고 대장암 2기 반정의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걸로 제가 봤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운동을 하셨는지 그런데도 운동을 하신 건가요?
298. **구술자 1:27:30 여기에서도 약을 먹어가면서도 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막 아프고 그러면 막 내가 주먹으로 내 배 막 때리고, 야 내가 이기지 내가 이겨 그러면서 이제 운동하고 약을 먹으면서 아이고 이게 보통이 아니예요. 약 먹으면 막 막 그냥 소름이 끼치는 거지 뭐...**
299. 면답자 1:28:00 그러니까요. 그 와중에도 한국에 오셔서 심사도 보시고 사범님이 꾸준히 응시하셔서 9단까지 하신다는 게 그 시간과 노력이 보통이 아닌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범님이 과거 옛날에 2단 3단 4단도 지금 현재와 같이 심사를 진행했었나요? 승단 심사가?
300. **구술자 1:28:22 옛날에는 심사가 더 힘들었죠. 지금 같지가 않고, 왜냐하면 우리는 옛날에는 본관을 꼭 거쳐야 돼요. 본관을 거쳐서 거기서 합격이 되면은 이제 협회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체육관에서 하고 본관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협회에 나가서 해야 돼요. 세 번을 넣어야 돼. 심사를**
301. 면답자 1:28:50 그렇게 해서 그러면 승단 심사가 진행됐던 거네요. 그럼 더 옛날엔 진짜 어렵게 승단 심사를 땀기 때문에 더 올라가기가 어려웠었네요?
302. **구술자 1:29:02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일종만한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단 심사를 한 번 보면 몇 명씩 하고 몇 명씩 돌아가면서 이거 했거든 대련을... 아니 지금이 국기원에서 이렇게 짝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심사하는 사람들은 다 해야 해! 그래서 거기서 통과되면 이제 가는 거예요. 거기서도 본관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 국기원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옛날에**
303. 면답자 1:29:45 그러셨군요. 그러면 사범님 사범님한테 죄송하지만, 옛날 사범님이 가셨을 때 미국에서는 코리아 가라데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304. **구술자 1:30:03 여기 오니까는 워싱턴 DC에 가니까 이종구 씨가 있더라고요. 이종구 씨 하면은 알죠? 알리 가리키고 그랬던 사람이 있는데 가니까 코리아 가라데이라고 쓰여 있더라고. 근데 이제 내가 보니까 여기서도 몰라요. 미국 사람들이 태권도라 그러면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코리아 코리아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미국 미국 클라임 도장이 한 8개 정도 10개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내가 여기 이 지역에 오고 나서는 이제 많이들 달았지**
305. 면답자 1:30:54 그렇게
306. **구술자 1:30:56 달은 이유는 뭐냐 하면 한국에서 내가 그때 국립 그건 뭐죠? 국립 영화를 찍었다**

그랬잖아요. 한국 선전하는 걸로... 근데 내가 이 지역이 뭐냐면은? 공수부대예요. 공수부대 예지태권 엘본이라는 공수부대가 이 지역 여기서 한 해포마일 정도로 가면은 바로 부대예요. 여기서 저 도장 앞에 그 지역에서 하는데 미국 군인들을 한국에 파견을 하려면은 한국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을 선전하는 그것이 그 영화가 제가 거기에 나와서 태권도를 한 거예요. 그가 도장을 열자마자 이제 선전이 그냥 자동으로 된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 도장에 엄청 많았어요. 아마 미국에서도 손꼽았을 거예요.

307. 면답자 1:31:56 그러면서도 태권도라는 게 더 유명해지게 된 거죠.

308. **구술자 1:32:01** 그렇죠. 한국태권도 해가지고 그때 막 선전이 나간 거니까. 그러니까 공부대에서 그렇게 영화관에서도 그렇고, 제 사진! 그때 그때 촬영한 거! 나라에서 촬영한 게 그게 그냥 히트친 거죠. 보는 사람들 보면 당신 여기 영화관에서 봤다. 그리고 그랬다고...

309. 면답자 1:32:23 진짜 그걸 한번

310. **구술자 1:32:25** 영화 시작할 때 미리 보여주는 거지

311. 면답자 1:32:28 정말 궁금하네요. 정말 어디서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꼭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2. **구술자 1:32:34** 있을 거예요. 기록 영화 하면은 그게 있을 거예요. 한국에

313. 면답자 1:32:37 네 제가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범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저희가 1979년도에 한국여성태권도연맹이 조직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여성 태권도 대회가 더욱 활기가 뛰게 시작이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억이 나시나요?

314. **구술자 1:32:58** 그렇죠. 그때 임신자 선수가 그 당시에 아니 전무였다나 전무였을 거예요. 막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미국에서 그때 당시 때 한마당을 했을 때가 내가 돈을 스폰서를 해가지고 한마당을 구별해서 끌어와서 LA에서 했어요. 내가 스폰서를 해서 국기원에서 했을 때 그래 가지고 내 돈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그때 임신자가 LA에 온 거예요. 그래서 “사범님 우리 여기 여성부 협회가 창설을 해가지고 시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모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 가지고 원주에서 첫 1회를 했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저 임진출 그렇지, 임진출이라고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공화당에 그 사람 해가지고 이제, 대회장으로 하면서 이제 시합을 했을 때! 내가 그때 갔었지, 1회 때 2회 때 3회 때까지 갔나 1회 때 2회 때까지 갔나 아마 그럴 거예요.

315. 면답자 1:34:22 그리고도 이제 계속 그 이후로는 또 이제 미국에 계시니라고 참석은 못 하시고, 계속 이제 할 때만 오신 거죠? 그럼 이제 여성 태권도 활동을 많이 하셨고, 최초로 하셨지만 기원에 대해서는 여성인 여성 태권도인들도 기억을 잘 못하고 이게 기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확한 기억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데 최초의 여성 태권도인에 많은 역사를 남긴 분이로서 어떠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범님 앞으로

316. **구술자 1:35:05** 앞으로... 말하는 거죠?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한국에서는 조금 틀린 것 같아 여기하고는 일단은 이 시합같은 거를 하면 스폰서가 많이 있어야 되죠. 스폰서가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여성협회에서 워킹다스를 따로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판매하고 나 같은면은 이런 이쿠먼트 같은 거 여성들을 위해서 이쿠먼트 같은 거 전부 그런 거를 직접 제조를 해서 그거를 판매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에로타징하고 그다음에 tv 방송이 따로 있어야 돼. 나는 그거 하고 싶었는데 할 거는 유튜브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한국에 그러면 그런 거를 갖다 태권도 방송을 하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 되면 크게 되죠.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벌써 했어.

317. 면답자 1:36:09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좋은 말씀 해 주셔도 그리고 사범님은 해외 이민 1세대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범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후생 후학을 위해서 해야 할 준비와 마음가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18. **구술자 1:36:33** 마음가짐은 일단은 태권도는 자기하고 싸움이예요. 모든 운동이 얼마만큼 그 디

스플레이 잘 됐느냐는 거고, 자기와의 싸움인데 모든 트레이닝이라는 건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일단은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있어야 돼. 그래야 발전도 할 수 있고, 내가 남한테 비굴하지가 않아요. 나는 우리 후배님들이 그런 거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 위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거...

319. 면답자 1:37:20 알겠습니다.

320. **구술자 1:37:22**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준비가 안 됐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 이제 가면은 좀 오네이션도 하고 우리 후배들한테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워낙에 내가 바쁘다 보니까 또 갈 수도 없고 그래

321. 면답자 1:37:47 아닙니다. 오늘 이번에 좋은 말씀과 이런 기록을 남겨주면 저희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사범님께서 여성 태권도인으로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원칙이나 가치관이 있으시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322. **구술자 1:38:08** 원칙하고 가치관은 내가 내 개발을 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했는데,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먹을 가치도 없고, 살 가치도 없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도 항상 이 노력하는 거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노력 끊임없이 노력해야지 뭐 내일도 태양이 뜨니까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생활을 하면 돼요. 그러면 나는 내 신조가 내 신조가 성실하게 멋지게 살자! 예요. 성실하게 멋지게 살자

323. 면답자 1:39:02 그러면 이런 계획이나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 제2의 인생에 또 있으십니까?

324. **구술자 1:39:11** 글썽요. 내가 저 뭐야? 한 몇 년 동안 내가 이 계획했던 게 내가 몇 수십억을 갖다가 잃었어요. 그래서요. 그거는 이제 뭐 하나 그냥 장독 깨진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 내가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 중이에요. 지금 내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되겠죠? 뭐 노력을 하고 계획을 세우니까 그냥 한번 멋지게 해놓고 싶어요.

325. 면답자 1:39:50 아까 전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박물관도 생각해 주신 것 중의 하나일 수도 있겠네요.

326. **구술자 1:40:01** 내가 일단은 뭐 공인식으로 그게 암스터키 코스라는 거 아시죠? 암스터키 코스 암스터키 코스하고 박물관하고 보장하고 그러니까 제가 좀 땅이 조금 있어요. 후배도 들어와서 봤지만, 땅이 있어가지고 태권도원 정도 지을 정도는 있어요.

327. 면답자 1:40:28 네 조금은 아닌데 네

328. **구술자 1:40:33** 옛날에는 내가 골프장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골프장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워낙에 골프장이 미국으로 많으니까...

329. 면답자 1:40:41 그러면 여성은 이제 미국은 많이 평정... 여성은 우리 사회에서 아무래도 배려의 대상임은 분명한데요. 우리 여성연맹도 있고, 단체에서 우리 태권도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개발하거나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 있다면 선진국에서 사는 사범님 생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30. **구술자 1:41:13** 나는 몇 가지 중목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태권도를 해서 태권도만 가르친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은 사업도 이것저것 한번 해보고, 일단 방송도 해보고 신문도 해보고, 신문하고 방송이 매스컴이 제일 좋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또한 머칭다이스 같은 것도 해보고 또 다양하게 사업하는 사람들도 끌어모아서 좀 할 수도 있고, 그런 또 좋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우리 후배님들이 얼마만큼 되는지도 모르고 아직 내가 지금 미국에서 와서 산 게 지금 46년이거든요.

331. 면답자 1:42:02 네 저보다 더 오래 사셨나요? 제 나이보다 더 오래 사셨어.

332. **구술자 1:42:08** 그러니까는 내가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나는 지금 한국에 나가면 지쳐할도 못 타고

녹취록 본문

333. 면담자 1:42:19 그러면 지금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태권도 진흥재단에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참석하시고 있는 사범님의 소감을 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어떠신지

334. 구술자 1:42:39 이게 이렇게 우리 후배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진짜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나보다도 나의 의미 지는 해니까 우리 후배님들이 또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요즘은 똑똑한 후배들이 많아서 나는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잘못하면 혼내 소리 듣게? 그러니까 참 중요한 거는 앞으로 우리 후배님들이 잘 돼야 돼요. 태권도가 더 발전되고, 여성들이 더 많이 태권도에 봉사하고 세계연맹이나 우리 국내에 태권도 한국태권도협회나 국기원이나 더 많이 들어가야 돼. 더 인원이 더 많아야 돼. 숨을 쉬게 하고 그러는 것보다도 일단은 많이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자꾸 끌어들이야 해. 여자 후배들 그게 제일 중요해요.

335. 면담자 1:43:59 아하 네 이렇게 사범님 장시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해 주셔서 정말 감사 합니다. 사범님 이야기로 여성 태권도 기록에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추가로 여성 태권도인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나 남기고 싶은 또 메시지가 있으시면 한마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36. 구술자 1:44:28 더 우리 이런 리딩이 여자들 한국에 나오면은 우리 여자 후배들하고 같이 모여서 리딩하고 여성도 지금 연맹 이렇게 보면은 끼리끼리 모이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를 좀 갈라내고 선배들하고 다 모여서 서로 화합을 할 수 있어야 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보면은 그냥 따로따로 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워

337. 면담자 1:45:10 네

338. 구술자 1:45:11 이견 제 생각이예요.

339. 면담자 1:45:12 네 사범님 알겠습니다. 그럼, 사범님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인터뷰를 공식적인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340. 구술자 1:45:23 네

341. 면담자 1:45:24 감사합니다.

주요 색인어	최초시범단	여성시범단	시합	국민학교	시범종목
	남궁명석	이태원	국가대표	국기원	지도관
	선수증	시범단원	해병대팀	체급	권옥희
	세계선수권대회	여성태권도	경기화	혼성경기	한중합작
	준공식	설립	격과	최초여성	광복도복
	선발	감독	코치	태수도	선수팀

과제명	여성태권도인 구술채록		
구술자	장정희	면담자	이종천
녹취자	김진범, 이영림	시간	102분 21초
면담일시	2024년 7월 23일	면담장소	DMC다락스튜디오
파일명	Oh_24_장정희_01.mp4		

<OH240723:장정희_03>

- 면담자 00:00 본 인터뷰는 태권도진흥재단 국립태권도 박물관에서 태권도 지식자원 3차 아카이빙 여성 태권도인 구술채록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면담입니다. 일시는 2024년 7월 23일이고 화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장소는 DMC 첨단산업단지 다락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구술자는 장정희이며, 면담자는 이종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구술자 00:33 안녕하세요.
- 면담자 00:35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호칭을 좀 어떻게 불러야 될지? 좀 정리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워낙~ 태권도 대선배님이시고 거루기도 하셨고, 품새도 하셨고, 그래서 괜찮으시면 제가 사범님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 구술자 00:52 네. 태권도 하시는 분들은 다 사범으로 통합니다. 그냥 장정희 사범이라고 불러주십시오.
- 면담자 00:57 그럼 제가 장정희 사범 또는 님, 자를 붙여서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술자 01:05 괜찮습니다.
- 면담자 01:07 먼저 그 사범님의 고향은 어디 신가요?
구술자 01:10 저는 서울입니다. 원효로 2가
- 면담자 01:12 그러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시나요?
- 구술자 01:19 제가 1955년 12월 10일입니다.
- 면담자 01:24 그러시군요. 그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 구술자 01:30 이제 가족은 뭐 저희 남편과 저희 딸이 둘이 있습니다.
- 면담자 01:38 그거는 이제 우리 사범님의 가정!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꾸렸던 형제분들 하고는 어떻게 되시나요?
- 구술자 01:45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 이제 생전에 안 계시고, 저희 오빠 두 분과 언니 두 분이 계시는데, 또 큰오빠는 또 연세가 많으셔서 또 오래 작고하셨고, 또 작은 오빠는 지금 미국에서 지금 교육에 지금 임하시고, 또 언니 두 분이 계시는데 언니들도 나이가 좀 많습시다.
- 면담자 02:12 그럼 막내신 건가요?
- 구술자 02:14 제가 막내입니다.
- 면담자 02:16

그러셨구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가족사를 이렇게 자주 여쭙보게 돼서 죄송한데, 큰 오빠가 그러면 아버지 역할을 하셨겠네요?

17. **구술자** 그렇죠

18. **면답자** 그럼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으셨어요?

19. **구술자** 02:33 저 같은 경우는 막내이다 보니까 그렇게 경제적인 거는 제가 못 느꼈어요!

20. **면답자** 02:44 그러면 그 사범님의 어린 시절에 그 가치관을 형성하게 될 그 중요한 시기에는 그럼 오빠 되시는 분의 영향을 형제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셨겠네요.

21. **구술자** 03:00 그렇죠. 이제 제가 막내이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오로지 저한테 좀 많은 거를 이제 투자도 하고 또 물론 이제 그때는 남녀평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큰오빠와 작은오빠는 아들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또 저희는 또 언니와 저의 그러니까 자매들은 나름대로 또 아버지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시니까 별로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22. **면답자** 03:34 그럼 자매들과의 관계는 어떠셨어요?

23. **구술자** 03:38 저희는 언니들과하는 게 막내이고 연세가 좀 많이 차이가 나요. 나이 차이가!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별로 없이 자랐던 것 같아요.

24. **면답자** 03:53 그러면 원만하고 무난한...

25. **구술자** 03:56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네

26. **면답자** 03:59 그러니까 본인이 인격이 좋아서 무난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오빠 언니들이 인격이 좋은 거예요?

27. **구술자** 04:05 저희 오빠나 언니들이 저한테 모든 걸 양보를 많이 해주셨다고 봐야죠. 네.

28. **면답자** 04:15 나이 차이가?

29. **구술자** 04:16 많아요. 많이 나요. 네

30. **면답자** 04:18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학교도 계속 서울에서 다 다니셨어요?

31. **구술자** 04:24 네

32. **면답자** 04:25 그때는 국민학교 죠?

33. **구술자** 04:27 그렇죠. 국민학교 국민학교는 제가 이제 원효로 2가에서 태어났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 전매청에 동대문구에 있는 전매청을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용두국민학교라고 제가 거기를 졸업했어요. 용두국민학교 졸업해서 용두동에서 계속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와서 거기서 태권도도 거기서 하면서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냈죠.

34. **면답자** 05:01 그럼 태권도의 인문이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35. **구술자** 05:05 네 국민학교 5학년 때 했습니다.

36. **면답자** 05:07 5학년 때 어떤 계기가 있으셨었어요?

37. **구술자** 05:10 특별한 계기가보다 제가 좀 남에게 지는 걸 싫어해요! 약간은 좀 남성적이라 그럴까? 제 나름대로 저희 운동장에서 전부 학생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특별하게 운동을 잘하는 거예요! 이 팔굽혀펴기를 그래서 옆에서 눈여겨서 보니까! 저는 한 몇 번밖에 못 하는데 이 친구는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육 시간 끝나면서 그 친구를 졸졸졸 좇아다녔죠! 좇아가 봤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태권도 도장을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태권도를 하면 체육 시간에 이렇게 운동을 잘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바로 이제 집에 가서 그때는 또 여성들이 태권도를 한다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좀 말린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야말로 적금 통장을 뜯어서 그때는 인건비도 굉장히 지금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왔던 거죠. 한 500원인가 뭐 하여튼 좀 왔었어요. 그 돼지저금통을 뜯어서 그다음 날 체육관을 간 거예요. 학교 끝나고 혼자 그래서 가서 입관하고 도복 받고 운동을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너 왔어! 이제 이렇게 돼서 그 친구랑 같이 이제 친하게 지냈지만 지금 그 친구는 이제 태권도를 안 하고 있고 저는 지금까지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38. **면답자** 06:48 그러면 그 우연히 본 친구의 그 운동 능력을 보고 반에서 태권도를 시작을 하셨을 텐데 그 저금통까지 그렇게 털어서 그래도 집에서 알고 나서 반대하지 않으셨나요?

39. **구술자** 07:04 제가 사실 집에다가 알려지를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아버지가 완고하셨거든요. 특히 그때 시절에 여자가 도복을 입고 태권도 도장에 가서 운동을 한다? 좀 싫어했었죠! 그래서 저는 사실 몰래 가서 그때는 과의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수업 끝나면 태권도 도장 가서 태권도 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제가 정말 애피소드도 많아요.

40. **면답자** 07:39 재밌는 거 하나만 들려주시죠!

41. **구술자** 07:41 아니 저는 도복을 땀이 나서 빨아야 되는데도 집에 가서 못 빨았어요! 혼날까, 봐. 그래서 저는 친구들 막 체육관을 꼭 데리고 가서 나 운동하는 거 보여주고, 야 오늘은 네가 빨아와! 다음엔 내가 빨아와! 해서 들어가면서 도복을 빨아올 정도로 제가 그때만 해도 그런 좀 기질이 있었나 봐요? 그냥 그리고 그땐 여자가 없었어요. 여학생이 없었어요. 거의 다 남자 속에서 유일하게 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하면서 길을 걷다가 시험 나가고 뭐 하고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체육관에 가면 저를 또 예뻐해 줘요! 그러니까 워신나서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좀 운이 좋은 사람 같아요.

42. **면답자** 08:43 그럼 우연히 시작한 태권도가 이제 꼭 초등학교 때 진행이 됐는데! 그럼, 유단자는 언제 되셨나요?

43. **구술자** 08:51 그때는 이제 그걸 뭐라 그래야 돼? 유단자라기보다... 그 관에서 이렇게 단증을 줘요. 관에서 네! 제가 지금 한무관이었거든요. 그때는 그 한무관 무덕관 지도관 정도관 7, 8개 관인가 9개 관인가 있었어요. 근데 관에서 일단은 단증을 발급한 다음에 사실 뭐라 그럴까? 그 공인단을 받는다는 거는 상상을 못했어요~

44. **면답자** 09:24 그때는 모를 때가 더 많죠. 의미가 없었죠

45. **구술자** 09:28 네! 그리고 그냥 체육관에서 관 단증을 주시면 그게 내 단증인가 보다 생각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시험을 나가야 되는데 그 초단 이상이 돼야 시험을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단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단증만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저희 관장님께서 관 단증을 만들어서 제가 한성여고에... 그때는 국기원이 없었을 때예요. 이제 한성여고라고, 저기 돈암동에 한성여고 체육관에서 시험을 하는데? 거기를 나가게 됐죠. 그런데 관 단증은 사용이 안 됐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어떻게 시험 나가기 위해서 단증을, 발급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 기억으로는 제 기억이예요! 그래서 시험 나가서... 여자 선수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펀급, 플라이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는 키 큰 애나 작은 애나 뚱뚱한 애나 날씬한 애나 다 필요 없어요. 두 줄로 그냥 짝 세워놓고 여기 같이 계신 분이 나의 짝수예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댄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메달을 땀던 걸로 알고 있어요.

46. **면답자** 10:57 그러면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입문을 해서 관 단증을 취득하고, 그리고 중학교 때 이제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대략 중학교 몇 학년쯤 될까요?

47. **구술자** 11:12 중학교 2학년 때쯤 됐을 것 같아요.

48. **면답자** 11:16 그래도 꽤 많은 시간이 갔네요. 그럼, 중학교 시절의 사범님은 어떤 학생이었나요?

49. **구술자** 11:25 저는 사실 이렇게 평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기질이 있어서 제가 태권도를 좋아하면서도 이렇게 뭐랄까? 어디 가서 앞장서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좀 통솔력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중학교 가서도 태권도로 학교에 가서도 “야 나 태권도 몇 단이야.” 막 이래 가면서 애들한테 막 과시하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요.

50. 면답자 11:57 그때만 해도 이렇게 도복! 남자들 표현에 도복 이렇게 딱 걸쳐서 어깨 위에 딱 갖고 가면... 동네에서 시끄러웠던 친구들도 이렇게, 야 뭐 이렇게 좀 비켜주고, 뭐 그랬다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51. 구술자 12:12 도복을 딱 해서 검정띠로 묶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깨에다 딱 메고 버스를 타도, 버스 요금을 안 받을 때였었어요. 그 정도로 좀 태권도의 위력이 세다 그럴까? 그리고 배가 고파서 국화 빵집 같은 데 가잖아요. 예전에는 국화빵 같은 데 빵집에 가면 돈을 뭐 얼마를 줘도 도복을 딱 보면서 “넌 더 먹어야 돼 너는 운동을 열심히 하니깐 좀 더 먹어야 돼 너 그거 갖고 성이 안 잘 것 같아!” 이러면서 네 그랬던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52. 면답자 12:50 그러면 혹시 그 중학교때는 좀 예민한 사춘기인데 그건 남자친구도 사귀어보셨어요?
구술자 13:01 저 남자를 남자로 보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라는 게 있지 않았어요!

53. 면답자 13:06 오고 싶은데 못 온 건 아닐까요? 못 다가온 건 아닐까요? 남학생들이

54. 구술자 13:11 남학생이라고 보이지를 않고! 그냥 동등한 입장으로 생각을 하게 됐죠. 오히려 남자들이 저를 무서워했으니까

55. 면답자 13:22 외도와는 달리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학교 시절에 이렇게 영화처럼 좀 상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장정희 사부님 그럼 고등학교 시절은 어떠셨나요?

56. 구술자 13:38 고등학교... 그러니까 제가 태권도를 좀 일찍 시작을 하다 보니 시합이 1년에 한 번씩 있는 시합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리고 선수들이 선수층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저처럼 이렇게 꾸준히 오래 했던 친구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합이 없다 보니까는 출전도 못 하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도 아마 시합이 없어서 안 뛰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졸업하던 해에 국가원이 설립되면서 이제 시합이 있었는데, 그것도 여자 개인선수권대회예요. 그때가 아마 74년도인지 5년도인지 정 그쯤 해서 제가 이제 선수로 출전을 했는데 그때도 선수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았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만약에 딱 출전을 해서 이제 계속 승승장구해서 이제 결승전까지 가잖아요! 가면 딱 선수 2명이 딱 볼 거 아니예요? 그러면 저는 한루판이고 이쪽에는 말하자면 무력관이나 지도관이면, 거기에 소속되신 어르신들이나 사범들이 홀에 다 나와서 응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 시합이 아니라 판과 판의 시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75년도인지 4년도 그때 금메달 땀으로 인해서 겨루기를 일단은 은퇴를 했어요!

57. 면답자 15:21 우승을 하고요?

58. 구술자 15:22 네 우승을 하고! 그래서 아 그래 나는 여기까지야! 그리고 금메달 따고서 이제 은퇴를 하고, 거기에 77년도인가 8년도에 사범 자격증을 따고, 심판 자격증을 받고, 제가 이제는 선수 생활 할 게 아니고 지도자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이제 4단 받으면서 사범 자격증에도 심판 여자 심판 최초로 제가 심판을 받았거든요? 심판받고 그때부터 이제 심판 활동하면서 왕성하게 했죠... 제가 사실 저는 아마 태권도에 좀 미쳤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리고 20대 때에 거의 제가 제 생활을 한 게 별로 없어요! 거~의 국가원에 가서 그러니까! 독보적으로 저 여자 하나니까! 일요일마다 심사 보면 가서 애들 겨루기 뜰어달리고, 또 시합 있으면 흥일점으로 또 심판 보고, 그때 뭐 정할 돈도 별로 받지도 못하면서 또 열심히 태권도계에서 활동하면서 82년도까지 그렇게 왕성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2년도까지 아주 정말 태권도에게 미쳤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아버지가 작고 하시면서 이제 결혼과 동시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또 출산과 또 아이 육아에 이게 병행이 되다 보니까! 잠시 태권도를 멈췄죠.

59. 면답자 17:12 제가 질문자로서 3년 주기로 지금 여쭙보고 있는데, 10년 주기로 답변을 하셔가지고...

60. 구술자 17:19 그랬구나? 하하하하

61. 면답자 17:20 제가 다시 고등학교 이야기로 잠깐 좀 더 해보겠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장정희 학생은 그랬고, 그럼, 고등학교 시절에 장정희의 학생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62. 구술자 17:35 고등학교 때는 좀 공부를 좀 했었어요! 사실

63. 면답자 17:40이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64. 구술자 17:42 응 공부를 좀 하려고 이제 저희 오빠가! 그야말로 우리 서울에 있는 명문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나는 너무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제대로 못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했는데 역시 나는 좀 공부에는 소질이 없는지? 오빠보다 좋은 고등학교를 못 가고 결국에는 이제 고등학교 3년이 짧잖아요? 사실 3년이 짧는데 제 나름대로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별로 그렇게 제가 기억에 남는 일이 좀 없는 것 같아요.

65. 면답자 18:23 그러나 그때도 태권도는 계속 그렇게 하셨고?
구술자 18:28 그렇죠

66. 면답자 도장에서?

67. 구술자 네! 학교에서 체육대회 할 때마다 제가 나가서... 시범이라는 시범은 제가 다 보이고, 학교에서는 아무튼 좀 유명했었어요! 도복 입고... 기왓장을 몇 장을 켜다는 등... 발차기로 하는데 주먹으로 켜다는 등... 하여튼 그런 거를 좋아하고, 공부는 뒷전이고, 어쨌든 좀... 태권도에 미쳤다고 봤었죠.

68. 면답자 18:55 태권도의 진심이셨네요?

69. 구술자 18:59 진심이라고 봐야죠. 네!

70. 면답자 19:03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 중에서 그것이 고등학교 끝 시절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입장을 하고, 겨루기를 이제 그만두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입장을 하면 기본이 엷되고 성취감에 의해서 더 하고, 하게 되는데? 근데 사범님께서는 왜 그만두셨을까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71. 구술자 19:26 아하...계기라기보다 경기가 많이 없었어요. 경기가 1년에 한 번씩 있다고 그러면은, 그 경기를 이제 내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릴 텐데... 여자 경기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정말 여학생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태권도 하는 여학생들이...

72. 면답자 19:54 제가 이제 남자들 선수들의 대회 성립이 그때 당시 보면 중등부라든지 고등부라든지 사실은 대진표를 이렇게 보면 그제 지금처럼 124강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성대회가 그렇게 체급 대회가 아니고 아까 말씀처럼 랜덤처럼 세워진 게 상대방이었다는 말씀은? 아주 재미있게 들리는... 그때니까 가능했던? 그런 경기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73. 구술자 20:31 제가 기억으로는 지금 제 기억이지만... 고등학교 때 별로 시합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74. 면답자 20:38 서울에서 만이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75. 구술자 20:40 전국에서! 네 여자 시합이... 그렇다고 남뎌 혼성으로는 안 했거든요.

76. 면답자 20:47 알 수가 없었죠?

77. 구술자 20:49 아니요. 제가 선수를 뛰었기 때문에 혼성이 없었죠. 있었으면 제가 나갔죠!

78. 면답자 20:55 그럼 그때 이제 지금은 보호대라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저 대나무?

79. 구술자 21:00 그렇죠. 여기 아대! 대나무로 만든 아대!!

80. 면담자 21:04 찬 사람이 더 아프고? 어떨 때! 그런 시절에 선수 생활을 하셨군요.
 좀 미련 같은 건 안 남았나요?

81. 구술자 21:13 제가 지금처럼 요즘에는 저희 후배님들이 많잖아요! 사실 태권도가 보급이 많이 돼서 여성 인구가 정말 지금 엄청 많잖아요? 9단들도 지금 벌써 얼마 나왔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성들이 태권도를 하기에 그렇게 적합하지 않았는지! 어쨌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시합을 못 뛰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75년도에 아마 시합을 뛰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랜덤이었어요.

82. 면담자 21:53 한참 공백도 있으셨네요?

83. 구술자 그렇죠!

84. 면담자 음...그러면 대학교 시절의 사부님은 어떠셨나요?

85. 구술자 22:04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대학을 못 갔어요. 사실 그때 제가 인천체전에 김오주 사부님이 너 메달이 지금 몇 개인데? 여기 인천체전이라도 다녀! 저한테 pingpong 권유를 하셨는데...제가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쁜데 인천까지 지하철 타고 내가 또 대학을 또 다녀야 돼? 나 공부하기 싫어! 그랬더니 저희 큰오빠가 너 대학도 안 다니면 나중에 시집도 못 가! 저희 오빠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걱정하지 마세요! 나 공부하기 싫어요. 나 그냥 이 태권도만 할게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왜... 하여튼 공부를 제가 싫어했나 봐요! 그래서 공짜로! 장학생으로...다니라고까지 권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래도 이제 학사를 받았죠. 그냥...

86. 면담자 23:09 한 몇 년 정도 지나고 만학을 하신건가요?

87. 구술자 23:12 만학을 했다는 건 제가 이렇게 태권도계의 활동을 하면서... 모든 게 취소였잖아요? 여성취향, 심판, 모든 게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인터뷰도 이렇게 사범들과 인터뷰하는데 이력서를 보면 다 학사, 석사, 박사예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에 제가 딱 느끼는 거예요.
 아니야 나 지금이라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 그때 공부를 안 했던 게 후회가 되고 이런 건 없었는데, 어느 날 그게 왜 해야 될 거를 안 했나? 참 내가 바보였구나... 그래서 50대 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이버도 있고 뭐도 있고, 저는 또 태권도에 이력이 있으니까? 어디서 와라! 그래서 가서 이제 건대를 입학하게 됐어요. 건국대학교 여기에... 그래서 건국대학교 가서 입학했는데 전부 다 그 어린 학생들이잖아요? 그 어린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하려니까? 좀 좀 애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거기에 또 분위기에 휩쓸리니까 애들 뭐 그냥 맨날 밥 사줘 가면서 같이 시험 보고 그랬던 게 참 기억에 남네요.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했던 것 같아요.

88. 면담자 24:38 그럼 대학 다닐 때 이렇게 소개팅이나 이런 것도 못 하셨겠네요? 하하하

89. 구술자 24:42 저도 그거를 젊은 애들이 그런 걸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한테 태권도를 왜 시 작했어요? 막 이러면서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뭐 소개팅이라기보다 아니 결혼을 해서 애들, 둘을 낳았는데 무슨 소개팅이겠어요?
 근데 이제 MT 같은 거 갈 때는 제가 쫓아갔죠! 어... 쫓아가고, 또 이제 개네들하고, 같이 어울 리고 또 교수님 카드 주면서 교수님 애들 맞았는 거 사주세요. 이래 가면서 또 품 좀 잡고, 또 MT 가서 뭐 수상스키 같은 거 타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걸 다 미리 배웠거든요. 개네들은 기 초 배우는데 나는 더 이제 스키를 타는 거예요~ 저분이 뭐 하는 분야? 애들이 이제 이런! 그런 기억이 있는데... 글썽요. 지금 생각해 보면 잘했던 것 같아요. 그 건대 다니면서 애들하고 어울렸던 기억도... 지금 생각해 보면 아 그래 선택을 잘했다.
 아이들한테도 좀 멋있고, 저는 아이들한테 사실 대학 얘기만 나오면 찡찡했었거든요?
 근데 몰래 이제 아이들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사실은 근대 나중에 다 알았어요.
 뭐 리프트 쓰고 뭐하고, 이런 거 다 애들이 해줬죠. 딸들이 다 해줬지

90. 면담자 25:59 지금까지의 장정희 사범의 태권도 인생의 전반기라고 보면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는 이

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물론 뭐 도장 같은 데나 이렇게 기관에서 보면 대부분이 1호 1호 이런 또 말씀 들어보면 운동도 잘했던 것 같고, 성격도 좋으신 것 같고, 그렇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서 그 시절에 여성이 태권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긍정적이 지는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가장 속상했던 일은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91. 구술자 26:44 사실 이제... 속상했다라기보다? 제가 도복을 입고 운동을 하고 길거리에 가다가 그야말로 힘든 상황에 딱 대처했을 때 우리는 또 그런 불의를 못 보잖아요? 그러면 막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게 제가 강패야 뭐야 여자가? 여자가 무슨 저 태권도를 해?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사실 그때만 해도 그 그리고 그때는 왜 그렇게 여성에 대한 편견이 안 좋았는지... 지금 감히 그런 얘기 하면 다들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제 시절에는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남자로 취급하고, 불량스러운 애로 취급하고,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기원을 가거나 항상 이럴 때는 여성스럽게 항상 뭐 청바지 입고 이런 게 아니고 항상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하고 다닌다든가! 그 남성하고 편견을 두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좀 노력도 많이 했죠. 부드럽게 여성으로서 지내려고...

92. 면담자 28:03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말씀을 이렇게 쪽 해 주셨지만, 그러나 이것이 늘 하고 싶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그것이 때로는 자의일 수도 있고 타의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일들은 어떻게 극복해 내셨습니까?

93. 구술자 28:26 근데 제가! 운동을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게 제가 뭐 생활로 인해서 태 권도를 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그냥 무난하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94. 면담자 28:45 그러면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고 선수생활도 했고 입상도 했고, 그래도 뭐 하여간 대회 개최 때문에 이제 거루기는 조금 씬다! 라고 보면 그러면 그때부터 바로 도장을 하시게 됐던 건가요?

95. 구술자 29:02 저는 지금까지 체육관을 운영하지는 않았어요! 운영하지는 않고, 제가 제가 운이 좋다 그 됐잖아요? 운 좋은 여자라고 제가 20대 때 지금 그 호텔을 경영하시는 분 아이들을 3명을 집에 가서 개인 레슨을 했었어요. 네! 개성국민학교 다니는 남자애들 셋인데... 제가 그 저택에 가서 꼭 카펫 깔아놓고 딱 태극기 해놓고, 개네들 3명을 개인 레슨을 받는 게 그게 웬만한 지금으로 말하면 부장 월급보다 낫았죠.
 개네들을... 개인 레슨을 계속하고, 또 그때 당시에 또 사우디에서 우리나라로 현대에서 초청한 사우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을 제가 또 워커히에서 개네들이 워커히의 숙소였거 든요. 그 학생들을 제가 또 다 말아서 가르쳤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정부에서 지원해 준 건 아니고, 그...우리나라의 기술을 배우러 온 학생들을 개인 레슨으로 체육관에서 운동을 가르키면서 거기에 대한 수입도 또 만만치도 않았고, 그리고 개네들이 태권도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 친구들 다 거의 초단 마서 아마 귀국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3형제도 국기 원에 가서 초단 따고 또 미국으로 보내고, 저는 이제 이런 케이스를 많이 했어요. 개인 레슨을...

96. 면담자 30:57 굉장히 앞서가는

97. 구술자 30:58 개인레슨을 많이 했습니다.

98. 면담자 30:59 굉장히 앞서가는 시스템이었죠. 저노동 고임금

99. 구술자 31:04 그렇다고 봐야죠?

100. 면담자 31:05 하하하 이제 대학 고등학교 시절까지의 태권도 인생에서 질문이 참 묘하기는 합니다만... 그 가장 기뻐던 일과 가장 슬펐던 일이 추억 되시는 게 있으십니까?

101. 구술자 31:26 저는 이제 일단은 태권도를 하면서 그 메달을 딸 때 그 관에서 오신 응원단들이 그냥 저를 무슨 영웅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지도관이다 그러면은... 장정 남이가 이긴 게 아니고, 지도관을 한무관이 이겼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였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나 큰일 했구나 관을 위해서 엄청 큰일을 했네! 그런 기억

이 나고, 슬픈 일이라기는 저한테는 별로 이렇게 슬픈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슬픈 일?

102. 면담자 32:17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짧게 선수생활을 했을 때 제가 가장... 아 이거는 내 길이 아닌가 봐! 라고 생각했을 때가 몇 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심판 부정! 그때는 이제 그게 뭐 만연했던 시절이니까 혹시 그런 차별 역할별 여성이니까? 뭐 그런 것을... 당해본 그런 기억은 없으실까요?
103. 구술자 32:47 저는 제가 이제 홍일점이다 보니까... 심판을 거의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남는 심판 생활을 하면서... 장충체육관에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초등학교 대회인데 장충체육관에서 하면 굉장히 큰 행사였어요. 근데 이제 국기원에서만 심판을 보다가 장충체육관을 가서 심판을 보는데? 이게 막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광희초등학교하고 남대문초등학교하고 겨루기가 붙었는데 제가 남대문초등학교를 승을 해야되는데 광희초등학교를 한 거예요.
홍·경이 바뀐 거죠? 근데... 그때 그 심판을 볼 때! 그 선수를 데리고 지금 광희초등학교 코치가 데리고 퇴장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의 심판에 오로지 잘못이 나왔잖아요... 잘못들은 걸로...그래서 아! 이거를 저도 이제 가만히 그 플로어에 서서 너무 이제 막 그 함성이라고 그럴까? 그걸 막 듣는 순간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셨더라고요. 근데 어느 관계자분이 가서 광희초등학교 코치님을 선수하고 데리고 왔어요. 다행히 그래서 번복을 했던 기억을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만나면 국기원에서 만나면 뭐~
104. 면담자 34:37 지금도 만나세요?
105. 구술자 34:38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얘기하면 다 아시는 분들이죠.
106. 면담자 34:44 심판 생활을 하시면서 에피소드가 어떤 것일까요?
지금 답변이 이 질문의 답변이에요!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은 대학을 가기 전까지 그 여자로서의 수련을 하는데 역할별을 당했거나 혹시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가? 그 질문이었습시다.
그러면 이제 사부님께서 고등학교 시절까지 이렇게 쪽~ 어떻게 보면 이제 승승장구하고 개인의 어떤 자존감이나 성취감도 아주 듬뿍 뽐냈던 것 같고, 그것이 이제 그 고등학교로 이어졌고, 선수생활까지 이어졌고, 그렇지만 그런 좋은 추억도 있지만 시대적 배경이 여자이기 때문에 여성이니까 뭐 이런 아픈 기억이나 또는 차별의 대우를 받았던 그런 기억도 있지 않으실까요?
107. 구술자 35:47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여성이라고 태권도계에서 차별을 받은 것은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108. 면담자 36:00 그럼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친구의 모습을 보고 도장을 입관하게 됐는데... 혹시 그게 관이었던 관이고 사범님은 혹시 기억이 되시나요?
109. 구술자 36:14 네! 저는 이제 한무관에 입관을 했고, 이제 직계 사부님은 이교준 사범님이라고 한무관 관장님의 막내 동생이 저를 직접 지도를 하셨죠
110. 면담자 36:36 정말 우연히 시작한 태권도가 사부님의 인생을 바꿔놓고 강력한 영향력을 지금까지 미치고 있네요.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제 9단이시고, 여러 이제 단체와 기관에 이렇게 봉사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틈틈이 태권도는 수련하고 계시나요?
111. 구술자 37:00 제가 이변에 이제 9단을 응심하면서 태권도를 저희는 지금도 여성 동호회가 있어요. 이제 한교회라고 이제 저희 5단 이상자인데 거기에 사실 5단은 2명밖에 없고, 거의 8, 9단이 많습시다. 한 달에 한 번씩 체육관에서 만나서 전부 도복을 입고 일단 땀을 내고, 이제 끝나서 샤워를 한 다음에 이제 또 맛있는 거 먹고 이제 좌담도 하고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그러기 전에는 제가 뭐 다른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112. 면담자 37:44 사부님이 보시기에 이제 한국 태권도계에서 여성의 역할과 기능 그다음에 이제 표현은 좀 모호한 표현이지만 여성의 참여율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도자 교육을 하면 뭐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여성의 비율이 30%를 넘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30%가 훨씬 넘습니다.

이런 태권도계의 현상을 보시면서 우리 태권도계에서 여성분들의 역할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13. 구술자 38:25 제가 생각하는 여성 태권도인들은 지금은 거의 남성과 평준화가 됐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거의 평준화가 됐다고 생각하고, 또 여성들이 그만큼 지지 않으려고 또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도 모든 경기 단체라는 게 다 마찬가지로지만... 사실 그 남성의 벽을 뚫고 똑같이 한다. 라는 거는... 지금도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봐요! 네
지금도 뭐 30%만 해라 그럼 남성 70% 여성이 30%밖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자 사범들 경기장에 가도 심판들 거의 한 뭐 한 50명이면 여자 사범 심판들 한 10명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면 몇 프로예요? 지금도 보면 그렇게 뭐... 물론 남성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해달라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직도 남성들이 월등하다고 생각해요. 음...여자들이 아직도 설 자리는 좀 더! 더 노력해야 된다.
114. 면담자 39:47 아마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참여의 기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성들이 참석 참여하는 것은 결국은 오래전부터 수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일정 단 이상이 됐을 때 그것이 심판으로 이루어지든 아니면 뭐 경기장에 임원으로 이루어지든 그것으로 이제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지금 분명한 것은 일선 도장도 그렇고, 우리 대한태권도협회나 태권도와 관련된 기관들을 보면 여성의 참여율이나 여성분들의 퍼센트가 확실히 달라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부님이 예전에 조그만 코 흘리기 5학년에서 시작했던, 또는 중학교나 이때 고등학교 때 같이 했던 동료나 친구분들이 지금도 같이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까요?
115. 구술자 40:52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사실 그때 같이 시합 뛰었던 저보다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요즘에는 거의 활동을 안 하시고 운동을 안 하세요. 근데 그때 75년도에 국기원에서 시합 뛰었던 친구가 지금 미국에서 운동 저기 뭐야 체육관 하고 있죠? 네 라스베이거스에서... 저랑 이제 겨우 결승전에 왔는데... 저한테 졌어요. 그 친구가...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결혼하고서 바로 LA라스베이거스에 들어가서 체육관 하면서 지금도 지도자의 길을 걷고 영화 찍고 지금도 태권도에 관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116. 면담자 41:43 그렇게 선수 생활을 하시고 그럴 때 당시에는 이게 훈련이라는 게 트레이닝이라는 게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자 선수들이 적었을 땐 어떻게 훈련하셨습니까?
117. 구술자 41:57 바로 그거예요~ 여자 선수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자들하고 겨루기를 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를 딱 졸업함과 동시에 시합을 준비를 하면서 그 동대문상고라고 있어요. 동대문상고에 윤 선생님과 지금 김용희 사범님이라고 김용희 사범님이 계시는데! 제가 거기 가서 훈련을 했어요. 남학생들하고... 그때 남학생들이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는 오일남이도 있고, 상천이! 상천이 맨날 누나하고 같이 이거 겨루기 상 대주는 거죠.
118. 면담자 42:39 김상천 교수?
119. 구술자 42:42 그렇죠. 김상천 지금 교수님이죠. 김상천이라고 오일남이는 완전히 저 누나를 메달 따기 위해서... 정말 헌신해 준 아우 중의 한 명이죠.
120. 면담자 42:52 하하 훈련 파트너로는
121. 구술자 42:53 네 훈련 파트너! 그리고 그때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런 에어컨 시스템 히터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그리고 그야말로 실내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거는 정말 땀큐예요. 그때는 그 더운데도 운동장에서 그 모래밭에서도 하고 저 정말 진짜 그렇게 했었던... 아마 서울대 갔을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근데 동대문상고에 힘을 많이 빌렸죠. 저는 사실 그러고서 75년도 메달 따면서 아니야 나는 이제 그만할 거야! 또 내가 어디 가서 또 저기를 해? 그렇게 된 케이스예요.
122. 면담자 43:41 그때 당시에 도복은 광복 도복 뭐 그런 거였죠?
123. 구술자 43:47 광복 누리끼리한 거 있죠? 왜 노란 색깔

124. 면답자 43:49 스티치는 소리 잘 나고?
125. **구술자 43:50** 네 노란 색깔이고... 아대도 대나무로 이렇게 해서~ 천 해가지고 저 다리가 이래요. 이거 일어 맞아 가지고 말도 못 해요.
126. 면답자 44:02 영광의 상처 내요.
127. **구술자 44:03** 영광의 상처가 아니고 이렇게 맞은 거예요.
128. 면답자 44:07 근데 그것이 오늘의 장정희사범을 만든 건 아닐까요?
129. **구술자 44:12** 그렇게 생각해야죠? 네! 정말 이 손 여기 지금 제가 사실은 결혼하고서 많이 발전한 거죠. 여성으로서 히히히.
130. 면답자 44:25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범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전반기를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에너지 많고 영웅심 강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그 에너지를 태권도가 아니라 다른 에너지를 쏟았다면 공부를 했다면, S대학을 갔을 것이고 그렇죠. 혹시 나쁜 쪽으로 했으면 아마 사회면에 또 하하하... 다행히 태권도를 만나서 조금 바뀌서 보면 사범님은 그래도 태권도라고 하는 좋은 인생의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아주 멋진 위치를 지금 위치에 계시고, 좋은 후배들을 이렇게 만나시고 계실 것 같은데...지금 아까 도복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지금도 이제 도복을 입고 계시고, 그때의 정신과 가치가 아마 지금이 스튜디오 오입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발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맨발로 오신 그 정신 또 그러한 태도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 태권도가 주지 않았나? 아... 그런 생각이 후배 입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아! 내 장정희가 고등학교 때까지 태권도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견뎌낼 수 있었어... 혹시 그러한 어떤 철학 같은 게 있으셨나요?
131. **구술자 45:52** 사실은 태권도는 있잖아요. 무도인 무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태권도를 했기 때문에 더 그 정신력을 키우면서 잘해야 되겠다! 라는... 특히 여성으로서 여성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어디 가서든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항상 태도나 언어나 모든 것을 항상 신경을 써가면서 지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132. 면답자 46:27 혹시 그러한 그 삶의 태도를 가르쳐준~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사부님이 혹시 따로 계신가요? 개인적인 태권도 인사에서?
133. **구술자 46:41** 저는 이제 일단 여성 태권도인이라면... 제가 그 한성여고에서 시합을 펼 때부터 지금 현재 미국에 가 있는 노스캐롤라에 가 계시는 남궁명석 선배님이 계시죠.
그때 그 사부님은 2단인지 3단인지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근데 이제 2단에 될 사람이 딱 3명인가 4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메달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초단은 조금 있었죠. 그러니까 2열로 세워서 했으니까? 근데 그 사범님이 정말 체격은 작으신데... 도복을 입고 시합을 뛰는 걸 보면서 저도 시합에 그때 참가를 했지만서도 그 사범님의 그 우렁찬 목소리! 박력 있는 그 모습! 야 대단하시다~~저분이 우리 선배시구나. 저 나름대로 사실 좀 감탄을 했죠. 중학생이면서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또 다른 여러 가지로 저를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
134. 면답자 47:53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선수 등록증 뭐 지금도 갖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135. **구술자 48:01** 선수 등록증이라고 특별히 저는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선수 등록증이 아니고 그냥 단종만 가져가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잘 모르겠네요.
136. 면답자 48:13 그러면 그 최초의 그 입상 경력이 75년도였나요?
137. **구술자 48:18** 아니죠. 70년도에 입상을 했죠.
138. 면답자 48:21 70년도에 대회명이 어떻게 됐었나요?
139. **구술자 48:23** 그냥 여자개인선수권대회예요.

140. 면답자 48:26 그럼 이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줄로 서는데, 단별로 쪽~ 세워서! 그 앞에 쓴 사람이 내 파트너 해요?
141. **구술자 48:38** 아니죠. 옆에 그러니까 2열로 세우니까.
142. 면답자 48:39 아 옆에
143. **구술자 48:41** 그러니까 딱 2열로 앉아 있으면 마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너는 오늘 나한테 죽었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시합에 임하는 거예요.
144. 면답자 48:51 그렇게 해서 이제 대회를 하시고, 그리고 국제대회는 언제 나가셨나요?
145. **구술자 48:56** 저는 국제대회는 겨루기는 아예 뛰지도 못했고, 제가 겨루기 은퇴한 후에 주한 외국인 시합이 이제 창단이 됐죠. 주한 외국인 그때도 여자 시합이었는데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주한 외국인대회! 그래서 이제 제1회 주한외국인대회 맞아 국기원에서 이제 신설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저는 국제대회는 한 번도 뛰지를 않고, 겨루기로는 네! 겨루기로는 뛰지 않고! 이제 83년도에 결혼과 동시에 아이들 뭐 결혼하면서 출산하면서... 육아하면서... 좀 잠깐의 휴식 기간이 있었죠.
왜냐면 아이들 때문에 그럼 과 동시에 좀 아이들 5살 6살 때인가? 세계 제1회 태권도선수권대회가 잠실체육관에서 아주 성대하게 열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에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야! 너 후배들 끌어모아서 너 경기 진행하는데 안내를 맡아라! 이제 저를... 그때 이제 애들을 다 재껴 놓고! 거의 그 잠실에 가서 자고 그 후배들 다 데려다가...
146. 면답자 50:26 그제 83년도였었나요? 잠실 세계선수권대회
147. **구술자 50:31** 83년도는 아니고 85?
148. 면답자 50:33 5년 정도
149. **구술자 50:35**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50. 면답자 50:36 질문을 조금 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결혼을 83년도에 하셨는데 그럼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결혼할 때까지의 그때의 태권도인으로서의 삶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사우디에서 온 친구들... 또 어떤 분의 자제분들... 이렇게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이제 태권도 심판으로서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하셨던 거죠? 그럼 그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셨던 그 태권도인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심판도 있을 것이고? 경기는 그때 당시에는 안 하셨을 것 같고...
151. **구술자 51:25** 경기는 안 하고 거의 국기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152. 면답자 국기원에서 뭘 했을까요?
153. **구술자 심판! 심사위원!** 매일 거기 가서 20대를 다 보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활동은? 저도 이제 제 용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체육관에 가서 운동 가리키고, 이제 반포에 있는 잠실체육관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운동 가리키면서 어후~ 또 좀 잘 가르쳐요? 관원이 150명 200명까지 제가 올려놓고 또 개인 레슨하고! 저는 개인 레슨을 좀 많이 했어요.
또 페이도 좀 많이 받았어요. 좀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얼마 받고? 그제 아니고 저는 초단 딸 때까지 얼마! 딱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딱 받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국기원 활동하다 보니 직장생활도 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아마 20대를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154. 면답자 52:23 그러면 이제 그 83년도에 결혼을 하시고, 출산을 하시고, 그때는 또 공백이 있었나요?
155. **구술자 52:32** 공백이 좀 많았죠.
156. 면답자 52:33 한 몇 년간 정도 있으셨을까요?
157. **구술자 52:36** 그러니까 이제 그 5-6살 때까지 애들 키워냈을 때 협회에서 불러내서 이제 세계 대회 경기 치르면서부터 이제 서서히 제가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또~ 여성 필 말아라 뭐 말아라 하면 저는 다 거절 안 하고 다 했던 걸로 생각이 나요. 지금 생각해 보면

158. 면답자 53:01 장정희 사범 그러면 이제 1호 자가 많이 불지 않습니까? 하하하
심판도 여성 심판 국제심판 1호 이런
159. 구술자 53:13 저 국제심판은 안 받았어요.
160. 면답자 53:15 1자가 많이 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여성들의 심판이나 아가 심사위원이나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나요?
161. 구술자 53:27 많지가 않았죠. 많지 않으니까, 저를 계속 불러낸 거죠.
왜요? 없으니까 여자 심판을 누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의 홍일점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김한자라는 친구가 받고, 또 이제 받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양인옥 서춘희 정효심 사범 그 이후로 이제 심판이 이제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뒤로 또 쑥 또 빠지고, 이제 또 이 가정을 꾸리고 그랬죠.
162. 면답자 54:01 조금 몇 년 앞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세계선수권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제도권의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느냐고 복귀를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88올림픽이 서울에서 시작이 됐을 때? 그때 사범님은 역할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163. 구술자 54:20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가 이제 태권도계에서 딱 하나를 못 했던 게 있어요. 국제심판을 제가 못 뒀어요. 그러니까 제가 84년도에 출산했죠. 86년도에 또 하나 했죠. 88년도에 국제심판 자격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8년도에 너무 이 배우른 모습을 가서 사범들 앞에 가서 그 교육을 받으면서 이 임신한 걸 보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나 국제심판 안 받아도 돼. 나 지금 조용히 있고 싶어. 그래서 사실 그래서 국제심판을 놓쳤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심판을 못 받았죠. 지금까지
164. 면답자 55:09 그럼 그때 올림픽 때 시범 종목이었지만 그때 어떤 역할을 따로 하지는 않으셨었나요?
165. 구술자 55:16 저는 안 나왔어요. 조용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166. 면답자 55:26 심판 볼 때 뭐 재미있는 일 없으셨을까요? 아가 장충체육관에서 이제 학교를 반대편에 손을 드는 거? 뭐 그런 일처럼 혹시 다른 뭐 재미있는 일 없으셨었나요?
167. 구술자 55:41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그때도 심판들이 이렇게 좀... 저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남자 심판들 속에서 여자가 혼자다 보니까 거의 너 잘 보고 있네! 잘하고 있네! 이런 소리만 들었지. 야! 너 그거 점수 잘못 줘서!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딱 에피소드라고 그러면은 장충체육관에 그 큰 무대에 가서 정말 남대문하고 남대문초등학교하고 광희초등학교 붙었는데 반대로 들은 거! 그거는 정말 아마 나이 먹어서도 아마 그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하하하
168. 면답자 56:26 이제 그러한 역사를 쭉 지나서 이제 증진이라고 표현이 돼야 될 시점에 이제 오셨죠. 이제 대학도 이제 졸업을 만화의 꿈을 다 이루시고, 이제 증진반열에 들으셨는데 그때부터 또 하나 불기 시작하는 게 이제 그 여성들의 어떤 모임! 예를 들면... 이제 그 여성태권도회? 시작이 되고 그러한 모임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연계가 사범님도 계셨고, 주변 동료분들도 계셨었지만, 그것이 쭉 이어져서 이제 여성 태권도연맹까지 아마 이어진 거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 여성태권도연맹까지 이루어지기까지의 장정희 사범이 한 역할과 그때의 기억에 남는 일들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169. 구술자 57:29 이제 지금 이제...연맹으로 탄생하기까지 여성연맹이 탄생하기까지는 정말 긴 세월이 필요했었어요. 긴 세월이 필요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여성들 지금도 우리가 고단자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모임을 한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여성들이 태권도? 체육관을 운영하시는 체육관 사범들이 많았었어요. 여성들이... 그래서! 그 태권도 사범들과 여성들끼리의 우리가 모임을 가져보자! 해서 그러니까 태권남자회라는 거를 이제 창단을 했죠. 그때가 아마 80, 85~6년도 86년도에 이제 태권남자회를 그 모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조금 이제 좀... 어느 정도 우리 여성 사범들이 조금 나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이제 그 모임을 하면서 이제 그때도 만나서 운동하고, 이제 이런 소모임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발전이 되다

- 보니까? 여성태권도회라는 게 또 발전이 됐죠?
그렇게 해서 국기원에서 맨 처음에 남자회로 시합을 경기를 하고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까지를 국기원에서 대판을 해서 시합을 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그래 이제 1회 대회 모든 거는 제가 주축이 됐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주축들만 해주고, 또 이제... 우리 후배가 또 바톤 받고 또 후배가 바톤 받고 하다가? 8회 대회는? 여성 여성 한국여성태권도회로 서영애 사범이 마지막에 8회 대회를 경기를 치렀죠. 국기원에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아마 여성연맹이 발족이 됐나요? 그 다음 해가 아니구나!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우리 이제 발전이 되다 보니 우리 여성연맹을 창단을 하자! 이제... 여러 사범들끼리의 또 의견이 이제 중지가 돼서! 저 나름대로... 가칭 여성태권도위원장 해서 막 경기장을 다니면서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170. 면답자 1:00:17 그때 만들어진 게 여성 한국여성태권도회?
171. 구술자 1:00:21 아니죠! 태권남자회 다섯 글자
172. 면답자 1:00:24 그러니까 그거 다음에 또 하나의 모임이 승계가 돼서 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173. 구술자 1:00:30 하나 승계가 된 게 한국여성태권도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한국여성태권도연맹이 발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태동이 된 거예요.
174. 면답자 1:00:43 그럼 이제 지금 회장님 입장에서 보면 저희도 이제 그 여성연맹이랑 이제 일을 좀 많이 하는 타입인데... 이제는 이제 뭐 이렇게 한 두 걸음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으시잖아요?
어떠십니까? 후배들이 이렇게 아는 거 보면...
175. 구술자 1:01:04 제가 이렇게 지켜보는 과정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어렵게 발족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정말 끝까지 여성연맹이 갔으면 하는 저의 선행로서 바램이죠~ 지금도 주변에서 왜 남성연맹도 있어야 돼? 왜 여성연맹만 있어? 딱 이렇게 자꾸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런 거를 떠나서! 일단은 저희가 어렵게 창단을 했으니까, 일단은 끝까지 여성연맹이 존재했으면 하는 저의 바램이에요.
176. 면답자 1:01:42 이제 차별의 시각으로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평등이라는 시각에서 좀 들여보면 특별히 여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연맹이든 아니면 여성태권도회가 됐든!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보호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177. 구술자 1:02:12 사실 저희 태권도인들이 보호를 받아야 된다. 보호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보다 일단은 좀 협회나 모든 기관에서 그래도 여성태권도인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니네가 편데? 뭐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그래! 여성 태권도 애들 잘하고 있네! 하면서 좀 옆에서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는 그런 문화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에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78. 면답자 1:02:42 그러니까 이제 사범님 말씀은 여성이라고 하는 단체에게 특별히 보호나 혜택이나 이런 것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격려를 해주고 어떤 기회라고 하는 형평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한 것 같다. 그 말씀이죠?
179. 구술자 1:02:59 네 맞습니다.
180. 면답자 1:03:00 그런 말씀이시군요. 저도 뭐 그 말씀에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연맹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서 상당 부분 이제 사범님께서 기여를 하셨는데, 뒤돌아봤을 때 그 시절에 그 시절에 뭐 표현이 좀 투박하긴 합니다마는 장정희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그것이 이렇게 이끌어졌을까 태동이 됐을까? 또 이렇게 잘 만들어졌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어떤 점이 있으셨었어요? 여성연맹을 만드실 때
181. 구술자 1:03:44 사실 여성연맹을 만들 때에 후원자가 없었잖아요. 모든 거는 좀 후원을 좀 해줘야 되

는데... 재정적으로 다 머니잖아요~머니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협회에서는 궁극적으로 승인을 못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저희는 끝까지 해야 되겠다! 라는 고집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걸 하기까지 정말 어려운 시련이 있었죠.

근데 저희가 나름대로 사무실을 정말 멋지게 가꿔서 집기 들여놓고, 정말 그 다 시설 갖춰놓고, 저하고 우리 후배하고 같이 국회로 애경그룹 장영신 회장 뭐 여러 사람을 만났었어요. 사실 재정적인 걸 좀 지원해 주실 분을... 만나고, 또 다른 분들이 소개해 주시면 가서 또 만나서 차 마시면서 또 좀 도와주십시오! 회장 한번 해 주십시오~ 하고 그랬는데, 그 노력이 저희가 매일 아침에 가서 우리 여성연맹 가칭 같은 여성태권도연맹 간판을 일단 걸어 놔기 때문에... 저희 저희 후배들 매일 사무실에 가서 우리 사무실이잖아요~ 그 여성들만 가질 수 있는 사무실이잖아요!

거기 가서 정성과 노력을 쏟다 보니... 딱! 저기 뭐야 사무실에 딱! 오셔서 딱~ 이렇게 보시더니~ 딱! 의자에 앉으시더니 5천만 원을 딱 써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등자 회장님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운영 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연맹이 탄생이 됐죠. 대회도 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잘하고 있어요.

182. **면답자** 1:05:59 그 사범님이 이제 그 시절을 쭉 겪고 지금의 이제 다시 여성연맹을 본다면서 내가 다시 한번 여성연맹의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어떤 분야에서 한번 도움을 주고 싶으세요? 사범님 시각에서 지금 시각에서 보시면?

183. **구술자** 1:06:20 지금 시각에서 도움이라기보다! 제가 돕는다는 것보다? 우리 여자 사범들끼리의 서로 좀 단합을 해서 좀 예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저는

184. **면답자** 1:06:36 그럼 질문은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나 장정희 사범인데 우리 같은 여성들끼리 우리 여성연맹이 이런 일들을 또는 이런 방향으로 뭐 어떻게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지 않을까요?

185. **구술자** 1:06:59 아니 지금은 제가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는 없고, 지금처럼만 잘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186. **면답자** 1:07:08 말씀을 일부터 아끼시는 건 아닐까요? 하하하

187. **구술자** 1:07:10 아니요~! 아껴야 될 이유가 없죠! 제가 왜 아껴야 됩니까?

188. **면답자** 1:07:15 그럼 이제 이제 지금까지는 장정희 사범의 입문부터 겨루기 선수! 그리고 겨루기 선수에서 결혼과 함께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제 여성회와 관련된 일들을 쭉 해오셨는데... 질문을 조금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렇게 겨루기 선수로서 활약을 해오고, 그 오랜 시간을 해오던 분이! 이제는 그 품새 선수로서 세상에 '짠'하고 나타나시게 된 거죠? 어떤 계기로 그렇게 품새 쪽에 입문하시게 됐나요?

189. **구술자** 1:07:59 저희 한무관의 관장님께서 품새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무관 관원들은 품새를 잘한다는 소리를 태권도계 어로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그 여성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운동을 가끔 하거든요? 도복을 입고 운동을 하는데 우리 서영애 사범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 체육관에... 그래서 같이 운동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 서영애 사범이 “사부님 이제 애들 다 컸잖아요? 사부님 나오셔서 시합 좀 뛰세요.” “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쉬었는데 어떻게 시합을 뛰니?” “아니예요 사부님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충분히 시합 될 수 있어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노력해 볼까? 이래서 품새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190. **면답자** 1:08:55 그게 대략 몇 년쯤일까요?

191. **구술자** 1:08:58 그게 2002년도?

192. **면답자** 1:09:04 2002년? 품새에 입문을 하셔서 품새 선수로서 출전도 하셨었죠?

193. **구술자** 1:09:17 그렇죠! 계속 선수 생활을 했죠. 이제~ 왜냐하면! 저희 한국에... 우리 태권도가 중주국이잖아요? 근데 외국에는 50대 장년부가 그 여성들이 꽤 많아요. 근데 중주국에서 여성대표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50대 부가... 그러니까 또 태권도협회에서 “너가 나가야 돼!” 딱 압박이 오는 거예요. 서영애 사범이 “사부님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정말 죽기 살기로 노력했죠.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면 체육관으로 바로 달려가서 운동하면서, 시작을 하게 된 게 1회 대회 때 금메달 땀!

194. **면답자** 1:10:02 나이적으로 몇 살이셨죠?

195. **구술자** 1:10:04 50대죠! 장년부가 50대니까

196. **면답자** 1:10:06 그러니까 50 몇 살? 구술자 54살? 54살...근데 사범님은 좀 특이한 이력이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는 중에 알게 됐는데, 이제 겨루기 선수는 그렇게 마감을 했고, 품새에 '짠'하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보통은 제가 이걸 의도적으로 여쭙보는 건데... 보통은 이제 선수 생활을 하고, 코치를 하거나 뭐 이러는데 사부님은 2007년도에 세계품새선수권대회 코치를 하고 2010년도에 세계품새선수권대회 장년부에서 1위를 하셨어요. 이게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 걸까요?

197. **구술자** 1:10:43 히스토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중주국을 대표할 수 있는 품새 여자 선수가 없었어요!

198. **면답자** 1:10:53 아니 코치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199. **구술자** 1:10:54 아니죠. 2002년도에 잠실체육관에서 1회 대회를 선수로 뛰었죠.
네 그래서 금메달을 땀. 그런데 갑자기 또 2회 대회를 삼산체육관에서 하는데 인천 갑자기 장년부를 또 없애는 거예요~! 여자 장년부를 추천이 안 돼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전 또 뛰어요?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난 코치라도 이제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선수들하고 그때 누구야? 정국현이라고 나하고 이제 남자 코치 여자 코치 해서 삼산체육관에 와서 매일 출근하면서 이제 선수들하고도 같이 뛰고, 근데 이제 또 3회 대회 때 짠! 하고 또 터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저는 그래도 계속 운동을 했기 때문에 터키까지 갈 수 있는 거죠? 터키를 갔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터키에 가니까 홀투아에 딱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그게 열심히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예요. 거기 가서 동메달을 딴 거예요. 저 품새 선수로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 동메달 1 있어요.

200. **면답자** 1:12:10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기록 조사가 잘못된 것 같은데 금메달 2개 은메달 1 동메달 1

201. **구술자** 1:12:20 금메달 2개 은메달 1 동메달 1

202. **면답자** 1:12:23 그러면 그 금메달은 2002년

203. **구술자** 1:12:28 2002년도 잠실체육관 세계품새선수권대회 1회,

204. **면답자** 1:12:29 대회 잠시 세계 대회 세계 품새 선수권대회 1회 그리고 2회 삼산체육관에서 했던 세계품새선수권 대회 코치

205. **구술자** 1:12:44 코치 여자 코치

206. **면답자** 1:12:45 코치 그리고 터키에서

207. **구술자** 1:12:49 3회 대회에 터키에서 동메달! 4회 대회는 카이로에서 은메달! 그다음에 5회 대회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금메달 그리고서 딱 또 은퇴했죠!

208. **면답자** 1:13:09 복귀? 그러니까 입문도 화려하시지만, 은퇴도 아주 정확하게 정확하다는 건 아니죠? 하여간 전광석화처럼 하시네요.

209. **구술자** 1:13:24 제가 봐도

210. **면답자** 1:13:25 후회는 없으세요?

211. **구술자** 1:13:27 네 후회는 없습니다.

212. **면답자** 1:13:28 아쉽지도 않으세요?

213. **구술자** 1:13:30 좀 아쉽긴 했는데... 더 뛰어도 되는데... 제가 계속 금메달을 도전을 하면 멕시코 선수 이태리 선수들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금메달 따면서 은메달 선

- 수한테 그랬어요!
 “나 내년에 안 나올 거야. 너 내년에 열심히 해서 골드메달 따!” 그랬어요.
 정말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다음 해에 어디야 거기 러시아 어디야 거기 가서 그 친구가 금메달 땀잖아! 제가 딱 빠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거 폼세 선수권대회 나가려면요. 매일 운동 안 하면 안 돼요. 매일 스트레칭 안 하면 안 돼요. 거기에 시간과 그게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세요? 겨루기하고 또 틀려요.
214. 먼담자 1:14:20 제가 이어서 이제 드릴 질문이 겨루기와 비교입니다.
 이게 비교가 사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루기는 정말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신체적 기능이 최정점에 있을 때 하신 거고, 폼세라고 하는 것에 '짠' 하고 나타났을 때는 좀 표현이 저기지만 아주머니로서 장년으로서 아이 두 아이의 엄마로서 오셨기 때문에... 완전히 사람은 하나지만,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도전을 한 거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215. 구술자 1:14:56 그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겨루기 같은 경우는 거침없이 내가 뿜 수 있잖아요! 모두 발차기 뒤들러차기 저는 정말 발차기 잘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신체 조건이 좋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65였으니까? 작은 키는 아니었던 말이지요? 정말 이렇게 겨루기 할 땐 무섭게 했어요. 그냥 득점만 따면 되잖아요. 이거는 발차기 같은 걸 득점만 따면 일단은 우승이니까! 겨루기는 그렇다 쳐요~! 폼세는... 이 정말 선이 이 폼세 선이... 정확해야 되고 정말 멋있어야 돼요!
216. 먼담자 1:15:42 섬세해야 하고
 217. 구술자 1:15:43 섬세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겨루기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죠! 이 선 뭐 여러 가지...이게 이게 얼굴 맞기 아니고 얼굴 맞기도 사선이나? 뭐냐? 그러니까 저는 정말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초등학교... 저기 뭐야? 판원들 오기 전에 국가대표 선수들끼리 매~일 가서 했어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따따~ 집안일 해놓으면 애들 학교 보내고 남편 사무실 가잖아요?
 그리고 운전하고 바로 체육관에 가서 국대들하고 같이 운동하는 거예요.
 겨루기는 정말 득점만 따면 되잖아요! 폼세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거를 다 보여줘야 돼! 어려워요~폼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218. 먼담자 1:16:38 태권도라고 하는 이름으로써 전혀 다른 시스템을 가진 운동을 이제 폼세라고 하는 영역을 도전해 보셨는데,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태권도 수련 인구의 절벽 현상! 도장이 어려워지는 현상! 이런 현상에서 여러 타겟객이 나오고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이제 성인부라고 하는 것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범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땐 폼세를 했고, 물론 그것이 겨루기를 했었고, 그 겨루기가 폼세를 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은 반드시 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에 좀 이렇게 나이도 있고 한 20대를 넘어 30대를 넘은 그런 여성들이 폼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동으로서
219. 구술자 1:17:44 저는 운동으로서 폼세 한다는 거는 장려해 주고 싶어요. 모든 운동이 스트레칭도 되고 저는 여성으로서는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 폼세는! 겨루기는 좀 막 때리고 치고받고 하는 거니까 여성 좀 힘들겠지만, 폼세에서는 저는 장려해 주고 싶은 게 폼세예요.
220. 먼담자 1:18:10 그러면은 조금 더 컴팩트하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중년 여성에게 폼세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221. 구술자 1:18:21 요즘에 중년 여성들 필라테스도 하고 요가도 하고 하잖아요~! 저는 그거하고 이렇게 특별하게 같이 가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필라테스 기구로 하는 거잖아요. 늘리고~ 폼세도 마찬가지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요가도 늘리는 운동이잖아요? 폼세도 마찬가지로 아니에요?
222. 먼담자 1:18:47 저도 뭐 그 말씀에~ 굳이 한 살을 더 붙이자, 보면! 몸과 마음 정신을 함께 운동할 수 있다는 것? 네 더 장점은 정신도 되고, 아이들과도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단점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범님 그러면 그 예전에 같이 운동했던 분 중

- 에 기억에 남거나 혹시 지금도 같이 교류나 또 이렇게 자주 만나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223. 구술자 1:19:18 제가 운동할 때?
224. 먼담자 1:19:20 네 운동했었을 때... 그것이 폼세도 되고 예전에 겨루기도 되고
225. 구술자 1:19:24 저 때는 여자들이 여학생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여자 수련생이 없으니까? 저는 거의 남자들 속에서 자랐잖아요? 지금 뭐 딱히! 같이 운동했던 선수 중의 하나는... 외국 나가 있고! 네 그리고 지금 후배들하고는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운동했을 때에 같이 운동했다는 친구들은 별로 한국에 없는 것 같아요. 다 외국에 가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고, 그냥 가정에만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결혼과 동시에...
226. 먼담자 1:20:08 이제 그 태권도 지도자들... 도장을 경영하는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폼세나 겨루기 쪽에도 전문화된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227. 구술자 1:20:20 그렇죠~!
228. 먼담자 1:20:24 아까 질문과 약간의 좀 증척되는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부님께서는 인생의 태권도 인생의 전환을 겨루기로... 후반을 폼세로 하셨다면, 대한민국에 이렇게 두 축을 다 섭렵해 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어느덧 태권도에 원로 자는 굳이 보이고 싶지 않지만, 여기에 원로라고 써 있기 때문에 원로 된 입장에서 사부님 입장에서... 사랑하는 후배들이! 겨루기 후배들이! 폼세의 후배들이! 충분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지금은 지도자들에게
229. 구술자 1:21:07 저 같은 경우는 겨루기 선수라는 거 태권도를 지금 경영하는 여자 사범들한테... 지금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로 체육관 운영 사범들이나... 특히 또 인구가 없잖아요. 저출생에 지금 또 코로나의 팬데믹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리 여자 사범들... 그야말로 제 생각에는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230. 먼담자 1:21:52 애처로우시죠?
231. 구술자 1:21:53 네! 제가 볼 때는...네... 그리고 또 여자 선수들도 사실 겨루기 선수들 보면, 특별히 잘 뛰는 선수들은 정말 두각을 나타내서 뭐 이렇게 매스컴에도 나오고, 실업팀도 가고 그러지만 그게 소수잖아요. 소수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좀 좀 넓혀졌으면 좋겠어요. 좀 뭐라 그럴까 잘 곳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232. 먼담자 1:22:25 참 아이러니하죠? 사부님이 이제 굉장히 그 골프의 초희가 깊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골프는 그 스윙 한 동작으로 수십만의 코치들이 있고, 수만 명의 선수들이 있고, 용품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시장을 갖고 있는데 그런 시각으로 우리를 보면 태권도계는 너무 시장이 작고, 태권도를 했던 분들이 진출을 해서 산업화 또는 어떤 삶의 현장으로 다가가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233. 구술자 1:23:08 맞습니다.
234. 먼담자 1:23:10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좀 많이 개척하고, 좀 더 이렇게 미국처럼 아주 특성화돼 있는 그러한 영역의 태권도 군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중에서도 우리가 그 여성 지도자들이 남성이 갖지 않고 있는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살려서 특화된 그런 영역에서 좀 더 여성분들이 이렇게 좀 더 활성화되어지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사범님하고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준비하는데도 서치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일부 서치에서는 장정남으로 뜨고, 일부에서는 또 장정희로 뜨고, 어떤 태권도인은 장정희가 맞다! 어떤 태권도인은 장정남이가 맞다! 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게 맞을까요?
235. 구술자 1:24:14 제가! 장정남이도 맞고 장정희도 맞아요. 그런데 호적상은 제가 개명을 했어요. 정희로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태권도를 활동할 때는 장정남으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장정희로 개명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는 장정희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명함에다가 항상 장정희하고 가로 열고 정남을 쓰고 가로 닫고 이렇게 갖고 다녔

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벌써 한 30~4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케이 정희 이제 는 다 알겠지? 하고 저도 이제 에스 오케이 하고 있습니다.

236. 면담자 1:25:03 이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쪽 설명을 하면 그거 맞아 장정희 사부 아니 정남이리니까 아니 정희인데 아니야 정말 그런 좀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료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태권도인들이 태권도 전문지나 또는 이제 태권도와 관련된 언론에 노출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사범님 같은 경우는 태권도 외적인 일반 신문에서도 상당히 많은 기사가 노출돼 있더라고요. 어떤 노출되게 된 계기나 일 들이 있었습니까?

237. 구술자 1:25:44 제가 20대 때 태권도에 관한 여자 심판! 그 심판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심판 자격 시험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등록을 하게 됐죠!
근데 제가 심판 자격증을 합격을 딱 함과 동시에 여성 심판으로서 제가 최초의 된 거예요. 그러 다 보니까? 또 심판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그게 이제 최초의 수석어가 그때서부터 붙게 된 거예요. 최초의 수석어가

238. 면담자 1:26:20 그 1호라는 이름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군요. 태권도 외적인 것도 혹시 활동하셨 습니까?

239. 구술자 1:26:29 그러니까 저희 태권도 심판 1호, 탁구 1호, 여성들로서... 또 조종사 1호, 필드하키 심 판 1호, 그리고 저희 또 1호끼리 또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왕성하게 잘 활 동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서로 각자 위치가 있다. 보니 요즘에 좀 뜸해요. 음...그래서 수석어 가 붙은 것 같아요.

240. 면담자 1:26:57 네 그 1호라는 상당 부분에서 1호라는 수석어가 전치사처럼 잘 붙어 있더라고요.

241. 구술자 아...그래요? 어휴...

242. 면담자 하하하. 아까 이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중에... 태권남자회로부터 출발이 돼서 올해의 태 권 여성연맹까지 이제 변천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사범님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부님이 가지고 있는 기억 속에... 그 변천사를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43. 구술자 1:27:39 사실 저희가 태권남자회를 가질 때가 80...86년도 86년도에 저희 이제 여성 태권도인이 점점적으로 늘어나면서 또 사회적으로나 국기원이나 이런 데서 활동하는 여자 사범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연락을 해서 “야! 우리 여성들끼리 한번 푼돌 뭉쳐보자” 이제 계기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 니까 우리는... 남자들이니까 우리 태권남자회로 우리 출발을 하면 어떨겠냐? 그래서 이제 태 권남자회라는 명칭을 쓰면서 저희 후배들과 서로 이제 친목 도모식으로 만나면서 이 태권도 에 이제 더 관심을 갖고 이제 만나서 운동하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244. 면담자 1:28:48 음...그러면 태권남자회가 출범했을 때의 최초의 멤버들은 얼마나 구성원들은 얼마나 됐었나요?
구술자 1:28:59 그때 한 23명? 좀 많았어요! 그야말로 진짜 기라성 같은 애들이 많았었죠? 지금 뭐 다들 외국도 나가 있고, 지금 지도자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고, 현재 많습디다...우리 여자 사범들 다 자기 지금 위치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편적으로 또 뭐 서훈회 사범 호주에 가 있는 서훈회 사범 우리 기록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한태권도협회 기록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효심 사범 또 김인수 이인수 연대 졸업해가지고 이인수 사범 많아요. 근데 제가 잘 지금 잡 자기 여쭙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245. 면담자 1:29:54 몇 분의 이름을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왕성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시네요. 그렇죠.

특히 경기장에서... 그런 사부님을 비롯해서 그런 분들의 어떤 노력이라 그럴까요? 단합된 마 음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모이고 쌓여서 퇴격증을 이루어서 이제 오늘의 이제 여성 연맹을 만들게 됐는데... 그 여성연맹이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앞으로도 그 기능과 역할을 태권도계에서 잘 수행해 나가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사부님 2016년도에 자랑스러운 태권도인상 수상하셨죠? 그럼, 질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사범님께서 최근에 자랑스러운 태권도인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어떤 업적을 인정 받으셔서 그렇게 큰 상을 받으셨나요?

246. 구술자 1:30:53 참 태권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품새, 겨루기, 시합 뛰면서 세계대회에 나가서 또 금메달 주겠다고 동메달 은메달 코치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점수제잖아요? 그래서 그 점수 가 쌓여서 거상상이라는 큰 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영광을 갖게 됐죠.

247. 면담자 1:31:26 그렇게 일관되게 태권도라고 하는 한 분야에... 그 헌신하고 동료들에게 이렇게 섬기 고, 또 사부님 별명이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지 않습니까?

248. 구술자 아 그래요? 하하하

249. 면담자 알고 계시나요? 하하하...그런 소문이 많은데... 사부님이 태권도를 통해서 얻은 인생의 교훈은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250. 구술자 1:31:50 여성으로서 하기 힘든! 태권도를 했기 때문에... 더 내 자신이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몸가짐이라든가 또 행동이라든가 뭐 어디 나갈 때 외출할 때 의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저는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251. 면담자 1:32:18 그런 것들이 이제 유무형으로 보여지는 분이 됐겠죠?
사부님이 이렇게 여러 제도권에 임원의 역할을 많이 하시고, 또 지금도 말고 계산 테 혹시 더 하고 싶은 역할이 좀 있으실까요?

252. 구술자 1:32:38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더 하고 싶지는 더 하고 싶지는 않고,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그런데? 필히 여성 태권도인으로서 해야 될 게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또 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상태가 좋습니다. 저는 큰 욕심이 없어요. 회장을 해야 된다. 국회의 원장을 한번 해봐. 아니면 여성연맹 회장 한 번 하세요? 저는 그런 욕심은 없고, 단 여 성태권도인 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나 기관에서 오우~장경회 사범이 해야 돼! 하면 저는 하죠. 제가 나서서 뭘 하겠습니까! 라고는 안 하고 싶습니다.

253. 면담자 1:33:27 그러면은 이제 태권도인으로서 여러 선수 생활도 다 해보셨고, 지도자 생활도 해보셨 고, 정부에서 주는 상도 여러 번 받으셨고, 이제 그런 위치가 되어서 이렇게 태권도 현업에 종 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 주고 싶은 고언이 좀 있으실까요?

254. 구술자 1:33:58 사실 요즘에... 지금 인구 절벽이잖아요? 지금 각 그 태권도 도장에서 경영하시고, 지 도하시는 그 태권도 사범들 좀 많습니까? 아하~우리 그 협회나 여러 기관들에서 정말 자리 다 푼하지 말고, 우리 일선에서 뛰는 태권도 관계자분들의 좀 좋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발전할 수 있는가를 좀 연구해 줬으면 하는 저 바램이에요! 제 바램 은...

255. 면담자 1:34:42 그 바람이 제도권에 있는 저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 과정을 거쳐 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도 이제 그 사범님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보신 분들이 그것을 바쁜 삶 속에서 보지 못하는 현업에 있는 분 들에게... 사실은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해주고, 또 기회가 된다면 이야기도 해주고, 뭐 필요하 다면 질책도 해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에 제가 이제 그 많은 지도자들을 만나보게 되는데... 그 지도자들의 한결같은 아...요구라 그럴까요? 기대 중의 하나는... 그런 다양성에 대해서 배우지 못합니다. 그것은 경기지도자가 됐든! 도장 지도자가 됐든! 현업에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주어지 스펙트럼만 가지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범은 뭐야? 코치는 뭐야?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어! 라고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습 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반복되는 작은 사회에서 주는 부족함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사 부님께서 지금 방금 전에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열린 시각과 경험을 다양하게 갖고

녹취록 본문

과제명	여성태권도인 구술채록		
구술자	정효심	면담자	이영림
녹취자	구현성, 김진범	시 간	142분 28초
면담일시	2024년 9월 11일	면담장소	DMC다락스튜디오
파일명	Oh_24_정효심_01.mp4		

<file:Oh_24_정효심_06 녹취록 공개본>

- 면담자 00:00 본 인터뷰는 태권도진흥재단 국립태권도박물관 태권도 지식자원 3차 아카이빙 여성 태권도인 구술채록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면담입니다. 일시는 2024년 9월 11일 수요 일 오후 12시이며 장소는 DMC 첨단산업단지 다락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구술자는 정효심이며 면담자는 이영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구술자 00:34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 면담자 00:36 먼저 사범님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참여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수락하시는 데 고민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 구술자 00:48 고민하게 된 이유는요. 사실 제가 갑상선암 수술을 해가지고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사실 많이 걱정해서 나중에 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 면담자 01:06 어렵게 결정해 주신 만큼 여성 태권도에 대한 사범님의 경험과 지혜를 기록하고 후대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범님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 구술자 01:22 저는 1957년 12월 22일 아주 추운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 면담자 01:29 그러면 고향이 어떻게 되시나요?
- 구술자 01:31 고향은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홍교리 주교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 면담자 01:41 그러면 그때는 마을이면 옛날에 그 작은 도시라고 하나요 불락이라고 하나요?
- 구술자 01:48 도시는 아니고 군 단위 면단위 리 그리고 이제 마을 이렇게 하는데 마을이나 부락이나 동네나 시골에서는 같이 쓰는 말이에요. 그중에서도 아주 작은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 면담자 02:03 그러면은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시나요?
- 구술자 02:06 가족 구성원은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이 좀 대가족인데 할머니가 계셨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남자 형제가 여섯, 딸이 셋 해서 총 12명이 대가족으로 저희는 살았습니다.
- 면담자 02:21 엄청 대가족이셨는데 그러면 형제만 9?
- 구술자 02:28 제가 아홉이죠.
- 면담자 02:29 그러면 거기서 몇째시어요?
- 구술자 02:31 저는 거기서 다섯째입니다. 딱 중간에 있어요. 위에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밑으로 여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그래서 가운데여서 좀 솔직히 많이 치워서 살았어요.

계신 그런 분들이... 그런 기회가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이 구성원들에게 한번 주시는 것은 어떤가? 그렇게 질문이 아닌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하... 조금 시각을 좀 좁혀서! 이제 질문이 막바지에 가고 있는데... 그럼 그 여성 후배들에게 태권도계에 있는 여성 후배들에게 특별히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256. 구술자 1:36:57 지금 우리 여성 후배님들께서... 어... 저도 얼마 전에 9단을 승단을 했지만... 지금 9단 이상자들이 한 거의 20명 정도 배출이 됐어요. 여성 사범들이? 그랬을 때에 지금 앞으로 더 많은 후배들이 배출이 될 거라고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여성이지 남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사범은 여성 사범답게 정말 모든 것을 잘 지켜가면서 남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여자 사범이 됐으면 하는 저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죠!
내가 여자 사범이니까! 나 태권도 했으니까! 이런 걸 떠나서 그래 내가 여자 사범이고 9단이니 까 더 앞으로 모든 분들한테 본보기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후배들한테 바라는 거! 그리고 언어! 행동! 의상! 모든 거 여성답게 태권도는 도복 입었을 때 태권도고, 그 외적인 거를 잘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257. 면담자 1:38:24 그...사부님은 이제 평생을 태권도를 하셨는데 혹시 태권도 외에 즐기거나 또 열심히 하는 취미생활에 다른 스포츠가 있으신가요?
258. 구술자 1:38:36 저는 태권도가 일단 주고요. 1순위고요. 또 이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2순위라면 이제 골프를 오래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사위하고 딸하고 남편하고 같이할 수 있는 유일한 운동 그리고 저는 운동은 다 좋아해요. 또 가끔 이제 한강 변에 가서 라이딩 하는 거 좋아하고 저는 많이 합니다. 특히 테져! 테져 쪽으로... 미술 그리고 음악하고, 피아노치고, 이런 거는 못 해도 동적으로 하는 일은 다 좋아해요.
259. 면담자 1:39:22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본 사업이 이제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부님께서 2015년도인가? 에 아마 태권도진흥재단의 이사도 역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을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느낌이 어떠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260. 구술자 1:39:52 글썽 이제 저에 대한 모든 게 여성태권도인으로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이 태권도를 했기 때문에... 또 이런 기회가 주어졌구나!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나에 대한 역사와 여성 태권도인의 역사가 과연 진흥재단의 박물관에서 멋지게 발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기는 바람이에요.
261. 면담자 1:40:23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받아서 저도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 지금은 이제 그 장정희 사범이라고 하는 한 캐릭터에 대해서 나름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좀 했지만, 작게 보면은... 장정희 사범의 한 사람의 인생에 또는 태권도 사를 정리하는 것 같지만 왜 사범님을 했을까? 라고 보면 이분이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여성 태권도를 상징하는 분이고,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저는 알고, 또 그래서 사범님을 모신 거로 알고 저도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서 그 질문에 대한 저도 답을 한다면... 태권도계에서 매우 아쉬운 것은 과거를 정리해 놓지 못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됐든! 어떤 물건이 됐든... 그것에 대한 우리가 준비! 정리하는 것에 좀 약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본 사업은 굉장한 의미와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업이 좀 더 확대되어져서 여성뿐만이 아니라 겨루기도? 풀세도? 도장도? 태권도 사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면 태권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사업의 영역까지 좀 확장 확대가 되어서 박물관에도 잘 정리가 되고, 그것이 태권도를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조그마 나침반이라도 또는 영향력이라도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범님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62. 구술자 1:42:18 좋은 자료 남겨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63. 면담자 1:42:21
감사합니다.

17. 면담자 02:44 그러면 지금 불편한 점이 9분이 성인이 되실 때까지는 다 생존해 계셨던 거 그 시절에는 많이
18. 구술자 02:52 그때 당시에는 다 저기 계셨고요. 이제 몇 년 전에 오라버니 한 분과 남동생이 먼저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형제가 일곱입니다. 아직도 아직도 대가족이에요. 맞습니다.
19. 면담자 03:10 그러게요. 그러면 그 시절에 마을이라 하더라도 부모님 할머님 그리고 그렇게 하면 엄청 대가족인데 가정형편이나 분위기는 어땠나요?
20. 구술자 03:21 가정형편은 그때 당시가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넉넉하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밥을 굶을 정도는 아니었고 저희 부모님이 워낙 부지런하셔서 밥은 굶지 않고 살았고요. 또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우당탕탕 싸우고 부대끼고 치대고 이러면서도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21. 면담자 03:53 그 시절에는 교육이 의무적이지도 아니고 형제가 많았는데 어떻게 마을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셨나요?
22. 구술자 04:03 그때 당시에는 제가 초등학교생이었기 때문에 학창 시절이라고 할 수는 없었고 그냥 학교하고 집하고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 그래서 학창 시절은 제가 어릴 때여서 보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23. 면담자 04:23 보내지 못했다는 거는 초등학교를 다 다니셨나요?
24. 구술자 04:28 초등학교는 다녔죠. 그런데 초등학교 시절을 학창 시절이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거의 학창 시절 하면 중·고등학교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중고등학교를 제가 시골에서 안 다녔기 때문에 학창 시절이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는 없었다고 봐야죠.
25. 면담자 04:47 그럼 언니도 안 다니셨어.
26. 구술자 04:50 아니요. 다른 분들은 다 다녔죠. 다 다녔는데 저는 저만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만 시골에서 다녔어요.
27. 면담자 05:00 그럼 그 뒤에 사연이 있으신 거군요
28. 구술자 05:02 있죠!
29. 면담자 05:03 그러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학창 시절을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30. 구술자 05:09 사실 저한테는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도 없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초등학교만 다니고 제가 형편이 어려워져서 서울로 오게 됐거든요. 상경을 하게 됐어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서울을 왔었는데 서울에 와서 또 바로 공부를 했던 것도 아니고 해서 학창 시절은 저한테 없었고 또 나중에 제가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때는 시골에서 올라온 지 한 20년 정도 돼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은 저에게는 없다고 봐야죠.
31. 면담자 05:54 그러면 중학교를 어려웠던 중학교 시절이라고 하면 13세 14세인 건데 서울에 상경했던 나이는 몇 살 때 상경하신 건가요?
32. 구술자 06:08 제가 서울에 16살 때 왔어요. 그때도 이제 집에 좀 어려워져서 중학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시골에서 1년 정도 있다가 그냥 시골에 있다가 보면 아무것도 못 할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공부도 하고 싶었고 조금 남들보다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의욕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골에 있다가는 아무것도 못 할 것 같다. 그 어린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내가 서울을 가야 되겠다. 내 목표를 위해서는 서울을 가야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16살에 완행열차를 타고 서울을 오게 됐습니다.

33. 면담자 07:02 근데 그 시절에 생활이 아까 형편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셨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서울에 누가 지인이 있으셔서 상경을 하신 건가요?
34. 구술자 07:14 사실 시골에서 살 때에 6촌 오빠 한 분도 저희 집에서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키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빠도 저희 형제나 다름이 없는데 그 오빠가 먼저 서울에 오셔서 자리를 잡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오빠 전화번호하고 주소 하나만 달랑 들고 서울로 왔죠. 제가
35. 면담자 07:42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말로 가출하신 거나 마찬가지로 텐데 부모님하고는 상의를 하시고 불안은 없으신 건가요?
36. 구술자 07:54 상의를 안 했죠. 상의를 하게 되면 못 가게 하죠. 그리고 어린 나이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 시골에는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TV도 없었고 서울하고 시골은 너무 천지 차이였기 때문에 또 그것도 여자애가 혼자 서울을 간다! 하는 거는 부모님들 반대가 또 세졌을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의를 하지 않았어요. 또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신 분이셔서 아마 제가 간다고 했으면 붙잡고 못 가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안 계시는 틈을 타서 어머니께만 말씀을 드리고, 어머니 나 서울 가겠다. 나 시골에서 이렇게 살기 싫다. 서울 가서 나는 뭔가 해야 돼 내 하고 싶은 공부도 해야 되고 할 게 나는 너무 많은데 시골에서 이렇게 살기 싫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 서울을 가겠다. 그래서 밤에서 발뚨다가 해가 지니 해 질 녘에 그냥 차비만 들고 왔어요. 서울역을 그러면
37. 면담자 09:08 혹시 그 시절에 마을의 불씨를 던지는 차별이나 어떤 것들이 있어서 서울의 환경을 꿈꾸신 건가요?
38. 구술자 09:19 차별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그때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같은 동네에 우리 같은 학년이 6명이 있었는데 남자가 3명, 여자가 3명이었어요. 그런데 저 혼자만 중학교를 못 간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못했던 것도 아니고 공부도 꽤 했었고 학교에서도 제가 워낙 운동을 잘해서 선생님들이 너는 운동 쪽으로 나갈 또 나중에 성공할 것 같다 그럴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어머니께서는 중학교를 어려워도 보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완강하게 형편도 어려운데 어떻게 너까지 중학교를 가냐? 형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딸인 저를 중학교를 안 보내신 거죠. 그게 또 상처가 컸기도 했고 또 제가 뭔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자꾸 아버지는 못하게 제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면 서울을 못 갈 것 같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가자 해서 서울에 올라오게 됐는데 아마 저 올라오고 나서 부모님들이 아마 많이 싸우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39. 면담자 10:44 그러면 그때 밀으로 남동생도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40. 구술자 10:49 그렇죠! 있었죠!
41. 면담자 10:50 남동생도 중학교를 안 가나요? 아니면 사범님만
42. 구술자 10:54 저만 못 가죠
43. 면담자 10:56 역시나 제가 이제 그 시절 남자 여자의
44. 구술자 10:59 엄마 못 가고 뭐 밑에 여동생이나 남동생들은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이제 조금 시간이 흘렀으니까 갔지,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저만 못 한 케이스여서 그게 상처가 더 컸다고 봐야지
45. 면담자 11:17 또 공부를 더 다 잘하셨으니까 또 그 열정이 또 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제가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질문을 바꿔서 서울에 상경하셔서 바로 그러면 학업을 시작을 하셨을까요?
46. 구술자 11:35 못했죠. 왜냐하면 이제 6촌 오빠 집으로 제가 들어갔는데 그때 오빠네 집도 형편이 사실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했었고 또 저 말고 큰언니도 먼저 오셔가지고 오빠 집에서 거랑 같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서울에서도 먹고 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는 바로 시작을 못하고 오빠가 봉제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일을 같이 오빠 따라서 하게 됐어요. 공부는 일단 뒷전으로 물러났고 왜냐하면 공부를 하려면 학원도 다녀야 되고, 또 학비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사실 그런 여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돈을 벌어서 학비를 먼저 준비를 하자! 하는 생각에서 오빠 따라서 이제 봉계공장에서 일을 하게 됐죠.

47. 면답자 12:42 그러면 일을 하시면서 태권도에 대해서 시작은 어떻게 하게 되셨습니까?
 48. 구술자 12:49 그때 일하면서도 태권도를 바로 할 수는 또 없었어요. 그것도 왜냐하면 그때 아침에 일을 가면 보통 8시에 일을 시작을 하면 저녁 끝나는 시간이 10시 또 늦게까지 할 때에는 11시

49. 면답자 13:08 12시간 이상을 하아~~
 50. 구술자 13:09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모든 공장들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통행금지 가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통행금지 끝나는 직전까지 아마 일들을 밤일도 하고 했었던 걸로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바로 운동도 못 했었고 공부도 못 했었고 그런 시간이 좀 오래 갔는데 1년 넘게 이제 오빠랑 한집에 살면서 제가 오빠한테 다시 말씀을 드렸죠. 저를 기숙사에 있는 대로 좀 보내달라. 여기서는 아침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숙사가 있으면 거기서 먹고 자니까 일단은 조금 시간은 할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숙사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드렸죠. 그래서 오빠가 이제 아는 지인분을 통해서 기숙사에 저를 이제 보내주셨어요.

51. 면답자 14:10 그 기숙사라 하면 어떤 봉계
 52. 구술자 14:13 맞죠? 봉계공장인데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넘쳐하지는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모두 다 아침에 일을 일찍 시작하고 저녁에 늦게까지 하고 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쉬는 날이 두 번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내가 새벽 시간을 이용을 하면 뭔가는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숙소에서 생활을 하면서 아침 새벽부에 할 수 있는 운동을 찾기 시작을 했죠. 그러가지고 이제 찾은 게 태권도장이었어요.

53. 면답자 14:57 그럼 그 지역이 어디였는지 기억이
 54. 구술자 15:00 제가 그때 당시에 일했던 곳이 울지로였고 제가 처음 운동을 시작했던 곳이 울지로 3가 중부시장 안에 있는 태권도장이었어요.

55. 면답자 15:13 엄청 그때 변화가고 있던 곳인데
 56. 구술자 15:16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70년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작은 시장이었죠. 지금이야 중부시장 하면은 워낙 크게 알려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조금 작은 시장이었어요.

57. 면답자 15:35 그러면 그때 태권도장을 그냥 가신 건가요? 알고 가신 건가요?
 58. 구술자 15:41 알고 갔던 건 아니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쉬는 날이 있으니까 같이 일하는 애들하고 거기 장 보러도 가고 시장도 가고 놀러 다니면서 우연찮게 그 도장을 보게 됐어요. 예. 숙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고 해서 그래서 그래도 제일 가까우니까 여기가 편하겠다. 차를 타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거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가게죠.

59. 면답자 16:14 사범님이 서울로 상경하셔서 환경도 어려웠고, 그리고 우선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셨고 그러면 다른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굳이 태권도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60. 구술자 16:32 태권도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6촌 오빠가 동네에서 오빠들을 모아놓고 태권도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체육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동네 뒷동산이나 집에 창고 같은 데 이런 데서 흙바닥 맨바닥이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운동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오빠 따라다니면서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몸통 지르

기도 배우고 발차기도 배우고 시작을 했던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맞은 봤죠.

61. 면답자 17:14 이미 그러면 시골에 있을 때 마을에서 오빠를 통해서 태권도를 접하신 경험은 있으신 거군요.
 62. 구술자 17:22 그렇죠. 그래서 아마 내가 태권도장을 찾은 게 큰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63. 면답자 17:35 그때 이미 태권도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64. 구술자 17:40 태권도는 그때 잘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따라서 하고 또 오빠가 이런 동작이 있다. 이런 발차기가 있다. 하면 같이 오빠들하고 같이 따라서 하면서 그래도 꽤 했던 것 같아요.

65. 면답자 17:58 그러면 울지로로 처음 도장을 가셨을 때 거기에 환경이나 여자 수련생이 딱 갔을 때의 분위기는 어떠셨나요?
 66. 구술자 18:09 우리 울지로에 제가 갔을 때는 여자 수련생이 없었어요. 저 혼자였어요. 저 혼자였고 그리고 지금 도장들은 워낙 이렇게 시설들이 잘돼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갔을 적에 그 체육관이 마룻바닥이었어요. 12월달에 제가 거기 체육관을 갔었는데 그때 가니까 연탄난로 피우고 있더라고요. 체육관에서

67. 면답자 18:39 마룻바닥이 있네요.
 68. 구술자 18:40 예. 그때 당시에는 체육관이 거의 다 연탄난로를 피웠어요. 그리고 마룻바닥이었고 12월에 갔었기 때문에 굉장히 생한 그런 체육관으로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69. 면답자 18:55 그러면 처음으로 간 도장이 그렇지만 여자가 한 명밖에 없었다는 얘기신건가요?
 70. 구술자 19:02 그렇죠

71. 면답자 19:04 그러면은 거의 그럼, 일을 하시면서 수련은 거의 언제 하시게 된 건가요?
 72. 구술자 19:11 일은 보통 8시에 공장 일이 아침 8시 정도부터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시간이 안 되니까 그때 당시에 그 도장에서 새벽부가 있었어요. 새벽 부는 새벽 6시부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시 정도에 일어나서 씻고 걸어가서 아침 새벽부 6시부터 운동을 그때 시작을 했죠.

73. 면답자 19:45 그때는 새벽부 같은 게 성인부가 있었나요?
 74. 구술자 19:49 그때 당시에는 거의 학생들은 새벽부가 없었고 직장인들 직장인들이 거의 새벽에나 밝는 시간에 운동을 했었는데 저 운동할 때도 우리 새벽부가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75. 면답자 20:08 수련생이 많았네요.
 76. 구술자 20:10 다 성인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학생들이 운동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 새벽부에는 여자는 저 혼자 그리고 다 우리 남자 수련생들하고 운동을 하게 됐죠.

77. 면답자 20:26 인기가 많으셨겠네요? 없었어요? 인기가 그때 그러면 나이가 언제 어떻게 되셨는지 기억이 나시는가요?
 78. 구술자 20:35 그때가 74년이니까 서울에 와서 제가 바로 운동을 했던 게 아니니까 16

79. 면답자 20:44 한 76년도 78년도 되신 거네요.
 80. 구술자 20:48 그렇죠. 75년 겨울에 제가 입관을 했으니까 그렇죠. 75년

81. 면답자 20:55 날짜도 기억을
 82. 구술자 20:56 74년 겨울

83. 면답자 20:58 그럼 그때는 거의 수련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주로 하게 하셨나요?
84. 구술자 21:05 지금은 체육관들이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지도를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주로 하는 게 발차기 폼새 몸통 지르기를 그렇게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거울 보고 맨날 몸통 지르기 그리고 아침에 하는 발차기가 앞차기 앞돌려차기, 옆차기 뻗어 올리기 후리기 옛날 용어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하면 아침에 사범님들 많이 힘드셔서 그러는지 발차기 하나만 100개씩 무조건 왼발 100개, 오른발 100개 이렇게 하면 가릿수가 많은 날은 하루에 한 천 번 정도도 발차기를 했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무지무지 발차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게 기본 동작도 했었고 폼새도 했었고 하기는 다 했죠.
85. 면답자 22:05 저도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저희도 옛날 저는 청도관 출신의 체육관이었는데 저희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은 뭐 하지만 기본 동작 발차기 그건 매일매일 했던 것 같습니다.
86. 구술자 22:22 맞아요. 그때는 매일 했어요.
87. 면답자 22:24 그럼 사범님은 어떤 관 출신이신지 기억이 나십니까?
88. 구술자 22:28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무덕관이었습니다. 저희 관장님이 무덕관이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원생들은 다 관장님 따라가니까 무덕관으로 있다가 나중에 79년도 80년도에 제가 오도관으로 정관을 해갔어요.
89. 면답자 22:47 그러면 처음 배운 지도자님이 누구신지 기억이 나십니까?
90. 구술자 22:51 그때 우리 체육관 관장님 성함이 김봉규 관장님 그리고 사범님은 이종희 사범님이셨어요.
91. 면답자 23:01 다 기억이 나시나요?
92. 구술자 23:02 이유 그럼요. 생생하죠.
93. 면답자 23:04 그러면 지금 사범님이 운동을 하시면서 또 처음 배운 지도자님들도 계시지만 또 여러 또 배우고 접하시고 만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기억에 남는 인연이나 사람이 있으십니까?
94. 구술자 23:20 제가 운동 배울 때는 제가 사실 저희 체육관의 1기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같이 운동했던 친구들은 지금 한 분도 태권도 쪽에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기라는 사람이 없고 또 저를 지도해 주셨던 관장님께서도 80년 초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그래서 그 관장님도 안 계시고 또 이종희 사범님이라고 그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사범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른 직업으로 전향을 해서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운동 배울 때 특별히 이렇게 남는 분이 거의 기억이 없어요. 연락도 또 안 되고
95. 면답자 24:13 그래도 그러면 사범님은 그때 운동을 시작하시고 새벽 운동을 하시면서 꾸준히 계속 운동을 하신 건가요?
96. 구술자 24:22 계속했죠. 그래서 이제 74년도 12월에 제가 임관을 해가지고 79년도까지 그 체육관에서 죽 운동을 했어요. 울지रो에 있는 운동을 했고 또 사범님들이 이제 계시기는 했는데 중간중간 자주 바뀌셔서 그 사범님들 기억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도 이종희 사범님이 그나마 굉장히 오랫동안 계셨는데 안 계셨고 다른 사범님들은 그냥 짧게 짧게 그리고 지금처럼 그때 사범님들이 우리 사범 자격증을 다 가지고 사범을 하셨던 것도 아니고 세월이 지나고 지금 보니까 그 사범님들도 유단자셨는데 운동을 가르치신 거죠.
97. 면답자 25:16 그렇죠. 그래서 저희 때도 교범 사범 정사범 저희도 막 이런 절차가 있었거든요. 저도 태권도장 있을 때 그런데 그러면 사범님 저희 때도 있었지만 지금 그때도 폼새 겨루기 어떤 수업을 거의 위주로 수련을 하셨나요?
98. 구술자 25:38 폼새 위주로 했죠. 그때는 겨루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발

차기하고 폼새 기본 동작 그 위주로 그때 당시에는 수련을 많이 했습니다.

99. 면답자 25:52 그러면 그때 사범님 도복이나 떠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매를 하셔서 어떤 옷들을 입으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100. 구술자 26:00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체육관 처음에 딱 들어가면 도복하고 띠를 주거든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사는 거죠.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복이 그때 당시에 1,500원이었던 것 같아요. 도복이 1,500원이었는데 광복 도복이었어요. 지금처럼 이런 좋은 도복이 아니라 광복 도복이었는데 한 번 빨면 이만큼씩 줄어요. 종아리까지 올라와 또 한 번 빨면 이만큼 올라와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 번 빨고 삶아야지 그 도복이 색깔이 하얘져요. 안 그러면 누리끼리하거든요. 몇 번 삶으면 종아리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도복을 처음에 입었고 그래서 도복은 질이 아주 안 좋았죠.
101. 면답자 26:57 그래도 그거를 바꿀 수 없는 게 저도 처음에 어렸을 때 입어봤는데 입으면 입을수록 부드러워지니까 나중에 새것을 사기가 애매해지는 상황이고 땀이 나면 날수록 무거워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102. 구술자 27:14 그때 그 도복은 사실 많이 줄어들기도 했지만은 질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또 땀 흘려 많이 흘리고 하면 잘 찢어졌어요. 잘 찢어져서 딱 발차기하고 나면 엉덩이 밑이 이렇게 찢어지기도 하고 또 지금은 이렇게 도복들이 고무줄로 이렇게 밴드가 되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끈으로 넣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거나 하면 이게 끈이 찢어서 안 빠져서 화장실 갈 때 굉장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참 많이 나요. 끈이 안 풀어져가지고
103. 면답자 27:55 그 여자들이 입기에는 참 많이 불편
104. 구술자 27:58 많이 불편했죠. 그때.
105. 면답자 28:00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학교가 되었고 2년이 지나서 정말 저희가 2차 성장이 일어나실 때 태권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고 서울로 오셔서 시작을 하셨고 그럼 매일매일 지금 운동을 하시고 새벽반을 하셨다고 하시니 저희 여자로서 제가 같은 여자니까 저희는 2차적인 매일 월별로 하는 그런 걸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선수가 하면서도 매우 불편했거든요. 그러면 사범님은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106. 구술자 28:38 많이 불편했죠.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도복이 또 통도 넓고 이렇게 질이 좋잖아요. 그때는 도복이 한 번 빨 때마다 통도 좁고, 어쩔 때는 도복이 엉덩이가 딱 달라붙을 때가 있어요. 땀나고 하면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월별로 찾아오는 귀한 손님이 있잖아요. 그런 날이 있을 때는 정말 발차기가 두려울 정도로 너무 운동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때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조심해서 발차야 되고 땀은 계속 흐르지도 도복은 또 하얀색이지. 그런 데다가 엉덩이는 딱 끼지 이러니까 제대로 발도 못 차기도 했는데 남자 사범님들은 그런 걸 모르시잖아요. 모르니까 무조건 왜 발을 그렇게 낮게 차냐 높게 차라 왜 다리 찢기는 안 하나? 다리를 많이 벌려야지 발차기가 올라가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운동하면서도 조심스럽기도 하면서 힘들기도 했었죠. 그때 당시에 아마 운동한 사람들은 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운동을 했을 것입니다.
107. 면답자 29:58 그렇죠. 저희는 또 이제 폼새나 기본 동작은 그렇게 하지만 또 겨루기할 때는 여자들이 항상 2차 성장의 상체에서도 일어나게 되면 저희가 또 몸통이 특정 부위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항상 사춘기 때 제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 시절에도 어쨌든 여자분들이 어려움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108. 구술자 30:24 저희 체육관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자 관원생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루기 할 때는 남자 관원생들하고 항상 자유 겨루기를 한단 말이에요. 호구가 그때도 있기는 있었어요. 가슴 보호대가 있었는데 그때는 대나무로 만든 호구였거든요. 그런데 체육관에서 수련하다 보면 그거를 체육관에도 또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 한 사람 입히고 벗겨서 또 입히고 할 이럴 여유가 없었어요. 몇 개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몸으로 보호대 없이, 겨루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먹 잘 안 쓰는데 그때 당시에는 발 차고 주먹 지르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어서 선수들도 그 동작을 엄청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 주먹기가 들려차고 이렇게 찍는 게 제 특기였는데 주먹 주먹을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남자들 많이 때렸습시다. 주먹으로 저도 많이 맞았어요. 가슴을 많이 맞았죠.
109. **구술자 31:40** 그레가지고 그때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저기도 있고 또 보호장구가 없다 보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아래를 맞으면 자기네끼리 엉덩이도 두들겨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자들은 그거를 못 하잖아요. 맞습시다. 그러면 막 너무나무 아파가지고 혼자 몸부림치고 해서 그런 슬픈 기억도 있네요. 역시
110. **면답자 32:08** 다 동일하군요. 그런데 진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같은 여자 수련생들이 있어서 같이 공감대도 있지만 그 시절 아무도 없으시니까 더 외롭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선배님들이 그렇게 있으셔서 해서 저희 지금은 현재 여자 보호대도 있고 이러니까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사범님 다시 해서 그렇게 수련을 하시다 보면 지금처럼 승급 심사도 있고 승단 심사도 있고 했을 텐데 그때 승급 심사나 심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111. **구술자 32:44** 우리 체육관 같은 경우는 매달 승급 심사를 봤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심사를 봐서 이제 1급씩을 올려주는데 만약에 조금 심사를 잘 못했다 그러면 보급이라는 제도도 있었어요. 보급 그래서 반급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제 노란 띠에서 지금은 이렇게 녹색 띠가 있는데 그때는 녹색띠를 쓰지 않고, 청띠였어요. 노랑 다음에 청띠였는데 청띠를 못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8급 반 노란띠가 그때 저기 7급 8급이 노란띠였어. 그때 당시에 그러면 8급도 아니고 7급도 아닌 중간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노란 띠를 한 3개월 4개월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띠기가 2년씩 걸리고 2년 반씩 걸리고 그러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승급 심사는 그렇게 있었고 단 심사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1년에 두 번 있었습시다. 진짜 6월달하고 12월달에만 단 심사를 볼 수가 있었어요.
112. **면답자 34:09** 국기원에서요.
113. **구술자 34:10** 국기원에서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달달이 심사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1년에 두 번밖에 심사가 없어서 한 번 그 심사를 놓치게 되면 6개월 후에 단 심사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서 그때만 해도 승단하기가 좀 기회를 놓치면 많이 어려웠죠.
114. **면답자 34:34** 진짜 어른을 말대로 옛날처럼 승급 심사도 어려웠고 그러니까 정말 귀하게 승급 심사를 한 번 올리는 것도 정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였고 단도 하나하나 하는 게 너 무도인이구나 이 말을 정말 들을 만했네요.
115. **구술자 34:52** 많이 그때는 어려웠죠. 여러 가지로
116. **면답자 34:55** 그러면 사범님은 승급 심사나 단 심사보면 여자가 유일하신데 상대 겨루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117. **구술자 35:04** 상대 겨루기는 체육관에서 심사를 볼 때도 다 남자 수련생들하고 겨루기를 했었고 또 어떤 날은 이렇게 사범님께서 겨루기를 잡아주신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호구 착용 안 하고 맨몸으로 그때 유단자 아닌 빨간 띠였을 때 같은데 사범님께서 아침에 몸도 잘 안 풀리는데 겨루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겨루기를 했어요. 새벽에 이제 그 시간대 그날따라 또 남자 관원생들이 많이 안 나온 날 겨루기를 하게 돼 가지고 사범님이 이제 잡아주신 건데 발차기를 하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사범님이 뒤차기로 저를 뺏 차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비뼈가 두 개가 그때 금이 가서 사범님 뒤차기에 맞아서 그래서 또 한 달 동안 체육관을 못 다녔죠. 갈비뼈에 금 가자고

118. **면답자 36:14** 제가 이번 다음 질문이 그 당시 태권도장을 다니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하는데 이런 에피소드가 아니라 진짜 아픈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뒤차기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들어가면서 맞으면 사람이 날아갈 정도로 파워가 센데 사범님 지금도 여러여리하시는데 그때도 여러여리하셨을 텐데 어떻게
119. **구술자 36:41** 그때도 사범도 젊은 20대였고 하나 뒤차기가 굉장히 저한테는 됐어요. 그래서 갈비뼈가 나간 적이 있었고 또 이제 아까 에피소드 얘기하신다 했는데, 있습니다. 또
120. **면답자 36:57** 네 저 해주시면
121. **구술자 36:58** 그때는 체육관이 이렇게 마룻바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조금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구나 봐요. 아침에 운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수련생들은 가고 저 혼자 샌드백 발차기를 했어요. 자주 빠지는 날도 많고 하나 또 시간이 날 때에는 혼자 연습도 하고 하는데 그날이 샌드백 발차기를 하고 둘러싸고 회축을 막 찾는 데 오른발이 백 고리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제가 굉장히 유연한데 그때도 몸이 굉장히 유연했어요. 그래서 180도는 다리 그냥 서서 들고 찢었거든요. 회축을 막 하는데 백 고리에 오른발이 딱 걸리면서 이거 발을 빼야 하는데 발을 못 빼고 막 버둥대는데 또 그때 또 샌드백 밑에 마룻바닥이 이제 딱 꺼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것까지 왼발이 마룻바닥 사이로 발이 빠지게 됐어요.
122. **구술자 38:11** 바닥이 꺼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왼발은 밑으로 빠지고 오른발은 백 고리에 걸려 있고 그런데 체육관에 아무도 사람도 없고 그래서 혼자 막 손으로 손으로 샌드백을 밀고 몸을 돌리고 해서 오른발을 겨우 뺐는데 또 왼발이 보니까 이게~ 이게! 발이 빠지면서 샌드백에서 발이 바로 안 떨어지니까 무릎하고 발목이 동시에 같이 돌아간 겁니다.
123. **면답자 38:42** 크게 보시는
124. **구술자 38:43** 굉장히 큰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루에서 발을 빼보니까 밑에는 막 피도 나고 다 까지도 이 발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그레가지고 또 어떻게 겨우 일어나 가지고 병원 갈 생각은 안 하고 그때 당시에도 바로 또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출근을 했어요. 그대로 그 다리로 출근을 했는데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른발은 괜찮은데 왼발이 그때가 무릎하고 발목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일을 하고 그다음 날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또 한두 달 동안 운동을 못하고 발이 닿을 때까지 또 운동을 못 하잖아요.
125. **면답자 39:34** 골절이 없으셨나 보네요. 다행히
126. **구술자 39:36** 지금 같으면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막 했을 텐데 진짜 걷기도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거 할 생각도 없어서 그냥 한의원 가서 침 맞고 점질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무릎이 안 좋아요.
127. **면답자 39:55** 제가 사진을 하나 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유연하시고 몸이 좋으시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 골절 없이 족 하지만 거기에 이렇게 다치지 않으셨나 싶은데 이게 혹시 언제 어떻게 이때 같은 도장인가요?
128. **구술자 40:16** 아니요. 여기는 이제 제가 사범 생활하면서 찍었던 체육관인데 여기가 이제 81년 8월이라고 날짜가 찍혀 있네요. 그 그래도 제가 몸이 굉장히 유연하고 발차기를 좀 멋지게 할했어요.
129. **면답자 40:33** 그러니까요.
130. **구술자 40:34**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라면 아마라 카메라 기법으로도 발을 이렇게 잘 잡을 수 있는데 그때는 제가 발을 들고 서 있어야만이 제대로 사진이 찍힐 그럴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발차기는 잘했습니다. 그때도
131. **면답자 40:53** 그러니까 제가 저도 사범님 제가 하지만 이때는 저희가 앞차기도 몸통 차기 얼굴 차기 나눴고 지르기도 다 남아 있을 정도로 엽차기는 말대로 엽차기 몸통 차기로 해서 일

- 굴이 이렇게 지금 요즘에 폼새선수들이 말하는 하늘차기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차는 선수들이 그러니까 수련생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132. **구술자 41:16 거의 없어**
133. **면답자 41:17** 그리고 화소나 속도가 지금 기술처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저 이 사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범님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골절이나 부상이 심하지 않았던 건 이렇게 오랜 시간 출연을 하시면서 몸에서 나오는 이게 유연성에 의해서 크게 안 다치신 것 같다는 그래도 정말 크게 이게 에피소드가 아니라 사범님의 많은 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사범님 그 시절에 그렇게 승급 심사를 하고 하게 되면 그때도 띠는 다 구매를 해서
134. **구술자 41:56**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체육관에서 그냥 주는 거는 없었고 심사 승급 심사 볼 적에 승급 심사비도 받았고 띠값도 그때 500원인가 300원인가 띠 올라갈 때에 띠를 올라가면 개인이 그거를 다 사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다 사고 했었죠
135. **면답자 42:21** 그러셨군요. 그럼, 그때 혹시 승급 심사비나 기억이 나십니까?
136. **구술자 42:29** 그때 제가 도복이 우리가 1,500원, 그때 체육관 한 달 수강료가 1,8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정도 됐었던 것 같고 우리 띠는 300원인가 500원
137. **면답자 42:49** 그러면...
138. **구술자 42:50** 그 정도 됐었던 것 같고 그때 국기원 우리가 1품 승단 심사비가 1만 5천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비쌌네요.
139. **면답자 43:04** 그렇게 되면 태권도가 진짜 비싸긴 그러면 사범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했는데 아까 전에 초등학교 때 밖에서 모랫바닥에서 태권도하셨다고 하셨고 아까 마룻바닥이 꺼지기는 했지만, 서울에 오셔서 태권도 수련도 하셨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시골에서 하는 거랑 서울에 올라오셔서 태권도서 수련을 해보신 환경에 대해서 보시면 좀 비교가 되지않아요.
140. **구술자 43:32** 많이 되죠. 비교가 시골에서는 뭐 사실 오빠가 정통 태권도인도 아니고 오빠도 어렸을 때 태권도를 조금 하셨고, 그리고 이제 오빠가 월남을 다녀오셨거든요. 그래서 군대 제실 때 태권도 유단자를 띠를 따셨대요. 오빠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로하고 우리 집에서 이제 또 살고 계실 때 그때 이제 동네 오빠들을 모아놓고 태권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라고는 뭐 아무것도 없죠. 그때는 도복을 입었던 것도 아니고 또 맨발에, 흙바닥에서 아니면 동네에 이렇게 산 잔디밭에서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체계적인 태권도는 아니었고 그냥 놀이 삼아 또 오빠가 가르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서울에서 태권도는 진짜 그래도 모든 게 시골에 비하자면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태권도를 시작했으니까, 환경이나 모든 분위기는 그래하고는 너무 다른 분위기였죠.
141. **면답자 44:44** 그럼 사범님 이제 혼자 유일한 여자 수련생이었지만 그렇게 해서 다니실 때 여자였기 때문에 좀 차별이나 좀 불편하거나 이렇게 받았던 건 없었나요?
142. **구술자 44:59** 특별히 차별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또 여자였기 때문에 남자 관원생들도 좀 많이 챙겨주고 배울 때는 배울 때는 그랬고 사범님도 또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못 나갈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빠졌으니까 발차기 이것 좀 더 많이 해라, 이 발차기 좀 더 많이 해라. 하면서 또 발도 잡아주시고 또 폼새 진도가 못 나가면 또 한 번이라도 더 해주려고 했었고 오히려 그때는 차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운동하는 데서는 예
143. **면답자 45:41**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흰색 띠도 받쳐 입고, 알라리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저희 때는 옷핀으로 꿰게... 저였을 때는 약간의 그런 것도 있었고 저희는 탈의실도 따로 없어서 오빠들이나 남자애들이 갈아입고 있으면 저희는 그냥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범님은 그거에 대한 불편함은 없었나요?
144. **구술자 46:06** 우리 그때 운동할 때도 탈의실이 없었어요. 탈의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칸막

- 이 커튼으로 이렇게 이제 사무실 옆에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옷 갈아입으러 들어가면 남자 수련생들은 밖에서 한꺼번에 동시에 다
145. **면답자 46:28** 다 갈아입고 그 반대로
146. **구술자 46:31** 저만 혼자 가서 입고 그리고 도복은 지금은 이렇게 앞이 이렇게 막아져 있는 도복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다 오픈 도복이었기 때문에
147. **면답자 46:42** 지금 폼새 도복
148. **구술자 46:43** 그렇죠! 그래서 저도 황색 여기 옷핀을 꽂거나 아니면 여기 이렇게 끈을 묶었어요. 그때도 양쪽으로 그러면 이제 운동하다가 겨투기를 한다든지 하면 자꾸 이 끈이 풀어져서 도복이 또 복장이 제대로 안 되기도 많이 했었죠.
149. **면답자 47:04** 그러셨군요. 그러면 사범님들 사범님이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러면 태권도장이었나요? 태수도였나요?
150. **구술자 47:18** 태권도장이었어요. 태수도라 그 이전
151. **면답자 47:22** 그전 이전이었어요.
152. **구술자 47:23** 그 이전에도 태수도 수박도 여러 가지 지방에서는 그런 명칭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였고 저도 듣기는 했어요. 그런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제가 운동할 때는 그래도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정립이 됐을 때 70년대 중반이기 때문에 그때는 태권도라고 했죠. 태권도장 이렇게 다 불렀죠.
153. **면답자 47:49**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시고 사범님이 이제 단을 따셨을 텐데 그러면 고등학교 시절로 단을 따셨나요?
154. **구술자 48:00** 고등학교 나이는 그렇다고 봐야죠. 제가 70, 76년도인가 77년도인가 그때 아마 단을 따던 것 같거든요. 76년인지 77년인지 조금 헷갈리기는 하는데 나이로 치자면 그때가 고등학생 나이였죠. 예
155. **면답자 48:23** 사범님이 경기를 많이 뒀던 건 아니 경험에 많지 않지만 경기 경력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봤었는데 그때는 그러면 경기를 어떻게 뛰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156. **구술자 48:36**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선수로 이렇게 입성을 했던 건 아니고 체육관에서 이제 저 운동하고 조금 나중에 또 우리 여자 관원생들이 몇 명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범님이 여자부 시험이 생겼다는데 한번 우리 체육관에서도 시험을 한번 나가보자! 해서 이제 시험을 나가게 됐는데 그때가 주한 외국인 선수권대회라고 해서 제1회 시험이 70년대에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여자 관원생들 2명하고 저하고 이제 사범님께서 이제 시험 나가는 걸로 좀 운동을 겨투기 잡아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운동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또 일하면서 시험한다고 따로 운동을 하지는 못했고 운동 시간에 그냥 겨투기를 좀 잡아주셨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한 외국인 선수권 1회 시험을 나갔습니다. 1회 시험을 나갔는데 그때는 체급이 두 체급밖에 없었어요.
157. **구술자 49:48** 중량 경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자들만 나오는 시험이다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첫 대회이고 하니까 체급이 두 체급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지금보다 좀 살이 붙어서 50kg이 좀 더 나갔어요. 그러면 그래서 50kg을 해서 잘랐어요.
158. **면답자 50:10** 중요한 거
159. **구술자 50:12** 50kg 이상 50kg 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학생이나 일반부나 이게 따로 구분을 했던 게 아니라 무조건 체급으로만 해야 되는 시험이었어요. 체급으로 그러니까 일반부하고 학생하고도 불고 뭐
160. **면답자 50:32** 근데 또 경량급도 아닌 중량급으로
161. **구술자 50:34** 그건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시험 뛰었을 때 청산여고 은광여고가 그때 당

- 시에 굉장히 태권도부가 그때도 됐어요. 저 때도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험에서 KO로 이기지 않으면 일반 도장 애들은 거의 선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학교가 우선이었어요.
162. 면답자 51:01 근데 그때는 학교 출신이 아니라 관으로도 출전을 할 수 있었죠.
163. 구술자 51:06 체육관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체육관 소속으로 제가 시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1회 2회 두 번 시험을 나가긴 했는데 뭐
164. 면답자 51:18 체중 감량임
165. 구술자 51:19 체중 체중 아무리 살을 빼려고 그래도 살이 안 빠져서 중량급으로 나가게 되다 보니까 제가 좀 왜소하고 작잖아요. 키가 뭐 별로 뛰여보지도 못하고 완패를 당하게 돼
166. 면답자 51:35 그냥 경험으로만
167. 구술자 51:36 경험으로 두 번 뛰었습니다.
168. 면답자 51:39 그럼 아까 전에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사범님이 지도자 생활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지도자 길을 선택하신 건 언제 신가요?
169. 구술자 51:55 그렇게 하고 제가 또 3단까지 승단하고 1979년에서 9년부터 사범 생활을 하게 되죠. 79년부터 82년까지 태권도 사범을 다른 체육관으로 옮겨가서 사범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83년부터 85년까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도관장이라고들 하잖아요. 체육관 맡겨서 이렇게 하는 관장님 그때 당시에도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로서는 제가 처음으로 그걸 해보지 않았을까?
170. 면답자 52:37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때 여자 수련생도 별로 없었고 여자 지도자님이나 관장님을 보신 그런 세상 시대가 아닌데 왜 여자 지도자를 선택하셨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171. 구술자 52:53 그리고 이제 제가 시험을 두 번 뛰어보니 이거는 제 길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발차기 폼새는 제가 좀 잘했고 제가 이제 폼새 할 때 다들 그런 얘기 하했어요. 폼새 선이 너무 이쁘다 폼새를 하게 되면 우리 태권도도 선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선이 참 이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자세가 깨끗하다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내가 겨루기 선수를 못 할 바에는 체육관 운영을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사범을 먼저 해야지 내가 또 지도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범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172. 면답자 53:39 진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각할 수도 없는데 항상 생각이 먼저 트신 것 같아
173. 구술자 53:47 남들보다는 조금 앞서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생각이
174. 면답자 53:52 그러면 그 시절에 말대로 지도 관장을 하신 건데 사범님이 시작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175. 구술자 54:01 처음 사범하고 지도 관장하고 할 때에는 사실 여자 지도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체육관에 입관시키려 부모님들이 데리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보통 아빠들이 옛날에는 태권도할 때 많이들 오셨어요. 아이들 입관을 시키러 오시면 여자 사범이다, 관장이다! 그러면 한 번 이렇게 짹 훑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체구도 적고 하니까 뭐 여자 사범이 운동을 제대로 해?
176. 면답자 54:40 또 운동하기 안 생기셔서.
177. 구술자 54:41 그리고 아니 키도 저렇게 조그마한데 태권도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저런 또 뉘앙스가 많이 풍겼고, 어떤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직접 대놓고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아니 여자 사범님이 운동을 가르칠 수 있으세요?
178. 면답자 55:02 진짜 대놓고?

179. 구술자 55:04 대놓고 이렇게 진짜 물어보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래도 내가 단위 몇 단위 운동을 몇 년 했는데, 왜! 애들을 지도 못 하겠느냐? 일단은 맡겨보시라 맡겨보시고 아이들 하는 걸 보시고 나서 그때 가서 얘기하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다. 일단은 맡기시라 그렇게 해서 수련생들을 접수를 받았습시다.
180. 면답자 55:29 그래도 진짜 그 시절 그러니까 저희도 여자 관장님이나 사범님을 보기 어려워 제가 있을 때도 여자 관장님 여자 사범님이 없었습니다. 제가 시작했을 때도 제가 죄송하지 만 제가 94년도부터 운동을 했는데 그때도 없었는데 그러니 부모님을 입장으로서는 아무래도 생소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다가 지도관장만 하신 건가요? 태권도장은 오픈은
181. 구술자 56:00 지도 관장은 이제 제가 사범 생활하고 나서 지도 관장은 3년을 했어요. 3년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86년도에 정식으로 제가 태권도장을 개관을 하게 되죠.
182. 면답자 56:15 사범님 인생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러면 여자 관장님으로 이제 사범님 이름을 달고 오픈을 하신 거네요. 그때 어려운 점은 또 없으셨나요?
183. 구술자 56:31 왜 없었겠어요? 여자가 운동하는 것도 힘든데 사실 또 여자가 태권도장을 한다니 주위에서 많이 말리기도 했고, 또 요새도 그러지만 어디 가든 그 뒷새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운동은 울지로서서 했지만, 또 사범 생활은 또 다른 곳 여기저기서 하다가 제가 첫 도장을 낸 거는 서대문구에서 첫 도장을 냈어요. 그런데 그 동네가 유난히 뒷새가 심한 동네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모르고 들어갔어요. 전혀 정보도 없이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체육관 할 만한 자리가 어디쯤 있을까 찾다가 보니까 그 지역에 태권도장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태권도장을 하면 괜찮을 것 같다 해가지고 무조건 들어가죠. 무조건 들어가서 이제 건물을 계약을 하고, 또 체육관에 수리를 하고, 도장을 오픈을 하게 됐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184. 면답자 57:43 어떤 부분이 어려우셨습니까?
185. 구술자 57:46 그런데 이제 그 뒷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동네가 유난히 뒷새가 심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던 그 체육관 자리에 1년 전에 다른 분이 거기다가 체육관을 하였던 자리래요.
186. 면답자 58:01 한 자리였네요.
187. 구술자 58:02 그런데 그게 비어 있어서 제가 들어간 건데 그분은 3개월을 못하고
188. 면답자 58:11 체육관요.
189. 구술자 58:11 쫓겨나셨대요. 쫓겨났다고 왜냐하면 그 지역에 가까운데 이제 가깝지는 않지만 몇백 미터 떨어져 있는 체육관에서 자기네가 그 지역을 다 장악하기 위해서 여러 체육관 관장님들이 오셔서 그 동네에다가 체육관을 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 그 체육관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여러 명의 관장님들이 오셔서 체육관을 냈는데 다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다 쫓겨나신 거예요.
190. 면답자 58:51 그 정도로 뒷새.
191. 구술자 58:53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태권도 관장님께서 자기가 그 동네를 다 장악하기 위해서 누구든 체육관이 들어오면 다 내보내 진 거네요. 어떻게든지 괴롭혀서 못 하게 체육관을 다 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제가 들어갔잖아요. 그건 저라고 해서 온전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체육관을 오픈을 했으니 홍보도 해야 되고 관원생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체육관에 이제 거기가 오픈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 관장님이 오셨어요. 저한테 역시나 오셔가지고 누가 이 지역에 체육관을 하라고 했냐? 됐잖, 누가 하라고 하기는 하나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 그랬더니 이 지역에 태권도장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알고 왔나 모르고 왔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왔다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이 지역에는 아무도 체육관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 자기가 장악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못하게 한 거죠.
192. **구술자 1:00:09** 그래서 집권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몇 명의 제가 관원생을 받아서 운동을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했는데 그 동네에서 조금 노는 사람들 노는 사람들을 몇 명을 딱 데리고 모시고가 아니라 데리고 저녁도 운동하고 있으면 구두 신은 채 체육관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193. **면답자 1:00:36** 운동하신 분이
194. **구술자 1:00:37** 들어오면서 애들을 나는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발로 막 툭툭 치는 거예요. 여기도 치고 저기도 치고 하면서 저한테 야!
195. **면답자 1:00:48** 여자분이니까
196. **구술자 1:00:49** 제가 여자니까 야 누가 지금 여기서 애들을 가르치고 태권도장을 하라고 하나 빨리 체육관 카드 치우라고 가만히 체육관 할 수 있게 내가 놔두지 않았잖아! 이렇게 협박을 또 몇 번 했고요. 사람들이 직접 와서 협박을 했고, 또 간판도 걸어놓으면 다음 날 없어요. 간판이 다 떼어갑니다.
197. **면답자 1:01:15** 사실 옛날에는 간판들이 다 밖에
198. **구술자 1:01:17** 그래서 간판도 다 떼어가고~ 전화로도 수시로 전화를 해서 체육관을 못 하게 하겠다! 막 여러 가지로 힘들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를 계속 협박하다가 안 되니까 우리 건물주 건물주가 한 건물에 있었거든요. 제가 2층에서 태권도장을 하고 건물주가 3층에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그 판장이랑 모르는 사이가 아니에요. 한 동네니까 다 알지
199. **면답자 1:01:48** 그것도 그 전 방법으로 계속 내쫓았으니까 더
200. **구술자 1:01:51** 그렇죠! 또 다 아시는 분인데도 저를 협박해서 안 되니까 이제 건물주를 협박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내보내게 해라! 그러지 않으면 이제 해코지를 하겠다! 는 식으로 안 좋게 막 하시니까 건물주가 저한테 판장님 제가 이사 비용은 드릴 테니까 제발 좀 체육관에서 나가주세요. 저한테 사정을 하시는 거예요.
201. **면답자 1:02:19** 그럼 도장을 받지 말았어야지...
202. **구술자 1:02:20** 1년도 채 안 됐거든요. 체육관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나갈 수 없다. 여기 시설비가 얼마고 또 겨우 애들 관원 모집해서 내가 체육관을 하는데 못 나간다. 그랬더니 막 통사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부지 간 이사 비용은 다 해주겠다. 손해배상도 다 해주겠다. 무조건 나가면 달라. 자리 구할 때까지 자기가 그때까지만 하게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주인께서 워낙 짝씩 비르셔서 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체육관을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이전을 하게 됐죠.
203. **면답자 1:03:07** 처음부터는 진짜 수월하지 않으셨었네요.
204. **구술자 1:03:11** 그것도 수월하지가 않았어
205. **면답자 1:03:12** 정말 역경으로 지금 그래서 다들 처음부터 잘 되셨다. 이런 얘기를 들으실 줄 아는데 근데 그때는 저도 했지만, 태권도장들이 유치부도 있었고 도장들이 속셈 이렇게 거의 토달 학원들이었거든요. 그럼, 이전을 하셔서도 또 그 근처에다가 이전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206. **구술자 1:03:35** 멀리 갈 수가 없죠. 관원생들이 있으니까 데리고 가신 건가요? 관원생들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가까운 근처에 체육관을 이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체육관은 처음에 했던 체육관보다는 평수가 조금 컸어요. 평수가 조금 커서 거기에는 이제 유치부 교실을 따로 만들어서 유치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태권도장이 교육구청 관할이었어요. 교육구청 관할이어서 유치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었어요. 지금 같으면 태도 없는 일인데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유치부를 따로 선생님을 채용을 해서 유치부 과정 공부를 하면서 또 태권도도 지도를 하고 오후에는 태권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또 유투

- 브 활성화를 했죠.**
207. **면답자 1:04:37** 여자 관장님으로서는 큰 메리트
208. **구술자 1:04:39** 아유 괜찮았습니다. 그때는
209. **면답자 1:04:41** 그럼 잘 되신 건가요?
210. **구술자 1:04:42** 거기선 잘 되죠.
211. **면답자 1:04:44** 그래서 그러면 큰 성황리에 운영이 계속 되신 건가요?
212. **구술자 1:04:49** 거기서도 사실 또 이제 이전하는 과정에서 또 일들이 많았어요. 조금 큰 대로 이사를 하게 되니까 제가 체육관을 안 하고 나갈 줄 알았는데 큰 데로 이사를 갔잖아요. 피로감이 더 심했죠.
213. **면답자 1:05:08** 또 따라오신 그분도 따라오신 겁니까?
214. **구술자 1:05:11**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체육관 또 수리하고 하는 과정에 제가 불려가서 감금도 당하고 맞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또 그래서 이제 체육관을 또 그 사람들이 저한테 어떤 제안을 했나 하면 체육관을 하려면 체육관을 해서 반쯤을 하자! 수익금을 자기 반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체육관을 하는데... 내가 왜 반을 왜 주냐? 나는 그리 못한다. 난 내가 끝까지 여기서 체육관을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 말대로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또 이제 폭력과 감금과 또 제가 들어가기 전에 그 자리가 독서실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 독서실 원장님하고 체육관 관장님하고 형님 아우 사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그때도 제가 계약한 줄 알고 체육관을 비워주지 말라고 하고 그 실장님은 독서실 실장님은 다른 데로 피신을 해서 갔어요.
215. **면답자 1:06:25** 관리 잘하는 분이 그
216. **구술자 1:06:26** 그렇죠~ 저 체육관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래서 그때도 사실 굉장히 어렵게 체육관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제가 들어가는 했는데 그래서 그 체육관을 비워줬다 해서 그 아래 관장님이 그 실장을 우리 체육관 앞에 시장이었거든요. 시장바닥에서 아주 폭력을 써서 때렸어요. 그래서 그 실장님이 갈비뼈가 나가고 목뼈가 부러지고 막 하는 것을 시장분들이 다 보시게 된 거예요. 그거를 저한테는 그거 굉장히 좋았죠. 그러가지고 이제 막 동네 분들이 그전에는 그 체육관 하나만 있으니까 그 관장님만 믿고 다 그쪽으로만 애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딱 그 상황을 보니까 “관장님 인성이 이거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관장님이 아니라 완전 깡패 두목이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짱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체육관 개관이 다 끝나고 다시 정리가 돼서 운동을 지도할 때에는 그 아래 체육관 관원생들이 저희 체육관으로 1명씩 2명씩 오게 된 거예요.
217. **면답자 1:07:45** 역시 현재처럼 입소문
218. **구술자 1:07:46** 그래서 “그 관장님이 이게 정통 무도인이 아니다! 이걸 완전 깡패다.” 그동안 체육관이 없어서 우리가 그 체육관에 애들을 보냈는데 그 체육관을 보낼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애들이 우리 체육관으로 오게 되고 끝내는 그 체육관이 문을 닫게 되고 그 관장님은 태권도에 의해서 영원히 떠났습니다.
219. **면답자 1:08:10** 축하드립니다. 정말 여자 태권도인으로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당하신 것 같아요.
220. **구술자 1:08:20** 많이 겪었어요.
221. **면답자 1:08:22** 진짜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
222. **구술자 1:08:24** 무서웠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다방으로 저를 불러냈는데 그때도 몇몇 등치 크신 분들 노시는 분들을 저 가운데 앉히고 땡~ 돌아앉는 거예요. 이렇게 딱 앉고 다방 문을 다 잠그시는 겁니다. 손님들 있는 분들 다 내보내시고 저 혼자만 딱 가운데 앉혀놓고 이

- 제 그때 협상 제의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그래서 저는 절대 못 나간다. 내가 여기 들어왔을 때는 내가 살기 위해서 체육관을 온 거지 나가기 위해서 내가 여기 온 거는 아니다. 나중에 나도 듣기는 했지만 뭐 이래이래 해서 관장님이 체육관을 여럿 쫓아내셨다며요. 그분들은 순순히 나가셨을지 모르지만 나는 안 나간다. 내가 끝까지 내가 버티겠다 해서 이제 버티게 됐죠. 그래서 그분은 태권도계를 영원히 떠나시고 저는 이제 거기서 승승장구를 하게 되죠.
223. 면담자 1:09:27 저는 지금 문 잠근다는 소리 저희도 운동은 했지만, 소름이 지금 쭉 끼치면서 아무래도 저희는 뭐 할 수도 있지만 여러 남자들 사이에서는 무서울 수도 있으시는 거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시는데 그때는 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신데 정말
224. 구술자 1:09:49 엄청 무서웠어요.
225. 면담자 1:09:50 지금 얼굴 붉는 게 반가운 것 같습니다.
226. 구술자 1:09:53 아이고 살아남은 게 참 대단한 거죠.
227. 면담자 1:09:56 그러면 그렇게 큰 일을 겪으시고 그래서 그런가, 체육관이 엄청 잘 됐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과 특별한 수련 경영 노하우가 있으셨나요?
228. 구술자 1:10:11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사한 체육관에서는 한 4년 정도 했어요. 그 체육관이 워낙 건물이 낡아서 비도 새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이제 그 가까운 지역에 이전을 하게 됐는데 그 동네에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 처음 생긴 건물로 제가 이사를 하게 됐어요. 신축 건물. 그래서 그 건물이 올라가고 이렇게 임대료를 준다고 했을 때에 건물주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여기에 체육관을 들어올 테니까 가운데 기둥을 하나도 없게 이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229. 면담자 1:10:57 지으실 때
230. 구술자 1:10:58 얘기를 하셔서 아니 이 칸막이를 해가지고 임대료를 하잖아요. 그거를 제가 “내가 한 70평을 쓸 테니까 칸막이를 하지 말고 통째로 나를 이거를 임대료를 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한 70평을 제가 통째로 임대료를 얻었어요. 그런데다가 신축 건물에다가 그 동네에서 처음으로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 생겼으니 이제 얼마나 좋아요.
231. 면담자 1:11:28 그렇죠! 그 시절에는 그런 체육관도 없고
232. 구술자 1:11:31 그렇죠! 그래서 또 한 번 그 체육관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체육관을 하면서 전면 한 면을 전부 통유리를 붙였어요. 제가 전부 다 통유리를 붙이고, 그리고 유치부를 안 할 생각으로 락커룸을 다 만들어놨어요. 개인 락카를 다 만들었어요. 한쪽 벽에 개인 락카를 만들고 또 샤워장과 사우나 시설 휴게실 70평이니까~ 그거를 만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옮겼냐면 그때 유치부가 교육구청 관할로서 한참 그때 이제 할 거기였는데 저는 유치부가 나중에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미리 앞섰어요. 역시 그래서 어느 시기인가는 태권도가 교육구청 관할이 아니게 되는 때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치부를 파감하게 접고 새로 신축 건물로 옮겼을 때에는 어머니를 에어로빅을 시작을 하려고 체육관 전면에 통유리를 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 샤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우나 시설 샤워장 개인 락카 이거를 다 했죠.
233. 구술자 1:13:05 이 그래서 개인 락카를 해놓으니까, 어머니들도 쓰시고 우리 체육관 아이들도 도복 가지고 다니기 귀찮은 애들은 거기를 또 이용을 하게 되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쪽으로 이제 가면서 유치부는 없었고 아침 6시 타임부터 오전 11시까지 에어로빅을 세 타임 했어요. 그러면
234. 면담자 1:13:31 유치부가 없는데도 오전에는 딱 또 다 수업을 하실 수 있어
235. 구술자 1:13:36 그래서 이렇게 풀가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 6시부터 하면 에어로빅 선생님들을 이렇게 또 해서 오전에 세 타임 에어로빅을 하고 태권도는 2시부터 도장을 10시

- 까지 오후에 6타임씩 돌리고 그렇게 했죠.
236. 면담자 1:13:58 그럼 사범님은 그런 선견지명 있는데 지금처럼 옛날에도 그 시절에 심사비 입관비 도복비 전부 다 체계적으로 해서 받으셨다는 그 시스템을 처음에 만드시고 다 받으셨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입관에 의의를 달지 않았나요?
237. 구술자 1:14:22 저는 다 받았어요. 그렇다고 체육관 입관비도 받고 도복도 공짜로 안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승급 심사를 보는데 그때 당시에 심사비를 1만 원씩 받았어요. 저는 심사비도 받고 다 했죠. 저희 때는 안 왔었어요. 나중에 이렇게 도복도 무료로 주고 심사도 달달이 안 보고 1년에 몇 번 보고 이렇다고 그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심사도 매달 봤어요. 매달 심사를 보고 또 심사할 때에는 거의 저녁 시간대를 이용해서 심사를 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부모님들이 오셔서 관심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녁때 심사를 봤어요. 이른 시간에 하면 부모님들이 일하시니까 보러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밤에 심사를 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힘들었지만, 심사를 진행했던 것은 또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이렇게 발전의 과정을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심사를 안 보면 사범님들도 느슨해지고 관장님도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238. 구술자 1:15:40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될 수 있으면 제가 운동할 때에도 승급 심사 보고 단심사를 피게 과정이 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들을 최대한 짧게 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할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때도 이제 학원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승급 심사를 매달 붙으려 아이들도 자기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느껴요. 목표 왜냐하면 비교되잖아. 같이 들어왔던 애들이 누구는 파란 락카인데 나는 아직도 노란 락카야. 그러면 애들이 더 이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심사를 달달이 했습니까. 그때도.
239. 면담자 1:16:24 그러셨군요. 역시 한 걸음 앞장서서 모든 시스템을 하셔서 그런가? 자체 승급 심사에 인원이 너무 많아서 번호표를 하고 심사를 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해주실 수.
240. 구술자 1:16:42 그때 당시에 그렇게 체육관을 옮기고 나서 많은 인원이 확보가 됐고, 또 인원이 굉장히 많다 보니 심사 때도 어릴 때는 두 타임으로 나눠서 심사를 볼 때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심사를 볼 때에는 항상 심사관님을 초빙을 해서 심사를 봤어요. 승급 심사일 때도 제가 직접 심사를 안 봤습니다. 그래서 심사관님을 초빙을 하면 보통 두 분 정도 세 분 이렇게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오시면 심사관님들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태권도 하시는 분들은 금방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가 1번이고 이렇게 번호표를 안 붙여도 하는데 또 안 하신 분들은 잘 몰라. 애들이 워낙 많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국기원에서 우리 승품 심사 볼 때 번호표를 달듯이 그때 당시에 저는 아이들한테 심사 번호를 제가 다 줬어요.
241. 구술자 1:17:46 체점포에다가 1번부터 죽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번호표를 달고 심사를 보게 했고 또 승품자들이 우리 체육관에 굉장히 3품 애들이 많았던 이유 중의 하나는, 심사를 볼 때에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품띠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심사관님들, 아빠들을 초대해서 심사관을 제가 보시게 하셨어요. 가끔은 하계 이렇게 품이 제일 높은 관원생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아버지 이번에 저희 체육관 승급 심사가 있습니다. 오셔서 심사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안 오시려고 그래요. 나 그거 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나? 제가 가르쳐 드릴 게 오세요~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세 분 정도를 아빠들 심사위원으로 모셔요.
242. 면담자 1:18:50 심사위원 위촉을 하신거네요.
243. 구술자 1:18:52 그러니까 또 연말 심사라든지 이럴 때에는 우리 태권도 쪽의 관장님들을 모시고 또 1년에 몇 번 정도는 부모님들을 모시는 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직접 오셔서 심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빠들이 오셔서 그러면 이제 급 올려주는 건 사실 관장님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들은 거기서 보시고 60점이 기준이다. 그러면 아빠들 보시기에 아주 잘했다면 점수를 많이 주시고 그러지 않으면 60점 선에서 점수를 주시면 된다. 이렇게

게 하면 이제 부모님들도 아이들 앞에 굉장히 자랑스럽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체점을 하시고 또 다음에는 다른 부모님들을 이렇게 불러서 심사관을 하시고 하나까 애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나도 또 빨리 승품 이렇게 해서 우리 아빠도 한번 심사관으로 오시게 해야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오래 다녀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체육관을 하면서 홍보 중에 큰 홍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44. 면담자 1:20:12 그러니까요. 정말 색다른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범님이 지금 체육관을 경영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부모님들이 처음에 상담하러 오셨을 때의 여자 관장님이어서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지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여자 관장이어서 나는 이게 좋았다! 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245. 구술자 1:20:40 여자 관장이어서 좋았다. 처음에는 여자 관장이어서 부모님들이 우습게 봤지만, 아이들 보내보고 태권도장에서 행사라든지 아이들 지도하는 거 아이들 실력을 보니 여자 관장님이어서 훨씬 잘하더라. 믿고 보낼 수 있었던 게 저한테는 더 큰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나니까

246. 면담자 1:21:09 그러면 지금 생각해도 내가 여자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안 좋았다. 이런 부분은 있으십니까?

247. 구술자 1:21:18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상담하러 왔을 때 이미지 거는 이제 아이들을 체육관에 보내보지도 않고 먼저 뭐 여자가 얼마나 하겠어! 실력이 얼마나 되겠어! 그래 태권도하면 다 남자가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들을 하잖아요. 지금은 여자 관장님들이 워낙 많아서 어머 여자들도 너무 잘해 이러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여자 관장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려 보셨죠? 그때는 좀 많이 설하고 그래 두고 보세요. 제가 남자들보다 더 잘한다는 그런 모습을 꼭 보이고 말리라 하는 거는 제 마음속으로 항상 다짐을 했었습니다.

248. 면담자 1:22:06 사범님처럼 이렇게 잘해 주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태권도장에 운영을 잠깐 했었지만, 지금은 부모님들이 여자 관장님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좀 더 섬세하고 잘해 주시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결과나 이미지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범님이 이렇게 지금은 여성 태권도인들 중에서 경영자로서 성공하신 케이스로 남아 있는데 사범님이 하실 때 또 최초로 했던 것 중의 하나가 그 시절 해외 순방 시범단을 또 하셨던 게 기사를 봤어요. 그 시절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시범단이 엄청 많지만, 그 시절에는 지금 협회들도 시범단이 없던 시절인데 어떻게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까지 가지게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49. 구술자 1:23:00 아까 앞에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맞습니다. 그게 김포공항에서 저희가 필리핀 가기 전에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92년 12월달이네.

250. 면담자 1:23:13 그러니까요. 엄청 진짜 이때는 해외여행이 쉽지 않은 시절인데 맞아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다 데리고 가셨을까요?

251. 구술자 1:23:23 그래서 체육관에 저희가 승품 유단자들이 품머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가 체육관 자체 내에 시범단을 만들었어요. 시범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조금 했는데 그 이제 구체적인 활동이 제가 서대문에서 체육관을 했는데 서대문구청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거기에 위원을 모집을 해서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행사를 해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단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또 위원으로 나가게 됐는데 또 구청장님께서 제가 체육관 한다고 하니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봉사를 하는 건데 어린이날이나 연말 행사에 태권도장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시범을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야 뭐 너무나 땀까지 체육관 홍보도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체육관 아닌 다른 곳에서 시범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로서는 또 굉장히 큰 영광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OK 했어요.

252. 구술자 1:24:52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을 구청에서 하는 행사 때마다 우리 체육관 아이들 도복

을 제가 다 맞추고 해서 시범을 하게 됐습니다.

253. 면담자 1:25:03 그래도 실력이나 수련이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 같은데 잘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254. 구술자 1:25:13 그런 거는 제가 기획하고 연출하는 걸 또 참 잘합니다.

255. 면담자 1:25:17 역시 저는 사범님 도장을 경영하시기에 엄정 바쁘셨을 텐데 그 와중에도 끊임 없이 여러 태권도 단체에서 여성 위원으로 꾸준히 활동하신 것을 제가 찾았습니다. 86년도 세계선수권대회 준비위원회에서도 사범님 이름이 딱 있더라고요. 혹시 어떤 위원회인지 기억나십니까?

256. 구술자 1:25:41 기억나죠? 89년도에 세계대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했었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에서 여성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같이 해보자! 해서 장정희 사범님이 위원장을 맡으시고 우리 위원들이 여성 위원들이 20명 위원장님 포함 20명이 그때 위원회를 조직해서 세계대회 할 때 그때 저희가 봉사활동으로 일을 했습니다. 맞아

257. 면담자 1:26:16 사진들인가요?

258. 구술자 1:26:17 네 맞습니다.

259. 면담자 1:26:19 아니 그러니까 날짜를 봤을 때는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대회 때의 활동들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한복을 입고 좋아요. 그럼, 진짜 이 여성 위원들이어서 다 태권도 하신 분들이죠.

260. 구술자 1:26:35 그렇죠~ 다 태권도 했던 친구들이고요. 저희가 86년도에 위원회가 구성은 됐지만 정식으로 활동을 한 것은 89년도에 세계대회 때 많은 일원으로 활동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맡은 역할들이 그전에는 미아보호센터가 있었어요. 그때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세계대회를 했는데 거기 일반인들도 많이 참석을 했었고, 임원 선수들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만 해도 애들 데리고 와서 있어버리는 부모님들이 또 워낙 많았어요.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아보호센터에서도 일을 했었고 또 이제 임원진들 각 세계 선수 또 임원들 오시면 또 길 안내 또 경기장이 이렇게 폐쇄되는 것도 있잖아요. 이 문으로 들어가고 저 문으로는 못 갑니다! 하면 외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거 문 찾는 것도 힘들어서 막 돌아다니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길 안내 또 이런 것도 해드리고 또 이제 당일마다 이렇게 체급 다른 선수들이 출전을 하게 되잖아요.

261. 구술자 1:27:59 그러면 그런 것도 와서 막 물어보세요. 어느 나라 선수하고 어느 나라 선수가 이번 대회에 볼드냐 체급이 뭐냐 이런 것도 와서 막 물어보시고 하면 저희 위원들이 그런 것도 작은 일이지만 세세하게 저희가 다 가르쳐 드리고 도와드렸던 것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262. 면담자 1:28:23 그러면 86년도에 우리나라가 국제대회가 여러 개 있을 걸 준비해서 그 위원회가 만들어진 거고 준비 과정을 위해서 조직된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보여주시킨 귀한 사진을 하나 봤습니다. 김운용총재님하고 이 찍은 사진 이거에 대해서가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저희 서울 올림픽 대회라고 써 있더라

263. 구술자 1:28:48 맞아요. 88년도에 장충체육관에서 우리가 서울 올림픽을 치렀잖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 여성 태권도인들이 운영요원도 아시고 심판도 하시고 각 부서에서 일들을 그때도 많이 했습니다. 이 사진은 올림픽 때 찍은 사진이구요. 저는 그때 당시에 물품 관리하는 운영부에서 그때 일을 했습니다.

264. 면담자 1:29:19 근데 진짜 여자여서 차마 입으시고 저희 그러면 지금 경기부가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 얘기하면

265. 구술자 1:29:28 그렇죠! 그렇다고

266. 면담자 1:29:29 지금 김운용총재 고 김운용 총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88년도니까 저한테는 올림픽이 초등학교 때고 저 초등학교 때 정말 하루 종일 학교에서 호돌이만 그리고 진짜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인데 이게 정말 귀한 사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많이 협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사범님들 사진들이 딱딱딱 보이는데 설명 좀 해주시고

267. **구술자 1:30:02** 여기는 류리닝 입으신 분은 김영인 사범님

268. 면담자 1:30:08 이제 국가대표 코치

269. **구술자 1:30:10** 코치도 하셨죠, 아주 유명한 코치님이셨고 그다음에 여기는 박홍신 사범님 그리고 여기 자주색 자켓을 입은 저 후배인데요. 서춘회 사범이라고 올림픽에서 최초로 우리나라 여성 심판 1호입니다. 올림픽 때 심판을 뛰셨어요. 그리고 이름이 잘 생각

270. 면담자 1:30:34 이름이 그리고 옆에 이제 여자 이분이 제 사범님이신거고, 그리고 옆에가 장명수

271. **구술자 1:30:42** 장명수 관장님이시고요.

272. 면담자 1:30:44 이게 근대 장충체육관에서 찍은 거죠. 바로 앞에

273. **구술자 1:30:49** 장충체육관

274. 면담자 1:30:53 그러니까 이게 올림픽 때 해가지고, 이게 그럼 이게 국가대표 류리닝인거요?

275. **구술자 1:31:02** 그렇죠!

276. 면담자 1:31:03 아니 저는 이게 시범 종목이었으니까 저희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저희는 그 상황이나 뒤에 있는 일들을 모르니까 그때의 분위기가 어땠나요?

277. **구술자 1:31:19** 그때 또 올림픽에 태권도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기는 했지만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영광이고 태권도인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태권도를 했던 모든 분들은 그 경기를 보기 위해서 직접 체육관으로도 많이 찾아왔었고 아마 그때 중계도 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다 드라마 보면서 환호성을 치고 기뻐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이

278. 면담자 1:31:53 그래서 지금 보면 또 애플이 인터네셔널 애플이 이게 경기 규칙 강습

279. **구술자 1:32:02** 기념사진 촬영 그때 저희가 여기 레프리카 교육을 끝나고 나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김운용 총재님께서 교육생들에게 식사 대접을 해 주셨어요. 전부 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그때 국제심판을 같이 받았던 저희 동기생들임.

280. 면담자 1:32:27 그러게요. 국기원에서 받으신 거고 여기 명을 보니까 이게 정말 귀한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레가지고 지금 그렇게 사범님은 이렇게 소리소문없이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정말 느낀 건데 꾸준히 그리고 중추적인 역할로 활동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다양하게 그래서 운동을 하시면서도 수련도 끊임없이 하시고, 자격 과정이나 교육도 다 하시고 그리고 모든 대회나 단체에서도 봉사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태권도인으로 외길 한 번 걸어본 적 없는 정통 무도인이다! 라는 사범 수식어가 있습니다. 태권도 수련과 실천하시는 데 목표가 있으십니까?

281. **구술자 1:33:18** 맞습니다. 저는 제가 도복을 처음 입고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길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오로지 태권도 한길만을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었고, 그리고 사실 시골에서 올라올 때는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왔었다고 했는데 공부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루지는 못했어요. 이루지는 못했고 그래서 그래도 이왕 태권도를 시작했으니, 끝은 봐야 되겠다 그게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끝이라는 게 앞으로도 계속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태권도에서 단이 9단이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이왕 했으니까 아무리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9단까지는 승단하리라~ 하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9단을 승단했습니다.

282. 면담자 1:34:18 이루셨네요. 그래도 지금도 꾸준히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사범님이 또 하나의 업적 중의 하나가 저는 같은 여성 태권도인으로서 81년도 여성 심판이 등장을 하고 아가 올림픽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최초 88년도에 여자 심판이 국제심판이 뿔한 것처럼 80년도 중반에 태권장회라는 여성 태권도를 결성하셨습니까.

283. **구술자 1:34:47**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80년도가 넘어서면서부터는 여자 사범들이 조금 많이 밖으로 나왔어요. 이름도 알려지게 되고 활동 범위도 넓어지고 하는데 여성단체 모임이라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폭넓게 우리 사범들을 알려면 어떤 단체를 하나 우리가 모임을 만들면 전국에 있는 사범들을 우리가 동시에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우리 여성 사범 몇몇이 이런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이 된 게 태권장학회입니다. 그게 이제 1986년 8월에 동대문구에 있는 해동체육관이라고 저희 후배가 있었어요. 그 체육관에서 저희가 첫 모임을 갖게 됐어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여기저기 수 소문을 해서 일단 3단 이상자 3단 4단 이렇게 해가지고 21명이 모여서 태권 그때는 태권장학회 아니고 여성 태권도회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창단을 하게 된 게 86년입니다. 그러면

284. 면담자 1:36:07 그날 모여서 86년도 6월에 모여서 태권장학회로 이름을 만든 건가요?

285. **구술자 1:36:14** 그때는 여성 태권도회라고 우리가 명칭을 했어요. 명칭을 했다가 그 이름에 여러 번 모임을 했었죠. 중간중간 하다가 87년도에 우리가 이름을 다시 한번 바꾸자! 해서 태권도장학회라고 이름을 명칭을 바꾼 게 1987년도에 명칭을 바꾸게 됐지.

286. 면담자 1:36:40 그러니까 다음 해에

287. **구술자 1:36:41**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우리 결혼한 후배들이 몇 명 없었어요. 다 남자였어요. 그래서 그냥 좀 정정게 그냥 남자회라고 해보자

288. 면담자 1:36:55 그리고 또 한국 우리나라 말로

289. **구술자 1:36:57**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남자회라고 그때 바꾸게 되었죠.

290. 면담자 1:37:02 근데 왜 여자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텐데, 3단 이상으로 자격이 주어졌었나요?

291. **구술자 1:37:10**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가 심판 활동하는 우리 여자 후배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몇 명이 있어서 왜냐하면 유단자부터 받다가 보면 또 이게 개입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선 후배와의 관계에서도 또 후배들이 너무 어려워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기본적인 활동을 하려면 그래도 3단 이상은 돼야지 우리가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3단 이상으로 그 모임을 시작을 하게 됐죠.

292. 면담자 1:37:50 그런데 태권 장자의 소식을 통해서 그다음 해 자격 기준이 또 변경되었습니다.

293. **구술자 1:37:57** 그렇죠. 그게 89년인데 저희가 86년에 이제 여성 태권도회라고 시작을 해서 89년에 저희가 3단에서 18세 이상 유단자이면은 누구나 받는다 이렇게 이제 또 한 번의 저희가 과정을 거쳤죠.

294. 면담자 1:38:21 문을 열어놓으신 거죠.

295. **구술자 1:38:23** 그 이유는 그때 이제 이렇게 몇 년을 만나다 보니 또 경기인가 비경기인가 갈리게 되는 겁니다. 각 대학에 태권도 학과가 많이 생겼잖아요. 생기다 보니까 경기인 비경기인 이제 이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296. 면담자 1:38:46 그냥 선수 출신 도장 출신 이런 시기가 되는

297. **구술자 1:38:49**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상관없이 그냥 3단 이상 다 모았어요. 모으니까 첫 모임인데 21명이 됐어요. 그것도 서울 근교만 모인 사람입니다. 그 인원이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었는데 중간에 또 경기인과 비경기인이 체육관 출신과 학교 출신이 갈라지는 거죠. 그거를 이제 또 어떤 분이 우리는 경기 쪽만 모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

- 리 처음 창단했던 멤버들은 다 어차피 우리 태권도인이다. 그리고 후배들도 학교가 생기기 전에는 전부 도장 출신이다. 그런데 왜 굳이 학교와 도장을 경기인으로 나눠 이거를 왜 가르느냐 그냥 우리가 함께 하자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 후배들이 완강히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경기인 출신들이 다 빠져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인원이 많이 빠져나가게 됐고 또 각 지역에서도 또 경기인 출신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298. **구술자 1:40:08** 그래서 그래 그러면 경기인을 보내고 남은 우리가 다시 전국에 있는 유전자들을 다시 우리가 한 번 더 모집을 하자 모집을 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걸 돕고 여성 태권도인들의 모임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알리지, 하는 차원에서 다시 18세 이상 유단자 누구나로 저희가 바꾸게 되었죠.
299. **면담자 1:40:34** 그러면 지금 한국어성태권도연맹 그냥 준회원 회원 자격 기준하고 동일한데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네요.
300. **구술자 1:40:45** 그런가요? 네
301. **면담자 1:40:46** 그래서 태권남자회지를 개간하고 발행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계기로 이게 만들어진 건가요?
302. **구술자 1:40:55** 태권도남자회지는 사실 저희가 1987년도 3월부터 첫 창간호를 저희가 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렇게 핸드폰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일반 전화 외에는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303. **면담자 1:41:17** SNS가 있는
304. **구술자 1:41:18**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홍보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일일이 우리가 지방으로 찾아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태권남자회지를 만들어서 이거를 각 지역으로 보내자! 우편으로 우편으로 보내고 우리 여성 태권도인들의 활동 사항을 거기다 우리가 전부 낱낱이 기재를 해서 보내면 지방에서도 이거를 보고 서울에는 사범님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구나! 알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국기원이 나 협회에서 강습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방에서는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남자회지 뒷면을 뒷면애다가 그거를 다 실었어요.
305. **면담자 1:42:13** 멋지시네요.
306. **구술자 1:42:15** 예! 그래서
307. **면담자 1:42:17** 하셨네요. 진짜
308. **구술자 1:42:18** 우리 회원들 심판 활동이라든지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한 거라든지 앞으로 몇 월 며칠날 국기원에서 무슨 교육이 있다! 뭐가 있다! 하는 거를 우리 회지에다가 다 실어서 그거를 각 시도협회 협회로 우편 발송을 막 이렇게 만인씩 묶어서 시도협회로 보내고 또 개인적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 지역의 사범님들이나 관장님들은 시도협회 사무실에 오면 그게 있잖아요. 그럼 그걸 들고 가서 또 자기 지역에 있는 자기 체육관에서 있는 유단자들한테 서울에서는 이런 것도 한다더라 해서 관장님들이 추천해서 우리 남자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고 사실 이런 걸 노리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잘 먹혔어.
309. **면담자 1:43:09** 그러면 첫 회에 1호 발행이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310. **구술자 1:43:14** 87년 3월 4일
311. **면담자 1:43:16** 진짜 빠르셨던 거네요.
312. **구술자 1:43:22** 3월 4일에 한 게 저희가 이제 창간호를 제철별로 한 번씩 나오는 걸로 했어요. 1년에 4번 3, 6, 9, 12 그래서 86년에 저희가 남자회를 창단을 했고, 87년에 바로 이어서 저희가 회지를 만들었죠.

313. **면담자 1:43:43** 진짜 뭐든 빠르셨던 것 같아
314. **구술자 1:43:46** 좀 빨랐어요.
315. **면담자 1:43:48** 근데 진짜 지금 이 영상을 보거나 들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익숙해져서 그거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그 시절에는 문자도 없고 연락 전화도 쉽지 않고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사범님이 지금 말하는 그 정보 하나가 신기하고 그 정보를 알리기에 전화 문자 게시판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범님들의 정보는 정말 귀했던 거였을 때문에 그 소식지는 정말 기다려졌을 것
316. **구술자 1:44:26** 맞아요. 그래서 부산의 이제 어떤 회원 같은 경우는 이 소식지를 접하고 우리 남자회에 가입을 하려고, 모임하는 날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온 회원도 있었어요. 굉장히 감동적인 일도 있었죠.
317. **면담자 1:44:42** 그런데 이게 의미는 좋지만,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 비용을 충당하셨을까요?
318. **구술자 1:44:52** 비용은 그때 당시에도 우리 후배들이 또 심판도 했었고 여자 후배들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방송도 좀 많이 나왔었어요. TV도 나가고 라디오 방송도 나가고 또 여기 저기 또 활동도 하고 또 계 개 중에는 체육관 하는 우리 후배들도 생겼고 또 다른 쪽에 일하는 후배들도 있고 해서 자기가 어디 출연을 한다든지 하면 출연료는 무조건 회비 낸대. 거기가 우리가 외부적으로 생기는 돈은 무조건 우리 회지 만드는 데다가 다 돈을 내서 우리가 회지를 만들었죠.
319. **면담자 1:45:36** 그러면 혹시 회지는 유료로 배부?
320. **구술자 1:45:40** 아니요. 무료로 했죠!
321. **면담자 1:45:42** 그러셨군요.
322. **구술자 1:45:44** 무료로 다 저희가 무료 발송을 했고, 그때만 해도 이제 우표를 붙여서 이거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우리 남자 회원들이 각자 자기 주소 아는 분들 주소를 다 이렇게 적어놨다가 회지가 나오면 그때 다 보내는 거예요. 각자 그런 것도 사비 자기 개인적인 돈으로 다 우편 발송하고 했죠.
323. **면담자 1:46:10** 정말 열정과 관심이 아니면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냥 그것도 힘든데 태권남자회 대회를 만드셨어요. 그건 또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324. **구술자 1:46:28** 남자회는 저희가 이제 여성대회를 1990년에 제1회 대회를 했는데 그때는 우리 남자회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던 상태고, 또 기금도 없었고 해서 일단은 우리 회원들끼리만 일단 시합을 한번 해보자! 해서 우리 당 회원들끼리 시합을 이래저래 했어요.
325. **면담자 1:46:56** 어디서
326. **구술자 1:46:57** 청노체육관이라고 우리 서춘회 사범이 운영했던 청노체육관 태권도장에서 했어요. 일반 도장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또 체급 경량 중량 무체급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참석하신 우리 선수들은 대부분 가정주부도 있었고 태권도 사범도 있었고 대학생도 있었고 이랬겠죠. 그래서 첫 회에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체육관에서 소소하게 대회를 치렀는데 너무 재미있게 그 대회를 치렀어요. 메달도 만들고 상장도 만들고 다 했죠. 그때도
327. **면담자 1:47:41** 그러니까 진짜 이게 대회라는 게 작든 크든 준비해야 되는 과정은 다 동일하거든요. 정말 그런데 그거를 다 하셨다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그거를 다 충당하시고 그리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운영위나 주축은 누가 하신 건가요?
328. **구술자 1:47:59** 운영이나 주축은 전부 우리 남자의 회원들이 다 했죠. 경비도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회원들이 냈고 이제 조금 이렇게 자리가 잡혀가면서 회원들한테 저희가 회비를 조금씩 걷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모이면 식사도 해야 되고, 차도 마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회비도 조금 모았고 또 우리 회원들 간에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이 이번 대회는 내가 트로피 값을 내가 다 낼게 이렇게 하고 나는 그럼 내가 메달 값을 낼게 뭐 우리 회원들이 수시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서 저희가 여성대회를 91년도 2회까지 치렀습니다. 2회 대회 때는 우리 일반부들은 다 빠졌어요. 그때는 이제 조금 범위를 넓혀서 여자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교 학생 위주로 하는 대회를 2회를 치렀습니다. 그때도 인원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급은 그때도 마찬가지로예요. 두 제급 이렇게 해가지고 여성대회를 2회 때까지 치렀고 2회 대회를 치를 때에는 진짜 우리 협회 심판님들을 직접 모셨어요.

329. **구술자 1:49:21** 심판님들이 직접 오셔서 심판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수고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심판님들이 우리 경비의 보태 써라! 하고 안 받으시고 도로 내놓고 가시고 어떤 사범님들은 후원비다! 해서 다시 후원을 해 주시기도 하고 이어서 이제 우리 남자회가 또 발전을 하게 되었죠.

330. **면답자 1:49:47** 워낙에 이제 태권남자회 조직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데 태권남자회에서 여성대회라고 해서 저는 여자만 지금 한국여성태권도 연맹 대회처럼 여자만 출전하는 줄 알았는데 보는 사진을 보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2회 때의 개최식은 이게 사범님 사진 같습니다. 2회

331. **구술자 1:50:13** 때는 이제 저희가 91년도에 여자 대회는 두번째 하고 91년도에 초등학교 태권도 남자회 겨루기 품새대회를 정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332. **면답자 1:50:27** 그러면 크게 막 해놓고

333. **구술자 1:50:29** 그렇죠 여기는 제가 보니까 관악고등학교 같은 제가 이때 이제 회장을 맡았을 때인데 관악고등학교 강당을 빌렸습니다. 이때는 인원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해대회를 관악고등학교에서 했었고 그때는 인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334. **면답자 1:50:51** 이견 1회 같습니다.

335. **구술자 1:50:52** 이거는 저희 체육관 아이들이 입장자들입니다.

336. **면답자 1:50:55** 그러면은 했는데

337. **구술자 1:50:58** 저희 체육관 애들이 거의 다 나왔어요.

338. **면답자 1:51:02** 경품도 받고 지금 유일하게 지금 모든 대회 중에 여성 태권도연맹에 대해만 경품이라는 걸 주고 이라고 있는데 참 이게 전통이 연결이 되고 이런 거의 대회가 트로피도 있고 메달이 있고 잘

339. **구술자 1:51:20** 여기 보면 또 6회대회인가 보면 서대문구청에서 제가 또 굉장히 그때 당시에 크게 대회를 치렀어요. 그래서 대회장으로 구청장님이 대장을 해 주셨고 또 거기에 구의원님 의원님들도 오시고 서대문 지역에 계시는 체육관 관장님들도 다 모셔서 제가 대회를 치렀죠. 그때 저희 참가 인원이 1천 명이 넘었어요.

340. **면답자 1:51:51** 그럼 이제 몇 년도까지 유지가 된 건가요?

341. **구술자 1:51:56** 91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초중고 아이들 품새 겨루기 대회를 시작을 해서 2001년까지 저희가 대회를 치렀습니다.

342. **면답자 1:52:10** 2001

343. **구술자 1:52:11** 2001년

344. **면답자 1:52:12** 그러면 제가 지금 받았던 이 대회에 여성 태권도 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남자회

345. **구술자 1:52:23** 예 남자회예요. 제가 91년부터 2000년까지 회장을 맡았어요. 좀 길게 맡았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우리 여기 서영에 사범님한테 제가 회장직을 넘기고 그래서 국기원에서 우리 서영에 사범님이 우리 시합을 치르게 됐어요. 그때 시합을 치르면서는 한국 여성 태권도 회장이 되기 대회라고 이름을 바꿔서 시합을 치르면서 이게 우리 마지막 시합이 됐고 그 이듬해에 여성연맹이 발족이 됐죠.

346. **면답자 1:53:03** 여성연맹이 21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사범님도 여기 계셔서 다 이때도 여자 심판으로 그러면 모든 일을

347. **구술자 1:53:12** 그때는 우리 대태 정식 공인 심판 때입니다. 여기 저기 나오신 분들이 다 공인 심판들이고 그리고 저희가 2회 초등학교 1회 2회 대회들은 전부 우리 공인 심판들 모셔다가 저희가 대회를 치렀어요. 저희 회원들이 심판을 한 게 아니라 심판 자격증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그때 당시에 저희가 대회를 치렀죠.

348. **면답자 1:53:40** 그러면 이때 10회 때 마지막 대회인 걸 알고 있었나요?

349. **구술자 1:53:46** 다들 마지막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죠.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남자회를 이렇게 꾸준히 해왔던 이유 중에 하나도 여성연맹을 만들기 위한 밑작업.

350. **면답자 1:54:00**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여성연맹이 창단이 되고, 제대로 됐으니 이원화되는 것보다 이제 대회를 안 하시고 거기에 같이?

351. **구술자 1:54:11**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성연맹이 생기면서 우리 대회에는 이것으로 마지막 대회를 치르자 남자회를 왜냐하면 연맹이 생겼잖아요. 생겼는데 굳이 우리가 따로 이거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원하는 연맹도 또 됐으니 우리 남자회는 그냥 우리 회원들끼리 만나고 연맹은 따로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는 작업을 하자 해서 또 여성연맹에 제가 창단 멤버로서 같이 또 일을 하게 됐죠.

352. **면답자 1:54:48** 그렇죠! 그래서 여성연맹 시합이 21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본격적으로 했는데 2023년도 대회를 보면 사범님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달라지는 분들도 최승욱 사범님도 계시고 앞서 인터뷰하셨던 장정희 사범님도 계시고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

353. **구술자 1:55:09** 이 사진은 여기 뒤에 벡타이를 메신 우리 사범님들은 그때 다 심판이었어요. 저는 그때 임원이셨고 여기 보면 한명숙 장관님이신데 저희가 여성부장관 하셨죠 저희가 연맹이 탄생하기 전에 미리 한 장관님을 우리 장정희 선배님과 제가 같이 뵈어요. 왜냐하면 여성연맹을 만들려면 또 회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장관님을 만나서 우리 여성연맹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 장관님께서 저희 회장님을 좀 맡아주시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장관님께서 우리는 공직에 있는 동안은 어떤 단체의 장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이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성연맹 대회 때 한 장관님을 저희가 초대를 해서 경기장에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이 그때 같이 찍게 됐습니다.

354. **면답자 1:56:23** 저희가 이때가 장관기가 또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355. **구술자 1:56:29** 장관기가 조금 지나지 않았을까 이게 3회 때 같은

356. **면답자 1:56:34** 3회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1년도가 첫 시합이었고 그때 장관기를 할 수가 없었으니까

357. **구술자 1:56:40** 는 아니고 조금 한 지나서 장관기가 생겼던 걸로 압니다.

358. **면답자 1:56:45** 장관기라고 써 있어가지고 그랬나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이때 처음 승인을 받고 오시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359. **구술자 1:56:55** 예 저도 그거는 잘 기억이

360. **면답자 1:56:57**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 장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이런 많은 활동가 장관님까지 모셔서 선배님들이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대화를 잘 하고 있지 않나!

361. **구술자 1:57:16 장관기가 지금 이게 4회면 아마 협회장기가 나중에 생겼을 겁니다.**
362. **면담자 1:57:22 네 협회장기 나중에 겁니다.**
363. **구술자 1:57:24 1회 때부터 했습니다.**
364. **면담자 1:57:26 저희가 1회 때부터 장관기**
365. **구술자 1:57:28 1회 때부터 했었고 회장기대회가 늦게 생겼죠**
366. **면담자 1:57:34 네 맞습니다. 회장기는 품새하면서 나중에 생겼어요.**
367. **구술자 1:57:37 보니까 이제 생각이**
368. **면담자 1:57:38 맞습니다. 1회 때부터 그래서 저희가 장관기가 되면서 승인이 되고 그래서 협회장기를 그래서 승인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장관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1년에 두 번 하던 게 한 번으로 했다가 다시 두 번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선배님들이 이렇게 많은 활동 때문에 된 것 같아서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들으니까 이런 것들이 남아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시고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여성연맹에서도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 하시고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표를 이루셔서 고단자가 되셨고 여성고단자 모임을 결성하신 걸로 조직을 저희에 앞서 선두 하신 건데 이 모임은 어떤 건지 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369. **구술자 1:58:30 한국여성고단자회라는 이름인데요. 저희가 즐겨서 한고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진에 있는 분들이 저희 다 회원들입니다.**
370. **면담자 1:58:43 최초 회원이?**
371. **구술자 1:58:44 최초의 회원들이죠.**
372. **면담자 1:58:47 네 저희가 지금 구술자님 중에 지금 국기원은 9단**
373. **구술자 1:58:51 그렇죠! 남궁명석 미국에 계시는 남궁명석 사범님 여기 장정희 사범님 여기 박정옥 사범 네 저 서영애 사범 양인옥 사범 우리 초창기 멤버들이고요. 지금 현재는 그분들이 전부 다 9단입니다.**
374. **면담자 1:59:10 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도 운동하고 계시고 현직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언니들이 다 모이셨네요.**
375. **구술자 1:59:21 우리가 한고회를 또 이렇게 만들게 된 이유는 태권남자회는 우리 여성연맹이 생기면서 차츰 시들해지게 됐고, 또 태권도 남자회원들이 여성연맹 쪽으로 가서 일들을 많이 하게 돼서 따로 모임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회는 그때 이후로 남자회가 없어졌고, 또 저희가 여성연맹에서 우리 초창기 멤버 이분들이 우리 또 초창기 멤버들이에요. 여성연맹의 거기에서 이제 또 조금 또 서운한 일들이 생겨서 우리 많은 회원들이 연맹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376. **면담자 2:00:13 음**
377. **구술자 2:00:13 나오게 돼서 그러면 우리 여성연맹 회원들하고도 만나야 되는데, 또 이렇게 갈라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태권도인들인데 그냥 안 보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또 우리끼리라도 자주 조금 만나서 운동도 하고 또 지나간 얘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다시 모임을 하나 결속을 하자 해서 누구나 다 받을 수는 없고 그래도 나이가 비슷한 연배들끼리만 우리가 모임을 하자 해서 6년부터 9단까지 해서 한국여성태권도회라고 고단자회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모임을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도복을 입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378. **면담자 2:01:07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꾸준히 하시면서도 9단 하시면서 심사를 보실 때 아프셨던 적이 있음에도 꾸준히 하셨는데... 어떻게 아프셨는지?**
379. **구술자 2:01:23 그렇죠! 제가 이제 저기 흥은동 서대문에서 체육관을 잘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한 번 또 제가 이사를 하게 됩니다. 체육관을 이사를 하게 된 계기가 그 체육관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건물주가 세를 많이 올리시는 거예요. 계속 해년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일을 크게 벌렸죠. 이 돈이면 내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짓겠다 해가지고 진짜 양평에다 땅을 사서 건물을 지었어요. 종합학원 건물을 지었습니다. 1층 100평 2층 100평 200평을 학원 건물로 지었어요. 근데 이제 1997년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어느 정도 건물이 올라가고 했는데 조금 제가 업자를 잘못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있고 수시로 양평은 왔다 갔다는 했는데 이상한 낯새는 차리지 못했어요. 워낙 믿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또 소개를 해줘서 믿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다가 딱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 업자가 도망간 거예요.**
380. **구술자 2:02:57 제가 그 건물을 지으라고 돈을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현금으로 다 뒀어요. 뒀는데 이 업자가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놀음을 하신 거예요. 화투를 하셔가지 돈 준 걸로 다 거기에 쓰시고 모든 주위의 물건값은 판장님이 주실 거다. 외상으로 다 갚다 쓴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이 진전이 안 되잖아요. 그게 계속 저는 그게 빨리 끝나야지 신학기 모집을 하고 홍보를 하는데 이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찾아 나섰죠. 찾아나섰는데 보니까 유치장 들어가 있는 거예요.**
381. **면담자 2:03:48 아이고야 네**
382. **구술자 2:03:50 그러니 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해서 건물을 짓고 완성을 하셨군요. 완성을 하고, 허가를 받았는데 IMF가 탁 터진 거예요. 일찍 그게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다음 해까지 넘어간 거예요. 근데 97년에 이미 저는 좀 대출을 당겨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의 이자가 IMF 터지면서 이제 엄청~ 이게 막 불어나게 된 거예요. 불어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또 한 번의 시련이 시작을 했죠. 그래도 어려운 과정에서 좌우지간 이자는 몇백만 원씩 내가면서도 운영을 하기는 했어요. 거기가 이제 위치가 굉장히 좋았던 게 양평인데 초등학교 바로 옆하고 저희 학원이 붙어 있어요. 그런 자리를 찾았던 거죠. 그래서 그쪽에는 학원이 하나도 없어요. 전교생이 다 우리 학원을 오는 거야.**
383. **구술자 2:05:01 전교생이 전부 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종합학원을 하면서 이제 속셈 미술 영어 태권도 이런 걸 다 하고 속셈을 하면서 거기 유치원이 없어요. 그 지역에... 그래서 유치부들까지 저희가 다 받아서 유치부 반을 세 반이나 했어요. 그래서 그런대로 잘 됐어요. 한 몇백 명 되니까 인원이 잘 됐는데 이제 또 그동안의 그 주위에 깔렸던 외상값 그거를 이제 또 막 다들 달라고 또 아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외상값에 이자에 또 차를 하나만 갖고 거기가 굴릴 수가 없어서 차 두 대 굴려야지 또 종합학원이다 보니까 선생님들 여럿 써야지 또 선생님들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시골이다 보니까 그래서 또 저녁에 늦게 끝나는 날은 선생님들을 집에까지 다 데려다 줘야 돼 어려움이 너무 컸어요. 거기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또 그래서라 하다가 이제 제때때 이자를 못 갚으니까! 건물이 경매가 딱 붙은 거예요.**
384. **구술자 2:06:27 그게 이제 빛은 이제 어느 정도 갚았는데 또 그 못 갚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경매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매 낙찰이 돼서 그때도 제가 바로 그 만됐냐 하면 그건 아니죠. 경매를 받으신 분한테 제가 또 새를 새로 거기를 들어갔어요. 새로 들어가서 또 계속 그대로 유지를 했죠. 유지를 하고 어느 정도 빛을 거의 많이 갚았어요. 잘해가지고 계속 갚았는데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고 막 주위 시달림도 있고 그래서 그냥 쉬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아무것도 그래도 빛이 조금 그때도 몇 천이 있기는 했지만, 워낙 크게 잃었기 때문에 억대를 잃었기 때문에 몇 억이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몇천은 사실 돈도 아니더라고 그런데도 이제 모든 게 다 하기 싫었어요.**
385. **구술자 2:07:45 너무 지쳐서 그래서 이제 그 학원을 제가 데리고 있던 동생한테 주고 동생한테 나가 이 학원을 이어서 해라! 누나는 그냥 이제 여기서 손을 놓고 싶다 진짜 모든 걸 다**

넣고 싶었어요. 사실 일반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양평을 떠나서 다시 이제 서울로 와서 좀 쉬게 되었죠.

386. 면답자 2:08:14 근데 그때 건강도 잃으셨다고...
387. 구술자 2:08:19 그래서 이제 사실 서울에 다시 왔을 때에는 빛은 몇천이 남아 있었고, 살 집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조그만 원룸 하나를 이제 겨우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때는 살고 싶은 생각보다는 죽고 싶은 생각이 컸고, 그러려고 마음을 먹고 경리를 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랬는데도 또 주위에서 가만히 안 놔두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해야지 뭐가 해야지 너무 젊은 나이에 그건 아니다 또 용기를 막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003년에 또다시 동작구에다가 체육관 하나를 또 인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인수를 해서 잘 꾸려나갔어요. 거기서도 그 체육관이 좀 안 되는 체육관이었는데 홍보를 또 제가 땀땀하게 했습니다. 거기 가서도 기획 연술 홍보하는 것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 이제 저희 체육관이 있었는데 그때가 월드컵 그때 거리 때였잖아요.
388. 구술자 2:09:37 2001년 그때 이제 우리 축구 할 때인데 그래서 태권도 홍보를 좀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다가 승급 심사를 공원에서 보자 그래 가지고는 아파트 단지 내에 공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 찾아가서 여기 장소를 좀 쓰고 싶다 한니까 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월드컵 때 우리 빨간 티 입고 다 응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했던 응원가 동작 그거를 우리 체육관 애들한테 다 가르쳤어요. 다 가르치고 애들한테 집에 가서 부모님을 전부 가르쳐라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들까지 응원이 겹 그 동작들을 다 따라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원에서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 부모님들 그날 다 빨간 티 입고 오십시오. 우리 애들도 일부 심사는 여러 가지를 하고 아이들도 전부 빨간 티를 전부 다 입혔어요.
389. 구술자 2:10:49 그리고 우리 사범이 거기다가 딱 앞에 나가서 이제 스피커를 크게 틀어 놓고 거기 오신 분들 전부 나오셔야 운동장으로 그래서 쪽 세워놓고 거기서 그 응원을 다 같이 음악을 틀어 놓고 다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이게 뭔가 싶어서 창문 너머로 다 내다보시고 또 또 직접 이렇게 참여하시려고 오시고 막 해서 그때 또 굉장히 큰 홍보가 돼서 또 관원 모집이 그때 굉장히 잘 됐어요. 아무래도 그렇게 했고 또 공원에서 하면서 상품을 제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때 그래서 거기에 오신 분들에게 누구나 다 상품권을 다 준 거야. 행운권 추천권을 그래서 거기가 다 행운권 추천하면 선물을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선물 안에는 저희 체육관 홍보용 전단지들 다 넣었죠. 거기다가 역시 그래서 일일이 부모님들한테 우리가 만나서 설명을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자체적으로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또 홍보를 하고, 또 거기서도 대박이 났어요.
390. 구술자 2:12:12 대박이 나서 또 인원이 몇 명 안 된 체육관을 인수를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한 100여 명 정도를 딱 또 모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활성화가 돼서 그동안 신용불량자가 됐던 신용불량자도 회복을 하고 또 몇천만 원의 빚도 다 갚고 해서 이제는 조금 살 만하네. 좀 이제 마음 편하게 살겠네~ 딱 했는데 건강검진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갑상선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추적 관찰을 계속했어요. 했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그거가지고 이제 또 한 번의 시련이 오게 되죠. 그래서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받고 나서 그 이듬해에 내가 9단 심사를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수술을 했고, 1년 후에 다시 재검을 하는데 한쪽이 갑상선이 우리 몸에 두 개예요. 그런데 하나를 떼어냈는데 그 암이 딱 중앙에 있었던 겁니다.
391. 구술자 2:13:37 그런데 이제 두 개를 다 떼면 사람이 호르몬 관계이기 때문에 몸에 변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병원에서서는 하나는 어떻게든 살려보자 해서 돌려보자고 하셔서. 그래서 남겨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시 재발 확률이 90%라는 거예요. 그거가지고 다시 이제 수술을 남겨지 또 하셨군요. 수술을 하고,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체육관에 이제 제가 또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잘 안 나와가지고 구령을 불릴 수가 없어요. 목소리가 쉰 소리가 나오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그거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또 한 번씩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큰 소리로 얘기를 하면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면

기침이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멈추지를 않고 지금도 이제 이렇게 내가 몸통을 한다. 상체에 어떤 동작을 하면 지금도 여기서 새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수술이 잘못된 거라고 봐야죠.

392. 구술자 2:14:56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스트레스가 또 막 접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년을 대방동에서 체육관을 하고 2014년에 내가 운동을 못하는데 내가 아이들을 지도할 수가 없는데 내가 도장만 갖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 해서 과감하게 2014년까지 해서 또 체육관을 접게 됐습니다.
393. 면답자 2:15:26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른들이 인생은 롤러코스터 같다고 했는데 사범님은 정말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이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범님 정말 지금 잘 되어서 마무리하셨고 그 와중에서 다시 그래서 자식 건강을 완쾌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대회장에서 저도 같이 대회장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국기원에서 고단자 심사위원의 유일한 여자 심사위원이기도 하세요. 이렇게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느낌에 대해서 한번 지금 여성의 활동의 역할에 대해서 느낌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394. 구술자 2:16:23 여성 태권도연맹 활동 예전에는 그게 굉장히 여자가 이렇게 어떤 직위를 맡아서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또 여성 우리 고단자들 또 우리 선생님이 좋은 자리에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여성 태권도인들의 자리가 좀 많이 넓어지리라 생각이 들고 또 저 역시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지금 9단까지 승단을 했지만, 우리 남은 후배님들도 아마 저보다는 환경이 다 좋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관에 최선을 다 해서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일단 열심히 하자 한번 해보자! 하고 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395. 면답자 2:17:29 제가 지금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해주셔서 그러면 넘어가고요. 여성은 우리 사회에서 지금 우리 여성태권도연맹이 있는 것처럼 좀 더 배려를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여성연맹이 자체적으로 저희가 우리가 좀 더 발전하고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이냐고 생각하십니까?
396. 구술자 2:17:59 지금 보니까 여성연맹에서도 또 여성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육도 많이 하시고 그거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후배도 이제 여성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분열이 없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욕심이라는 게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 욕심 때문에 땅가치고 욕심 때문에 사람을 잃고 그 욕심 때문에 분열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조금 내가 손해 본다는 생각으로 살다 보면은 이게 조금 화합이 잘 되면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막 내놓고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면 요새 잘나지 않은 사람이 어딴어요? 다 잘 냈거든요. 그러나 그래도 조금 겸손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397. 면답자 2:19:10 그러면 지금 한국은 옛날부터 그렇지만 지금도 조금 더 남성 위주의 국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성 위주의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태권도나 사회적인 임원 활동에 대해서 오픈해라를 자꾸 강조하고 있잖아요. 5%를 넘어서 30% 그렇지만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게 체육계인데 여성이 여성의 장점으로 남성의 영역을 이끌 어갈 수 있는 제도나 사업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98. 구술자 2:19:46 남성들의 사업은 잘 모르겠고
399. 면답자 2:19:50 거기의 범주에서 저희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400. 구술자 2:19:54 우리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거

401. 면담자 2:19:57 저희도 할 수 있어.
402. 구술자 2:19:58 그럼요. 여성들이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여성들도 할 수 있고 요새는 사업에 일하는 거에는 남녀 구분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홍보를 잘해서 체육관이 대박 났듯이 조금 남들보다는 한 발 앞서가고 내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또 내가 모르면 물어보고 하다 보면 남녀에 상관없이 나는 어느 요소에서든 큰 발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403. 면담자 2:20:36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한 사업이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이런 여성 태권도인들의 역사와 발자취를 되새겨 보는 사업을 진행한 건데요. 사범님 참석자로서의 소감 한번 듣고 싶습니다.
404. 구술자 2:20:52 사실 제가 여러 번 거절했다가 이번에 이렇게 다시 하게 된 것도 제가 목소리 때문에 그런 게 있거든요. 하다가 중간에 말이 안 나오면 어쩔까 이런 두려움이 사실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한번 해보자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은 한번 부딪혀 보자 해서 시작은 해서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여성 태권도인들의 역사가 제가 볼 때는 아마 60년은 넘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제가 50년을 넘게 했으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60년은 더 하셨겠지요, 그런데 아직은 여성 태권도인들에 대한 그런 게 이렇게 체계적인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진흥재단에서 여성 태권도인과 세계사에 대해서 이렇게 또 큰 일을 하신다니 여성 태권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이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405. 면담자 2:22:16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와 귀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칠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6. 구술자 2:22:26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색인어	남자회	여성	경기화	국가대표	품새
	88올림픽	지도자	1호	심판	태권도1호
	9단	여성태권도			

녹취록 본문

과제명	여성태권도인 구술채록		
구술자	서영애	면담자	이종천
녹취자	이영림, 김진범	시간	130분 29초
면담일시	2024년 7월 23일	면담장소	DMC다락스튜디오
파일명	Oh_24_서영애_01.mp4		

<file:Oh_24_서영애_06 녹취록 공개본>

- 면담자 00:00 안녕하세요 본 인터뷰는 태권도진흥재단 국립태권도박물관 태권도 지식자원 3차 아카이빙 여성 태권도인 구술채록 사업의 일환으로서 수행하는 면담 사업입니다. 일시는 2024년 7월 23일 화요일이고 오후 1시에 장소는 DMC 첨단산업 다락스튜디오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구술자는 서영애이며, 면담자는 이종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구술자 00:37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면담자 00:39 먼저 호칭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호칭을 뭐라고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 구술자 00:46 저는 태권도인으로 사범이라는 호칭이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 면담자 00:53 네 그러면 앞으로는 제가 서영애 사범 또는 서영애 사범님으로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술자 00:59 감사합니다.
- 면담자 01:01 사범님은 언제 태어나셨나요?
- 구술자 01:04 저는 1961년 음력 5월 9일 경기도 수원에서 8남매 중 4녀로 태어났습니다.
- 면담자 01:13 아 그럼 고향이 수원이신 거예요? 네 그러시군요. 사범님이네 집안의 분위기는 어떠신 건가요?
- 구술자 01:22 예전에 다들 그랬듯이 아버지 말 한마디면 뺨이었죠. 아버지 눈치 보면서 여느 집안과 다름없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 면담자 01:37 아버님이 굉장히 가부장적이셨어요? 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 구술자 01:43 어머니는 요즘 여자들은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하면 못 살죠? 네 아버지의 말에 따라 모든 것을 순종하며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을 모든 것을 대신해서 어머니가 다 혼나셨어요. 아버님한테
- 면담자 02:04 우와 혹시 지금도 그러신가요?
- 구술자 02:08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 면담자 02:10 그러셨군요. 그럼 형제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으세요?
- 구술자 02:16 저희는 6녀 2남입니다. 제 위로 언니가 3명 있고 제 밑으로 여동생 둘, 남동생 둘

있습니다.

17. 면담자 02:29 그러면 사범님이 중간쯤 되신 건가요?
18. 구술자 02:32 네 중간 4녀입니다.
19. 면담자 02:34 가족이 완전히 대가족이셨네요.
20. 구술자 02:36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아요.
21. 면담자 02:39 죄송한 표현인데 그때 당시에 모두가 다 어려운 시절이긴 했지만, 사범님의 가정은 좀 어떠셨어요? 경제적으로
22. 구술자 02:49 경제적으로는 제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었던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흰쌀밥은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먹어본 것 같습니다. 저녁에는 밥 대신 밀정계 끓인 죽 그런 거를 많이 먹어본 것 같아요. 소위 수제비라고 하냐요 수제비인데 그 건더기보다 국물이 많은 네. 그런 음식을 더 많이 먹었고 항상 보리밥 보리밥을 항상 먹었습니다.
23. 면담자 03:29 우리가 둘 다 긴장을 해서 그런지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쌀이 그렇게 없으면 햄버거를 먹든지 아니면 스테이크를 먹었으면 되는데 그땐 참 누구나 힘들었어요. 그럼 사범님은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다니셨나요? 그때는 국민학교였었죠?
24. 구술자 03:45 네. 저희 집은 아버지께서 저희 8남매를 다 초등학교 즉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학교를 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중학교부터는 언니들이나 저나 스스로 찾아서 했었죠. 그래서 대부분은 야간 학교를 다녔습니다. 야간 학교를 다니고, 그나마 아들들은 아버지께서 좀 교육시켜주시고 싶어 하셨는데 제 밑에 남동생 둘 다 공부하기를 싫어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끝났고, 언니들이나 여동생들도 다 이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저희 집에서 저만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25. 면담자 04:40 입지전적인 따님이셨네. 사범님의 학교생활은 어떠셨어요? 그 중에서 이제 초중고대 이렇게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학창 시절은 어느 때세요?
26. 구술자 04:55 당연히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학교를 안 보내주셔서 제가 돌아다니다가 그 대학생들이 봉사하는 그런 학교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추억이 가장 행복하게 없던 시절이지만 가장 행복하게 지낸 것 같아요. 그리고 태권도도 그때 시작을 했어요.
27. 면담자 05:26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태권도를 몇 살 때 어느 시점에서 시작했는지를 여쭙보고 싶었거든요.
28. 구술자 05:36 태권도 시작하게 된... 호감을 갖게 된 계기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남학생한테 뛰어넘자기로 맞았거든요. 그 동생하고 제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태권도 배운 그 형이 저를 뛰어넘자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아팠던 기억보다 굉장히 놀라움이 컸어요. 저게 뭐지? 저렇게 사람이 날아서 차네! 그래서 나도 저거 배우고 싶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정 형편상 태권도장을 다닐 형편은 아니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생들이 봉사하는 야간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거기에 마찬가지로 봉사도 들어와서 태권도를 가르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태권도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29. 면담자 06:35 그러면은 중학교 때쯤의 나이에 야학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그 심하게 맞으시고 이제 태권도로 입문하게 되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지금 표현으로 하면 도장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럼 도장으로 입문하게 된 시점은 어느 시점이세요?
30. 구술자 06:57 중학교에서 이제 3년 동안 태권도를 하고 제가 졸업을 하면서 사범님께서 도장을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경기도 수원에 있는 화랑체육관인데 그것을 소개시켜주고 또 제가 아마 다른 사람보다 운동신경이 좋았는지 아깝다고 하시면서 서울에 있는 김영숙 사범님

을 소개시켜주셨어요.

31. 면담자 미국에 계시는 김영숙 사범님?
32. 구술자 네서 지금은 미국에 계시는데 그래서 서울에서 한국 여성시범단 시범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태권도를 즐기게 되었죠.
33. 면담자 07:38 시범단 일원으로 활동하셨을 때가 대략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34. 구술자 07:43 그때가 한 16~7살 네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5. 면담자 07:49 서울에 그러면 이제 모든 태권도인들의 머릿속에는 품세의 최강자 품세의 한 획을 그은 사람으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 태권도를 입문했을 때는 그래도 도장이 운동의 패턴이 주로 이제 겨루기 쪽에 또는 뭐 기본 동작 쪽에 이쪽에 좀 많이 편중돼 있었을 때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범님이 처음에 입문하시고 그 여성시범단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수련을 주로 하셨었나요?
36. 구술자 08:24 제가 이제 그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화랑도장을 들어갔더니 학교에서 운동한 거와는 조금 더 다른 패턴이더라고요.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였고 들어가면 일단 무릎 꿇고 앉아서 기다리다가 선배들이 운동해도 돼! 라고 하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운동의 패턴은 기본 동작 품세 겨루기 호신술 이렇게 다 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지금의 운동 분위기와는 조금 다르게 매일매일 그 네 가지를 다 했어요.
37. 면담자 09:01 그렇게 운동을 시작을 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고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넉넉치도 않고 또 시대적 흐름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여자가 뭐 이런 시절이었는데 주변이나 집에서 반대는 없으셨었나요?
38. 구술자 09:20 당연히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태권도 배우고 싶다고 하니까 중학교에서 배우고 싶다고 하니까 옛말로 “지집애! 지집애가 못하는 소리가 없다!” 고 하시면서 “절대 안 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다니는 3년 동안은 아버지 몰래 했습니다. 네 아버지 몰래 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도장 다니는 것도 아버지 몰래 다니느냐고 힘들었어요. 그것을 뒷바라지를 이제 어머니와 그 다음에 언니들이 해줬죠. 그래서 그것도 만만치 않은 추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39. 면담자 10:01 그때 교육비가 얼마였어요? 사범님
40. 구술자 10:04 제 기억으로는 한 3천 원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를 어떻게 다녔기 때문에 도장에서는 제 형편을 알고 그냥 네 지도해 주셨어요. 그냥 다니게 해 주셨고 그렇지만 “도복과 슈리닝은 네가 사라” 해가지고 그런 뒷바라지를 이제 푼돈 모아서 어머니와 언니들이 이렇게 모아서 저를 쫓아서 그 돈으로 도복도 사서 입고 네 슈리닝도 사서 입고 했었죠.
41. 면담자 10:38 사범님 굉장히 고급 도장을 다니신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저는 처음에 도장을 갔는데 제 기억이 1,500원이었던 것 같아요. 1,500원에 승급 심사비가 500원인가 500원인가 1천 원이 있었던 기억으로 됩니다. 그럼 그 도장은 무슨 관이었나요?
42. 구술자 10:58 무덕관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43. 면담자 11:00 무덕관으로요. 아까 드린 질문하고 좀 연관이 있는데 이제 여성으로서 입관을 하셨잖아요. 그 도장에 여성 수련생의 비율은 얼마정도나 됐나요?
44. 구술자 11:16 제가 다닐 때는 우리 학교에서 같이 소개받아서 간 여학생 2명하고 저까지 총 3명이었어요. 총 3명이
45. 면담자 11:28 전체 수련생은 얼마나 됐나요?
46. 구술자 11:30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도장 옆에 수원공고가 공고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오빠들이 굉장히 많았죠. 오빠들이 굉장히 많아서 너무 멋있어 보여서 제가

운동을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 오빠들 눈에 잘 보이려고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47. 면담자 11:57 이제 이제 조금 때 이른 질문이기도 한 것 같은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렇게 도장에 입문을 하고 태권도를 경험하게 되고 태권도 사이에 어떤 한 획을 그으신 분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어렵게 시작한 태권도 도장과 태권도와 태권도 도장 그리고 지금 보시는 태권도와 태권도 도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사범님
48. 구술자 12:24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의형적으로 제가 다닐 당시에는 탈의실이 없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운동 끝나면 오빠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훌렁훌렁 벗고 옷을 갈아입더라고요. 저는 이제 시선을 어디에 들지 몰라서 찢찢 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초반에 지나중에 되니까 뭐 갈아입든지 말든지 그냥 자연스럽게 됐는데 지금 도장들은 네 여자 탈의실 따로 남자 탈의실 따로 그리고 바닥도 제가 다닐 때는 마루 바닥이었고 지금은 매트라고 하죠. 매트가 다 깔려 있고 시설 자체도 굉장히 안전을 위주로 지금 잘 돼 있잖아요? 제가 다닐 때는 안에 들어가면 약간 무서울 정도의 분위기였죠. 네. 단련하는 돌이나 나무 또 새끼를 이렇게 갈아서 손날을 단련할 수 있게 만든 것 그 다음에 주먹 단련할 수 있게 만든 것 그 다음에 타이어다가 경강이 단련할 수 있게 타이어도 있고 분위기가 엄속 엄속 그 자체죠. 무겁게 약간 척척하게 근데 지금 도장들은 굉장히 화사하죠.
49. 구술자 13:47 그리고 들어가면 일단 분위기 자체가 지금 도장들은 약간 시끄럽다고 해야 되나 예전에는 말소리만 들려도 혼났으니까 심지어 들어가는 입구에 써 있었어요. 엄속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말하다가도 도장에 들어갈 때는 네 입을 다물고 들어가서 분위기는 전혀 다른 분위기죠.
50. 면담자 14:19 사범님께서는 이제 현재 그 대학에서 후학들을 지도하고 계신데 그럼 교수 서영에는 본인이 경험한 도장의 문화 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도장의 문화가 완전히 다르다고 표현을 주셨는데 그러면 교수 서영에는 어떤 문화를 추구하세요? 제자들에게
51. 구술자 14:40 누구나 그렇듯이 향수라고 하잖아요. 옛 것을 그리워한다고 저도 옛것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지금 그렇게 시키지는 못하지만 제가 경험은... 네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공 실기 시간에 “예전에 이랬어!” 라고 하면서 한 번씩 시켜보거든요. 촛불 켜기 라든지 무릎 꿇고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 자세 또 이제 순서대로 나와서 하는 것! 예전에 제 기억을 소환해서 학생들한테 시키고 있어요.
52. 면담자 15:16 저도 사범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꼭 하셨을 때 저도 이제 어린 시절을 이렇게 가져와서 잠깐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저도 처음에 도장에 입문을 했을 때 맨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콘크리트 바닥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저희 사범님께서 그때는 미군 부대라고 하는 것이 저희 지역에는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카펫 지금의 이 카펫을 도장 바닥에 깔았고 정말 탈의실이 없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냥 이렇게 커튼 하나! 그래서 남자 끝나면 여자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도 여자 관원생들이 많지 않았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고 저희는 굳이 퍼센트로 낸다면 한 1, 2% 됐을까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렇게 수련을 할 때도 참 많이 약 올리고 여자가 이제 같이 운동을 하면서도 여자가 무슨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사범님도 아마 그런 시각에서 그런 시각이 존재했던 시절인데 남자 수련생이라고 표현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그 사회에서 이렇게 태권도를 하는 서영에를 보고 좀 이렇게 특별히 못 살게 한다든지 그런 혹시 기억은 또 없으실까요?
53. 구술자 16:42 오...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놀림을 받았거나 누가 저를 귀찮게 하거나 한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여자로서 오히려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여자니까 관심받고... 별로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저를 내세워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범님께서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선을 많이 받는 장점이 있었죠. 오히려! 그래서 시선을 많이 받으니까 제가 더 잘하려고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자인 게 장점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54. 면담자 17:27 그 사범님의 칭찬이 오늘의 서영에가 되는 큰 밑거름 자양분이 되기는 한 것 같은데요. 그럼 거꾸로 그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이득이라고 표현은 적절하지 않겠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얻었던 어드밴티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혜택 같은 게
55. 구술자 17:48 여성이라 받았던 혜택? 혜택! 아가도 말씀드렸듯이 네 관심을 많이 받는 게 혜택인 것 같아요. 그 관심이 저를 바꿔놓은 거죠. 더 관심받고 싶어서 또 더 잘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최대 혜택은 관심 다른 사람들 모든 남자들 속에 끼어 있는 여자니까 더 쳐다봐주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하고 싶고 더 멋있게 보이고 싶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56. 면담자 18:25 혹시 사범님 그 기억에 특별히 남는 어떤 여성 스승이나 또는 동료든 혹시 특별히 남는 그 여성분들이 계실까요?
57. 구술자 18:37 네! 중학교 때 봉사하시는 사범님이 계셨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여자 사범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1단 2단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지도해 주셔서 이제 당시의 실력으로 저를 감당하기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김영숙 사범님께 저를 소개 미국에 계시는 그때 당시 서울에 계셨는데 마포에 저를 소개시켜주셔서 중학교 졸업하면서 수원에 있는 도장과 서울에 있는 도장을 두 군데를 다녀왔어요. 굉장히 부지런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부지런했던 것 같아요.
58. 면담자 19:23 그러면 수원에 있는 도장과, 서울에 있는 도장을 굳이 그렇게 거리상으로도 가깝지도 않고 지금처럼 교통이 편하지도 않았을 텐데 굳이 그렇게 나눠서 다닌 특별한 사연이 있으실까요?
59. 구술자 19:38 양쪽이 다 재미가 있었어요. 한쪽은 시범을 위한 그런 훈련을 했고 한쪽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전통 수련하는 도장으로서의 수련을 했는데 서울에 가면 저보다 연세 드신 그러니까 나이 많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렸으니까 나이 많은 언니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내였어요. 그래서 막내로서 예쁨 받는 게 또 좋아서 자주 가게 되고 수련하는 또 오빠들이 예뻐해 주니까 또 자주 가게 되고 잘하고 싶은 열정이 있어서 그런지 왔다 갔다 하는 건 하나도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간 시간만 좀 많이 걸린 거지 다니는 데 힘이 들었다! 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60. 면담자 20:32 대단한 열정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61. 구술자20:36 지금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62. 면담자20:39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도 서울 수원 왔다 갔다 하려면 기본적으로 많은 시간이 들어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열정과 노력 그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했던 것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인생을 이만큼 사신 그 결과물을 만들어낸 큰 자양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만 들어도 어떻게 생활하시고 어떻게 수련을 했을까? 라는 것이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이 좀 그려집니다. 지금부터는 좀 폼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양쪽 도장에서 수련을 하고 한쪽에서는 흔히 말하는 전통 성향이 강한 도장과 한쪽은 이제 뭐 시범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도장을 다니셨는데 그러면은 폼세 대회는 언제부터 출전하시게 됐나요?
63. 구술자 21:41 폼세대회는 폼세대회 이전에 제가 1992년 국기원에서 태권도 한마당을 제1회 한마당이 열렸잖아요. 그때 제가 폼세 분야에 출전을 했었던 거예요. 폼세 분야에 출전을 하면서 최고점을 받아서 그때 든 생각이 나 내가 정말 폼세를 잘하는구나! 우리 동네에서 뿐만이 아니라 동네에서 항상 잘한다 소리를 듣고 서울에서도 잘하네 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게 한마당 같아요. 그때 이제 폼세에 더 애착이 생기고 그러다가 제가 2003년부터 폼세 심판을 보기 시작했어요. 폼세 심판을 보다가 2005년도에 2006년도에 세계 대회가 생긴다라는 정보를 얻고 제가 이제 2006년도에는 심판 등록을 안 하고 선수 등록을 했습니다.

64. 면담자 22:46 92년도에 이제 한마당이 태권도의 기술적 체계 또는 흔히 말하는 이제 전통이라고 하는 태권도 도장에서 수련 체계를 어떤 뽀냄의 장소로 만들어낸 여러 장점이 있지만 그런 큰 장점이 있는 대회로 한마당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수련은 어떻게 하셨습니다? 혹시 누군가의 특별한 지도를 받으셨었나요?
65. 구술자 23:15 한마당 대회요? 아니 그냥 특별히 지도받고 한 건 없고 그냥 제 평소대로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나왔는데 1등을 그때는 1등 2등 안 했거든요. 등수를 먹이지 않고 그냥 점수로만 해서 우승자 이렇게 해서 코끼리 도자기를 받았는데... 그냥 즐기지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하는구나 나는 정말 폼새를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66. 면담자 23:46 그러니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67. 구술자 23:48 네 즐기다 보니 잘하게 된 거죠
68. 면담자 23:50 이게 이제 공부에 좀 비유를 하면 서울대에 수석을 하는 친구들이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학교 공부도 열심히 했고 예술 복습 철저히 했고 남 잘 때 자고 그러다 봤는데 점수가 만점밖에 못 받았네요. 취미가 뭐예요? 공부요! 뭐 이런 거랑 지금 비슷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사범님이 수련하는 모습이나 대회에 출전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고 또 그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동작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 질문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운동을 해서 이 시점까지 오셨는데 너무 광범위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처음에 태권도 92년도에 한마당을 통해서 서영애가 나타났을 때와 쪽 와서 24년 현지에서 뒤돌아보니 그때 당시의 폼새와 지금의 폼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69. 구술자 24:55 제가 처음 대회를 뛰기 시작했을 때 폼새는 모든 선수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규정에만 맞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폼새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세를 할 때 우리 앞축으로 먼저 바닥에 지면이 닿아야 되는데 뒤축 닿지 않게끔 하려고 조심스럽게 자세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각도 손의 각도가 90에서 120도 사이에 되게 하고 이 사이에는 주먹이 하나 놓을 정도 되게 또 얼굴 맞기를 할 때는 뭐 주먹 하나 뛰고 이런 규정에 맞게 하기 위해 굉장히 조심스러운 폼새를 하지 않았나? 이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폼새는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넘어서 어떤 표현성 숙련도 얼마나 그 동작을 표현을 강하게 표현을 하고 시원하게 표현을 하는가? 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수들은 정확성들은 그렇게 안 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첫 시합 났을 때 폼새는 나무 모양을 본 거죠. 나무가 길이는 얼마야 뿌리는 얼마큼 뿔이 있어 위에 가지는 얼마큼까지 옆으로 나갔네! 이런 형태에서 지금은 숲 전체를 보는 그런 형태로 간 것 같아서 바람직한 것 같기는 한데 기본 폼새가 네 그래도 그래도 이제 마음에 안 드는 폼새 안 드는 동작이 있긴 해요. 시원시원하게 나가다 보니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체력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 느린 동작보다는 빠른 동작을 점수를 더 주거든요. 똑같은 동작에서 그러다 보니 선수들이 너무 빨리 시연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힘을 빼는 동작을 없이 그냥 가는 게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70. 면담자 26:55 그 말씀을 다른 스포츠 시각에서 한번 여쭙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골프에서는 스윙한 동작을 가지고 수백 수천 가지의 논문이 나오고 아주 수십 가지의 이론이 정리가 되고 있고 그 이론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 중에서 태권도 폼새라고 하는 특정 날기술 특정한 한 동작들이 또는 연계되는 동작들이 정형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가요?
71. 구술자 27:30 일단 우리 폼새는 첫째가 모양이거든요. 폼새를 수련하는 과정 중에 가장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모양 그 모양을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그 모양을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수련을 통해서 실용화하고, 그다음에 자기류를 통해서 완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양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모양 자체가 과연 공격이면 공격 방어면 방어 적절함을 보는 데 있어서 지금은 눈으로만 판단을 하잖아요. 그것도 심판의 눈으로만 그래서 지금 이제 타 종목 예를 들어서 야구에서 시속이 나오잖아요. 기체가 다 돼 있어서 그래서 우리 태권도도 그 동작을 통해서 얼마나 빠른 시간에 공격이 들어갔는지 또 방어가 됐는지 파

괴력은 있는지 가격 정도를 측정하는 게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72. 면담자 28:34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태권도가 좀 더 과학화라고 하는 그런 영역에 좀 더 들어가려면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형화되어져 있는 것보다는 어떤 자연과 자유스러움 그것이 결국은 뭐 반력하고도 관련이 되겠죠. 우리 태권도도 아마 그런 쪽에서 창의라고 하는 영역으로 좀 더 가면 좀 더 다양한 무술의 기술적 체계에 좀 더 접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그 사범님 말씀에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맞다 틀리다! 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국외관이 통합되기 전에 그 관들의 고유한 무술의 기술적 영역이 존재했던 것처럼 아마 지금 말씀을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이걸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73. 면담자 29:30 한 가지를 더 여쭙보면 아까 말씀 중에 이제 1992년도에 한마당에서 성적을 내셨을 때 소위 말하는 경기화 폼새 경기화되어지는 폼새를 수련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도장에서 폼새를 하신 것 같거든요. 주로 어떻게 수련을 하셨습니까?
74. 구술자 29:49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굉장히 즐기는 스타일이고 또 제가 저한테 저의 매력에 빠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운동하지 않고 혼자 운동해도 거울 앞에서 혼자 운동하면서도 밤을 새면서 운동한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저한테 빠지는 스타일이라... 오히려 다른 사람하고 운동하는 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자신이 그 즐거움에서 나오질 못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수원에 팔달산이 있거든요. 새벽 한 제가 일어나는 시간 네다섯 시간 정도 네 다섯시 정도에 일어나는데 그때 일어나서 팔달산을 한 바퀴 돌아요. 한 바퀴 돌 때 그냥 도는 게 아니라 거기 나뭇가지들을 발로 차면서 한 바퀴를 돌거든요. 그냥 뛰면 15분이면 뛰는 그 산인데 중간중간 나무를 발로 차면서 돌면 한 50분에서 1시간 반 정도 많이 차는 날은 1시간 반 적게 차는 날은 40분 정도 이렇게 걸려서 뛰어요. 그게 굉장히 즐거웠어요. 제가 정확하게 그 나뭇잎을 타깃으로 잡고 정확하게 발 앞까지 딱 차고 또 내려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차고 또 돌려차기 차고 옆차기 차고 그 늘어진 나뭇가지 나뭇잎들을 차는 게 매일 해도 매일 새로웠고 매일 정말 즐거웠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이 얘기가 지금 나올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끼 낳는 날까지 저는 운동을 하다가 아끼 낳으러 갔거든요. 네 트레이닝 바지가 그렇게 속도를 늘려서 넓게 입고 도복은 안 되니까 네 트레이닝을 입고 이제 운동을 하다가 배가 막 당기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이제 아끼 낳을 건가 보다. 그리고 이제 제가 혼자 가방 들고 아끼 낳으러 가고 그러기도 했어요.
75. 면담자 31:58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이제 우리 서영애 사범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기와 폼새가 좀 더 경기화되기 이전의 1세대와 같은 그런 군이 이제 시대적 구분을 하자면 이제 그런 세대신 것 같은데 사범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전통적 폼새와 경기화 되어진 현 폼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76. 구술자 32:28 이제 기술은 똑같은 기술이죠. 똑같은 기술인데 도장에서는 경기를 위해서 하지 않으니가 그렇게 속도를 빨리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한 동작 한 동작 정말 그 깊은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유 있게 여유 있는 그런 동작인데 경기 경기 폼새는 상대성 있잖아요. 토너먼트는 두 선수가 같이 나와서 하는데 한 선수가 느리면 좀 답답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다르고 기술은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규칙은 해마다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 규칙이라는 것은 누구를 이제 승패를 좌우해야 되니까 꼭 필요한 건데 그것은 율해와 내년과 작년이 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다시 몇 년 후에 몇 년 전에 규칙이 다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규칙은 계속 변할 수 있는 경기 폼새는 계속 규칙이 변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전통화된 폼새는 항상 그 자리에 있죠. 항상 그 자리에 그래서 지금 폼새는 모르겠어요. 기술은 굉장히 화려해지고 선수들이 굉장히 높이 차잖아요. 발을 일자로 하늘차기라고 소위 하늘차기라고 하는데 기술은 네 높아졌음에도 맛은 좀 떨어졌다고 제가 볼 때는 깊은 맛이 좀 떨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 동작 하나에 맛을 내는데 지금은 그 맛을 낼 수

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5초 8초 무조건 그 안에 다 해야 되고, 그 시간 외에는 빠르게 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그 멋을 부릴 수가 없죠. 예전과는 조금 다르다고 표현이 되죠.

77. 면담자 34:42 사범님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결국 스포츠의 변화는 규칙에 의해서 변화되고 규칙의 정의에 의해서 그 틀 속에 경기 종목이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그 말씀대로라면은 오히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권도계에서 태권도의 정신과 가치를 담아서 정리를 해서 1년에 몇 번씩 바뀌는 규칙이 아니라 우리가 합의되고 적용된 규칙이 일관성 있게 한 방향을 향해서 완전 변화 없음이 아니라 미세한 변화를 통해서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품새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요?
78. 구술자 35:30 누구나 바라는 거죠. 누구나 바라는 건데... 지금은 누가 위원장이 되고 누가 실권이 있느냐? 에 따라서 조금 바뀌는 게 아쉬워요. 예를 들어서 손도 어떤 기술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누구는 예를 들어서 명에치기는 공격이니까 아래에 개념을 뒀서 아래서 해라 또 누구는 위에 있는 손이니까 자연스럽게 위에서 가라. 또 현재 있는 내 손의 위치에 따라서 편하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위원장의 생각에 따라서 딱 정해주거든요. 요건 안에서 거!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연스럽게 없애지고 규정대로만 가는 거죠. 그 위원장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품새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느껴요.
79. 면담자 36:27 그 부분은 우리 태권도계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기술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기 때문에 위원장이나 또는 의사결정권자가 바뀔 때마다 규칙이 바뀐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기술의 목적은 단 하나지 않습니까? 그 기술을 발전하는 목적은 그 기술이 추구하는 꼭지점에 가 있다라고 본다면 그 목적은 변할 수 있겠죠.
80. 구술자 36:55 네 목적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변하는 거죠. 과정에서 이랬다 저랬다 조금씩 이렇게 가는 게 좀 안타깝긴 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동작에서 작년에는 발을 조심스럽게 소리 안 내게 내려왔는데 올해는 팡! 소리를 내야 된다! 라고 한 다든지... 똑같은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또 바뀌었기를 표현하자면 바뀌었기는 힘을 주어서 미는 동작이잖아요? 서로 이제 상대가 안 밀려고 하는 것을 나는 힘 주고 미는 동작인데 이런 동작도 딱 5초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힘주어 하는 동작들은 예를 들어서 5초 이상 이렇게 하면 나름대로 시연자가 또 경연자가 멋을 좀 낼 텐데 5초라고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만의 느낌을 낼 수 없는 거죠.
81. 면담자 37:58 경기규칙에 대한 논의를 조금 분위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와 조금 이제 연관된 것인데 이제 품새 팀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나 선수들이나 또 심판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다 보면 그 부상의 염려를 굉장히 선수도 코치도 안고 있습니다. 사범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경기규칙에 관한 문제일까요? 아니면 수련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일까요?
82. 구술자 38:33 일단 공인품새만 놓고 봤을 때는 수련회 방법의 방법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보거든요. 저는 선수를 좀 가장 몸 관리가 잘 되는 선수 중 한 명이거든요. 물론 2016년에 제가 대회를 뛰다가 인대가 끊어져서 큰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그전까지는 저는 어디 아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운동하다가 예를 들어 어느 한쪽에 무리가 온다 그러면 바로 저는 거기서 중단을 해요. 중단을 하고 그것에 대한 보강 운동을 찾거든요. 우리 태권도에 보면 근력 운동이 꽤 많이 속해 있어요. 주춤서기 오늘날의 스쿼시이고, 또 앞굽이는 오늘날의 런지고, 그 다음에 힘주어 느끼게 하는 동작들은 오늘날의 근력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빠른 동작들 우리 몸에서 다 뺏어나가는 동작들이잖아요. 앞차기, 지르기, 막기, 얼굴막기 다 이렇게 내 몸에서부터 멀리멀리 내보내기 때문에 사실은 관절에서 무리가 오거든요. 그러한 무리가 오는 동작들은 아까 얘기했던 주춤서기나 앞굽이나 근력 운동 근력 강화 운동 우리 등장성을 이용한 동작들이 꽤 있어요. 금강 막기라든지 아니면 당겨턱지르기 라든지 이런 느린 동작으로 보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

게 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려서 저는 웨이트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문제가 딱 발생하면 저는 바로 웨이트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깨나 팔꿈치에 무리가 오면 저는 바로 팔굽혀펴기를 해서 보강을 하고, 무릎에 무릎이나 다른 데 이상이 있다 싶으면 바로 그 레그프레스 가서 하고 그래서 저는 특히 특별히 운동하면서 제가 부상 때문에 고생한 적은 없는 것 같아서 훈련 방법에 문제가 아픈 선수들은 훈련 방법에 문제가 있다. 보강 운동 없이 너무 무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83. 면담자 40:54 제가 그 한 2세대쯤 되는 아주 꽤 유명한 누구라고 그러면 다 알 만한 그런 코치하고 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코치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상당히 공감 갔던 이야기인데... 동양 삼국의 무술의 공통점이 크게 두 가지로 자기는 본다. 하나는 느림이고 하나는 낮음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상당히 무술적 시각으로 시각으로 이제 이것을 봤을 때는 공감되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사범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이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다시 이제 좀 대회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그러면 그 92년도에 이제 짠 하고 대한민국에 서영애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국제대회는 어느 대회 때부터 어떤 계기로 출전을 하게 되셨나요?
84. 구술자 41:47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판 활동을 하다가 2006년도에 세계대회가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심판을 보면서 선수들을 보니 나도 1등 할 수 있겠구나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심판은 어떤 기록으로 남 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수는 기록으로 남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을 남기려면 1회 세계대회 때 내가 국가대표가 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이제 2006년에 선수 등록 심판 등록 안 하고 바로 선수 등록을 했죠. 이때 시선은 솔직히 끊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심판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맥을 통해서 저 여자가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시선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시합을 뛰고 나오니까 그 심판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엄지를 이렇게 치켜올리시더라고요. 나의 생각이 틀렸어. 너 잘해 인정할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85. 면담자 42:53 그럼 2006년도에 국가대표가 처음 발탁이 되신 건가요? 그럼 참가 영역은 어느 쪽이셨나요?
86. 구술자 43:01 그때 당시에는 40대 46살인가 그랬으니까 46살
87. 면담자 43:09 언더 46 뭐 그런 분야였나요?
88. 구술자 43:11 40에서 50살까지 사이 네요 부위에 속했죠.
89. 면담자 43:17 그럼 이제 그때 국가대표가 2006년도에 됐고,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아직도 깨지지 않는 기록 같은데 그 세계대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입상 결과를 좀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90. 구술자 43:34 1회 세계대회 때는 제가 단체전으로 나왔어요. 단체전으로 나가서 우승을 했고, 그 다음에 2회부터 계속 개인전을 2016년까지는 계속 개인전을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회는 계속됐지만 어쨌든 규정에 의해서 저는 2016년까지 세계대회를 9번을 뛰었습니다. 그래서 9번을 뛰어서 그 중에 한 번은 메달을 못 따고 메달을 못 따었어요. 그리고 10번 뛰었구나. 10번 뛰었어요. 10번 뛰어서 한 번은 메달을 못 따고 한 번은 동메달 그 다음에 한 번은 2관왕을 해서 총 금메달의 9개입니다.
91. 면담자 44:25 우와!
92. 구술자 44:27 맞죠?
93. 면담자 44:28 맞죠. 남들은 하나는 뭘니까? 국가대표 꽤 보는 게 꿈일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서영이 하면 품새로 통할 만큼 대명사가 되신 것 같은데 이 과정 속에 여러 작은 일들도 좀 있지 않았었습니까? 간략히 소의를 한번 말씀 주신다면 아쉬운 점이 있었을 텐데요.
94. 구술자 44:56 네 많이 있는데 일단 가장 기억에 남는 때는 역시 1회대회 거든요. 여자 선수 3명

이 같이 맞춰서 할려나 굉장히 트러블이 많았어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니다. 이게 맞다! 이렇게 하면서 그 과정 중에 우리 과연 시합을 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대회 당일날은 너무 멋있게 해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의 사범님들께서 단체전 너무 멋있었다! 라고 칭찬을 해 주시고 저희도 저희가 생각해도 정말 환상적인 조합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 제가 가장 추억의 추억의 1회대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2회 3회 4회 이렇게 5회까지 갔는데 그 5회까지는 하나하나 내가 기록을 쌓아가는 거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4회 때까지는 연속 4년 4연패를 한 선수들이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남다르지 않아서 그저 그랬던 것 같은데 5회 대회 때는 이제 제가 혼자 있었죠. 그래서 5회 대회 때는 드디어 내가 이 품새 분야에 한 획을 그었구나! 라는 그 자부심이 생겼고 어깨가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6회 대회 때 제6회 세계품새선수권대회를 갔는데 서영이가 계속 과연 이어갈 것인가? 관심이 저에게 너무 많이 몰렸습시다. 화제였죠. 네 그래서 제 코트에 뺨 들러서 쿼제전이 풀린 거예요. 저는 연습실에서 다른 선수들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건방진 생각이 들었어요. 저것 밖에 못해 옆차기가 저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나는 멋지게 해놔야지 내가 멋지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제 순서가 돼서 들어갔는데 너무 욕심이 있었죠. 너무 멋있게 보이려고 해서 저는 평소에 앞차고 몸돌아 옆차기를 하다가 제 몸이 거의 쓰러질 정도로 비틀거렸어요. 반대쪽에서 또 그것을 이 놓친 점수를 더 메꾸기 위해서 더 욕심을 부렸어요. 반대쪽에서도 또 비틀거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6회 세계대회 때는 유일하게 메달을 내!

95. 면답자 47:44 그 결승전이었나요?.

96. 구술자 47:45 그때까지의 세계대회는 8강의 선수들이 결승전을 그제 결승전이에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8명의 선수 중에 6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람이 됐죠. 물론 계속 사람이었지만 시상대 당연히 나는 시상대 제일 가운데 올라갈 줄 알았는데 시상대에 못 올라가고 아무것도 받는 것도 없었고 사진 찍지도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동안은 너무 못 올라가면 이런 마음이구나 내가 그 사람들을 안아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아주 중요한 저를 정말 진짜 사람 만드는 그런 대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6회 세계대회 때 러시아에서 했는데 그 대회가 아쉬움 굉장히 만감이에요. 아쉬움도 있고 또 그 대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트라우마도 생겼고, 그때부터 평어는 정말 싫어졌어요! 하하하 네 실수 또 할까 봐

97. 면답자 49:36 6회 세계대회에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에는 금메달이 없었지만 마음의 금메달을 따셨네요.

98. 구술자 49:47 네 맞습니다.

99. 면답자 49:49 그 참 인생이 뒤돌아보면 실패해서 얻는 가르침이나 교훈이 때로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제 질문이 어느 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라고 여쭙보고 싶었는데 그걸 이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혹시 그러면 추억에 남는 너무나 재미있었던 뭐 그런 대회는 또 있을까요? 에피소드가 있는 대회가?

100. 구술자 50:14 에피소드 재미있었다고 하기보단 그 페루에서 열렸던 대회인데요. 2016년에 제가 준결승을 하다가 착지를 잘못해서 점프를 이렇게 뛰어서 표적차기가 있었는데 착지 과정에서 제 무릎이 꺾였어요. 그래서 이제 인대가 완전 완파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끝까지 마지막 남은 네 동작을 끝까지 다 하고 이제 약간 썰떡거리면서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왔는데 제가 아마 그 기억에 제가 첫날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계속 경기장을 나왔는데 저는 이제 이 발을 디딜 수가 없어서 계속 한 발로 계속 이렇게 한 발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예전 사투리인가요? 껏껏이? 이렇게 한 발로 계속

다녔어요. 그리고 그때 마음 아팠던 기억은 제가 단체전 단체전에도 속해 있었는데 제 부상으로 인해서 단체전을 못 해서 후배들에게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그때 미안한 감정은 세상에 이런 감정이 또 있을까? 이렇게 마음 아플 일이 또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그 후배 얼굴을 못 보겠어요. 너무 미안해서 저로 인해서 출전히 완전히 무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 아프고 또 이제 시상식이 제가 3등이니까 시상식에 올라가야 되는데 독일 선수가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픈 걸 아니까 독일 선수가 그 당일날 저보러 내일 안 나와도 된다 시상식이 다음 날이었거든요. 내일 안 나와도 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랬죠. 아니야 내가 3등 자리에 있어야 네가 더 빛나 나는 그럴 의무가 있어! 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독일 선수가 고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때 뿐만이 아니라 항상 선수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3등도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메달이 어떤 색깔도 상상이 어떤 숫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시합을 통해서 이 정도의 성적을 거뒀고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게 보여줬던 대회가 2016년에 페루 대회였던 것 같아서 가장 잊혀지지 않는 대회 우리 서울에서 했던 1회 대회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했던 6회 대회 그 다음에 페루에서 했던 대회가 세계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101. 면답자 53:05 사범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품새 월드 챔피언으로서 가져야 되는 어떤 됴됨이라 그럴까요? 인격적 성숙이라 그럴까요? 좀 더 이렇게 확대를 해서 들어보면 태권도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성품과 소양 자세들을 아마 그 1회부터 쭉 거치면서 성장 성숙했던 것들이 그 무릎이 그렇게 아픈 상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들이 아마 서영이라는 사범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존경하고픈 존경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조금 예민한 질문을 좀 하나 좀 더 드러볼까 하는데 그렇게 해서 1회 대회부터 지금까지 이제 세계대회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규칙에 의해서 발전되고 변화된다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현역 선수보다는 이제 후배 또는 제자 양성 쪽에 계신데 어떠세요? 지금 그 품새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스템 이 제도에서 이런 것은 좀 참고하거나 또는 이런 것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럼 혹시 좋은 말씀이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 구술자 54:27 일단 지금 품새대회는 겨루기는 기계가 들어가잖아요? 기계에 의해서 파워가 측정되고 정확한 부위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기계가 다 해주는데 아직은 품새는 100% 심판의 눈이죠. 똑같은 똑같은 심판이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선수가 시연을 했는데 어느 심판은 칭이 더 잘했다 어느 심판은 흥이 더 잘했다 이렇게 갈릴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좁히기 위해서는 물론 인간적인 거는 사람이 심판원이 들어갔을 때가 가장 더 무도적이고 인간적이고 더 스포츠가 지향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쪽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도 품새도 기계가 도입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품새대회에서 기계가 도입된 건 시간이지 않아요. 그 시간 안에 끝나는지 이거 시간만 지금 기계가 도입돼 있고 다른 것은 다 이제 심판이 하고 있어요. 심지어 품새와 품새 사이에 5초를 해야 되느냐 8초를 해야 되느냐도 심판들이 그 선수가 그 8초짜리 동작을 시연할 때 전광판을 보면 그 시점부터 이제 시간을 이렇게 심판들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외에도 기계의 힘을 빌어서 조금 더 판정의 폭을 공정에 가깝게 또 신뢰에 가깝게 줄여야 된다! 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이 맞는 생각인지는 제가

103. 면답자 56:23 사범님의 말씀에 저는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반론을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은 무릎이 추구하는 것이 다양성이고 절대적 시각이고 그것이 그 계가 갖는 어떤 전통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대입해보면 AI라고 하는 것을 많은 데이터 값을 거기에 넣고 그 AI를 통해서 그 데이터 값에 가장 근접한 또는 최적화된 사람을 선수를 변별해내자는 말씀이신데 심사에서는 이미 그것이 많이 진도가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말씀을 저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무릎적 시각으로 가서는 그것이 과연 적절할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틀렸다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런 것이 존재하는 것이 맞을까? 요즘 야구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스트라이크존을 기계가 변별하고 있습니다.

104. **구술자 57:25**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계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은 아주 극히 일부분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바탕손안막기를 예를 들자면 분명히 밖에서부터 안으로 막는 동작이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수들은 이 밖에서 안으로 막는 게 아니라 정말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앞에서 내 몸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쳐내는 듯한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AI가 판단한 거는 이 과연 방향이 밖에서 안으로 왔느냐 내 몸속에서 앞으로 갔느냐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심판들도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이 스트라이크나 불이나 이것을 판단하는 건 사실은 기계가 더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또 실수하는 제 미도 있긴 하지만 그 조언에 있어서 그런 부분 을 조금 따지고 싶은 거죠.
105. **면답자 58:32**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반대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인간의 존엄성 실수라고 표현이 그러니까 고의적이면 안 되지만 실수라고 하는 또는 시각의 약간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그것을 판단하는 이게 좀 애매한 표현인데 그 영역까지도 그 선수의 운이 아니라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은 좀 들고요. 예를 들면 고급 스포츠일수록 심판의 관여도는 적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잔하고 등장하는 순간 심판의 권한은 절대적입니다.
106. **구술자 59:15** 그렇죠
107. **면답자 59:17** 그래서 우리 태권도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술과 무예와 무도의 종합 표현되는 것이 폼세라면 그 속에 우리가 그렇게 AI라고 하는 인간 외적인 기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의 이면에는 인간이 인간에 대한 신뢰도 이 신뢰도가 신뢰도가 아니라 부정적 기류가 있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은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결정하기 이전에 그 결정하려고 하는 그 사항이 우리의 본질과 본성에 적절하나? 적합하나?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권도계가 정말 깊이 고민하고 고민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길게 드린 이유가 이제 살아계신 증인이시기 때문에 1회부터 지금까지의 그 경기를 보면 쪽 이렇게 변천사가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각에서 보시니 보시니까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이럴 때 조금 어설피고 좀 이렇게 비정형화돼 있을 때하고 지금은 아주 디테일한 구성까지 정리를 해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무술적 시각에서 보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108. **구술자 1:00:44** 아무래도 발전을 했죠. 네 발전을 했어요. 예전에는 발이 움직이는 거에 발 움직이는 심판들이 심지어 발만 쳐다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자세가 제대로 가는지 각도는 맞는지 거기에 초점이 돼 있다 보니 전체 틀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은 그런 자세한 걸 발에 집중하기보단 전체적으로 이 선수가 표현을 잘하는지 이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건 발전을 했어요. 발전을 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발전 방향이 살짝 잘못됐다고 아까 제가 이제 너무 빠르게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금강에 터치기를 세 번 연속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걸어나가는 시간에 힘을 빼서 나가야 되는데 선수들이 힘을 안 빼고 그냥 빠르게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힘을 빼는 선수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정말 1%도 안 돼요. 거의 99명 99%의 선수들이 힘을 빼지 않고 그냥 가요. 이게 왜냐하면 공격은 빠르게 해야 된다! 라는 게 방향이 살짝 좀 오류 난 거라고 보여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뺀다면 오히려 지금이 더 바람직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격이든 방어를 빨라야 하니까 지금 굉장히 폼세가 빨라졌어요. 빠르게 맞고 빠르게 공격해야 하니까 방향은
109. **면답자 1:02:22** 그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 동작과 동작 간의 빠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10. **구술자 1:02:27** 동작 자체도 빨라졌고 동작에서 동작으로 넘어갈 때도 굉장히 빨라졌고 예전에는 약간의 정지 아닌 정지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정지가 거의 없죠. 힘을 켜면 그대로 움직이면서 뻗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정지처럼 보이는 동작이 정지했어? 사진 한 번 찍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죠. 보여주긴 하되 굉장히 빨라졌어요.
111. **면답자 1:02:54**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범님께서서는 아까 인성적 측면에서의 페루

에서의 경험담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세계대회를 나가든 아시아게임을 나가든 WT나 아시아연맹에서 보면 대한민국 1기 국가의 선수들이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직은 폼세 영역에서 국제대회를 나가면 그래도 한국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이기 때문에 가져야 되는 자세가 특별히 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세계대회를 나가려고 하는 또는 국가대표 이름으로 나가려고 하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좀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112. **구술자 1:03:40** 저는 걸로 보여지는 것도 내면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범은 사범의 행동을 보고 제자들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가대표들은 보통 선수들의 바라보는 시각이고 또 우상처럼 돼 있는데 이런 국가대표들이 운동 외에 동작 또는 행동, 언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여주는 모습도 이왕이면 좀 단정하게 했으면 좋겠고, 어디 이렇게 다닐 때 이렇게 슬리퍼 신지 말고 항상 운동화를 신고 다녔으면 좋겠고, 네 옷도 단정하게 입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도 좀 좋은 말 경어를 쓰고, 이렇게 요새 좀 요즘 유행하는 요즘 학생들이 욕 아닌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욕이고 학생들이 볼 때는 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국가대표가 되면 동작만 국가대표가 아닌 태권도의 국가대표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태권도에는 도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도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니깐! 사람답게 가야 할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는 태권의 국가대표가 아니고 태권도의 국가대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113. **면답자 1:05:22** 그 말씀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역시 국가대표고 역시 서영애고 사범으로서의 서영애다라고 제가 느끼는 오늘 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저는 죄송하지만 신을 신고 있는데 이제 맨발로 지금 계시거든요. 물론 여기 스튜디오인데 우리가 굳이 스튜디오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까 우리가 잠깐 이야기 속에 도복을 입었으니깐 맨발로 해야지! 라는 그 말씀이 지금 후배들에게 주는 몸으로서 전달하는 그런 선배로서 또는 스승으로서 또는 태권도인의 어떤 하나의 자세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신발 신는 게 대단히 부끄러워지고 있습니다.
114. **구술자 1:06:10** 어울리는 어울리는 신발이고 저한테 어울리는 자세입니다.
115. **면답자 1:06:15**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겨루기가 도장에서 출몰을 해서 세계화 전략에 성공을 하고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이후에 태권도에서 태권도 도장에서 시작된 태권도 겨루기가 이제는 도장보다는 팀 문화 쪽에 또는 학교 쪽에 더 많이 친숙하고 그곳에서 더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 폼세의 발전 방향이나 패턴이 겨루기 세계화를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범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16. **구술자 1:06:59** 네 저도 선생님 못지않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겨루기가 경기화되고 체전에 들어가고 국제대회가 생기면서 도장을 떠나서 학교로 갔잖아요? 폼세 또한 지금 겨루기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도 느끼고 있고! 그러나 저는 이제 또 다른 생각을 했는데... 겨루기를 겨루기가 좋아서 겨루기가 하고 싶어서 우리 모여서 겨루기 하자 겨루기 수련하자라는 동호인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폼세는 폼세가 좋아서 폼세를 배우고 싶어서 또 같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동아리 또 모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겨루기처럼 완전히 똑같은 안 되겠구나! 라는 약간의 안도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도장을 벗어나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동호인들이 다 도장에서 운동을 하거든요. 도장 대부분은 오늘은 우리 도장, 내일은 너네 도장 다운 날은 다음 주에는 저쪽 도장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도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서 또 겨루기와 다르게 겨루기는 체급인데 폼세는 그 체급이 나이로 돼 있잖아요? 그 나이로 나눠져 있어서 어린 카테 선수부터 65세 이상부까지 이렇게 돼 있어서 학교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나이가 물론 만학도들도 있지만 그래서 좋은 좋은 것 같아요. 도장을 떠나지는 않겠구나 아주 떠나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년부 선수들도 많이 있고 특히 이제 모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117. 면답자 1:08:59 지금 이제 태권도계에서 여러 목소리가 폼세에 대한 시각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1품단을 응심하는 데 있어서의 그리고 4품 4단 9단까지의 가는 과정에서 품단별로 한개씩 해야 되는 이 단순한 단조로움이 극복돼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태극 폼세를 좀 더 추가로 개발을 해야 된다. 또는 좀 더 폼세를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사범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118. 구술자 1:09:41 네 저도 그 문제를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태극 폼세는 현재 태극 1장에서 8장까지 이제 유급자를 위한 폼세인데 여기에는 단조롭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1단까지 가는 과정 중에 8개의 폼세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많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이 올라갈수록 연안이 계속 늘어나는데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폼세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유급자 폼세가 아닌 유단자 폼세가 유전자 폼세가 1단에서는 하나였으면 2단에서 2개, 3단에서는 3개, 4단에서는 4개 이런 식으로 수렴 폼세가 좀 더 생겼으면 좋겠고 물론 심사 볼 때는 정해서 그 많은 것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심사 보는 폼세는 정해주되 수련하는 폼세는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을 저도 더 좋다고 생각을 했죠.
119. 면답자 1:10:42 근데 그 말씀은 필요하다고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필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반론 삼아 좀 여쭙보고 싶은데... 지금은 뭐 ITF도 있고 다른 무술에서도 태권도와 유사한 무술에서도 폼세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태극의 폼세의 생성의 과정을 보면 일부에서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기술의 책의 날기술을 조합한 것에 불과하지 날기술의 위계나 체계에 의해서 1장부터 8장까지 만들어졌거나 고려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질문과 연계를 해보면 다시 폼세를 태극이어도 되고 아니면 유단자 폼세여도 된다. 그러니 다시 이제 우리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만들어야 된다 그 말도 있거든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0. 구술자 1:11:45 지금 공인폼세라고 해서 태극 1장부터 8장까지 또 고려해서 일여까지 이거는 저는 기등으로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우리 태권도가 태극 폼세가 생기고 유단자 폼세가 생겨서 기등 역할을 해주되 그 옆에 파생되는 예를 들어서 1단을 1단을 취득하고 나서 고려 폼세를 수련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려 폼세를 하고 나서 태극 폼세와 고려 폼세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동작을 만들어내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가지죠. 옆에 가지 기등 가지가 아닌 다른 가지가 돼서 수련을 했으면 좋겠고 2단 3단 4단 올라가면서 또 참가지죠. 기등은 지금의 폼세를 기등으로 놔두고 이것은 단심사 볼 때 그거를 해야 돼. 필수 폼세와 지정 폼세는 이 중에서 해야 돼. 그러나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또 유관기관에서 노력해서 폼세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수련생들이 조금 더 활력 있게 이거 다 배웠으니까 나 배운 거야라는 물론 하나만 가지고도 완성은 되지 않잖아요.? 제가 폼세를 해보니까 태극 폼세도 완성이 아직 저는 안 된 것 같거든요. 완성은 안 했지만 보통의 수련생은 그냥 외운 것 자체를 다 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외운 자체를 그래서 그러한 기술들을 섞어서 그동안 내가 했던 폼세를 했던 것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다른 폼세를 이렇게 유관기관에서 좀 노력해서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21. 면답자 1:13:32 이 부분은 워낙 좀 예민한 부분이지만 제가 추가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본다면 결국은 지금 사범님도 기술을 섞었다 그리고 전문 영역으로 나왔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저도 이것은 주장은 아닙니다만 하나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 국기원에서 정의하고 있는 폼세라고 하는 것은 뭐 호신술 겨루기를 총합체로 만들어낸 것이 날기술의 총합체가 폼세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어느 정도 수련해본 마찰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반론도 내거든요. 겨루기하고 폼세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날동작하고 겨루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 이런 질문을 깊이 있게 수련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존재를 한다면 무술의 특성상 우리가 폼세라고 하는 커다란 그릇 속에 겨루기도 넣고 호신술도 넣고 날기술도 넣고 발차기도 넣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이런 것을 전문화시켜서 겨루기 쪽은 겨루기로 떼어내고 폼세는 폼세적으로 떼어내고, 아마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 필요는 있지 않나 사범님 말씀에 이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폼세 쪽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돌아가면 사범님은 이제 윌드 캠프연도 하고 당연히 국가대표도 하고 하면서 아까 이제 그런 부상에 아주 특별한 일이 없었을 경우우려 뭐 나가면 그냥 뭐 1등 하는 것처럼 아직도 이제 겨우하는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만 폼세는 아직도 그 시각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 시각 중에 하나는 이제 폼세도 해외에서 많이 올라왔다.
122. 예전처럼 코리아만 달고 나가면 일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의 끝에는 이런 이야기로 결론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랑 해외 선수들은 수련하는 연습하는 방법이 다르다! 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범님의 경험상 사랑하는 후배들이 연습은 꼭 한번 해봐 이거 괜찮은 방법이야! 이런 혹시 방법 비법이 있을까요?
123. 구술자 1:16:03 사실 초창기 때는 분명하게 달랐어요. 연습하는 게... 그리고 한국인 특유의 그 체질이 태권도를 하기에 정말 적합한 폼세를 하기에 적합한 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 세계대회를 1회 2회에 나가면서 느낀 것은 외국 선수들이 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아 이 우리를 따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 않았던 게 체질이 네 한국인의 체질이 정말 폼세하기에 적합한 몸이어서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들여다봤더니 외국 선수들은 힘 빼는 기술이 우리를 못 쫓아오더라고요. 힘은 더 좋는데 힘이라는 것은 내 힘이 없는 상태에서 나가야 그 힘이 돋보이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 동작을 하니까 돋보이는데 외국 선수들은 힘을 처음부터 가지고 하니까 돋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 선수들이 힘 빼는 기술만 가지면 우리를 훨씬 앞서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저는 10년에서 20년을 바라봤거든요. 지금 지도자들도 외국에 굉장히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훈련 방법은 절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훈련 방법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를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저는 항상 즐겼어요. 운동 자체를 즐겨라. 네 항상 즐겼어요. 그리고 코트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행복했고, 이 코트에 들어가서 그 기분은 정말 돈 주고는 못 사는 기분이잖아요. 설레고 떨리고 두근거리고 이질까? 질까? 그런 마음 중에서 저는 가장 큰 희열을 느낀 게 제가 하면 누군가 나를 바라보면서 “우와” 해주는 그 우와 소리가 제 귀에 들리거든요. 그게 저는 마약 같았어요. 스탠드에 앉아서 앉으신 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우와” 이렇게 해주는 이 기분 그래서 그런 것도 즐기고 들어가는 기분도 즐기고 또 그 들어가기가 이전에 운동을 하는 것도 즐기고 네 그렇게 다 즐기고 그 수련도 길고 전수가 꼭 아니어도 저는 2016년까지만 시험 뛰고 그동안 시험을 큰 대회를 못 뛰어봤는데 그래도 저는 계속 즐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즐기면 자기가 실제 자기 실력보다 더 좋은 표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즐겨라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124. 면답자 1:19:12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안 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즐겨라! 단어는 편안한데 적용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서영애사범님이 아주 짧은 문장으로 정리를 해 주셨지만 아마 그것 그 표현들이 서영애 인간 서영애사범의 뒤를 가려고 하는 이어서 가려고 하는 많은 분들에게는 아마도 좋은 말씀이 축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즐기는 걸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가장 잘 안 되거든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질문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인간 서영애에게 전라북도란 어떤 곳입니까?
125. 구술자 1:20:01 저는 물론 수원에서 태어났지만 수원에서 지금 경기도에서 40년을 살고 현재 전라북도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거든요. 제2의 고향이죠. 많은 분들은 제가 아예 토박이인 줄 알고 계시거든요. 저도 제가 생각할 때도 저는 태어나기만 수원에서 태어났지 나는 지금 전라북도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쪽에 더 익숙해져 있고 용원을 해도 전라북도를 더 응원하게 되니까 저는 전라북도 사람이예요. 제가 처음에 전라북도에 내려갔을 때 그 말투가 익숙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다 화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화내고 있는 줄 알았지 그 말 지금은 정정하게 그 말투가 느껴져요. 그런데 이제는 뭐 제가 수원이나 서울 오면 저보고 약간 사투리 쓴다고 말을 하죠. 전라도 사투리 쓰네 이렇게 친구들도 얘기를 해요. 전라북도는 정이 많고 굉장히 안아주는 곳이

예요. 내가 내 가족 내 이웃 나의 그 단계 굉장히 이렇게 안아주죠. 훌리지 않고 굉장히 돌돌 뭉치게 한다고 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에게는 서운하더라도 일단 우리! 이게 굉장히 강한 거를 느꼈는데 제가 제대로 느낀 건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

126. 면담자 1:21:47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지역에 대한 사랑 그 지역에 대한 느낌이 제2의 고향이라고 흔히 표현되는 전라북도가 완전히 사범님의 전 고향이 됐네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그 어렵게 시작한 그 조그마한 여학생의 우연한 기회에 맞으면서 저런 게 있어? 라고 느껴서 시작된 태권도가 2024년 서영애를 만들었다면 이제 그 이 영상을 보게 된 또는 서영애의 삶을 따르려고 하는 후배들과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127. 구술자 1:22:37 저는 항상 즐겼거든요. 아픈 상황에서도 운동을 즐겼고 건강할 때도 운동을 즐겼고, 항상 즐기면서 했는데 그렇게 즐기다 보니 어느덧 제가 인정받는 사람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동양의 조그마한 여자가 외국에 저보다 거의 2배가 되는 그런 키를 가진 사람들 앞에 서서도 제가 당당하게 서서 지도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그 앞에 섰을 때 인사할 때까지는 그 사람들이 그냥 인사하나 보다! 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딱 지도가 시작되는 순간 저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저런 우렁찬 소리가 나올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대차게 하거든요. 기압도 크게 넣고! 구령 소리도 크게 넣고! 인상 깊었던 건 미국에서 처음에 만났을 때 인사와 끝나고 났을 때의 인사가 달랐던 것이 굉장히 저를 굉장히 인정해 준다! 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30도 40도 정도의 인사였었는데... 끝나고 나서 인사하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90도로 숙이고 일어나는 데 한참 걸렸어요. 제가 몸을 바를 정도로...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정말 내가 태권도를 하기를 잘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조를 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거기에 계신 사범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맙다 대한민국에 조그마한 여자가 와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올려줘서 내 가치도 올라갔다! 하시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셨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태권도가 멋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이 태권도가 멋있는 거고 우리 후배들도 이 멋있는 태권도를 즐기면서 이 태권도의 멋을 나로 인해서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조금 더 포장을 멋있게 되게 그 역할을 포장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128. 면담자 1:24:54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혹시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으셨는데 못하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129. 구술자 1:25:07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몇 년 동안 시합을 뛰고 “이제 나 할 거 다 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자체를 굉장히 즐기거든요. 코트에 들어가서 땀 흘리면서 분위기 설레는 분위기 긴장된 분위기 떨리는 분위기를 굉장히 즐깁니다. 그런데 이 저의 즐거움을 지금 규정으로 인해서 제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 국제대회를 마지막으로 국제대회를 못 뛰다가 8년 만에 며칠 전에 춘천 오픈을 갔는데 선수가 9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너무 즐겁게 시합을 뛰고 왔습니다. 이런 소수의 권리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물론 태권도 풀세 선수가 지금 많이 있지만 제 나이대는 몇 명 없거든요. 그래서 몇 명 있는 걸 인정해줘서 국제대회는 국내 협을 국내 규정을 적용하지 말고, 국제 규정으로 해서 나갈 수 있는 기회 제가 아니라도 제 후배 또는 제 동료들 이번에 남자 선수도 인원이 안 돼서 4명이 안 돼서 출전을 못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이러한 불합리? 불합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수라서 겪는 그런 것은 겪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30. 면담자 1:26:52 알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31. 구술자 1:26:56 감사합니다.

132. 면담자 1:26:57 사범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범님하고 긴 이야기를 나누고 사범님의 삶의 긴 발자국들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알았던 서영애라는 개인의 부분과 그것보다는 훨씬 더 깊고 넓구나. 특히 우리가 이 사료를 정리해 가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텍스트가 됐

든 또는 영상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제가 조금 더 궁금했던 사항들이 있었는데 아까 이제 처음에 태권도로 입문을 하고 그 다음에 만난 분이 김영숙사범님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김영숙 사범님도 현재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고 태권도계의 어느 분야 저투기 품새 이런 걸 떠나서 전체적으로 여성으로서의 1세대에 가까운 분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범님이 보시는 그 김영숙 사범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133. 구술자 1:28:06 제가 이제 처음 서울을 가서 김영숙사범님을 만나면서 다른 여자 태권도인들을 만나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수원에서 운동할 때는 정말 3명밖에 없는 여자가 3명밖에 없었는데, 서울을 갔더니 여학생들도 단체로 운동을 하고, 또 여자 사범님들 시범단에 여자 사범님들이 많아서 세상에 여자들도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는구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김영숙사범님께서 저를 굉장히 아껴주시고,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밥 먹는 거서부터 저를 지도해 주셨거든요. 밥 먹을 때 그 밥풀 하나 남기지 못하게 하셨어요. 너는 이 밥풀 하나가 나오기까지 농부의 수고로움을 아느냐 하면서 음식은 절대 남기면 안 된다. 네가 먹을 만큼만 가져와서 다 먹어라 그 습관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 배운 습관이 그래서 저의 일생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신 분이시고, 운동을 지도하실 때는 굉장히 단호하셨어요. 엄격하게 해 주시고 그 외 사상 그 외 생활에서는 저를 이렇게 굉장히 안아주시고, 그래서 저의 태권도 인생에 있어서는 영향을 많이 미치신 분이죠.

134. 면담자 1:29:32 그럼 김영숙 사범님을 만나셨을 때가 몇 학년 몇 살쯤 됐을 때였을까요?

135. 구술자 1:29:38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나간요 17살

136. 면담자 1:29:43 고등학교 전에 그럼 사범님 서영애에게 중학교는 어떤 시절이었어요?

137. 구술자 1:29:51 없는 시절에 남들 다 간 중학교 나도 다녀보고 싶어! 라고 해서 제가 학교를 찾아서 다닌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재는 불쌍해!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위치였거든요. 그러나 그런 생각과는 정반대로 제가 다닌 중학교는 한 명 한 명 스폰서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저의 스폰서가 미국에 있어서 그분들이 해마다 학용품과 모든 물건을 보내주셔서 일반 학생들보다 더 풍요롭게 지낸 것 같아요. 학습 환경은 훨씬 더 좋았고요. 다만 가정 환경이 안 좋았다. 그런데 공부 환경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장소도 굉장히 좋은 곳에서 했어요. 수원의 기독교 회관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선교사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영어도 자연스럽게 배워서 제가 고등학교 서울로 고등학교를 갔거든요. 갔는데 제가 영어를 제일 잘하더라고요.

138. 면담자 1:31:01 그래서 사범님이 종교 부분이 기독교라고 표기를 하셨군요. 그러면 그때의 그 교회 단어인 한테 영접을 그때 하신 건가요?

139. 구술자 1:31:17 중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는 다녔었어요. 그냥 간식 주니까 좋아서

140. 면담자 1:31:23 하하하하 많은 사람의 계기가 될 그리고 고등학교는 어떠셨나요?

141. 구술자 1:31:29 고등학교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가정 형편은 어려워지만 우리 집이 그때 돈을 아버님께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중학교 때 제가 아버님의 그 영상이 남아있는데 방 한쪽에 돈을 쌓아놓고 막 이렇게 세시던 그 영상이 아직도 저의 머릿속에 남아 있거든요. 돈을 많이 버서가지고 중학교 졸업하고 쉬고 있을 때 제가 이제 태권도를 하러 서울로 다녔잖아요? 다니면서 김영숙 사범님께서 고등학교를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희 집이 그때 돈을 줬었으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돈을 좀 드려서 저를 고등학교를 보내주셨죠. 태권도로 인해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도 가게 된 것 같아요.

142. 면담자 1:32:25 그러면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영숙사범님은 사범님에게 어떤 삶의 태도나 어떤 미래나 이러한 방향 등에 대해서 정말 인생의 스승 같은 분이셨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사범님께서 대학을 만학도처럼 아주 늦은 나이에 이제 대학을 다니신 것으로 알고

- 있는데 대학생활은 어떠셨어요? 사법님
143. **구술자** 1:32:53 **계** 고등학교 3학년 때 연애를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는 성신여대를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 연애를 할 때 남자가 저보러 대학교를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대학 들어가면 또 다른 사람 만날까 봐.. 그때는 연애하느냐고 눈이 멀어서 좋아하는 태권도를 같이 하면서 말을 잘 들었죠.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세계대회에 나가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둬왔잖아요? 그리고 여러 대학에서 저에게 강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학력 얘기를 했죠. 제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제가 강의를 해도 되나요? 라고 하니가 그러면 안 되네. 없었던 얘기로 하자고 다들 해서 이래서 학력이 중요한 거구나! 하고 제가 2006년도 그때 46살이었거든요. 그때 세계대회 갔다 오고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학력으로 인해서 거절당하고 2007년도에 대학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학도로 대학 들어가고 대학원까지 가서 지금은 네 객원교수로 있습니다.
144. **면담자** 1:34:20 그러면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일관되게 이제 쭉 태권도를 하셨는데 그럼 승단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승단도 도장에서 하셨나요?
145. **구술자** 1:34:31 네 승단은 수원에 중학교 졸업하고 다니던 도장에서 일단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으면서 단을 수원의 도장은 사실 그렇게 길게 다닌 게 아니고 중학교 때 사법님을 따라서 같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원래 한도정에서 계속 단을 취득해야 되는데 중학교 때 가르쳤던 사법님께서 도장을 소개해 주셨고 서울도 소개 김영숙사법님도 소개해 주셨는데 그 사법님께서 결혼하시면서 그 도장으로 또 갔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단을 따고 그 여자 사법님 최초에 가르치셨던 여자 사법님 남편이 하는 도장에서 또 단을 따고 하면서 여러 군데서 단을 따죠.
146. **면담자** 1:35:25 그럼 그 도장도 무덕관 있었나요?
147. **구술자** 1:35:28 네 처음에 지도해 주신 분도 무덕관 사법님이셨고 그다음에 서울의 김영숙사법님께서도 무덕관이셨는데 저는 그 관에 대해서 판마다 운동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 것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단심사 보러 갔더니 제가 운동했던 도장에서 아래 맞기는 당기는 손이 바깥에 있으면서 이렇게 어깨 위에서 했거든요. 심사 보러 갔는데 어느 도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하지 그러고 알아봤더니 판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해서 그 관에 따라서 조금씩 동작이 다르지만 끝에 맞기는 확실하구나 기술은 같구나 이런 것을 조금 느끼긴 했어요.
148. **면담자** 1:36:21 그때는 아마 과은 통합을 했지만 섬세한 기술의 통합은 미처 이루어 못한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사법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면 이렇게 쭉 일관되게 여성 사법님들에게 주로 이제 지도를 주로 받게 되셨겠네요.
149. **구술자** 1:36:44 **그렇죠**
150. **면담자** 1:36:46 가장 기억에 남는 사법님은 또 따로 있으실까요?
151. **구술자** 1:36:50 제일 처음에 가르쳐 주셨던 진순택 사법님이 계신데 아무래도 저의 태권도를 시작해 주신 분이니까 그분은 단은 높지 않지만 저에게 태권도를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봉사해 주신 분이잖아요. 학교 중학교에서 따로 뭐 급여가 있으신 게 아니고 정말 봉사 수준한 봉사로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배움을 저도 배웠기 때문에 저도 많은 봉사를 하고 있어요. 전라북도에서도 월요일마다 저의 재능 기부하는 날이 월요일마다 제가 품세를 전라북도 사법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제가 지도하면서 얻는 수익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 이렇게 제일 처음에 배웠던 사법님께서 배운 정신이 아닐까? 또 그게 진짜 태권도 도로서의 정신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기도 하고 또 내가 진짜 태권도인이라면 어느 정도는 해야 돼! 라는 이런 생각도 관념도 가지고 있어서 없는 형편이지만 많이 배웠고 있습니다.
152. **면담자** 1:38:11 지금 태권도계에서 서영애 하면 품새라고 하는 것이 성립될 정도로 이렇게 완전

- 히 성문화되다시피 지금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법님이 겨루기를 먼저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코치 생활도 오래 하셨고 그쪽에 나를 제자도 또 많이 키우고 그러셨는데 결정적으로 오랜 시간을 겨루기를 하다가 품새 쪽으로 이렇게 바꾸시게 된 거면 그 아가 말씀하신 한마당 대회 그거 말고도 혹시 또 특별한 계기나 동기가 있었나요?
153. **구술자** 1:38:47 말씀처럼 이제 예전에는 품새대회가 없었죠. 그래서 겨루기대회 저도 나갔는데 제가 첫 겨루기 대회를 그 당시 국가대표랑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국가대표였을 거예요. 임심자 선수랑 했는데 저는 긴장이 돼서 정말 발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더라고요. 이 발이 올라가야 하는데 발이 안 가요. 그런데 상대 선수는 저를 올라가면서 때리고 내려오면서 때리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 또한 즐거웠어요. 네 왜냐면 잘하는 선수는 이렇구나 올라가면서 때리고 내려오면서 때릴 수 있는 실력이 있구나. 나도 이렇게 될 때까지 해야지! 라고 하면서 졌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제가 즐긴다고 했잖아요? 지는 것까지 즐겁더라고요. 배우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겨루기도 많이 나갔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아기 둘을 출산, 딸을 둘 출산하고 나서도 다시 또 한 번 제가 겨루기 선수로 등록했더니 제가 우리나라 1호 주부 선수가 되더라고요. 최초 주부 선수 1호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몇 년 동안 시합을 안 때다가 아기 낳고 나서 시합을 나갔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16강부터 편 것 같아요. 근데 16강부터 제가 다 RSC로 이기고 올라갔어요. 결승전까지. 그런데 결승전에서는 1대 0으로 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1등한 선수가 유명해진 게 아니라 자고 일어났더니 제가 너무 유명해져 있더라고요. 전국대회 겨루기를 뛰었는데 아기 엄마가 낳아서 시합을 뛰었는데 결승전까지 갔다! 그래서 네 눈 뻤는데 방송국에서 너무 많이 전화가 와서 눈 떠보니 스타가 돼 있더라 하는 걸 그때 또 한 번 느꼈고 그렇게 이제 겨루기가 경기가 있던 시절이니까 저는 이제 계속 겨루기에 굉장히 재미를 또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겨루기 코치 생활을 굉장히 길게 했거든요. 그런데 품새는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지도자 교육 들어가고 여러 가지 교육이 항상 품새를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승단할 때마다 품새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품새는 계속 그때만 한 게 아니라 재밌어요. 틈틈이 학생들 겨루기 지도하면서요 틈새로 제가 이렇게 품새를 학생들도 저하는 걸 보기도 하고 또 그러면 학생들이 잘한다고 박수 쳐주니까 좋아서 또 더 하기도 하고 품새는 그냥 때와 장소 없이 즐겼던 것 같아요.
154. **면담자** 1:41:37 그러면 그 겨루기 선수로서의 서영애의 재능이나 또는 겨루기 선수로서의 최고의 성적이라 그럴까요? 그건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155. **구술자** 1:41:50 사실은 저는 겨루기를 좋아했지만 국가대표 선발전을 뛰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살펴봤더니 저를 누가 한 명이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대회를 나가기까지 끌어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경기로서 끌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마음에 남아 있어서 코치의 중요한 역할을 제가 이런 것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대회를 뛰었는데 진짜 국가대표 선발 저는 뛰어난 적이 없는 거죠. 그 이유는 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자들한테는 진짜 즐기면서도 뛰어야 하는 시합을 놓치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156. **면담자** 1:42:42 그 겨루기 선수는 그렇게 지내셨고 그 이후에 코치를 또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코치의 소속이라 그럴까요? 그은 어느 소속으로 겨루기 코치 생활을 하셨는지요?
157. **구술자** 1:42:57 네 제가 이전에 있을 때 양정여자중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에 겨루기 선수단을 제가 지도를 했는데... 제가 재미있게 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도 학생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시합을 다니고 저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몰라도 선수들이 시합 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무서운 게 아니라 오늘은 나가서 우리가 얼마나 이길까?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러면서 학생들도 기대를 가지고 대회를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국에서 랭킹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 딸이기도 한 김수양 선수도 국가대표가 됐고, 제가 지도한 선수 중에 장은숙선수도 국가대표가 됐고, 네 재밌게 해서 실력들은 좋았고, 최고 성적은 문화체육부 장관이라고 굉장하데 그 대회에서 있었는데 준우승인데 그것도 엄청난 준우승이거든요. 결승전에 4명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른 학교도 4명이 올라갔어요. 우리 학교와 그 학교의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3명이 우승했고 우리도 3명이 우승해서

마지막 남은 선수 하나로 우승이 판가를 나는데 여기서 마음 아픈 일이 있어서 저희가 준 우승을 했습니다.

158. 면담자 1:44:22 아마 제가 처음으로 사범님을 개인적으로 뵈을 때가 아마 그 시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아마 그 도장도 경영하시지 않았었나요?

159. 구술자 1:44:33 네 맞습니다. 도장도 운영하면서 네 선수 코치로서 같이 했습니다.

160. 면담자 1:44:39 이런 질문은 좀 안 해야 되는 질문인데 도장은 좀 어떠셨어요?

161. 구술자 1:44:44 사실 네 제일 처음에 도장했을 때는 6개월 동안 관원이 한 명이었어요. 지하실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지하실로 내려가면 그 냄새가 꽤 쾌한 냄새가 나니까 아마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 명을 잘 가르쳐 났어요. 집에서 생활까지도 생활 지도도 해서 이 어린 5살인 것 같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부모님께 안부 인사를 해라 들어오고 나갈 때 반드시 머리 숙여서 인사를 해라! 이런 지도를 해줬는데 6개월 동안 한 명이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개인 지도를 6개월 받았잖아요. 근데 너무 잘 배운 거예요. 이 학생이 어린이가 빛나기 시작하니까 관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정말 입회원서 쓸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때는 도장이 터질 것 같다! 라는 느낌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 그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죠. 많이 벌었는데 딸이 들게 딸이 굉장히 아팠었어요. 아팠어 가지고 그 번 돈이 우리 딸한테 다 치료비로 다 들어갔어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래도 어쨌든 도장하면서 그런 가정적으로는 딸이 아파서 마음 아프면서도 도장을 열심히 해서 잘 된 경험도 있고, 또 잘 되다가 계속 이게 오르막 내리막을 계속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도장 운영도

162. 면담자 1:46:28 맞습니다. 그 학교에서 겨루기라고 하는 분야에서 그래도 그 국가대표를 만들어 내고 사범님의 말씀처럼 결과보다는 과정에 즐기는 이런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는 그래도 일정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럼 그 양정여고에서는 몇 년 정도를 지도자 생활을 하신 건가요?

163. 구술자 1:46:54 양정여고중에서는 한 7년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전북에 내려와서 또 나이 많은 코치가 됐죠. 네 실천초중고등학교 또 겨루기 코치를 계속하다가 제가 이제 품새 쪽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니까 실업팀을 들어가게 되면서 겨루기 코치를 그만두게 됐어요.

164. 면담자 1:47:18 실천이라고 하면 그 지금 태권도원이 있는 그 실천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셨군요. 개인적인 인연도 꽤 많으시네요. 전북도민이 되기 이전에 그러셨구나. 그럼 그때는 대학을 마치고 실천 쪽으로 가신 건가요?

165. 구술자 1:47:38 실천에 있을 때는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네 왜냐하면 학생들은 수업이 다 끝나야 운동을 하니까 오전에 수업을 하고 가서 또 지도를 하고 또 여기 실천에 있으면서 또 대학원도 다니고 그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했는데도 그런 걸 피곤한 줄 몰랐어요.

166. 면담자 1:48:02 그 대학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만학도로서의 대학 생활은 어떠셨나요?

167. 구술자 1:48:09 저는 사실 그전에는 그랬거든요. 대학이 무슨 소용이 있어? 대학을 왜 가야 돼? 이거는 돈만 없애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대학 나온다고 내 삶이 달라지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대학 가기 전과 대학 간 후는 너무 다른 삶이에요. 물론 태권도라는 중심은 그대로 있는데 생활 자체가 저의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대학을 다님으로 인해서 아 어느 영화에서 그랬잖아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런 것처럼 나 대학 나온 사람이야! 이런 게 있더라고요. 대놓고 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나 대학 나온 사람이야 난 수준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게 저의 자존감을 높였고, 예전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대학 얘기가 나오면 저는 살면서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당하게 같이 얘기하면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에서 벗어난 거죠. 태권도를 즐기면서도 무언지 모를 열등감이 있었는데 그 열등감이 없어졌어요. 그게 최고의 선물이었죠.

168. 면담자 1:49:29 그럼 이제 실천에서 갔을 때는 겨루기 쪽으로 가셨다가 거기에서 이제 시작을 대학을 다니고 하시면서 겨루기보다도 이제 품새 쪽으로 막 방향을 바꾸게 되는 그런 시점이셨네요. 실천에서의? 그러면 이제 가치의 혼동이라 그럴까요? 환경의 변화라고 그럴까요? 겨루기라는 부분과 품새라고 하는 부분은 과정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모양새도 완전히 다른데 거기에서 혼동 혼란은 없으셨나요?

169. 구술자 1:50:05 일단 제가 실천에 코치로 있을 때 이제 전라북도 대회에 나가면 가장 나이 많은 쪽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루기 시합은 굉장히 큰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어린 후배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뤄야 되는 상황 이런 거는 저는 싫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겨루기 코치 자리는 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던 참에 이제 품새를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겨루기 코치를 계속할 것인가? 품새 완주군청에 이제 품새 선수로 들어가게 됐는데... 선수로서 있을 것인가? 를 생각했을 때 나를 더 빛내는 게 어떤 것인가를 봤어요. 근데 코치로서는 여러 명이 여러 명을 제가 이렇게 키워야 되는 상황이고, 선수는 서영에 오로지 한 명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로 있는 게 나의 삶에서 더 나를 더 값어치 있게 빛내주는 것 같다! 라고 선택을 제가 하게 됐죠.

170. 면담자 1:51:27 지금까지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쪽 돌아보면 이렇게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자의든 타의든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사범님도 그 실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다가온 것 같아요. 환경적으로 그래서 이제 겨루기에서 이제 서영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서영에게 만들어지는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정리를 한번 아시죠? 겨루기 선수로서의 서영에는 어떤 선수였고 겨루기 코치로서의 서영에는 어떤 코치였습니까?

171. 구술자 1:52:07 겨루기 선수로서의 저는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기고 지는 것 자체에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겨루기 자체 시험 뛰는 자체가 즐거웠거든요. 품새랑 똑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어? 내가 저 무대에 나가서 저 코트에 들어가서 지금 시합을 하는데 나의 팔 하나하나에 사람들이 박수를 칠 수도 있고 탄식할 수도 있고 그런 소리를 즐기는 게 똑같아요. 품새랑.

172. 그래서 잘하지는 못했지만 즐겼고! 지도자로서는 제가 지도한 학생들이 성장해 나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어.. 어느 날 애가 거리 조깅도 못하던 애가 이제 거리와 시간을 계산해서 상대방 얼굴을 탁 이렇게 발바닥으로 맞혔을 때 그런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의 그 성취감 만족도가 상당 했었어요. 그래서 그 코트에서 세권이라고 하죠? 지시하는 것을 굉장히 즐겼고 학생들도 그것을 즐겼고, 뭐 하나 뺄음을 게 없이 다 즐거웠던 것 같아요.

173. 면담자 1:53:32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대한태권도협회에 있는데 우리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이제 도장지원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저희가 갖는 이제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 중에 두 번째 우리가 이 시대에 태권도 지도자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 그 방향과 목표를 저희가 터줘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사범님께서 말씀하신 것 영예로 말하면 에티튜드에 관한 건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었는데 딱 사범님이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은 지도자라고 하는 게 뭘까? 사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자세와 태도가 도장과 태권도를 이끌어 갈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고민에 제가 내린 결론을 지금 사범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범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성장과 변화를 보면서 희열과 성취감과 만족을 느끼고 그것으로 삶을 살 때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쥘 사범이 될 수 있다! 는 게 저의 정의였거든요. 근데 지금 사범님이 아주 오래전에 실천에서 그 깨달음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건방진데 그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도복이 너무 근사하게 어울리세요. 멋져 보이십니다. 이 시대의 사범은 무엇인가?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면 제자의 변화를 통해서 성취감과 자존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 물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현재와 미래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지도자의 상! 사범의 상이 아닌가 그것을 사범님은 아주

래전에 깨달으셨네요. 이거 멋져 보이십니다.

174. **구술자 행복합니다.**

175. **면답자 1:55:45**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다시 품새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품새로 돌아오셨고 국가대표가 되셨고, 어 겨루기 지도자나 선수로서는 태극마크를 달지 못했고, 그렇게 탑 클래스에 있는 선수나 지도자는 아니었는데 이제 품새 쪽으로 오셔서 첫 인문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렇게 조명을 받게 되고 관심의 대상자가 되었는데 좀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국가대표가 돼서 이제 해외에 나가셨을 때 뭐 에피소드 같은 건 없으셨을까요?

176. **구술자 1:56:25** 같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중주국 선수라는 이유로 막 외국 선수들을 지도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77. **면답자** 분능적으로? 하하하하

178. **구술자** 네! 나의 경쟁자인데 초창기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외국 선수들을 막 지도를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179. **면답자 1:56:48** 워업장에서?

180. **구술자 1:56:49** 네 이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지도를 했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코치진에서 안 돼! 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런 일이 없어졌는데 초창기에는 그런 중주국의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선수끼리 왜 그랬을까? 똑같은 경쟁 상대인데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하면 중주국 선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선수들이 연습을 하면 외국의 선수들이 굉장히 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죠. 자기와 뭐가 다른가? 우리나라와 대한민국은 어떻게 다른가? 관심에 초점이 되고 있어서 때로는 상대방을 기를 누르기 위해서 하는 동작이 있고, 네 숨기기 위해서 안 하는 동작이 있고, 좀 그렇기는 하죠.

181. **면답자 1:57:50** 그때를 이렇게 조금 회상해 보자면 아마도 워업장이나 경기장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하는 연습의 방법이라든지 경기의 장면들이 아마 거의 다른 나라에는 표준이 되다시피 하는 그런 시대니까 아마도 그들에게는 좀 생소하고 또 배우고 싶고 부러움의 대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말씀 중에서 그 품새 단체전에서 무릎이 한번 다쳐가지고 본인보다는 이제 그 같은 팀원들에게 굉장히 미안했었던 기억이 있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그분들한테 메시지 한번 하시죠.

182. **구술자 1:58:49** 사실 이런 말하기조차도 미안할 정도로 정말 제가 죄인 아닌 죄인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친 상황에서까지도 계속 저는 일어나서 시도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본 미국 선수의 어머니께서 고맙다! 태권도는 이것이다! 를 제가 보여주고 있대요. 계속 시도하니까 일어나서 시도하다가 쓰러지고 쓰러지고 연습 이렇게 계속 하니까 그 자체만으로 너는 시합 먼 거랑 시합 먼 거나 다름없다! 라고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들어서 서영애로서는 서영애로서는 위안이 되지만 팀원로서는 아직도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 얼굴 보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선수를 얼굴 볼 때마다 진짜 어떤 표현이 못할 정도로 이 안에서 많이 이렇게 지금도 많이 움직이고 있어서 사범님들 정말 저로 인해서 시합 못 댄 거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안타깝고, 그 어떤 말로 해도 부족할 정도예요. 그렇지만 사범님들 그 이후에 잘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아직까지 도전하고, 있으니까 사범님들도 계속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범님들 실력 충분하니까요.

183. **면답자 2:00:49** 그 선수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면 마음으로부터 더 감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사범님께서서는 신앙적인 관점도 있지만 해외

에도 많은 분들에게 태권도를 통해서 태권도 전파도 하고 삶의 영향력도 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해외의 태권도를 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에피소드 좀 하나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184. **구술자 2:01:25** 네 그중에 하나 아까 이제 인사 시작할 때와 끝났을 때 달랐던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프랑스는 한 10년간 계속 가서 그 세미나를 계속했었는데 프랑스에 제가 부러웠던 게 있어요. 거기는 관원이 30년 된 관원 그리고 20년 이상 된 관원, 10년 된 관원들이 그 앞자리를 다 지키고 굉장히 오래 수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겠다! 라는 그 열정이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와 비교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일단 4단만 되면 사범의 위치고, 선수가 아닌 이상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 프랑스에서는 그 자리 내가 가장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어! 그 자리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 것 같아요. 도장에서 이렇게 유단자별로 줄서잖아요. 근데 우리 도장은 가면 성인보다 어린이가 줄을 이루고 있고 그 자리에 대한 자부심은 조금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외국 가면 체격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체격들이 굉장히 클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여주는 그 동작을 똑같이 표현하려고, 땀을 정말 열심히 흘려가면서 도복이 다 젖도록 운동을 하거든요. 그런 모습이 이 인상 깊었고, 이란에 갔을 때 여자 사범들이 실력이 정말 좋았어요! 여자 사범들이 그래서 그 어느 나라 갔을 때보다 이란에 갔을 때 여자 사범들이 실력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겨루기는 지금 이란이 가장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품새도 품새도 더 좋아 이란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종종 합니다. 이란의 여자 사범들이 실력이 정말 좋아요.

185. **면답자 2:03:55** 지금 아까 그 말씀 중에서 이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프랑스에서 오랜 기간을 수련한 친구들이 사범님 앞에서 그런 예의를 갖추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태권도가 체계를 이루는 몇 가지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대의 후배들에게도 주는 또 이 시대 도장들에게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만 좀 하면 제가 미국 보스턴에 갔을 때의 경험이었는데 그 도장은 성인 전문 도장이었어요. 근데 아주 허름한 도장의 시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성인뿐만 아니라 40-50명이 수련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에 이제 그 아주 열심히 하는 수련생들이 잠깐 휴식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관장님을 통해서 이제 그 개인 여성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를 봤어요. 당신 정도의 경제적 규모고 난 그분이 그렇게 하버드의 석학인 줄을 몰랐어요. 심리학이 굉장히 유명한 교수였거든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 분한테 물어를 봤거든요.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이런 공간에서 왜 이런 걸 하나 휘트니스센터 라든지 골프 라든지 뭐 정말 편하게 멋지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무술이나 스포츠 종목이 있는데 그랬더니 저한테 그 친구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태권도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저기 있는 김 관장님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게 너무 어렵다. 태권도가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어려울수록 거나 안 하면 되지! 근데 그 사람의 답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내가 도전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것을 내가 체육 체득을 하잖아요? 깨닫고 갔을 때의 그 성취감이라는 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한테 주지 못하는 그 성취감과 기쁨을 준다” 는 말을 저한테 했었거든요. 아마 사범님이 보신 것도 그런 것이 아닐까 이 말은 이 시대에 우리 태권도 지도자를 특히 도장 지도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기쁨은 기쁨이지만 깨달음이 주는 것은 즐거움에서 주는 기쁨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결국 우리 사범님들이 우리 태권도인들께서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는 깨달음을 주는 것이 아닐까? 특히 도장이 태권도를 통한 깨달음을 준다면 그것이 태권도가 정말 에펠탑에서도 LA에서도 저기 에디오피아에서도 계속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고 이 비슷한 느낌을 아마 사범님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느낌을 좀 가져졌는데! 이제 우리가 긴 시간 동안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범님께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아까 좋은 말씀 즐거라! 라는 말씀이 있으신데... 사범님은 누구 하나 다 하지 않았던 겨루기도 해보셨고 품새도 해보셨고, 흔히 말하는 태권도

녹취록 본문

<p>의 양쪽 축을 다 해보셨으니 그 다 해보신 인생의 선배 태권도의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한 말씀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p>					
186. 구술자	2:07:55	제가 이제 그렇게 길지도 않지만 짧지도 않은 50년 동안 태권도를 했는데, 우리가 태권도 분명히 행동철학이잖아요? 이 행동에서 나오는 그 몸짓이 우리를 얼마나 빛나게 하느냐? 는 뒤에 붙어 있는 도거든요. 도! 그래서 우리의 그 손짓과 발짓이 정말 빛을 내는 도구로 쓰일 수 있게 거기에 우리의 손짓과 발짓 맨손으로 주먹과 이 발차기에 정신이 들어가면 정신이 들어가면 그게 정말 외국인들이 그래서 태권도에 열광하는 게 아닐까? 싶고! 우리 사범님들도 그렇게 정신을 같이 제자들에게 불어넣어주며 본인도 사범이라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계속 성장해 나가잖아요? 저도 아직도 깨달음을 가지고 하면서 하루하루 깨달음이 있거든요! 계속 깨달아 나가듯이 정신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태권도 정신인이 우리 동작 안에 들어가게 수련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 단순하게 힘있게 차서 상대방 점수 하나 더 얻고 내가 폼새 경연 대회에서 잘해서 더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똑같은 동작임에도 정신으로 빛나게 하자!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187. 면담자	2:09:28	네 한 개인의 서영애라는 사범의 그 인생 이야기와 그 긴 세월 동안의 굴곡 어찌던 굴곡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패턴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또는 텍스트를 통해서 볼 태권도인 또는 이것을 경험하게 될 분들에게 커다란 영감을 주시는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 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사범님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188. 구술자	2:10:07	감사합니다.			
189. 면담자	2:10:10	사범님 이제 전라북도에서 제2의 삶을 살고 계시는데 예전에 우리가 태권도원을 조성했을 때 무주 태권도를 결정할 때도 이제 그때도 전북에 계셨는데 그때의 지역에서의 분위기는 어땠었습니까?			
190. 구술자	2:10:29	네 일단 타 지역과의 경쟁도 경쟁이지만 태권도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주와 진안이 상당한 열의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무주는 전 군민에게 도복을 입혔어요. 그래서 전 군민들이 도복을 입고 밖에 돌아다닐 정도로 그렇게 열성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태권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호! 그 낯설기도 하지만 너무 저도 모르는 다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태권도가 중요하구나 태권도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하는구나! 사실은 저는 이제 이게 분위기가 경주로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무주로 왔잖아요? 그러나 국민들의 열의만큼은 와도 충분할 정도의 열의가 있었어요. 무주군은 반티 여름에는 반티 가을에는 긴티까지 이렇게 도복의 모양으로 전 국민이 입고 다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만큼은 정말 최고였었던 것 같고요. 또 태권도 의원이 제가 살고 있는 전북에 있음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제가 한 번이라도 더 가보고 또 두 번 갈 거 세 번 가고 세 번 갈 거 네 번 가고 또 태권도원이 있는 전라북도에 살고 있다! 라는 그 자부심이 외국인에게 말할 때도 설명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 태권도원 근처에 살고 있다! 라고 말을 하기도 좋고, 네 자부심이 이 안에 자부심이 상당합니다.			
주요 색인어					

과제명	여성태권도인 구술채록		
구술자	임신자	면담자	곽정현
녹취자	구현성, 김진범	시간	127분 16초
면담일시	2024년 9월 24일	면담장소	DMC다락스튜디오
파일명	Oh_24_임신자_01.mp4		

<file:Oh_24_임신자_06 녹취록 공개본>	
임신자사범님	2024. 09. 24. 화 오후 5:00 · 127분 16초
1. 면담자 00:00	본 인터뷰는 태권도진흥재단 국립태권도박물관 태권도 지식자원 3차 아카이빙 여성태권도인 구술채록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면담입니다. 일시는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오후 5시이며, 장소는 DMC 첨단산업단지 다락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구술자는 임신자이며, 면담자는 곽정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임신자 교수님의 면담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 교수님의 경험을 통해 한국여성태권도연맹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기대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질문지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연, 월, 일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구술자 01:04	제가 생년월일은 벌써 이제 1964년으로 넘어가죠. 1964년 11월 일자도 얘기하나요? 그러게요. 11월 19일
3. 면담자 01:14	교수님 안 지 꽤 됐는데 제가 사실 기억합니다. 그렇죠 교수님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 구술자 01:24	저희는 평범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저희는 딸만 넷인 딸만 넷을 갖고 있는 그러한 평범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 면담자 01:36	부모님 두 분 어떠셨는지요?
6. 구술자 01:40	말 그대로 평범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자신의 일을 하신 분이요 마찬가지로 어머니도 자녀들을 위해서 키우고 그렇게 했던 그런 평범하신 그런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7. 면담자 01:57	여기에는 없지만 저는 교수님의 부모님께서 사실 당시 여성들이 태권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했을 텐데 부모님께서 어떻게 그걸 허락을 해 주셨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8. 구술자 02:13	가끔씩 듣는 질문이기는 한데... 그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딸이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딸을 키우면서 넷 중에 한 녀석은 그래도 조금 뭔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그 다음에 좀 뭔가 가정의 기둥으로 역할을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 않았나? 그러면서 제가 태권도를 하겠다는 생각이 아마 결국 처음에는 반대했죠. 그 당시에 한 70년대로 기억하는데 70년대면 지금하고는 굉장히 많은 그런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여성이 태권

- 도를 한다? 당연히 반대했을 건데 아무래도 우리가 딸만 있는 집이다 보니까 저한테 뭔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9. 면답자 02:56 부모님도 굉장히 열려 있으신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0. 구술자 03:04 지금 금방 얘기한 것 같이 저희는 제가 넷째 딸! 딸 넷 중에 제가 셋째 딸 옛날 같은 선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정도로 좋게 셋째에 대해서 평을 잘해 주시는데 제가 그 덕분에 거꾸로 있습니다. 거꾸로 지금 셋째 딸로 태어났죠.
11. 면답자 03:26 네... 형제자매의 우애는 어떻게 좋으셨죠?
12. 구술자 03:30 저희는 아무래도 지금도 그거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딸만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우애를 가지고 지금도 그걸 이어가고 있습니다.
13. 면답자 03:40 혹시 네 자매 중에 좀 특이한 이런 부분들이 있으셨나요?
14. 구술자 03:46 그 특이한 사람이 바로 저인 것 같아요
15. 면답자 03:47 그러네요.
16. 구술자 03:49 나머지 분들은 다 평범하게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굉장히 열심히 사셨고 그리고 또 좋은 반려자들 만나서 평범하게 아들딸 낳고 손주 손녀까지 이어가면서 잘 살고 계십니다.
17. 면답자 04:04 그럼 전반적인 집안 분위기와 가정형편은 어떠셨는지?
18. 구술자 04:10 음 그러니까 그 당시는 한 70년대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특별하게 부유하다고 할 수 없고,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막 시작했던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따뜻한 가정을 가지고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님의 헌신적인 그러한 사랑으로 이렇게 생활을 했던 그런 평범한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 면답자 04:34 그럼 가훈이나 이제 집안에서 혹시 가장 강조되던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20. 구술자 04:40 저희 아버님이 강조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성실, 근면 이걸 것 같아요. 성실하게 근면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이런 정도만 갖고 말씀을 늘 하셨던 것 같아요.
21. 면답자 04:52 그 아버님의 그 말씀을 교수님께서 항상 굉장히 잘 지켜오신 것 같아요. 제가 제가 곁에서 봤던 교수님 보면 딱 그거에 맞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학창시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언제 초중고를 언제 진학을 하셨는지 좀 여쭙보겠습니다.
22. 구술자 05:15 그러나 통상적으로 8살이니까 1971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971년에 초등학교를 진학을 했고,요. 지금 학교를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죠?
23. 면답자 05:27 예 그냥 초중고대 뭐 이렇게 진학하셨던...
24. 구술자 05:30 초등학교 때야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도 성격이 정말 외향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뭔가 책임감을 가졌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뭔가 가정에 대해서 특히 부모에 대한 생각이 깊어 있었던 것 같고,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7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저는 7살 때 어머니가 시장 그러니까 심부름을 그때 많이 보내잖아요. 그러면 늘 저보고 갔다 오라고 했고, 또 딸들 중에서 그래서 갔다 오면 그 당시에 이렇게 집에 옆에 보면 그 당시에 70년대까지 없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운명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쌀집과 지금 식복집, 우리 집 그 사이에 태권도 도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태권도 도장이 그 당시에는 기억이 잘 안났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1층에 그 당시에는 일본말로 우리가 다다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깔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흙바닥에서 바닥을 다져놓은 그러니까 진흙 같은 그런 느낌에서 잘 다져져 있는 곳에서 성인들이 하안 도복을 입고 그 당시에 광목도복이잖아요? 광목도복을 입고 운동하는 데 제가 엄마가 심부름을 가는 그 과정에 있었던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그 거기를 유심히 보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애가 심부름을 보냈는데 안 오잖아요.

- 부모님은 굉장히 걱정이 되니까 나와서 보면 개가 좁은 애가 하나 들고 앉아서 그걸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저도 그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하얀 도복에 까만 띠를 들고 그 다음에 샌드백 같은 큰 거 지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그런 거를 놓았던 성인들이 그 하는 모습을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태권도를 접하게 된 계기가 된거죠.
25. 면답자 07:37 정말 운명처럼
26. 구술자 07:39 라고 생각을 하죠?
27. 면답자 07:40 접하신 것 같네요. 또 도장이 어떻게 1층에 있다 보니까.. 또 개방형으로 어떻게 돼 있었나 봅니다.
28. 구술자 07:46 그렇죠! 그 당시에는 고층 건물이 없었던 시대고, 1층에서 창고 같은 허름한 곳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접하게 됐었던 계기라고 할 수 있겠죠.
29. 면답자 07:58 이따 태권도 언제 시작하셨는지 여쭙보려고 하는 거를 벌써 나왔어요. 벌써 다 해 주셨네요. 그러면 중학교 때는 어떠셨나요?
30. 구술자 08:09 이미 저는 초등학교 때 운동을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시작을 해서 그리고 나서 제가 중학교 때 같은 경우도 이미 운동을 했기 때문에 태권도의 길을 들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나의 길이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중학교 역시도 태권도 이사를 갔어요. 초등학교에서 이사를 가서 있는데 그 바로 우리 집 앞에 또 체육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지금도 잘 아는 지금 실버태권도하고 있는 김영수 판장님을 그때 만난 거죠. 그때 그때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니 중학교 3학년이라 초등학교 3학년이고 그게 계속 이어지면서 제가 사범님이 중학교에 학교에서도 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체육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시합을 뛰었던 그러한 경험이 그대로 중학교까지 이어지고 중학교 때에서 만약에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남녀 구분이 없었나봐 속된 표현을 아파 되게 맞고, 코피도 터지고 그러면 이제 안했을 텐데 그럴 때도 시험 나가서 동네 게임이기는 한데 그래도 메달은 땀나 봐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내가 나의 체질인가 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도 이어서 운동을 하게 됐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해서 태권도가 시작이 됐고, 지금 소위 얘기하고 있는 엘리트 스포츠인들이 걷는 가장 기초적인 거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인천에 있었으니까? 인천체육고등학교 제가 당연히 진학을 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역시 성적이 나오니까 정말로 하나의 코스로 초중고 대학을 다 태권도를 하는 그런 학교로 제가 학교 생활을 진학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31. 면답자 11:08 아가 초등학교는 이제 71년에 진학을 하셨는데, 그러면 중학교는 77년이신가요? 76년이가요?
32. 구술자 11:30 계산을 좀 해봐야 돼. 77년 그렇죠 76년이 6학년이고 77년이 1학년이 되겠네요. 77년이 1학년이 되겠네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도 마찬가지로 그게 77년이죠? 78년도 79년도까지가 우리가 3년이니까... 그 기간에서도 그때는 진짜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33. 면답자 11:52 중학교 때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34. 구술자 11:54 그렇죠 중학교에도 이미 태권도 태권소녀가 됐죠. 예... 그래서 중학교를 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역시도 그때는 이 소녀의 티가 벗어나나요? 그러니까 77,8,9니까 80년도에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게되는것이죠.
35. 면답자 12:14 중학교는 상인천여중이셨죠?
36. 구술자 12:19 상인천중 맞습니다.
37. 면답자 12:20 고등학교는 인천체고
38. 구술자 12:21 체육체고 제가 인천 출신이기 때문에
39. 면답자 12:24 당시 인천체고에서도 태권도부가 거의 초창기라고

40. 구술자 12:28 제가 5기예요.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제 1기가 있고, 제가 5기죠 초창기라고 봐야죠.
41. 면답자 12:35 인천체고 5기셨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 대학교를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에 진학을 하셨는데, 당시 태권도학과가 처음이었는데 어떤 계기로 경희대 태권도학과에 입학하셨는지?
42. 구술자 12:52 그렇죠 고등학교가 80 우리가 제가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1기이면서 83학번이니까 82년까지 고등학교를 다니고, 80 81 82 딱 맞죠? 휴학도 안 하고 제가 아까 모범생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일정을 잘 이끌어 갔는데... 들어가는 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때도 말씀하신 것 같이 제가 고등학교도 이미 중학교에 국가대표가 됐으니까! 고등학교 때도 이어졌죠? 그래서 그 여세로 대학의 태권도학과가 그날 갑자기 운명처럼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1기를 뽑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저는 체육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당시에 특기자 혜택이 있어서요. 그래서 특기자 혜택이 있어서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열심히 열심히 라기보다도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가 체육고등학교의 특별전형이기 때문에 그제 체육고등학교 전국에 있는 체육고등학교 학생들끼리만 경쟁을 하는 구도였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1등급에 속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좀 했고, 반장도 하고, 대계 모범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등급에 체육특기 체육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특별전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됐었죠. 그리고 그때 학력고사인가요? 학력고사도 생각보다는 운동을 많이 할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위 그룹에서 속하는 점수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못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저는 연세대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사실은 연세대학교 진학해도 1등급에 속하는 거니까 학교에서 국가대표고 그러니까 아마 갈 수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같은데요. 그 당시에 제가 왜 연세대학교를 택했냐 하면 그 당시에 연세대학교 총장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총장기를 가면 그 캠퍼스 자유로움 그 다음에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오고 가는 모습 그 다음에 경 연세대학교 총장기를 합에 있어서의 어떤 경기를 경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느껴지는 그러한 감정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졸업하면 반드시 나 연세대학교를 갈 거야 라는 목표가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대학을 진학하는 그 순간에 경희대학교에서 특기자로 굉장히 많이 뽑았어요. 1기라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10명이 넘죠. 11명이나 12명을 뽑았어요. 특기생으로 거기에서 여성이 4명, 여학생이 할 수 있는 게 4명, 나머지 6명 7명 해서 11명 정도가 그날 특기자를 뽑는다고 나와 통보가 되니까... 알려지게 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등록금의 부담이 느렸는데 등록금 부담을 그때 그렇게 여유로운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4년장학생을 주겠다. 국가대표니까 우리 학교로 와라!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죠. 무조건 가는 거죠. 그게 이제 경희대학교하고 저희의 만남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43. 면답자 16:09 예 교수님 뭐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 지금 제가 여쭙보려고 한 걸 지금 다 말씀을 거의 해 주셨는데 굉장히 모범생이셨고, 또 국가대표까지 하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이제 태권도의 길로 계속 가고 계시지만 혹시 장래희망이 태권도 관련이 아니라 처음에는 장래희망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44. 구술자 16:32 장래희망이 그 당시에는 이미 이미 저는 국가대표를 하고 국제대회에서 두각이 있었던 친구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래희망은 그냥 훌륭한 아니 그 당시의 장래희망은 세계챔피언이죠! 오로지 인생이 저의 프리즘은 무조건 태권도였으니까 맞춰져 있는 거니까 그 다음 스텝은 뭐냐 세계챔피언이 되는 것이죠! 세계챔피언을 되기 위해서 나는 경희대를 꼭 가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45. 면답자 17:04 아주 초등학생 때부터-
46. 구술자 17:08 초등학교 일수 있고, 꿈은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죠. 그 다음에 국가대표가 성취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나의 목표는 세계챔피언이야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것이죠.
47. 면답자 17:19 소위 말하는 천상 태권도인이셨네요.
48. 구술자 17:22 그런 것 같아요.

49. 면답자 17:24 그리고 희망을 다 이루시기 이루셨네요. 국가대표도 하셨고 그렇죠 세계챔피언도 하셨으니까 예 맞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항상 느끼고 있었지만 제가 또 이렇게 교수님하고 면담 하면서 더 대단하신 것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여쭙볼 부분이 다 됐네요. 태권도는 굉장히 교수님한테 삶의 의미셨던 것 같은데요.
50. 구술자 17:46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 설정이잖아요. 자기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이 그 당시에는 잘 몰랐죠. 어렸으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나는 나는 뭐 뭣이 되고 싶어 뭣 무엇을 나는 꼭 할 거야 그거를 위해서 나는 인내를 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극복해야 돼! 이 목표를 위해서 나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라는 것을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교육을 하셨는지 내가 잠재의식 속에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성공을 해야지 지금같이 어려운 우리 집을 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도 부모님도 도와드릴 수 있을 것이다. 형제도 도와드릴 것이다. 이런 책임감이 조금 강했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이것만큼 내가 해야 돼! 그런 것들에 대한 절제 이런 게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태권도 정신 아닌가요? 그게(웃음)
51. 면답자 18:46 항상 강조하시는 태권도 정신이 그때부터 시작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태권도에 대한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려고 했는데 교수님께서 굉장히 다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럼 태권도를 이제 시작했을 때 기억이나 사실 에피소드도 아까 그 찰집 가시면서 식료품 가게 가시면서 또 이런 부분들이 참 에피소드 초반 시작하셨을 때 에피소드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까지 태권도 진학이나 이런 모든 게 태권도와 다 연관이 되셨었는데 그럼 태권도를 배우 시면서 혹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52. 구술자 19:26 태권도 어렸을 때... 어렸을 때 태권도를 배우는 거는 무조건 글썩요. 이제 그 당시에 특히 어려웠던 것은 이제 태권도도장에 가면 거의 남자들이 많잖아요. 학생들도 아이들도 다 남자애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면 어떤 신체적인 접촉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내가 어느 순간에 이걸 참고 견뎌서 이어가기는 하는데 내가 더 많이 다치는 거죠. 더 많이 아픈 거죠. 뭔가 상대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부상에 대한 그런 염려와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내가 그러면 이거를 타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걱정?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부상당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죠.
53. 면답자 20:20 그럼 또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지금의 수련 환경과 과거의 태권도 수련 환경이 좀 많이 달랐던 부분들이
54. 구술자 20:31 그 당시에는 그냥 성인 남녀노소 이런 게 없이 똑같이 가리켰어요. 여자들만 이렇게 케어해 주고 초등학생만 케어해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이 훈련을 하고 그 당시에는 그리고 우리 때만 해도 이 학교에서 체육관이 아닌 학교에서도 전체 전교생이 운동을 하고 그랬었던 시대가 70년대였거든요. 그러다가 80년대에 오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분리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학교체육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구분할 수 있잖아요. 도장은 생활체육인 거고 과거에는 생활체육 도 학교체육 이런 게 없었죠. 그게 구분되는 게 한 2000년대 이후인 것 같은데 그전에는 다 학교 체육이라서 팀에서 운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 선수들만 했기 때문에 이미 선수가 된 거예요. 아마추어라는 개념은 도장이라는 개념은 떠난 거고, 학교체육에서 선수를 만 대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오로지 태권도 선수로서 지금 얘기하는 소위 경기 태권도를 우리는 배운 거죠. 무도 태권도라는 개념보다 그래서 경기 태권도에서 선수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의 어려움이 있었고, 또 부상에 대한 걱정! 또 한 가지는 제가 체급 경기잖아요. 태권도가 제가 체중을 굉장히 많이 빼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지금! 제가 우리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 키에 우리가 지금의 태권도 전자호구 태권도를 했으면 우리는 예선 탈락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학생들한테 농담 삼아서 하죠. 지금은 애들이 180,190 이 아니던 거의 선수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우리는 작은 선수가 큰 선수는 이걸 잘 있는 시대니까 그리고 작은 선수라고 하더라도 이제 근육이라든가 파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으면 상대 선수를 제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키에 비해서 체중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한 지금 하면 이제 기업을 하실 텐데 한 6kg 7kg씩 빼고 시험을 뛰었어요. 그래서 그런

- 체중 조절하는 게 저는 그 당시에 가장 어려웠어요.
55. 면답자 22:47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 편급부터 밴텀, 페더까지 뒤흔었다고 알고 있는데 중학교 때까지 이제 편급이셨던거고...
56. 구술자 22:58 제가 크게 큰 아이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약하고 여리여리한 여자아이 소녀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급 부터 차츰차츰 하고 운동의 양이 많으면 많으니까 많아지니까 이제 근육이 붙게 되고, 그러니까 체중을 감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또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체중 감량이 가장 큰 부담으로 왔었죠 사실.
57. 면답자 23:24 제가 교수님하고 같이 많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전혀 태권도하지 않게 생기셨는데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또 막상 도복 입으면 전혀 달라지시는 교수님의 모습이 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태권도를 시작하시면서 태권도가 삶이라서 그러셨나 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러한 상황에서 태권도인으로서 그러면 교수님께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되었던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58. 구술자 23:56 태권도인으로서 자랑스러운 거? 뭐 이 자체가 자랑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태권도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한다면 제가 태권도를 했고, 여성이고 초창기에 했다! 라는 거 그리고 태권도가 갖고 있는 장점은 이제 신체 관련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정신에 대한 그 다음에 강인함 이런 건데 그런데 그게 왜 이제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태권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신체와 신체를 통한 정신의 강인함이 가능할 수 있고, 저는 이게 격투기기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을 강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체 운동은 우리가 이 태권도 외에도 스포츠와 관련되어져 있는 다양한 그런 신체 활동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권도라는 것이 어떻게 정신을 강하게 만드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격투기죠. 상대를 제압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굴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몸으로 부딪히면서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거는요. 게임하고 일반화되어져 있는 어떤 경제적인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한 어떤 격투적인 그러한 요소적인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이 신체를 통해서 더욱더 정신을 강하게 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59. 면답자 25:25 제가 교수님 옆에서 지켜보면 항상 태권도 정신을 가장 잘 실천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장이나 태권도 경기장에서 혹시 기억에 가장 남는 그런 순간이나 에피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60. 구술자 25:42 경기장에서의 에피소드는 마지막인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경기라고 볼 수 있죠. 제가 혼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이 1983년 세계대회에서 한국에서 했었던 세계대회에서 제가 금메달을 따는 그 순간이에요. 챔피언이 되는 것! 그러니까 그저 저한테 잊지 못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렸을 때는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그 다음에 성장을 하면서 대학교 때는 세계챔피언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까 그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 하잖아요. 제일 힘들었던 게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보다는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쪽에서 수십 수년을 이끌어가면서 그 목표를 다해서 내가 세계챔피언이 되는 순간에 나는 좀 다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모든 하고자 하는 것들을 제가 인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바로 이제 85년이예요. 85년 세계대회가 서울에서 했을 때 그때 제가 세계 챔피언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지금 가끔 동영상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테브랄랄로의 그 친구가 아직도 흑인 여성이잖아요. 머리는 나보다 하나가 크고, 그 친구를 이겨서 제가 심판이 저의 손을 들고 그 다음에 태극기에 시상대에 올라가서 태극기가 계양이 됐을 때 가슴에서 느끼는 뜨거운 그런 눈물 또는 그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61. 면답자 27:18 83년이 아니라 85년입니다. 그러면 그 무카스에 나왔던 레전드 영상
62. 구술자 27:25 그렇죠 바로 거기서 예
63. 면답자 27:27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이 교수님께서 전혀 지지치 않으시는 것 같고, 표정도 전혀 바뀌지

-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저도 이제 댓글을 봤는데 교수님 그때 교수님도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64. 구술자 27:45 인간의 잠재력이라는 게 무한하다는 것이 저는 그럴 때 느껴지죠. 그러니까 그때 체중을 최소한 5kg 이상을 뺀 상태에서 지금은 우리가 체중을 빼면 체중을 빼게 되면 지금 전날 하잖아요. 체중을 그러니까 그리고 폭 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시합을 뜨는데 우리는 당일날 아침에 아침 7시에 체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경기는 9시에 시작해요. 그러면 그 인터벌이 2시간에 모든 걸 다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을 하면서 예를 들자면 국기원에 있는 우리 우리 세대 선수들은 다 아는 내용들이예요. 국기원에서 그 멀건 설령탕 맛이 그렇게 골맛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희는 아침에 설령탕 한 그릇을 기대하면서 그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 체중을 조절하는 데에 인내심을 가지고 그거를 기다리면서 운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날 또 마찬가지로요? 아침에 해서 체중을 달고 하지만 어렵지만 체중을 통과했다는 안도감! 올 하면 에너지가 막 올라와요. 밥을 한 그릇 먹었을 때 에너지가 또 올라오죠? 그리고 한 공기 한 고비를 넘길 때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게 초인적인 힘이 아닐까? 인간이 갖고 있는 무한한 에너지 중에 하나를 제가 그때 꺼내서 썼던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65. 면답자 29:13 저도 진짜 그 영상을 봤는데 짝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아니
66. 구술자 29:18 그 당시에 또 3분 3분 3회잖아요. 맞아요.
67. 면답자 29:22 어떻게 경기가 끝나셨는데 저렇게 표정 다나 변함없이 저렇게 마무리를 하시나 이것을 때도 너무 덩덤하시면서 그런 걸 보고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그게 경기셨군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부분이... 다시 한 번 또 놀라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또 선수로서도 최고의 선수셨지만 제가 기억하는 교수님은 태권도 지도자로서도 정말 최고의 지도자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태권도 지도자로서 활동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제자나 또 에피소드는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68. 구술자 30:04 잠깐 선수를 하면서 끝나고 나서 지도자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세계챔피언이 끝났으면 그 다음 스텝은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을 제가 또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게 내 꿈이구나!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훌륭한! 이라는 쪽 저는 붙이고 싶더라고요. 훌륭한 위해서 내가 될 해야 되겠다는 거를 그 당시에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훌륭한 위해서 나의 내면적인 것들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을 채워가려고 노력을 또다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나아진 게 나오면 그때 다시 얘기를 하고, 지도자로 하면서 제가 상명 제일 먼저 지도자로 시작한 거는 우리 문성 김영수 관장님이 했던 문성영고 태권도부가 그 당시에 무이푼 하나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제가 훌륭한 지도자 지도자가 되는 게 꿈이었잖아요. 다른 쪽으로 안 가고 바로 사범님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정도 실습 비슷하게 애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애들이 되게 그 당시에는 선수인지 지도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제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상명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거기에서 만난 친구 중에서 특이하게 인생이 나는 게 황은숙 선수라고 있어요. 황은숙 선수가 그 당시에 제가 스토리가 좀 길어지니까 그 선수가 좀 얘기를 할게요. 그 선수가 원래 굉장히 잘했던 선수인데 고등학교 때 이 친구가 대학을 상명대학교 그게 다른 이야기군요. 이거 황은숙 선수가 스토리가 기억이 나는 게 그 친구가 이제 다른 친구의 소개로 들어왔는데 운동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상명여대는 그 친구가 굉장히 잘했던 선수로 기억하고 이 친구가 이제 나중에 저하고 인천시청에서 다시 만나는 그런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다시 만나서 인천시청에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운동을 대학을 졸업하고 관리를 못하니까 체중이 확 불어난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제가 볼 때 키는 작지만 여성 선수로서는 굉장히 뛰어난 순발력을 갖춰 있더라고요. 뒤로 여기서 우리가 백주같이라고 얘기하나요? 그거를 몇 번씩 할 정도의 순발력이 있는 탄력이 좋은 친구죠. 그래서 그 친구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상명여대한테 제가 인연을 충분히 못 가고 있다가 인천시청에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공백이 있는 바람에 가는 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마침 제가 인천시청에 제 고등학교 은사님이신 윤치영 선생님님께서 인천시청을 창단을 했죠. 창단하는 건 또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개가 가지

못하고 다른 데 가지 못하는 예를 제가 팔았어요. 테리고 와서 인천시청에서 이제 팀으로 받으니까 체중을 개가 몇 kg를 빼야 되냐 하면? 나보다 더 많이 뺀 거예요. 한 7kg 8kg까지 빼고 마침 그때 대타 때 국가대표 참가할 수 있는 최종 티켓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예를 국가대표 까지 이어지게 하고 인천시청에 들어와서 결국은 제가 이 친구를 체력 관리 그 다음에 체중관리를 잘해서 결국은 세계챔피언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가장 기억에 남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강예은 선수라든가 조양민 선수 이런 선수들이 기억에 남아요. 그런 거는 좀 이거는 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 그 당시에 2000년대가 시드니 올림픽이 처음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들어가는 그런 해였어요. 그러니까 2000년이니까 1999년인가요? 그렇죠 1999년에 올림픽 선발전을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자실업팀이 삼성과 인천시청 그 다음에 대학팀으로는 경희대 한체대 이 기라저런 같은 대학이 이 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으로는 상상을 못하는데 그 당시에 1999년에 선발전을 우리가 피어나 피를 많이 경쟁적 판계를 해서 한 3회에 걸쳐서 평가전을 하는데 그 당시에 2000년대 정식게임이 됐으니 얼마나 많은 팀들이 가고자 하는 욕구들이 얼마나 강했었어요? 이거야 돼! 거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체중에 좋은 선수를 인천시청 팀은 제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테리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올림픽에 있었던 다른 이선희 선수나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정재은 선수 그 다음에 강예은 선수 그 다음에 조항미 선수 이렇게 선수 중에 두 팀 두 아이가 우리 선수였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한 명이라도 만들려고 제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수 때는 체중이 안 빠지던 그 체중이 지도자 하는 그 순간에 제가 5kg인가 6kg가 빠질 정도로 저절로 빠질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었는데 가장 아쉬웠던 거는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면 컬러피케이션 해서 자격을 따고 오잖아요. 그 나라의 국가에다가 부여하는 자격을 그런데 이 두 선수가 그 당시에 다 따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초창기에 제도권에 있는 분들이 이거를 꼭 체로베이스에서 시작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제도권에 대해서 그 당시에 엄청난 불신이죠. 체로베이스에서 시작하제! 이게 그런데 저는 한 사람이야. 다른 팀은 그거 맞다. 체로베이스에 시작하제! 라는 게 더 강했죠. 그래서 아무리 제가 주장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는 다 무시가 되고 컬러피케이션이라는 자격을 국가에서 따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저는 제 나름대로 불이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도 자격 부여에 대한 것도 못 받고, 체로베이스에서 시작하면서 세 경기를 동일하게 뛰었죠. 그래서 그때는 1차전 2차전 3차전에서 한 번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경기로 계속 이어지다 결국은 한 명도 초회가 못 나왔죠. 그때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 선수 황은숙 선수, 조항미 선수 그 다음에 강예은선수 선수가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했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도 죄의식을 느끼는지 지금도 죄의식이 있어요. 개를 보면 괜히 미안해요. 제가 저 친구들이 좋은 팀을 만났으면 좋은 힘 있는 감독을 만났으면 나갔을 텐데 그런 부담감이 지금도 가끔씩 가끔씩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3명을 뺐고 싶네요.

69. 면담자 37:08 그때로서는 정말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당시에 교수님은 조금 멀리서지만
 70. 구술자 37:13 지금도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아련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이제 무거워지는 게 아직도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제가 많이 충격을 받았나봐요.
71. 면담자 37:23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쨌거나 티켓 따오면 조금 주잖아요?
 72. 구술자 37:29 그렇죠! 최선을 펼 수 있게만 하고 배려를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73. 면담자 37:35 정말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럼 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성태권도인으로서 겪은 또 도전과 극복 과정일 수도 있으시겠네요.
 74. 구술자 37:50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그래서 제가 현장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천시청을 있으면서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감독을 했고,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임무가 안 있었을 거예요. 인천시청에 여자가? 임신자가? 감독이야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대단한 거였고,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과감하게 저를 발탁해 주신 분이 사실은 지금 미국에 계신 윤치원 선생님이 저를 발탁을 했다는 건 정말 그거는 선택이었던 거죠. 그 많은 사람들도 많은데 여자를

제자이기는 하지만 여자를 갖다가 저를 거기다 기회를 줬다는 게 지금도 감사를 드리려고요. 그런데 그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아이들을 선수들을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은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 때문에 애들이 진 것 같은 그 순간 자괴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서 제가 현장에 더 이상 못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죠. 제가 사랑하고 그 했었던 제자들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태권도계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있었던 해서 결국은 제가 태권도계를 떠나게 돼요. 그게 가장 큰 계기였어요. 그게 제가 스스로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이 감독으로 있는 이 순간 자체가 애들한테는 내가 지도자로서 정말 못하는 일을 하는 것 같은 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제도권의 불신감이 그때 생기게 됐어요. 지금이야 뭐 다르지만 그 당시에 제도권의 불신을 불신임을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내가 좀 더 더 성장을 해서 이 제도권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가야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인천시청을 떠나고 공부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협회 제도권에 가서 이사도 하고 여성연맹도 만들고 그런 게 저한테 뭔가를 태권도계를 이 사회를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원인이 그런 거로 인해서 제가 조금 더 좀 크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죠.

75. 면담자 40:19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도 참 진짜 여성태권도 초기 여성태권도인으로서 정말 많은 어려움도 겪으신 것 같고, 그런 게 또 교수님이 또 하셔야만 했던 도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좀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도 많으셨지만 그래도 잘 극복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께서도 계속 태권도와 관련된 직업을 이렇게 선택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태권도와 관련된 직업을 이제 지금까지 하고 계신 직업을 선택하신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76. 구술자 40:58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제 인생 인생 순간순간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는 게 제 임신자라는 사람은 늘 이렇게 혜택만 받은 거 아니야? 그리고 늘 꽃길만 걸어가는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 꽃길이나 나리 가지밭을 꽃길로 꽃길을 바꾸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지 처음부터 꽃길을 걷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바깥에서 보이는 것은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가시밭길이에요? 하나하나가 태권도계에서 뭔가 노력을 하고 정말 우리가 얘기하면 정말로 전력을 다한 것 같아요. 때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또는 우리가 분명히 현장에서 느끼는 거잖아요. 아이들과 제가 아이들과 거의 집을 안 갔어요. 집을 안 갔어요. 아이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있는데 우리 팀 애들이 되게 되게 제가 운동을 굉장히 왜냐하면 믿을 수 있는 것은 운동의 양쪽에 승부할 수 없어요. 제가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사교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누구 심판을 만난다든가? 누구 윗분한테 할 수 있는 대접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저한테는 특히! 오로지 애들만 담금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체력을 많이 키우고 기술 키우게 하고 그러니까 24시간이 온통 선수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선수의 숨소리만 들어도 제가 아픈지 안 아픈지를 제가 알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확장할 가는 것까지 제가 밤에 머릿속에 두고 같이 잠을 자고 기숙을 했었으니까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성 지도자로서의 장점이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피소드를 또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이 이전에 굉장히 예를 들자면 우리가 술도 마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술을 잘 못해요. 그래서 분명히 선생님이 저 컨디션에는 아침에 안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끼리 살금살금 가서 우리끼리 하고 들어오자 그러는데 제가 아침에 깨들보다 10분 이상 더 먼저 일어나죠. 그러니까 애들이 기대는 안 해요. 더 이상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여성지도자로서의 선수들과의 라포를 최대한으로 저는 맺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것들이 제가 좋은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도 또 여성의 지도자로서 이 태권도계에 받을 불이면서 그래도 뿌리를 내리고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질문에 벗어났죠?
77. 면담자 43:44 그래도 다 연관이 되는 얘기니까요. 좋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지도자 생활하실 때 선수들을 제가 몇 명 알고 있는데 그 선수들이 항상 하는 얘기 들어보면 계단을 보면 뛰고 싶고, 산을 보면 올라가고 싶고, 그런 산에서 또 힘들었던 이런 일들도 많이 얘기해 주는데 계단

을 많이 뛰게 하신 이유가 있으니까요? 교수님 산을 테리고 가신 이유랑?

78. 구술자 44:12 계단을 많이 뜨게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지금은 과학적 훈련 방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순발력이잖아요. 근파워 순발력 이런 것들이 태권도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운동 중에 하나예요. 유연성, 민첩성 그렇죠 유연성 보다는 민첩성이라든가 근파워를 위한 순발력 향상을 하기 위한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운동적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트레이닝 방법이 좀 실내에서 아니면 기구나 도구를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는데 그 당시에 기구 도구 있나요? 많이 뜨는 할 수 있는 게 계단 뛰는 거예요. 지금도 계단 뛰는 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계단만 있으면 무조건 뛰죠. 우리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산은! 산은 제가 좋아해요.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산을 탐으로 인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감정적인 것들 쌓여 있는 그러한 스트레스를 저는 산을 통해서 많이 좋은 표현 호연지기잖아요. 산을 통해서 뭔가 세상을 다르게 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운동 선수지만 태권도 선수지만 산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 산에 오르는 그 경상에 오르는 것이나 지금 태권도를 하면서 경상에 오르는 것이나 같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태권도만 맨날 하다 보면 폭이 좁아져요. 그런데 산을 다니고 호연지기를 키우고 자연의 어떤 경이로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선수들이 갖고 있는 그 좁게 보는 승부에만 집착하는 거 이런 거에 좀 벗어나서 인생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접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걸 제가 제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또 좀 열어주고 싶었죠.
79. 면답자 46:04 저도 교수님하고 산에 자주 가고 싶기는 한데 제가 체력이 안 돼서 못 따라가는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태권도인으로서의 경력 업적에 대해서는 여쭙겠습니다. 이제 또 교수님께서서는 아무래도 또 여성태권도인이다 보니까 이 태권도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80. 구술자 46:28 태권도에서 여성의 역할은 이 지구상의 또 다른 2분의 1이잖아요. 반은 남성 반은 여성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태권도 역시도 하나의 문화로 보면 그 속에서 2는 여성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위치는 맞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태권도라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조금 양육강식 그 다음에 경제 지나치게 갖고 있는 경제 그 다음에 이기적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차피 이 세상의 반은 남성이고 여자인데 이 조화라기보다는 결국은 수직관계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성 여성이 특히 태권도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하는 운동이 남성들의 전유물로 시작되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을 위주로 태권도는 특히 더 보수적인 측면이 있죠. 이제 그 속에서 분명히 여성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동일한 위치에서 자기의 권리가 있는데 늘 남자들에 의해서 10분의 1? 도 안 되죠. 100분의 1 이렇게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태권도의 모습 속에서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불편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왜 나의 말은 안 들어주지? 내가 여성이라고 그러는 건가? 그러니까 약자에 대한 거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이거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뭐야? 그래서 그러면 여성들이 모일 수 있는 거 나의 권리를 나 혼자 주장하기 어려우니까 내 친구를 설득하고 내 동료 후배를 설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여성의 목소리를 좀 내야겠다. 여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 바로 여성연맹이라는 조직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81. 면답자 48:30 여성혁명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 번 좀 더 자세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참 여성태권도 선수 최고의 선수였고 또 최고의 지도자였고 또 행정가로도 활동하시고 또 대학 교수까지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하지만 여성태권도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아까 지도자 생활 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장별이라든지 어려움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82. 구술자 49:02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었고요.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얘기 하는 대로 밑에서 저변은 그래 그렇지 그럴 수 있지! 10명에 하나 정도는 질 수 있지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사회적 하이라키라는 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딱 부딪히는 건 유리한 장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의 저변에서는 그래도 용인하는 그런 시기 그 당시에도 배려하고 용인하는 부분도 있어요. 여성이기 때문에 제가 이치에 이렇게 있었던 것은 꼭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냐 하면 배려를 하는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저

도 이제 성장을 했겠죠. 그래 하나 정도는 겨룰 수 있는 거지 양념이니까 그 양념으로 우리가 남아 있고 싶어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느 정도의 평가를 하고 최고! 위치에서 결정을 하는 결정권자에 근접하면 할수록 철저하게 차단이 되는 거예요. 유리 유리친장같이 아주 굉장히 두텁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차별이라는 건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없어진 게 얼마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코치가 됐어요. 국가대표가 됐어요. 많이 선발이 돼서 여자 지도자를 테리고 가야 되는데 돈이 없대. 여자 지도자는 못 테리고 간대 정말 이진 실제 있었던 일이야. 태권도의 현장에서도 다른 종목도 이마 있었나 봐요. 왜요? 그랬더니 돈이 없대. 방을 하나 더 얻어야 되지 않냐? 방을 하나 더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요한 국가대표 지도자를 여성은 이번에는 안 된다! 라는 얘기로 그 당시에 들을 정도니까 그런 거 굉장히 차별이죠. 지도자들을 지도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원칙적으로 차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지도자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지금 박탈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성장도 못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래 이제 80년대 90년대는 그래 있었던 그래 이제 가장 그런 하나의 예로 그런 차별이 좀 심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83. 면답자 51:19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 당시에 올림픽 지도자로 다녀오셨잖아요. 그럴 때는 좀 괜찮으셨나요?
84. 구술자 51:29 바르셀로로부터 92년이예요. 92년이요. 92년이예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거는 80년대였고 92년도만 해도 그래도 분위기가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여자는 여자가 가르쳐야 되지 않아요?라고 강하게 얘기했을 때죠. 왜 여자한테도 기회를 안 주세요. 여자 지도자가 여자가 더 잘 할 끼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 90년대니까 그래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러면서 이제 그런 향상 늘 약속환이 되는 게 여성 지도자를 키우지 않을까? 여성 지도자가 없으니까 여자 지도자들 풀이 그 작은 거예요. 한두 명이니까 그럼 맨날 뭐 한두 명만 가냐? 이런 분위기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90년대에는 조금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여성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그 시기죠.
85. 면답자 52:23 80년대랑 90년대랑 또
86. 구술자 52:26 또 다른 겁니다.
87. 면답자 52:27 많이 바뀐 거예요
88. 구술자 52:29 많이 바뀐 거죠. 그나마
89. 면답자 52:30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래도 바르셀로나 지도자로 가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지금 여성 지도자들이나 각종 태권도 단체 여성 임원들이 여성이 충분히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계기가 됐던 게 사실 여성연맹의 시작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여성의 비율을 얘기해서 이렇게 가능해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여성 지도자로서 또 여성태권도인으로서 많은 후배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그런 후배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90. 구술자 53:08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없었던 거를 이렇게 생쥐를 하고 투쟁을 하고 그래서 여성대태협의 여성 이사도 커터제 30% 해달라 아직도 안 돼 있어요. 지금도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여성을 이사로 드리는 거는 김운용 총재님의 결단하신 거예요. 그래 제가 처음 이사를 했어 거든요. 연도는 생각이 안 나요. 그래도 김운용 총재님께서 여성에 대한 배려심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성스포츠회 이런 걸 또 만드시고 또 IOC나 이런 데서 국제적인 그러한 견해가 식견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필요성을 진작 알고 계셨었죠. 그래서 그 당시 최초로 제가 언감생심 할 수 없는 여성 이사가 될 수도 있었고 그 뒤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여성 이사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획기적으로 부회장을 또 여성으로 처음으로 하신 분은 최창신 회장님이시죠? 제가 이 부회장의 영광을 누렸지만 그분이 또 아니면 이걸 할 수 없는 그렇게 하면서 했고, 그 다음에 전국 체전의 여성이 여자부가 들어가는 거 그건 이진 정말 꼭 제가 자랑하고 싶어요. 10년 걸렸어요! 10년! 여성연맹 만들면서 전국체전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인천시청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필요로 했던 게 전국체에는 여성 종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경기의 꽃은 무조건 전국체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없으니까 이 발전이 더디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시청도 생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달라고 꼭 전국체전에 들어가기를 해달라고 해달라고 진짜 간곡하게 애원하듯이 한 10년 걸리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성도 굉장히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위치는 동등하죠. 어느 정도 전국체전도 정식 종목이죠. 그 다음에 이 여자 코치도 팀은 여자 코치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선배들이 그런 노력은 사실은 우리가 했다! 라는 걸 후에 지도자들이 좀 박수를 좀 쳐줬으면 좋겠어요. 격려도 해주고 고맙다고 그 얘기는 제가 꼭 듣고 싶어요. 전국체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경쟁과 투쟁과 열정을 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던 그런 시대라면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너무 애들이 타성에 젖어 있는 건 아닌가 도전하고 열정하고 화성을 하고 자기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 뭔가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굉장히 수동적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럴수록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가 오게끔 여성의 지위를 높여놓은 거는 뭐 많은 보이진 않는 여성 지도자들 그 다음에 선생님과 선배들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제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여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성태권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고민을 좀 더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투쟁과 경쟁의 시대를 지나서 뭔가 화합을 하고 선도적으로 뭔가 태권도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 후배들한테서 하셔야 되는 데 그 열정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91. 면답자 56:35 후배들에게 어떻게 보면 열정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 처음 태권도를 시작하실 때만 하더라도 태권도를 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적었는데 도장에 아마 한두명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한두 명이었던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40%까지도 보고 굉장히 참여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지금 현 상황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92. 구술자 57:05 이제 좋아진거죠?
93. 면답자 57:06 좋아지는 여성태권도 많아지고
94. 구술자 57:08 제일 중요한 건 시대의 변화죠. 시대의 변화가 이제 뭐 구태유연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도 동일하게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사회적 그런 어떤 사회적인 변화 관심 그 다음에 뭔가 어떤 인간의 인본주의잖아요. 인간이 최고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듯이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과 재능과 꿈과 희망은 동일한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 변화가 사실은 2000년대 이후 90년대 이후부터 변화된 건 사실이고요. 그게 사회적 큰 변화 속에서 태권도 역시도 그런 변화를 동일하게 수용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의 사회적 변화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95. 면답자 57:58 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인식 변화에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거잖아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제 여성태권도인으로서 이런 사회적 인식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셨다고 생각하시는지?
96. 구술자 58:18 그래서 사회가 변하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도 변해야지! 그런데 우리에게 돌아보면 하여튼 내가 여성이니까 내가 불편한 거는 여성이 불편한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서 여성이 불편한 거를 왜 이거를 이렇게 그대로 유지할 해야 되지? 그 변화를 줘야지 내가 불편하니까 변화를 줘야지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것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조직화하고 여성연맹을 창단을 해보자 여성연맹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여성들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 여성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의견을 공론화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였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거는 상당한 부분에서 성공을 하진 했어요?
97. 면답자 59:01 그렇죠 지금 교수님께서 여성태권도인으로서 여성태권도에 대한 그리고 여성태권도인들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이 그것에 대해서 또 가장 큰 역할을 하신 게 여성연맹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 번 또 여쭙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이 이제 기본적인 질문에서 교수님께서 태권도를 통해서 얻은 가장 큰 교수님에게 주어진 교훈은 어떤 게 있을까요?

98. 구술자 59:34 태권도 그 자체가 제 인생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에 특별하게 태권도를 그러면 나를 성찰하게 해줬는데 무엇인가 아까 얘기한 가장 원동력은 열정인 것 같아요.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죠. 태권도라는 것은 나의 어떤 열정과 도전 정신 그 다음 삶을 정직하게 결과보다는 과정에 열심히 하는 이런 거잖아요. 어떤 성실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데 역시 태권도도 그런 것이 운동이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뭔가 들뜨게 하고 나를 열정을 갖게 하고 뭔가 주어지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그러한 묘한 매력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죠.
99. 면답자 1:00:20 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교수님의 삶에 태권도가 진짜 많은
100. 구술자 1:00:28 원동력이 된다고 봐야죠
101. 면답자 1:00:29 준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등산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교수님께서 태권도 수련회에 즐기시는 취미나 관심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102. 구술자 1:00:40 일단은 명상하기 걸기 그 다음에 국궁 이 세 가지는 제가 하고 있죠.
103. 면답자 1:00:46 명상하기는
104. 구술자 1:00:48 명상하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40대 정도의 저도 우리가 태권도의 도자가 필요하잖아요. 도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늘 가깝게 생각했던 거 그 다음에 80년대 90년대 뉴에이지라고 해서 명상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됐던 그런 시기였는데 저도 아무래도 태권도의 도를 하는 쪽에 도라는 개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불교화하는 선에 대한 명상에 대한 걸 제가 조금 심취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틈틈이 많이 하는 못하지만 틈틈이 있지 않고 있고 걸기는 비스한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막 뛰어다니는 그런 운동을 격한 운동은 하지만 그거를 다시 돌아와서 가장 바닥에서 정서 그 다음에 그러면서 운동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면서 뭔가 성찰을 하고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 명상을 하기에는 또 걸는 것만큼 좋은 운동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 바이오리들 생체리듬이 과거에는 막 뛰어다녀서 160 180까지 심박수가 올라야 되는데 이제는 그 나이가 지나요. 저희가 어느 순간에 오면 그러면 걷는 운동이 가장 최적화되어져 있는 신체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걷기 운동 그 다음에 국궁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전통 무술로서 무술의 하나의 영역이거든요. 무예의 하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역시도 동일한 개념인데 정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호흡과 집중을 높이는 거 이런 거는 국궁을 통해서 가능하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사실 연관성이 다 있는 이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병행하면서 틈틈이 틈틈이 즐기고 있습니다.
105. 면답자 1:02:47 제가 이제 교수님을 옆에서 보면 교수님은 그냥 그냥 앉아 계시는 이런 것보다는 사실 활동력 있고 태권도복 입으셨을 때 굉장히 많이 저는 달라지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정적인 그런 부분들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 아까 열정 이런 얘기도 많이 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태권도 정신 철학 중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106. 구술자 1:03:18 우리가 이제 정신 철학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학교에서나 그리고 또 많은 제도권에서 나오는 게 태권도 정신이 뭐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나와 있는데 보통 5대 정신 나오잖아요. 극기 인내 백절불굴 뫼니까? 두 가지는 또 예의염치예의염치 5가지를 하는데 사실 그것도 물론 우리가 정신이다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조금 다른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우리가 태권도 철학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좀 성찰을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를 비롯한 태권도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구호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철학이라는 개념을 좀 깊게 생각하고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태권도인들한테 그래서 깊게 생각하고 성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걸 좀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권도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나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반성 성찰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내면을 조금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좀 바꾸려고 변화를 주려고 하는 행동을 할 수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년부터 변화하고 그 다음에 내 가까운 사람부터 변화하고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태권도 철학으로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7. 면담자 1:04:50 교수님 주변에서 교수님의 모습을 보고 많은 변화를 또 받은 후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그 말씀이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그리고 조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준비했던 개별적으로 또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사실 태권도 선수로서 지도자로서도 굉장히 성공을 이루셨는데 지금 현재는 대학 교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학 교수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108. 구술자 1:05:27 그러니까 궁금한 거잖아요. 현장에서 현장에서 우리 선수들 경기와 직결되어 있는 선수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현장에서 있는 거를 현장으로 갖고 해결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현장에서 궁금한 것들을 어떻게 할까 그 책을 찾아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연구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재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바로 뭐냐 하면 이론이었다는 것이죠. 이론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석박사 과정을 거친다든가 교수가 돼야 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할까 그러면 대학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에 있는 전문 지식을 이론화되어져 있는 지식을 무장을 해야지 아까 얘기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론을 통해서 현장의 지식을 응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현장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대학에 있는 이론에 한번 접목시켜 보겠다 해야지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교수에 대한 꿈을 또다시 갖게 됐죠. 그래서 이제 현장을 제가 정말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떠났지만 떠난 것에서 저는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미래를 꿈꾸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대학이라는 것 이 모교 교수로 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나의 제2의 인생 또 다른 출발점이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장에서 궁금했던 것을 좀 더 공부들 통해서 일원화하겠다 일원화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그것이 아마 좀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를 택하게 된 것이죠

109. 면담자 1:07:13 그러면 이제 또 교수님께서서는 그러면 지금 목요일에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도 잠깐 학생시절 할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83년 경희대 태권도학과에 입학하셨는데 1기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당시 태권도학과가 좀 굉장히 생소하셨을 텐데 태권도 학과의 분위기와 또 주변에서 태권도학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당시에 좀 어땠을까요?

110. 구술자 1:07:42 아니 태권도에 무슨 대학이야 태권도가 무슨 그러면 축구학과도 나와야 되고 펜싱학과도 나와야 되고 배구 농구 축구 다 그러면 학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런 게 그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였죠. 그런데 우리는 제안이 아니 중주국이 태권도고 태권도가 지금 몇 개국인데 그게 그 당시에는 한 180개국인 지금은 206개국인가 208개국인데 지금은 한 180개 그 당시에 있었던 이러한 그렇기 때문에 학과가 있어야지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우리 것이기 때문에 보존 발전하고 일원화 작업이 해야지 우리가 100년의 태권도를 내다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의기 때문에 학과가 필요한 거 아니야? 아마 그 당시에 만들었던 이사장님 조영식 이사장님도 그런 취지 때문에 우리나라 거고 이것을 100년으로 이어가려면 현장뿐만 아니라 이론을 통해서 학문적 체계를 만들어야지 전 세계의 태권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지혜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학과를 만들었고 사회적 분위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태권도에 무슨 이 학이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학자를 붙일 수 있는 거야 학문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야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111. 면담자 1:08:59 제가 교수님보다 10년 정도 늦게 태권도학과에 진학했을 때만 해도 사실 그런 분위기가 그때까지만 해도 있었거든요. 그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그렇게 태권도학과에 입학을 하셨고 현재 그 태권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 그렇다면 지금 요즘 태권도학과에 대한 존재는 단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향후 태권도학과는 좀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될까요?

112. 구술자 1:09:23 그저 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래서 늘 고민을 하는 것도 있고 답이 안 보이죠. 사실은 끝없이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걱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고 미래 태권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학과의 거기에서 이제 미래 태권도에 대한 얘기 중에서 우선적인 거는 사회적 분위기죠. 태권도라고 이의판심에 홀로 떨어져 있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 연관되어져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제일 우리나라가 걱정하는 것이 저출산이잖아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사회의 미치는 파급 효과는 굉장히 지금 암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오는 기사에도 보면 2075년에는 우리가 남부한을 다 합쳐도 5천이 안 넘어갔다 5천만 명이 안 넘어갈 것이다! 아니면 제로가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회의적인 그런 결과가 나왔듯이 저출산에 대한 개념이 아마 태권도에도 파생이 될 거죠.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고 저희 대학에서도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항력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정답을 지금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제 태권도학과는 확실한 거는 지금의 반으로 축소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 반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거로 해서 우리가 좌절을 갖기보다는 그 남아 있는 반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진짜 임팩트하게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아주 단단하게 태권도학과를 이어갈 것인가? 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은 하지만 좀 더 그걸 통해서 좀 더 새로운 대안과 방법을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노력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시원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나름의 머릿속에 있고 고민을 하고 있지만 선블리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태권도를 조금 더 이제의 우리가 가감 없이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3. 면담자 1:11:45 태권도학과에도 사실 많은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수님께서 여성태권도인 최초로 사실 3개 단체 이사를 역임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까지 3개 단체 이사를 역임하셨는데 이렇게 교수님께서 다 여성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 발탁이라는 표현은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이사가 되신 되셨던 이유 그리고 그리고 좋았던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것과 또 부정적인 부분은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혹시

114. 구술자 1:12:25 발탁된 이유는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발탁이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 같이 30명 중에 1명은 좀 있어야 되겠다 사회적 분위기겠죠. 이거 태권도가 여성 이사가 없다는 것 자체가 경직돼 있는 거 보이는 거고, 뭔가 시대에 뒤떨어져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도권에 뭔가 뒤처지고 퇴행하는 모습을 남성의 전유물인 태권도가 그래도 여자 한두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고 그중에 이제 제가 그래도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선임될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이 돼서 오히려 이견 역역차별임니까? 그래서 그래서 여성이기 때문에 제가 제 능력보다는 아마 그러한 것들이 더 그분들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선임이 된 거로 보고 있고요. 되면서 이사 활동을 하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어나 임원으로 들어가면 여성의 그리고 내가 불평 부당한 이러한 것들을 바꿀 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이사들보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죠. 경기장에서 시합 뛰듯이 그런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권에서 그 다음에 권력이라는 건 우리가 권력에 대한 얘기까지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정 결정권자가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결국은 다수의 의견이 반영이 된다는 거죠. 다수의 의견 속에서 10분의 1도 100분의 1의 의견은 그냥 뭐 큰 태평양 바닥에 돌 하나 던지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쳐도 분명히 이것이 옳다고 내가 생각하고 이것이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저는 또 다른 좌절감을 느끼죠. 내가 그래도 현장이 아니라 이 제도권에 들어서서 평가를 할 수 있었는데 반영되는 것은 10분의 1도 안 돼 10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기에 따른 현실에 대한 좌절감 자괴감? 이런 것들이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왜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게 뭐가 좋다고 많은 사람들한테 시기 질투를 받으면서 이 자리에 있는가?에 대한 그런 자괴감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아쉬웠던 거고 나 혼자서는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바람은 그래도 동무가 한 3명 있었으면 좋겠다. 5명만 있어도 이거 한번 좀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바람이 있을 정도로 좀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고 이거 이러한 절제된 태권도의 절제된 계파 간의 갈등? 그 다음에 각 시도협회의 이해와 이해관계, 그 속에서 태권도의 정신과 가치와 정의로움이라는 것은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혼자 외쳐도 늘 변방에서 보이지 않는 그냥

태평양 한 곳의 작은 돌에 불과하는 나의 존재의 가벼움 작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이 많았죠.

115. 면담자 1:15:48 저도 그 당시에 교수님 옆에서 지켜보면서 굉장히 좀 많이 얘기를 하셨어도 좌절되시는 것도 많이 보고 안타깝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그때 교수님께서 그런 좌절감을 느끼셨던 그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기반이 돼서

116. 구술자 1:16:07 그거는 맞습니다.

117. 면담자 1:16:09 기반을 많이 닦아놓으신 것 같아요.

118. 구술자 1:16:12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외침들이 사실은 그분들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런데 그거를 인생 어떤 결정을 함에서는 시기와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열정이 있으니까 늘 섭섭하고 늘 부정적이고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해하는 부분이 나중에 10년 뒤나 지금의 제 나이에서는 그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도 그 당시에는 생각은 있지만 그것을 반영하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시와 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당시에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아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어느 날 쌓이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이 있고 과거의 여성의 위치보다는 지금의 여성의 위치는 훨씬 그래도 훨씬 존중받고 동등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많은 부분의 역할을 인정받는 그런 시대 그런 세대로 재편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공감스럽고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보람을 느끼는 거죠.

119. 면담자 1:17:21 그게 다 토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권도뿐만 아니라 사실 교수님께서도 여성태권도인이시지만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도 이렇게 6년간 수행을 하였고, 현재는 또 대한체육회 부회장까지 이렇게 수행하고 계신데, 먼저 이 여성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또 여성태권도인들과 또 여성스포츠인들과 이게 공통점도 있고 또 차이점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건 좀 어떨까요? 여성들이긴 한데 아무래도 컴팩트한 거는 사실 태권도의 악의 잠과 그리고 또 태권도는 제가 아 구석구석에 다 아니까 뭔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굉장히 계획적이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여성 스포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광의적이잖아요. 많은 종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다 개성이 다 달라요. 종목의 특색마다 그러면서 여성이 체육계의 여성들의 일면을 또 볼 수가 있었어요. 1면을 볼 수 있었고, 그분들이 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은 사실은 일맥상통이에요. 거의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확장시키기에는 좀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에 대한 역량일 수도 있고, 사회에서 기대되는 역량일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정부라든가 주변에 있는 단체들이 관심도가 굉장히 더욱더 태권도보다 더 더 낫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단체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그런 거 그렇게 해서 여성 스포츠에는 또 태권도만이 아닌 또 다른 영역에서의 다양한 종목에 있는 여성들의 애로와 어려움과 그 다음에 또 좋은 것도 이렇게 좀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다는 것은 또 좋은 경험이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120. 면담자 1:19:16 그리고 저 또 교수님께서 지금 현재 대한체육회에 부회장이신 이것 또한 또 여성 최초 우리 여성태권도인

121. 구술자 1:19:25 여성 태권도인이죠. 최초

122. 면담자 1:19:27 교수님 여성태권도의 최초가

123. 구술자 1:19:29 여성태권도라기보다는 남성 태권도도 없어요. 남성 태권도 부회장을 하신 거는 제가 처음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김종길 회장님은 회장님이셨잖아요. 김정길 태권도 협회장을 하시고 김운용 총재님도 총재님이셨죠. 그런데 부회장은 제가 알기로는 남녀 다 떨어져서 제가 처음인가 이사는 몇 분 계시죠? 몇 분 계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부회장은 제가 처음인 것 같고 그거는 아마 제가 부회장이 됐었던 거는 태권도도 태권도이지만 여성스포츠의 단체가 갖고 있는 네임벨류가 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의도성 스포츠의 회장이 장관까지도 하시고 이런 차관까지도 하시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몫으로 저도 대한체육회 이사가 부회장이 됐었던 계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계단계 다 저한

태는 굉장히 정말 좋고 밀알같이 탄탄하게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디딤들의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 스포츠에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죠. 힘은 들지만 그 단체가

124. 면담자 1:20:43 최초라는 수식어가 너무 많이 붙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렇군요. 그리고 이진 정말 제가 참 개인적인 교수님께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교수님하고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면 원로 태권도인 분들을 많이 뵈는데 그분들 항상 중2 입신자

125. 구술자 1:20:59 중2 입신자 진짜

126. 면담자 1:21:01 도대체 중2 입신자가 교수님의 인생에서 어떤 부분이길래 그분들이 그렇게 중 입신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127. 구술자 1:21:10 첫 번째로는 우선은 그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약간 충격적이었던 거죠. 작은 소녀가 당차게 시합을 했는데 고등학교 언니들을 물리치고 최초의 중2의 국가대표가 됐다 라는 그것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신기하게 봤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이미지가 그분들이 이제 태권도계의 제도권에 있으면서 세대 교체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분들한테 사실은 세대 교체가 빨리빨리빨리 이루어지고 그 소녀 같은 입신자가 커서 지금 이렇게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것이 세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체험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런 두 가지가 작동이 되면서 중2의 입신자와 지금의 대학의 입신자가 이제 바뀌어서 세월이 지났다는 것을 그거를 이제 그분들이 덜 인식하는 것 같고 그래도 어렸을 때 40-50년 전에 그 모습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각인되어져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소리를 여전히 들죠.

128. 면담자 1:22:22 그런데 교수님은 그냥 쓱 지나가듯이 말씀하셨지만 중2의 국가대표를 하셨다라는 자체가 그랬던 것 같아.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또 큰

129. 구술자 1:22:32 지금 국가대표 여자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는 게 남자들은 고등학교 이상이죠. 그럼 그걸 내가 알고 18세인가 19세인가? 여자가 16세잖아요. 16세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그때는 전무님이 그때 중학교 2학년이니까 딱 16세예요. 그래서 애네들이 국가대표가 됐으니까 애네들을 좀 어떻게든지 구제를 해주고 살려서 가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전무 이사님 황춘성 그분이 계셨을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나니까 그분이 이제 그 어린아이들이 저 말고 또 제 고등학교 초등학교 같이 운동했던 오명화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두 사람이 둘이 다 중2에 더러 됐으니 이걸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오명화가 아니라 유선섭이라는 친구는 유선섭이 저하고 최우 무학여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분이 이제 무학여고예요. 유선섭이 그 친구가 그하고 나하고 중학교 2학년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부지런히 만들어서 제도를 만들어서 여성은 16세 이상 남성은 18세 이상 그렇게 아마 만들었던 거로 저희가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130. 면담자 1:23:47 어쨌거나 또 중학생으로서 최초의 국가대표셨네요. 그러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이 구술이 시작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여성연맹과 관련한 얘기인데 어쨌거나 70년대 후반에 여성연맹이 있었지만 와해가 되고 사실 2002년에 한국여성태권도연맹이 재창단이 됐는데 저 역시 교수님하고 2001년에 창단 준비위원회부터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상황을 조금은 알지만 그래도 왜 여성연맹을 재창단하시는 데 앞장서셨고 당시 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131. 구술자 1:24:34 초창기 이학선회장님 여기서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이학선회장님이 사실 여성연맹 처음 1차 여성연맹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 때니까 80년정도 될 것 같은데요. 87,88년인가 79년인가 8년으로 되어져 있나요? 지금으로

132. 면담자 1:24:52 주한 외국인 대회도 하시고

133. 구술자 1:24:54 주한외국인대회도 했으면,

134. 면담자 1:24:56 와해가 된 게 아마 교수님이 대학

135. 구술자 1:24:59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대학교 때 그렇죠 주한 외국인대 제가 출전했던 사람이고, 거기에서 여자부 해서 몇 세 이상 몇 세 이하에서 두 체급 인가 두 체급 밖에 없었

던 것 같아요. 경량급 중량급 이렇게 해서 제가 경량급에서 제가 우승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주한 그때 이학선회장님 그분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어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고, 그 당시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국제대회 그때는 중국 대만 이런 데 중국은 개방이 안 됐을 때고 대만하고 저희가 한중 교류를 했던 그 시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그게 78년 거기가 후반기네요. 79년 80년 그 사이인 것 같은데 78년 같아요. 제 기억에 그때는 비행기 타고 나가는 것 자체가 동네가 경사가 일어나서 턱을 들릴 정도로 귀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과 중국의 여성 선수들끼리 교류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였죠. 그래서 이분이 여성태권도연맹을 만들고 대단하신 분이예요. 70년도 70대 후반에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었죠. 그때 이제 선수로 제가 키워서 이학선회장님이 그 모습을 봤죠. 여성도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있구나 이렇게 힘 있는 그런 여성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초에 그게 이제 그게 단절이 돼서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때는 어렸을 때는 몰랐죠. 그런데 커서 제가 생각을 해 볼 때는 그건 결국은 이 조직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역학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치적인 역학 구조에서 사실 피해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연맹의 취지에 맞게끔 여성들이 활성화가 되고 아마도 그 당시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그렇게 폐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에 선수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학선회장님은 그때 태권도를 실질적으로 태권도인은 아니셨거든요. 사업을 하셨고, 관심을 가졌던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자리를 못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년인가 5년인가 하시다가 그러니까 이게 또 태권도 제도권에서는 이렇게 좀 밀어내고 티부시 하는 게 있거든 그 다음에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남의 잘 나가는 거는 잘 배가 아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좋게 보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뭐야? 재네를 뭐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조금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어렸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대부터 해서 그게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적인 의력에 의해서 없어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정치적으로 정치권에서 정치권이라는 건 태권도 정치권이죠? 그 제도권 안에서 정치라기보다는 제도권이라는 게 표현이 맞겠네요. 제도권 안에서 불필요하다 필요성이 없다 뭔가 이거를 정리하겠다는 생각들이 작동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연맹이 이제 없어졌죠. 그 말씀하신 거죠?

136. 면담자 1:28:23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003년에 재창단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왜 앞장서셨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137. 구술자 1:28:34 제가 지금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태권도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고 그게 그때가 어느 때였냐 하면 제가 대한태권도협회 이사로 있었을 때예요.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딱 제도권에서 해서 그게 아마 김운용 총재님의 시대 마지막에 그 혼란스러운 그 시기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런 것을 면면히 그래도 여성들의 모임을 그래도 몇몇이 이어갔던 사람들이 누구나 하면 남자회를 이끌었던 장정남 선배님이나 정효심 선배님이나 서영애이나 이런 분들이 그 다음에 김춘희인데 서춘희 사범님이에요. 지금 많이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여성 남자회라는 조직을 그래서 이어서 나름의 모임도 갖고 서춘희 사범님은 특히 굉장히 의욕적이셨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우셨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하루에 처리함에 있어서나 이런 관계를 굉장히 잘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 당시에 저는 인천시청이 감독으로 현장에 있었던 지도자면서 그 당시에 이제 이사로 그때 이제 김운용총재님이 딱 사건이 일어났잖아. 대학에서 대학에서 대도가 일어나서 태권도 바로세우기 운동 그 시기였을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시기하고 맞으면서 제가 이사로 있었고 그 다음에 태권 남자가 국기원에서 회의를 한 번 했었어요. 그리고 태권남자회 자체가 여성들의 구성적인 역할을 하면서 소모임을 했었죠. 소모임을 그래서 지도 가깝게 한 번씩 한 두 번씩 가서 선배님 활동하시는 것도 제가 정도도 하고, 그래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거고 나는 제도권에 이사로 있었던 거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면 이 모임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는데 이것을 좀 더 크게 제도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분들을 보면서 모임 모임 인 거거든요. 여성의 권리라든가 여성의 목소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뭔가 제도권 안에서 제도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선배님 이거는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권한을 동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연맹을 만드셔야 합니다. 라고 내가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배님들도 그때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면 연맹을 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제가 협회에서 조율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대한태권도도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에서 여성연맹이 우리가 최대한 이슈화시켰고 당시들이 제도권에서 뭔가를 하고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냐? 우리 이거를 연맹을 만들 테니까 만들어 주세요! 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있을 때 보니까 또 여성연맹이 아니면 중고연맹 대학연맹 그 당시에 실업연맹 없었죠 초중연맹 중고연맹 대학연맹 이렇게만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여성연맹도 하나 넣으면 괜찮겠네 그 모양새가 괜찮네... 이런 주변에 동의가 되기 시작하면서 제가 행정 이니까 집행이니까 안에서 제가 더 많이 뛰었죠. 그래서 협회에 있는 분들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 차기 당 집행부가 어수선하지만 이것을 안건으로 올리고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행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연맹이 만들어진 아시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사무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아는 규약이니 뭐니 정관이 이런 게 다 제도적인 행정적인 절차와 그러한 제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다행히 제가 이사에 있으니까 그런 것을 알고 있었고 중요한 것은 스폰서가 없는 거예요. 대회를 치르면 당장 돈이 필요하고 사무국을 운영하려면 사무실을 유지할 수 있는 거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선배님들하고 저하고 전전공공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찾아갔던 분이 바로 여성연맹의 초대 회장이셨던 이학선회장을 저희가 찾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회장의 이러한 이러한 것들 저희는 회장님 키즈예요. 이학선회장님 키즈들이죠. 저희가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해 왔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회장님 제2의 여성연맹을 창단하려고 합니다. 회장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흔쾌히 오케이 야! 너희들이 이제는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바뀌게 자기가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가슴이 뿌듯하다. 내가 한번 스폰서를 찾아보마. 그게 이제 이학선 회장님하고 저희하고 다시 만난 거예요. 그때는 어렸고 선수여서 힘을 못 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성장이 되고 지도자가 됐잖아 됐으니까 이 여성연맹만든 두 번째 창당하는 여성만족은 정말 힘있게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학선회장님을 찾아가서 이학선회장님이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으시니까 그때 이제 스폰서가 누구나 하면 이동자 회장님이 이제 다시 초대 회장으로 하게 됐고, 그분이 다시 이학선회장님에 의해서 이동자 회장님이라는 분을 저희가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태권도의 태자도 모시는 분이야. 그런데 여성들이 이러는데 제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명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같이 갔던 분이 제 장정희 사범님이 장정남 사범님이 같이 아마 정효심 그분들 다 계셨을 것 같아요. 가서 열심히 정말 설득을 하고 도와만 주시면 도와만 주시면 정말 저희 한번 뜻을 펼쳐보고 싶습니다. 정말 저희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 데서 이학선회장님하고 다시 두 분 만나서 딱 결정적인 순간이 돌아왔죠. 오케이 내가 그 당시에 5천만 원이에요. 5천만원을 내가 그러면 지원할게! 통장에 그냥 그날 당일날 여성연맹 통장에 5천만이 꽂혔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는 이제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힘든지도 모르고 그때 이제 그런 여성연맹에서 마포에 조그마고 냄새 나는 우리 학교수님도 그때 있었나요? 그랬죠. 딱 냄새 나는데 근데 너무 신이 났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여성연맹은 재창단했고 이러한 어려운 창당을 함에 있어서는 선배님들하고 이렇게 했고, 다 같이 이렇게 합심을 했고, 그 당시에 우리 광정현 교수도 조교로 딱 있을 때 또 평정을 우리가 제가 모셔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했었던 것이 아마 우리의 지금의 여성연맹의 초창기죠? 추억이 진짜 새록새록하네요.

138. 면담자 1:36:06 저도 추억에 젖습니다. 교수님께서 사실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제가 기억하는 건 교수님을 포함해서 몇몇 선배님들께서 십시일반 내셔서

139. 구술자 1:36:19 그것도 맞네요. 몇 백씩 냈어요.

140. 면담자 1:36:22 사무실도 없고 컴퓨터도 사고 저는 그래서 무상으로 무부수로 사실 사무국 일도 보고 그랬는데 그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그때 그 어려웠던 일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굉장히 그렇게 어렵게 시작을 했지만 이 여성연맹이 이제 여기 뒤에 있는 거랑 같이 여쭌다면 발촉 당시에 조직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런 질문도 있네요. 교수님 조직

은?

141. 구술자 1:36:50 조직 구성은 일단은 조직 구성하고, 인적 구성을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러니 뭐냐 하면 어렸을 때부터 지도자를 거치고 그 다음에 대한태권도협회 이사로 들어가니까 이사를 할 때 그게 공부할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사 들어가니까 뭘 알겠어요? 제가 제가 정관을 달달달달 외웠던 것 같아요. 이사하면서 왜냐하면 정관이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것을 나중에 알았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면 이게 정관을 알아야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정관을 제가 아마 공부를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공부하고 들어오는 이사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직 구성이라든가 이렇게 하는구나. 행정은 이렇게 하는거를 그때 스티디가 됐고, 두 번째는 조직 구성을 함에 있어서는 워낙 평생을 태권도에 있다 보니까 회장이 필요하고 각각의 조직원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대회는 어떻게 그때 여성연맹 하자마자 우리가 3개월 만에 88체육관이잖아요. 저 김포공항

142. 면담자 1:37:54 등촌동에 있는

143. 구술자 1:37:55 거기서 대회 치러버렸잖아요. 저희가 그 당시에 한 70~800명 정도 나왔잖아요. 겨루기 대회를 그건 뭐 그것은 능력이라 봐도 평생 동안 그 경기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감각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직 구성 거의 대한태권도협회하고 동일한 수준의 조직 구성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또 갑자기 여성들이 이런 걸 만든다고 하니까 대한태권도협회 승인받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지만, 해서 대한태권도협회 산하연맹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그때는 정말 신선했었고요. 모든 여성들이 환호를 했었죠. 그리고 정말로 말 벗고 나서서 정말 다 도와줬어요. 그냥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올 정도로 그렇게 관심들이 많았었죠. 정말 많이 도와주셨죠.

144. 면담자 1:38:46 교수님 방금 대회 창단하고 대회 말씀하시니까 사실 저희가 4월 10일 창단했었고 6월 11일 대회를 했습니다. 2002년 당시에 세 달도 안 걸렸어요. 두 달 만에 저희가 승인받고 대회 하고

145. 구술자 1:39:01 맞아요 맞아요. 한 3개월 두 달 만에 다 치러냈거든요.

146. 면담자 1:39:05 저는 그거 승인받는 교수님 모습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승인받고 한 달 반 만인가 저희가 만에 다 대회를 했었는데

147. 구술자 1:39:12 그렇죠 스폰서 회장님 모시고 완전히 그냥 초스피드였네요. 그러네요.

148. 면담자 1:39:17 그런 것도 제가 지켜본 정말 어려운 점이었고 참 대단하셨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149. 구술자 1:39:23 눈에 그때는 진짜 물불을 안 가린다는 표현이 맞아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연맹을 창당했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고 보니까 제 뒤에는 선배님부터 시작해서 후배님들이 그냥 그 눈빛 꼭 이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그 눈빛이 저를 아파 아파 대단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게끔 만들었던 것 같아요.

150. 면담자 1:39:44 제가 교수님 전무이사 시절에 제가 사무국장을 했었는데 그런 교수님 열정이나 이런 추진력 보면서 저도 정말 많이 그 당시에 배웠었습니다. 저한테도 지금까지도 그게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이러한 부분들이 여성연맹 시절에 또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실 것 같은데 그중에서 특히 혹시 기억에 남는 가장 많이 남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151. 구술자 1:40:14 대회 하나하나가 어려워요. 지금은 이제 많이 대회 유치하고 이러한 게 지금도 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대에 유치하면 지방에 있는 시도협회의 관계자님들을 저희가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도협회뿐만 아니라 시도협회 시도협회 태권도협회뿐만 아니라 체육회까지 이게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것은 대한체육회 시도 지방 체육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방체육회 지방태권도협회를 통해서 저희 여성연맹하고 체결하는 관계인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 구체화되어져 있지 않고 정례화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떤 시도에는 그러니까 시도 체육 태권도협회를 거쳐서 올라가야 되고, 어느 때는 시도를 직접 다이렉트로 협의해서 또 거꾸로 내려오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뭐냐 하면 대다수가 남성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성분인데 여성연맹을 굉장히 재들이 대회를

치를 수 있겠어? 이런 거죠. 정말 이걸 주면 할 수 있겠어? 이러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회도 어느 못지않게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잠을 없애려고 노력했고, 그 속에서 여성들이 주가 되는 대회를 하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그런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들이 남성의 들이 바라보는 그 편견 되어져 있는 그런 잘 할 수 있겠어? 의 격정스러움을 어떻게든지 신뢰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뢰감을 쌓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152. 면담자 1:42:08 교수님이 그 당시에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셨었거든요. 제가 교수님 옆에서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해보면서 사실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그만큼 꼼꼼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성연맹 1회 대회부터 저희가 잘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한 것들이 아마 교수님께서 많이 기억에 남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성연맹에서 아무래도 창단 준비부터 시작해서서 전무이사 부회장까지 한 계 기억으로만 해도 15년 가까이 12년 정도 12년 그렇게 오랜 활동가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역대 회장님들 많지는 않으시네요. 따져보니까 한 5분인가 6분 정도 되는데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누구실까요?

153. 구술자 1:43:00 당연히 저는 이등자회장님이시죠. 이등자회장님이 아마 없었다면 여성연맹 자체의 존립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산은 대회를 치르면 잘 알다시피 대회 치르면 제로잖아요. 원래 다 털어내는 거고 그러면 운영하고 사무실 유지하고 기본적으로 또 인건비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그분의 역할이라는 것은 거의 여성연맹을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그러니까 지원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분이 없으면 여성연맹은 글썽요. 지금까지 이어질까? 좀 회의적이에요.

154. 면담자 1:43:36 저도 이등자회장님 좀 많이 뵈고 그렸었는데 돈이 많고 적응이 아니라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바로 탁해 주셨던 부분들이 정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연맹의 기반을 닦는 데 그렇습니다. 정말 가장 큰

155. 구술자 1:43:52 아주 결정적으로 가장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죠.

156. 면담자 1:43:56 그런데 그런 이등자회장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임신자 당시 전무 임신자 전무의 열정이 아니었으면 안 했을 거야~ 라는 말씀을 늘 하셨거든요.

157. 구술자 1:44:06 아이고 감사하죠.

158. 면담자 1:44:08 어떻게 보면 두 분이 또 그런 부분에서 요즘 아이들이 얘기하는 케미가 케미가 잘 맞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등자회장님 말씀도 하셨지만 그 외에 여성태권도연맹을 이끌어 가시면서 또 특히 기억에 남는 다른 분들이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159. 구술자 1:44:27 여성태권도연맹에서는 굉장히 많은 후배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 광정현 교수도 굉장히 제가 아기는 후배고, 험한 일을 제일 많이 시킨 것 같아요. 험한 일을 제일 많이 시키고 정말 그 행정력을 탄탄하게 그 토대를 마련한 거는 또 우리 광정현 교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외에도 선배님들도 계시잖아요. 양인욱 선배님이라든가 장성남 선배님 그 다음에 정효심 선배님 서영애 사범님 이런 분들도 여성태권도가 탄탄하게 갈 수 있고, 그리고 나름의 선배로서의 굉장히 역할을 잘 해줬고 그분도 굉장히 헌신적으로 여성연맹을 정말 도와주셨고 이끌어가셨던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선배들과 또 후배님들이 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여성연맹이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160. 면담자 1:45:23 저도 안 그래도 교수님하고 처음 시작할 때 어려운 건 많았지만 사실 선배님들의 열정을 제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소위 말하는 저렇게 헤딩을 하실 수 있을까? 사실 저도 그런 모습 보면서 많이 감동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연맹에 대한 부분은 정말 하실 말씀이 여러 가지 많으시겠지만 이 정도로 여성연맹에 대한 얘기는 보니까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이제 여성으로서 어했거나 저희가 여성구술사이기 때문에 여성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좀 사실 저는 이 문구가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요. 배려의 대상이라는 표현을 왜 쓰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 아마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라고 아

직까지는 구분하기 때문에 이런 배려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성연맹 등 여성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걸 하는 게 좋을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161. 구술자 1:46:33 여성이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는 좀 약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배려를 해야 되는 건 맞고, 최근에 갑자기 역차별이니 해서 여성들한테 그래도 뭘 쿨터제라든가? 배려를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한순간에 그냥 얼음장같이 얼어버어서 그로 인해서 약자고 소수 여성들이 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회적 현상들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요즘에 가장 해야 될 태권도 여성이 해야 될 사회적으로 공헌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사각지대 같은 데에 놓여 있잖아요? 그리고 배려를 약자로서의 존중을 못 받고 존중의 정도가 아니라 폭력에 의해서 우리가 성폭력이나 폭력과 관련돼서 굉장히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메스컴에서 나올 때마다 저는 뜨끔뜨끔하고 가슴이 아픈 게 정말로 무차별한 그런 폭행에 의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메스컴을 통해서 할 때마다 좀 뭔가 여성들도 저런 안전을 위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안전에 관련되어져 있는 국제적인 액션플랜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늘 하는 것이죠. 많은 안전에 관한 것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저는 태권도로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 중요한 게 자기 호신술이라든가 셀프 디펜스 같은 이런 것들을 여성이 누구나가 편하게 와서 편한 시간대에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면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구체적인 플랜들이 태권도 제도권에서뿐만 아니라 저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성연맹이 있을 때도 제가 있다가 지금 여성연맹이 떠난 지가 오래돼서 구체적으로 그걸 실현하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것은 안전과 관련되어져 있는 여성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은 태권도에서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는 것이죠. 다른 건 호신술 단체에 굉장히 많습시다. 그렇지만 태권도가 가장 세련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갖고 있는 가치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태권도라는 종목을 통해서 여성들을 보호하고 여성들한테 안전을 제공하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역할 이거 굉장히 사회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은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도 굉장히 뭔가 미진하게 남아 있는 거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 뭔가를 다 했는데 다 해왔는데 이 부분이 지금 미완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부분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더 나이가 먹어서 활동하기 전에 이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정부는 우리 태권도 제도권에서 제단에서 이번에도 참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방안은 저희가 다 있으니 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62. 면담자 1:50:04 사실 진흥재단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163. 구술자 1:50:09 가장 1순위죠

164. 면담자 1:50:11 여성태권도에 대한 이제 지금 이런 구술채록 사업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그것과도 또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질문에는 이런 게 있네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남성 위주의 사회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이 여성의 장점으로 남성 영역을 이끌어가는 갈 수 있는 제도나 사업이 없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165. 구술자 1:50:43 인식이나 개념부터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는 지금도 양육강식이지만 다원화되어 있잖아요. 생각이 남성 여성이랑기보다 요즘에는 흥보세월이 많이 통용이 되고 다원화돼 있잖아요. 취향도 다양하고 이제는 이 문명으로 우리가 가면 갈수록 뭔가 그 사람들한테 좀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것보다는 자발적이고 비폭력적인 그러한 그 무엇인가에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여성들이 좀 섬세한 감수성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크게 이렇게 세세하게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이면들은 여성리더들이 그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세세함이라든가 매크로한 그런 부분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리듬은 남성에게도 도움이 된다. 우리가 한 그런 거잖아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함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으면 비장애인이도 불편하지 않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행복한 삶이라면 비장애인들이도 행복하다라는 개념하고 똑같은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여성들이 편하고 여성들이 안전하고 여성들이 행복하다면 그 역시 동일하게 남성들도 행복하고 남성들도 안전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생물학적이든 뭐든 여성이라는 여성지도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갖고 지지를 해준다면 그 여성 지도자에 의해서 그러한 불편함을 해소하지 않은가 여성이 갖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불편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여성이기 때문에 더 잘 전달이 될 수 있고 그것을 더 제도와 사회적으로 하나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게 가장 많이 접목을 시키고 적용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이죠. 왜 당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여성의 리더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결국은 남성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의 리더가 한번 여성의 리더가 어떤 위치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양성평등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166. 면담자 1:53:12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남성 영역을 어차피 다 남성 여성 다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도 사실 저는 조금 의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사실 조금은 나왔었거든요. 사실 여성연맹에서 여성 관련 태권도 대회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2002년에 당시 여성부장관기태권도대회가 1회가 개최가 됐고 그 다음에 2003년에 한국여성태권도연맹 회장배 품새대회가 개최가 됐는데 이 두 대회의 시작이 된 그런 히스토리 이런 것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7. 구술자 1:53:57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168. 면담자 1:53:59 저희가 저희가

169. 구술자 1:54:00 내가 2개 겨루기대회하고 품새대회

170. 면담자 1:54:02 그런데 사실 저야 교수님 앞에서 지켜보면서 이 히스토리를 알지만 사실 저희가 우여곡절이 많았었잖아요. 두 대회를 준비하면서 출발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히스토리 숨어 있는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1. 구술자 1:54:20 겨루기대회는 이제 우리가 많이 일상화되어져 있고, 품새대회는 사실은 대한태권도협회의 역사가 자꾸 저희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대회가 먼저예요. 대한태권도협회보다

172. 면담자 1:54:34 그렇죠

173. 구술자 1:54:35 몇 달 한 6개월 정도 빠를 거예요. 핏수로 따지면 한 1년 정도 그러니 우리는 지도자를 위한 세미나 그 다음에 여성 품새대회를 빨리 이걸 해야겠다고 시급하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품새대회를 만들었던 거고 그때 품새대회를 하는데 우리는 가족 경영대회 같은 걸 한번 했었던 거 같아요. 품새대회도 사실 생소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가족 경영 같은 거를 해서 여성 아까 얘기한 것은 굉장히 매크로한 부분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 경기가 아닌 비경기인 그 다음에 남성만이 아닌 여성 그 다음에 젊은 청년만이 아닌 노약자 그 다음에 아이들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그런 것들이 녹아 있을 수 있는 생활체육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그런 개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품새대회를 만들고 거기서 가족경영대회라는 것을 타이틀을 집어넣으면서 뭔가를 준비는 했었죠. 그 날 아쉬운 것은 예산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업들이 사실은 꼭지나 아젠다는 많이 이슈화시켰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가 우리 여성연맹에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해봅시다! 라고 하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관철이 안 돼요. 진행이 안 돼요. 왜 예산 지원이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제도권에서 다 가지고 갔더라고요. 좋습니다. 거기서 어찌든 그런 여성태권도의 활성화를 누가 하든 간에 어디에서 그걸 한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그래도 만들어내고, 그런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그 품새 대회만큼은 그런 가족 경영으로 뭔가 할아버지도 나오고 할머니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우리 학교 수도 저기 아버지 조카 이렇게 해서 다 나왔고 할아버지 같이 나오고 우리가 없는 돈에다가 제주도로도 보내주고 막 그랬었던 기억입니다.

174. 면담자 1:56:33 에 사실 아까 여성가족 여성부장관기대회도 사실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창단하고 두 달 만에 만들어져서 사실 힘들었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승인을 받는

- 거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그것도 히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175. **구술자 1:56:52**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인받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워져서 그걸 이제 이사가로 제가 있었어 뛰어들어가서 이사회에서 해달라고 지치고 있었죠. 회장님 들어오고 거기에 부회장 있으면 옆에 가서 보면서 이거 안건은 올라가는데 이거 통과 될 수 있는 것이죠? 막 이러면서 그 안에서 참 많은 분들이 또 바깥에서 긴장하고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승인 나기를 바라면서 그 선배님들도 바깥에 다 있으면서 승인 나는 것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짝 지나가네요. 그런 적이 있었답니다.
176. **면담자 1:57:30** 그러니까요. 저도 참 교수님 옆에서 교수님만큼은 아니었지만
177. **구술자 1:57:35** 아니 아니 다들 선배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178. **면담자 1:57:39** 품새대회 같은 경우에도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가족부도 저희가 처음 여성연맹에서
179. **구술자 1:57:46** 아이디어 참 좋았어요.
180. **면담자 1:57:47**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그런 것들이 지금의 태권도 대회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성가족 여성부장관기에서 여성부 중에 대학 일반부를 처음 저희가 또 구분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당시에는 그랬나요? 여성 그러니까 대학 일반부를 다른 대회에서는 다 묶어서 했었거든요.
181. **구술자 1:58:12** 예 맞습니다. 전국 최종의 대학 일반부가 안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통합이 됐었잖아요. 여자부로 그러다 보니까 대학팀하고 실업팀하고 굉장히 경쟁 관계가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실업팀이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대학 애들이 잘했을 테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그거를 반영을 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분리를 시켰던 거예요. 역시 살림을 살아서 그런지 사무국장 출신이라서 역시 그런 것까지는 놓치는 부분을 잘 지적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182. **면담자 1:58:41** 여성! 교수님께서 당시 전무이사 시절에 잘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 지도자들이
183. **구술자 1:58:48**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랬을거예요.
184. **면담자 1:58:50** 와서 교수님 이거를 좀...
185. **구술자 1:58:52** 맞아요. 맞아요. 좀 분리해달라던
186. **면담자 1:58:54** 좋겠다고 했는데 그걸 또 바로 반영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쫓아가서 회의에 얘기해 주시고 교수님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저 역시 추억에 많이 적게 됩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우선 이거 하나 지능재단 진흥재단이 사실 이런 사업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또 교수님하고 이런 대화를 하면서 우리 여성태권도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건데요.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참여자로서 이런 사업에 대한 생각이나 소감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87. **구술자 1:59:39** 굉장히 좋은 사업이죠. 이제 여성 아까 얘기한 대로 보이지 않는 일단 제도권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늘 느꼈던 것은 물론 대회 대한민국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분야별로 조금 디테일하게 그 다음에 메크로하게 지원을 해줘야 돼. 이제는 제단도 역사가 제단도 꽤 20년 넘었잖요. 20년 넘어
188. **면담자 2:00:14** 2008년에 제단이 시작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189. **구술자 2:00:15** 그러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러면 뭔가 조금 이제는 태권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큰 틀은 다 이제 파악을 하셨을 것이고, 아주 메크로하고 그 다음에 특정한 분야에서 조금 소외되어져 있는 그런 분야를 찾아서 지원을 해야 된다! 라는 개념이고 그런 쪽에서 여성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여성만 특화되어 있는 사

- 업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 재작년에 했던 대학생을 상대로 했던 건 다음에 취업과 관련해서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교육 세미나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세미나 나중에는 여대생들을 위해서 취업과 관련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의 안전과 태권도를 통한 태권도를 통한 여성의 안전과 그 다음에 여성의 어떤 자존감이라든가 사회에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태권도를 배우고 호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태권도를 배우고 거기에서 나름의 여성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끔 중앙도장 같은 거 거기를 지휘관 정도 각 시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보통 권역별도장도 그렇게 제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성 전용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장도장 그런 쪽에다가 이제는 권역별로 세분화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그 속에서는 양질의 지도자들을 선발을 해서 파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직업으로 창출할 수 있어서 여자 대학생들 여자 지도자들 여자 선수들이 직업군으로 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판로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물론 각 체육관에서 여성 사범들이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거는 그거대로 하면서 그래도 제도권 안에서의 권역별로 전문 여성 지도자들이 여성들이 편하게 언제든지 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 그것도 굉장히 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거고, 또 여성과 가장 맞아떨어지는 게 지금 뭐냐 하면 실버예요. 실버 실버를 실버태권도를 같이 뭔가 협력할 수 있고 여성과 실버태권도의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성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 실버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그런데 그것이 건강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호신과 건강과 그 다음에 그것이 결국은 뭔가 태권도에 의해서 소의 그동안에 지원하지 못했던 특정 분야를 특화시키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성태권도와 실버태권도가 매개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면 여성 지도자에 의해서 운영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성 지도자가 그러한 모습으로 접근해야 프로그램들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고요.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한 것들이 건강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핵심적 개념이잖아요. 이 건강과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치매가 관련돼 있잖아요. 심한 정신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그거는 수련이라는 개념이고 명상이라는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무주에도 제단이 있고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계속 들려야지만 또 무주가 갖고 있는 그런 특수성들이 있어요. 그게 건강과 명상이라든가 치매 예방이라든가 실버와 여성들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오면 수련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 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의 중심에 여성을 집어넣고 특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거죠
190. **면담자 2:04:20** 이 사업이 어쨌거나 여성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 거기에 더해서 향후 진흥재단에서 여성태권도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아까도 좀 후배들의 조언을 얘기는 해 주셨지만 그래도 여성태권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1. **구술자 2:04:49** 선배들이 선배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곳곳하게 여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나름의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리고 열정적이었고 뭔가 순수했고 뭔가 변화를 주려고 애를 썼었다. 그리고 태권도의 순수함 그 자체를 이어가고 노력을 많이 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그래도 상당한 부분에서 이렇게 어떠한 평형점을 평균이라든가 평형점을 찾은 것은 맞는데 이것을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조금 부족하게 떨어져 있는 편견 되어져 있고 불평등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젊은 세대들은 아이디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보다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해요. 그래서 그런 지혜로움과 똑똑함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뭐냐 하면 열정은 우리보다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 20대 30대가 특출 튀는 그러한 재능을 발휘해서 여성연맹뿐 아니라 여성태권도를 한참 업그레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단. 그런 용기 도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후배나 제자들이 있으면 늘 응원합니다.
192. **면담자 2:06:09** 교수님이 아까도 말씀 오늘 열정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이 열정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사실 요즘 여성태권도인들 만나

보면 지금 여성태권도 다 있는데 여성지도자들 당연히 국제대회 나가고 있는 지도자로 파견되는데

193. 구술자 2:06:31 너무 안 좋아하는 거 너무 안 좋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194. 면담자 2:06:34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교수님과 제가 면담은 하지 않았지만 많은 또 선배 태권도 여성태권도인들이 그만큼 노력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물고기가 물의 소중함을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여성 저희 후배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이 있어 교수님이나 저희 여성태권도 선배님들의 이런 정말 많은 고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같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195. 구술자 2:07:11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녹취록 본문

과제명	여성태권도인 구술채록		
구술자	서용문	면담자	이영림
녹취자	구현성, 김진범	시간	85분 17초
면담일시	2024년 9월 24일	면담장소	DMC다락스튜디오
파일명	Oh_24_서용문_01.mp4		

<file:Oh_24_서용문_06 녹취록 공개본>

- 면담자 00:00 본 인터뷰는 태권도진흥재단 국립태권도박물관 태권도 지식자원 3차 아카이빙 여성태권도인 구술채록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면담입니다. 일시는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이며 장소는 DMC 첨단산업단지 다락스튜디오입니다. 이번 구술자는 서용문이며, 면담자는 이영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구술자 00:29 네 안녕하세요.
- 면담자 00:30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회장님의 오랜 경험과 한국여성태권도연맹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되는 데요. 많은 분들이 회장님의 이야기를 통해 태권도에 대한 후원 활동에 보다 큰 영감을 얻어서 좋은 효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회장님은 언제 퇴원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연월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구술자 01:05 58년 2월 14일 태어났습니다.
- 면담자 01:10 그럼 고향은 어디서?
- 구술자 01:12 충남 홍성에서 태어났습니다.
- 면담자 01:16 그럼 충청남도 남자시네요. 그러면 회장님은 어렸을 때에 어떤 학생이셨나요?
- 구술자 01:29 그냥 노는 거를 좋아하고 공부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쪽 이어졌어요.
- 면담자 01:41 공부 되게 잘하게 생기셨는데 회장님
- 구술자 01:44 저도 했으면 잘했을 것 같았는데 당시는 아무튼 공부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 면담자 01:53 공부를 못해도 어쨌든 성공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잘 된 거죠?
- 구술자 01:59 근데 뭐 약간의 미련은 남지만 그래도
- 면담자 02:07 그렇게 장난꾸러기 같으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활동적인 어린이였나요?
- 구술자 02:14 장난꾸러기도 아니고 그렇게 활동적이지도 않았고, 그냥 열심히 잘 놀았어요.
- 면담자 02:25 제가 알고 있는 회장님은 항상 내성적이고 되게 얌전하시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한 번

- 더 추가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회장님께서 저희 한국여성태권도연맹의 오랜 시간 남자 회장님으로서 후원자로 이 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원래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나요?
16. **구술자 02:48** 아니요. 태권도에 대한 관심 사실은 없었고, 단지 이등자회장님하고의 인연으로 인해서 이등자회장님이 이제 그 회장님으로 오시면서 서 사장 너도 와서 가지고 좀 같이 활동하고, 후원도 좀 하고 해! 라고... 그래서 내 하고 이제 같이 동참하게 된 것이 처음이죠. 이제
17. **면답자 03:20** 그러면 그걸 계기로 저희 태권도하고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것인가요?
18. **구술자 03:26** 그런 셈이죠.
19. **면답자 03:28** 그럼 회장님 혼자만
20. **구술자 03:31** 당시 당시에 이제 노홍숙 부회장님 그리고 몇 분들이 이제 회장님 주변에 계셨었던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다 이제 안 계시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아계셨었던 분이 노홍숙 부회장님
21. **면답자 03:53** 그렇죠 저희
22. **구술자 03:54** 남아 계셨었죠?
23. **면답자 03:55** 맞습니다. 그러면 태권도 외에 이외에 개인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던 활동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24. **구술자 04:04** 활동 태권도 외의 활동은 주로 노는 위주로 하다 보니까 특별히 다른 쪽에 활동한 거는 없었고 그저 시간 되면 골프나 치고 가끔은 당구도 치고, 그렇게 시간 보냈죠 뭐
25. **면답자 04:22** 그러면 태권도에 지금 후원자로 오셨는데 태권도 이외 외에 별개로 다른 종목도 후원하신 인연이 있으신가요?
26. **구술자 04:32** 아니요 없어요.
27. **면답자 04:34** 그럼 한국여성태권도연맹이 복이 많네요.
28. **구술자 04:39** 뭐...특별히 연맹의 후원 하게 된 게 복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저 동참한 것뿐이지 그 외에는
29. **면답자 04:56** 아 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러면 좀 질문을 바꿔서 태권도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나 애정이 이제 그러면 생기신 건가요?
30. **구술자 05:07** 아니요. 처음에는 뭐 애정이나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회장님 가시면 같이 가고 행사가 있으면 같이 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거의 그냥 다닌 거죠 뭐!
31. **면답자 05:32** 그러면 태권도 안에서 단체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한국여성태권도 연맹은 원래 알고 계셨나요?
32. **구술자 05:42** 아니요 처음에는 태권도 여성연맹 자체도 몰랐죠. 단지 이등자회장님이 연맹 초대 회장님셔서 알게 되었을 뿐이고 그냥 따라다녔을 뿐이고 같이 했을 뿐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점차 이제 뭐 어쨌든 조금 관심은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크게 관여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33. **면답자 06:17** 그러면은 연맹하고 인연이 돼서 처음 만남은 기억이 나시나요?
34. **구술자 06:24** 처음 만남이 올림픽파크텔 이등자회장님 취임식 때 그러셨는데요. 그때 임원들 임직원들 처음 본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35. **면답자 06:43** 그러면 거기서가 첫인상이고, 첫 만남이셨던 거네요.
36. **구술자 06:47** 그런 셈이죠.

37. **면답자 06:49** 그럼 그때 당시의 첫 느낌에 한국여성태권도연맹의 분위기는 어땠고 인상은 어떠셨습니까?
38. **구술자 06:59** 분위기와 인상 그냥 회장님이 회장님을 이등자회장님이 회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참석해서 이렇게 축하해 드리고 같이 했었던 상황에 그 당시 분위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39. **면답자 07:24** 그런 관심도가 아니셨다는 얘기일까요? 조심스럽게
40. **구술자 07:28** 관심 관심 관심? 관심은 많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41. **면답자 07:38** 근데 그 이후의 얘기는 제가 뒤에서 해드린다고 하고 여기 오셔서 회장님이 2019년도 2월에 김지숙 회장님이란 이 취임식을 하셨기 때문에 연맹이란 18년의 관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발전하면서 연맹이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시나요?
42. **구술자 08:01** 연맹이 제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년이라는 시간을 연맹과 같이 했다고 하셨는데 그 이전에는 연맹이 연맹 운영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깊이 관심 안 가졌었던 상황이었는 데 나중에 알게 된 상황이 이제 이등자회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후원으로 연맹이 운영돼 왔던 상황으로 이제 알았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지나면서 어찌 됐건 이제 뭔가 좀 발전하는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회장이 되기 전까지는 큰 고민은 안 했었고 어려운 상황이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맹 임직원들이 열심히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잘 버텼었던 것 같아요.
43. **면답자 09:33** 그러면 발전은 했다 한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됐지만 이 기간이 임원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건가요?
44. **구술자 09:43**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발전은 한 것 같긴 한데
45. **면답자 09:56** 그 공이 회장님의 후원이 아닌 임원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46. **구술자 10:02** 제 개인적인 후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등자회장님을 말씀 주시는
47. **면답자 10:08** 이등자회장님도 후원이고 회장님도 그때부터 후원이시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48. **구술자 10:14** 저는 그렇게 후원이랄 것까지는 없었고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한 분이랄도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49. **면답자 10:35** 왜냐하면 저도 한국여성태권도연맹에서 2004년 5년에 들어가서 제가 아시다시피 회장님 국장을 두 번을 거기서 했었고, 오랜 시간 동안 또 의전 활동을 하면서 제가 기억은 나실지 모르겠지만 회장님 옆에서 한복을 입고 보필을 했던 어렸을 때!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회장님은 태권도를 하지 않으셨고, 맞죠? 그리고 저희 연맹은 모든 회의에 모두 여자들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장님이 첫인상이나 혼자 남자시니까 되게 어색하시거나 좀 불편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분위기가 경험이 인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없어서 전혀 저희 연맹하고의 인연이 있으시려고 그러셨나 봐요?
50. **구술자 11:30** 그게 회장이 되고 났었을 때 저 혼자만 남자였었죠. 이등자회장님이 계셨을 적에는 그래도 몇 분 그렇게 후원해 주시는 부회장님들도 계셨고 고문님들도 계셨고 그랬었던 상황인데 제가 회장이 되고 나서는 늘 저 혼자 그냥 남자로서 있었고
51. **면답자 12:00** 그렇죠! 그러면 18년 동안 그렇게 하시고 임원들이 해서 발전을 하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18년 동안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중요한 순간이 있으신가요?
52. **구술자 12:14** 그거는 그전에는 이제 그냥 회장님 계실 때에 쫓아다니면서 그냥 많은 고민이나 뭐 애정이나 뭐 열정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없었는데 회장이 되고 나서 그때 느꼈었던 게 우리가 대회 유치하는 것이 가장 애로사항이 많구나 어렵구나, 그전에 느꼈었던 게 안동인가 어디에선가 뭔가 시험을 한 번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임신자 전무님이셨고 그분이 이제 그쪽 안동 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후원 지원금이 부족하고 꺾는다 뭐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었

던 기억이 나고 어쨌든 그렇게 진학하고 난 후에 회장이 되고 나서부터 이 대회 유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것을 정무적으로 어떻게 풀어왔을 때에 그래도 우리 연맹의 임원진들이나 연맹의 가족 식구들이 열심히 대회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접촉하고 고생하고 그렇게 진행돼 가는 과정에 제가 조금은 보탬이 돼야 되겠다고 해서 그때 아마도 대회가 유치 대회 장소가 없어서 충남도청에 인원이 좀 있어가지고 충남도청에 우리 연맹 대회 시합 좀 해줘라 라고 부탁을 했었더니 알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도청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아산시청하고 매칭 펀딩으로 해서 매칭 펀드 사업으로 해서 아산에서 샴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한 번 겪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조금 이게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까 그래서 아는 후배가 있는 KBS 스포츠팀에 부탁을 해서 중계를 좀 부탁도 했는데 그게 결국은 생방 중계는 안 되고 심야로 이제 녹화 방송으로 이제 진행이 한 번 되고 나니까 그거 보고 나서 청양에서 대회 유치를 자기네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임원진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진행이 그렇게 됐는데 그게 도 승인이 없어서 승인 없이 진행을 했다고 해가지고 당시에 김지숙 전무, 박선영 사무국장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엄청 시달리고 고생을 많이 했고, 아무튼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54. 면답자 16:08 회장님은 예정도 없었고 잘 모르셨다고 앞서 얘기하셨는데, 많은 노력과 성과를 하시고 기억 추억이 많으시네요?

55. 구술자 16:19 그게 그렇죠 추억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으로서 부족한 부분은 어찌 됐건 채워줘야 되는 게 회장의 책임이었던단.

56. 면답자 16:38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저희가 17개 시도가 있고 5개의 연맹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승인되는 대회 중에 지역에서 제일 유치를 배제하는 게 저희 여성태권도 대회라서 회장님도 힘들고 사무국 직원 및 임원님들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해야 되는 게 왜 그냐하면 여성이라는 참가 인원의 제한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규모도 작고 성과도 작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후원자인 회장님의 입지나 오랜 기간에 그 성과를 인정해서 재단에서 회장님의 목소리를 담고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57. 구술자 17:26 그건 좀...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는 여러 번 생각했었을 때에 그렇게 자격이 있다~라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부족하다. 지금도 그렇고 처음 말씀 주셨을 때도 그랬고 그냥 부족하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를 남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라고 그러면 부족하지만 가서 열심히 말씀드리고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58. 면답자 18:12 아님니다. 너무 겸손하신 말씀이라 제가 몸을 바를 모르겠는데요. 회장님 그러면 여성태권도연맹이랑 길게 하시면서 리더십 임원들하고 관계는 어떠셨나요?

59. 구술자 18:24 저는 항상 연맹의 임원들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굉장히 원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일정 부분 소통도 있기는 있었지만 어찌 됐건 그게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았었던 부분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온 과정에서 생각해 봤었을 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성태권도인들이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열성적으로 사심 없이 많은 애정을 가지고 연맹에 봉사할 하고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죽 이런 연맹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로 그리고 좋은 분들 많은 분들이 리더분들이 계셨었던 것으로 알고 있죠.

60. 면답자 19:48 어쨌든 소통 지도자하고 임원들이랑 소통을 자주 하신 건가요?

61. 구술자 19:55 소통을 자주 했다고 해야 되나? 부족했다고 해야 되나? 그것은 제 개인적 생각하고 또 그분들의 생각하고는 조금은 다소 차이 날 수 있기는 하는데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런 잘 모르겠어요.

62. 면답자 20:16 제가 기억했을 때 회장님은 소통도 많이 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무엇보다 저희의 고충을 많이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하셨던 회장님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연맹 일을 하시면서 저희가 정말 사건 사고가 많았던 그렇지만 연맹들도 조용하지만 그런 연맹인데요. 발생한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기억에 남는 진짜 이거는 난해하고 어렵다라고 있었던 사건들이 있을까요?

63. 구술자 20:49 난해하고 어려웠었던 사건 그런 것들은 대회 유치 대회 개최자가 갑자기 취소될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연맹 사무국의 당시에 우리 이영림 국장님도 계셨을 적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대회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갑자기 발생을 하게 되면 그냥 먼산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에서 그런 거 해결하고 우리 연맹의 이제 우리 임원들이 앞에 계신 국장님도 그렇고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그런 거를 순간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갔었던 게 가장 아무튼 어려웠었던 부분

64. 면답자 21:56 그렇죠 아무래도 연맹 단체에서 대회 유치와 운영이 제일 큰 과제이자 어려움이죠. 회장님이 그걸 알고 계셨다는 건 임원들이랑 소통을 정말 잘하고 계셨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후원 초기에 저희는 태권도 하는 여성분들이 한국여성태권도연맹을 발대식을 했고, 그리고 후원자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저희 연맹이 그때부터 여성대회가 생기고 활성화가 된 건데 후원 초기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여기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65. 구술자 22:35 후원 초기에?

66. 면답자 22:39 네

67. 구술자 22:41 후원 초기 에피소드 뭐가 있을까?

68. 면답자 22:47 혹시 이등자 회장님은 어떻게 저희 연맹에 들어오게 되셨는지 혹시 그 후담을 알고 계시나요?

69. 구술자 22:54 그거는 이등자회장님이 연맹 회장님으로 오시게 된 건 이학선 명예회장님의 노력에 의해서 하기 싫어하시고 계신 안 하신다고 안 하신다고 그렇게 그 거절하시고 그러셨었던 분을 그냥 회장님으로 그냥 모셔다가 앉혀놓고 시작을 하게 됐고 했었던 그 이등자회장님이 여성연맹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역할을 이학선회장님이 해주셨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등자회장님 들어오시게 되면서 주변에 있었던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 역시도 그렇고 서회장님도 따라와 뭐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그때가 제일 이제 아마 힘들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끔 했었던 게 이학선회장님이 그렇게 해주셨고. 이 회장님이 결단을 내려주셨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과정으로 이렇게 꼭 끝까지 이제 흘러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하고 있습니다.

70. 면답자 24:25 그래서 진짜 저도 기억에 남는데 매 대회 때나 그리고 저희 회장님을 그만두신 이후에도 항상 두 손 가득히 오셔서 저희 대회 격려하러 와주시고 이등자회장님은 저희 연맹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감으로 영영 남으실 것 같은데 이등자회장님이 회장을 그만두시면 사퇴를 하시면서 갑자기 서용문 회장님이 이제 회장님으로 오셨잖아요. 그 계기가 어떻게 된 건가요?

71. 구술자 24:57 애초에 이등자회장님이 회장님으로 오실 때에 저희는 노홍숙 부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회장님 임기 마치시고 돌아가시면 그냥 같이 그만두고 가야지! 라는 그 생각만큼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이등자회장님께서 이제 사퇴를 하시고 그래 사퇴를 하시게 되니까 그냥 이 회장님 이등자회장님이 사퇴하셨으니까 나도 가야지! 여기에서 이렇게 되지 못하고 요 나머지 여기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다음 사람이 이어갈 수 있도록 이거는 그대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또 연맹 임원들이 이것만큼은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해서 전혀 생각이 없이 그냥 회장이 됐어요. 그렇게 하다 하기 시작한 게 뭐 하여튼 한 7~8년 하게 됐나? 이렇게 된 것 같아요.

72. 면답자 26:20 그러니까요. 정말 그때 그리고 나서 회장님이 계속 하셨죠?

73. 구술자 26:28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 아무튼 그리고 나서 어쨌든 회장이 되고 나서 생각했었던 게 역시 태권도는 우리 여성태권도연맹의 권익보호라든지 연맹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가 다니면서 느꼈었던 게 굉장히 음...약하거나 그런 생각을 이제 혼자 하고, 때로는 조금은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이제 시도협회 회장님들하고의 교류도 좀 넓혀가고 5개 연맹 재들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그 연맹체들과 협의회도 만들고

74. 면답자 27:47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군요.
75. 구술자 27:50 그렇게 해서 움직였던 걸로 움직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76. 면답자 27:56 그러면 회장님은 그때 올림피아코텔에서 연맹의 첫 인연을 맺었고 그리고 2011년도 그때 부터 회장 취임식을 저는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연맹을 딱 봤을 때 후원을 하시면서 정말 여성연맹 이런 거는 마음에 들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77. 구술자 28:22 열악한 환경에서 그 지도자들이나 연맹의 임직원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주변에 계신 그분들이 열성적으로 그렇게 협조 협력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78. 면답자 28:57 맞습니다. 저도 여성태권도연맹에서 인연을 길게 한 계기가 아시다시피 과거의 국가대표 면 역대 메달리스트 현재에 있는 정말 대단한 지도자님들이나 교수님들 그분들이 대회 때만큼은 정말 갖은 일을 다 하시고 모든 일정을 다 버리시고 오셔서 연맹의 대회가 존속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79. 구술자 29:28 맞아요 그분들의 열정은 제가 지금 생각해도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 뭘 학교에 강의를 나가시는 분들 뭘 등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그럼에도 그 대회 기간 동안에는 와서 때로는 굉장히 무더운 날씨에도 그 하여튼 열정적으로 와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해 주시고 기획하고 하여튼 운영해 주시는데 그분들이 아무튼 숨은 감이신 것 같아요.
80. 면답자 30:10 회장님이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회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 새록새록 기억이 남아서 지금 저도 몽글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국여성태권도연맹을 18년 동안 꾸준히 후원해 오시면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81. 구술자 30:30 가장 큰 동기 후원? 후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82. 면답자 30:42 그러십니까?
83. 구술자 30:43 그리고 그냥 가족? 가족! 그냥 여성연맹의 가족 일원으로서였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같이 쪽 해오지 않았나 그냥 후원은 좀 그런 과천의 말씀이신 것 같고
84. 면답자 31:09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정이 없었고 관심이 없었고 알지도 못했다고 하지만 지금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가족이기 때문에 동기도 필요 없다! 라는 동기 나는 그런 거 모르겠다 이런 말로 들리는데 맞나요?
85. 구술자 31:25 그렇게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86. 면답자 31:30 정말 제가 이렇게 지금 면답자로 있지만 정말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후원 초기에는 딱 오셔서 회장님으로 취임을 하시고 나서 목표나 비전이 있으셨나요?
87. 구술자 31:47 목표 비전 그런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이 연맹 여성연맹이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그 방법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놔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제 아이디어보다는 우리 연맹에 있는 유능한 지도자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 냈었던 이제 스마트 S3?
88. 면답자 32:33 3S
89. 구술자 32:35 3S 호신술 그런 아이디어 뭐 이런 거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던 기억이 나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게 이제 조금 굉장히 소극적인 상황으로 이제 변해 있는 상황이고,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제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죠.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아무튼 지도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넓게 확보할 수 있는 게 현재의 가장 큰 연맹이 가져야 될 목표라고 그래야 되나? 현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90. 면답자 33:44 그렇죠. 그걸 아무래도 해결이 있으셨고 이사부터 시작해서 부회장 회장님까지 저희랑 18년의 관계를 하셨으니 회장님의 목표와 큰 비전보다는 당장이라도 저희 연맹에 바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목표였을 거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91. 구술자 34:06 맞아요. 늘 이제 회장이 되고 나서 생각했었을 때 지금은 현실적으로 좀 현실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지자체에 실업팀 여성 실업팀을 한 팀이라도 좀 늘렸으면 어떻게 해야 늘릴 수 있을까? 지도자를 어떻게 해서라도 그쪽으로 보내서 지도자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사실은 했었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지금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했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런 거였었고
92. 면답자 35:00 그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보면 태권도를 하신 것도 아니고 또 기업 회장님으로서 후원자이신데 정말 많은 관심과 애정이 많이 18년만큼 커진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후원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목표가 있으신 것은 지금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하지만 그 변화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이 됐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93. 구술자 35:28 제가 여성연맹 회장을 하면서 우연한 기회에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선거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장신 회장님을 뽑고 이분이 하시면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변화와 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더라는 생각에 전국에 이제 17개 시도협회 회장님들 뽑고 연맹 회장님을 뽑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움직이다 보니까 기회가 좋은 기회가 생겨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함께 연맹에서 쪽 활동해 왔던 임신자 교수를 대한태권도협회 여성 부회장으로 추천도 했고 그때 또 이제 협회의 이사도 추천도 했었던 거로 기억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조금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 아무튼 그런 생각을
94. 면답자 37:14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임신자 교수님이 최초 여자 부회장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이 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그러고 나서 국기원 진흥재단 여자 임원들이 자리를 가졌는데 그런 것들이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95. 구술자 37:35 그렇죠! 그렇게 변화를 하게 됐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원래는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 보면 한 30% 정도는
96. 면답자 37:55 권장하고 있어요.
97. 구술자 37:55 권장을 하고 있는데... 절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한태권도협회하고 얘기를 해봐도 제대로 안 되고 대한체육회 쪽하고도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봐도 그냥 그런 것만 있을 뿐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현실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98. 면답자 38:33 남자 회장님으로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그 기업이나 밖에서 보셨던 여자의 입지와 태권도계 안에 있는 여성태권도인들의 입지가 어떻게 다르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99. 구술자 38:49 핵심적으로 말씀을 주신다면 여성태권도인들 하고 남자인 제가 회장으로 있는 상황이 무슨 차이점이 있었느냐 이걸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100. 면답자 39:15 아닙니다. 밖에서의 여성들의 지금 현재 사회의 여성들의 입지와 여성태권도연맹의 회장님으로 있으시면서 태권도계 안에 여성들의 입지가 같으면 같다. 다르면 다르다. 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101. 구술자 39:34 그 당시
102. 면답자 39:35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도?
103. 구술자 39:38 아무튼 여성태권도인들의 입지가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데 지금 이제 떠나온 지 얼마를 돼가지고 현재는 어느 정도 어떤 형태의 위치에 와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훌륭한 분들은 분명히 많이 계시죠.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여성들만의 공간이라고 그 벽을 치는 부분이 제가 봤었을 적에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럼

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놓은 현실인 것 같아요.

104. **면담자 40:31** 저도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회장님은 태권도인이 아니고 기업으로 인정되신 기업인이 또 어떻게 저희와 인연이 돼서 태권도로 들어오셔서 태권도 쪽에서 종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밖에서 있는 여자들의 입지성과 태권도계에 있는 여자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게 다른지가 저는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떻게 다른 부분이 있을지 저희 태권도계나 스포츠계에서 여자들에 대한 아무래도 문제점이나 아까 말씀하신 입지들이 매우 낮아 있는 상태에서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음에도 그게 지금 현재 지켜지고 있는 연맹 협회 지자체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계가 어떻게 하면 여성태권도인들이 좀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05. **구술자 41:28** 우선 기업에서 지금 이제 인기 종목 같은 경우 대기업에서 후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성태권도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태권도 중주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축과 태권도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기업에서 후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는 현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떤 형태로든 여성태권도에 대기업이 기업이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고, 그런 마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그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있을 때에도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106. **면담자 42:44** 아닙니다. 회장님이 많은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 면담자로 있지만 회장님은 그때 많은 기업과 지자체의 협업을 추진해 주시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셨고, 저희가 또 다른 사업들도 많이 진행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본인이 너무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 그러면 후원을 하는 동안 연맹에서는 중점 두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수 육성이라든지 여성지도자 발굴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국내대회를 하고 있지만 국제대회 유치라든지 그러면 회장님은 후원하는 동안 어떤 것들에 더 집중 사업이나 관심을 가졌던 것이 있습니까?
107. **구술자 43:34** 여성 여성 여성 지도자들 육성?
108. **면담자 43:42** 그 지도자 육성 선수 육성 국제대회 개최 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더 회장님 입장에서 중점을 둔 사업이 있으십니까?
109. **구술자 43:56** 선수 육성이 우선 좀 중요한 것 같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셨던 그 지도자 양성도 그 때도 지금은 지도자 양성이 그 많은 당시 제가 처음 연맹에 들어갔었을 때만 해도 박사 타이틀이 아마도 몇 분 안 계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110. **면담자 44:43** 교수님들도 많고
111. **구술자 44:44**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으신데 아무튼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넓어져야 되는데,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112. **면담자 45:04**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그계 성을 떠나서 서로를 간에 알고 있으시면 변화가 오는데 그게 선입견과 그런 것들이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113. **구술자 45:15** 그렇죠! 그 편견 그 편견 자체가 사실은 빨리 없어져야 해요.
114. **면담자 45:23** 그렇죠! 그러려고 여성연맹이 또 노력하고 있는 주된 목적 아니겠습니까?
115. **구술자 45:29** 그렇죠
116. **면담자 45:30** 그러면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여성 지도자를 육성했는데 한국 지금 후원을 하시면서 연맹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117. **구술자 45:44** 긍정적으로 변화는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냥 그냥 앞으로 잘 돼 가기를 응원하고 이제 떠나 있는 상황에서 뒤에서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잘 되길 바랄 뿐이지 이제는 제가 뭐 이렇게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118. **면담자 46:13**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회장님의 후원이 저희 연맹이 그냥 국기원이나 그렇게 작게 했던 대회가 지금은 연 2회로 되고 대회가 확장이 됐고, 확대가 됐고 여자 선수들이나 참여율도 높아졌고, 그리고 이제는 연맹 중에 한국여성태권도연맹이라는 이름도 확실히 낙인이 딱 찍힐 정도로 알고를 있고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크게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119. **구술자 46:44** 맞아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때로는 제가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는 어디 가서 이렇게 여성연맹 회장이 다 그렇게 했었을 때에 좀 자존심 상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120. **면담자 47:05** 네
121. **구술자 47:07** 소외감도 느끼고 그래서 이제 시도협회장들하고 교류하고 이제 연맹 회장들하고도 교류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활동 범위를 조금 넓히다 보니까 어찌어찌 연맹에 이제 여성연맹이 있긴 있구나 좀 움직이고 활동은 하긴 하는구나 그렇게 기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때는 또 이제 그 초중 초등학교 시험이 초등연맹으로 인해서 지금은 갈등이 좀 있어서 이제 남자들이
122. **면담자 48:06** 남자 초등학교도 출전을 못하게 하는 걸
123. **구술자 48:09** 출전을 못하게 하는 걸로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초등연맹의 이현부 회장님 아주 편안하셔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거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변화가 생겼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그렇지? 우리가 현재가 여성가족부라고
124. **면담자 48:35** 네 여성가족부로 되어 있습니다.
125. **구술자 48:37**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족이라고 그러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왜 아직도 이런 그런 테두리에 그걸 가둬 놓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그런 거는 좀 안타깝고 지금 제가 다 떠나 있는 상황에서 제가 쫓아다니면서 그런 거 말씀드릴 수 있는 계제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런저런 것들이 가끔 들리는 얘기로는 안타까운 생각이죠.
126. **면담자 49:13** 맞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제가 있을 때 제가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 그 문제점이 엄청 크게 부각이 된 게 지금 대회가 너무 과부하 상태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그 경기를 확실히 구체화해서 선수들과 그 성과를 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선수들에게 특히나 초등학교생들은 운동을 더 많이 안 하잖아요. 전문 선수로 육성을 안 시키다 보니까 저는 대회 참가에 중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회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서로 가족이라는 받아들이고 열리면 화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후원 이외에 여성태권도 선수나 지도자들을 직접적으로 교류하거나 지원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127. **구술자 50:11** 아니요! 없는데요
126. **면담자 50:14** 회장님이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126. **구술자 50:19** 기억 아...글쎄요. 어떤 부분을 국장님께서 말씀을 질문을 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28. **면담자 50:31** 제 질문은 지금 후원 이외에도 여성태권도 선수나 지도자들에게 직접적인 교류나 지원을 하신 경험이 있는지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예 사무국으로 저희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정말 회장님께 감사드리는 부분인데... 후원 이외에도 저희가 대회 열악한 선수들 지도자들 지도자협의회, 여성지도자 협의회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식사 대접이나 다른 것들을 회장님이 후원하셨고 열악한 선수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별도로 또 해서 저희가 해 주셨던 저희가 초반에는 그러다가 대회에 확대가 되고 참가 선수들이 많아지면서 저희는 지금 현재도 선수들에 대한 선수 육성 장학금은 따로 나가고, 그리고 여성지도자협의회에서도 따로 장학금을 마련해서 선수들을 지금 후원하고 있죠! 그래서 회장님이 과거에 개인 후원으로 그런 선수들과 지도자를 챙기셨습니다.
129. **구술자 51:33** 그런 거를 후원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말씀하셨던 게 제가

- 이제 우리 이영림국장님하고 함께 일을 하고 그럴 당시에 보면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영림 국장님은 항상 평가에 아이디어를 많은 거를 가져오고, 무언가의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굉장히 활발한 어떤 그런 국장님이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계시는 상황에서 그냥 저는 국장님이 하시는 일에는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일이 잘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130. 면담자 52:26 제가 몸돌 바를 모르고 지금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린 저희야말로 회장님들 이등자회장님 서용문회장님 이렇게 지금 현재에 있는 장철모회장님까지 연맹에 외부 기업인 회장님들이 있음으로써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태권도의 변화를 많이 가져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음 질문이 그런 겁니다. 회장님의 후원이나 이런 활동이 여성태권도 선수들의 경쟁력 강화나 인식 개선에 변화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131. 구술자 53:02 변화를 줬다. 변화가 왔었는데 좀 이루어졌다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그게 순전히 어찌 보면 연맹의 참여하고 연맹에 참여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능력에 의해서 그 변화가 조금 생기게 됐고 앞으로도 그런 형태로 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회장님 회장님 지금 현재 계시는 장 회장님도 그러시지만, 저 역시도 그렇고 그래서 회장으로서 있는 상황은 그렇죠. 외풍을 막아주는 어떤 그런 역할만 해줄 수 있는 게 그냥 회장의 책무고 그 안에 워낙 유능한 인재들이 뭐 국장님도 그렇듯이 뭐 다른 분들도 또 뭐 훌륭한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계시니까 당연히 변화가 다 잘 돼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변화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32. 면담자 54:31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있지만 제가 좀 불편한 질문을 드리자면 회장님이 남자시고 아가 말씀하신 대로 여성태권도연맹의 회장으로 가는데 창피할 때도 있으셨다고 앞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활동을 하시거나 이런 때 여성태권도연맹인데 남자 회장이라는 걸 질문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133. 구술자 54:55 그런 질문은 이제 좀 받아보긴 했죠.
134. 면담자 55:01 처음 받아보셨습니까? 많이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135. 구술자 55:05 그런데 이제 그냥 왜 여성태권도연맹의 남자 회장이나? 라는 얘기를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성보다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남자인 내가 있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 했었고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136. 면담자 55:40 회장님은 단독 출마에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선거법이 대한태권도협회를 통해서 선거법이 바뀌었죠. 저희가 18년도 19년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단독으로 나와도 선거를 해야 되고! 옛날에는 단독으로 나오시면 연맹 회장님들이 편하게 그냥 가셨는데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바뀌었는데도 회장님은 단독 출마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맞나요?
137. 구술자 56:10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138. 면담자 56:12 그런데 지금도 저희는 남자 회장님인데 회장님하고 연인 있지 않으십니까?
139. 구술자 56:21 제가 가장 아끼고 있는 아주 가깝고 가까이에 있는 후배 장철모회장님 아무튼 훌륭하신 분이기에 때문에 아무튼 연맹의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이제 추천을 해서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2박 3일 역시 그분도 제가 같이 운동하러 가 가지고 철득해가지고 와서 좀 도와달라라고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지금 올해 임기 마지막 해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도 하여튼 열심히 후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140. 면담자 57:21 그렇죠 회장님이 회장으로 있으실 때 지금 현 장철모회장님이 부회장으로 오셨고, 그래서 계속 꾸준히 후원을 하였고 이등자회장님을 통해서 배우신 저희 후원에 대한 역할이셨을까요? 똑같이 꼬리물기 하듯이
141. 구술자 57:40 제가 생각했었을 적에 장철모 부회장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구...
142. 면담자 57:52 부회장님까지
143. 구술자 57:53 부회장님 현재 부회장님이시죠? 그때 이제 이구이사... 내가 이제 남자로 있으니까 의

- 로우니까 가까운 후배들 좀 이렇게 좀 와가지고 같이 좀 동참해서 하자 해서 모셔와가지고 같이 활동한 거죠. 뭐
144. 면담자 58:12 그러면 지금 활동하시고도 그렇긴 했는데 그럼 제가 여쭙보고 싶은 건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회장님이 그런 외소하시고 좀 저희 여성태권도인들이 경기 출신이다 보니 진짜 다들 세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강단과 이런 깊은 인연은 어디에서 우리나라인 걸 봐요?
145. 구술자 58:39 그저 제가 외소하다고 아니면 우리 여성연맹에 있는 선수들이나 임원들이 뭐 이렇게 뭐 저보다 강해 보인다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족이니까 그냥 뭐 신체적인 그럼 내가 조금 외소해 보일 뿐이지 그 외에 다른 어떤 차이점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146. 면담자 59:18 그러면 진짜 나오는 내적 에너지가 엄청 크신 것 같습니다. 회장님
147. 구술자 59:23 그거는 이제 우리 연맹 가족들이 훌륭하시니까! 그렇게 그런 결과였던 거죠. 뭐!
148. 면담자 59:38 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 한국여성태권도연맹의 가족 여성태권도인들은 애정과 사랑이 항상 내재되어 있어서 이런 일들과 지금 현재 유지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149. 구술자 59:57 맞아요! 그분들 전체적으로 이름을 꼭 호명하기에는 거명하기에는 그렇지만 아무튼 굉장히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분들 제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어요. 아무튼
150. 면담자 1:00:13 아니요 저희도 앞으로 이것이 기록되고 더 그게 남아서 또 나중에 또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후원을 통해서 태권도에서 태권도가 발전하고 지속되어 있고 특히 여성태권도인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151. 구술자 1:00:34 여성태권도인들이 사회적으로?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가더라도 여성태권도인들이 그 확고한 위상 확보를 하고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항상 존중받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항상 응원하고 기원하고 바라고 있는 거죠.
152. 면담자 1:01:07 저는 말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태권도인들은 인정받기라도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데 거기서 존중이라는 말은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성태권도 선수가 더 많이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태권도인으로서의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53. 구술자 1:01:34 그거를 제가 지금 현재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건 머릿속에 좋은 생각은 없어요.
154. 면담자 1:01:47 그래도 또 지금 현 회장과 사무 집행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역할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한국여성태권도연맹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155. 구술자 1:02:06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거기 현재 연맹이 어떻게 방향이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냥 잘하고 잘 되길 응원하고 있을 뿐이죠.
156. 면담자 1:02:27 그러면 한국여성태권도연맹에서 오랜 시간 이제 임원을 계속 해오신 분이로서 후원도 해오신 분이로서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다면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157. 구술자 1:02:43 기억에 남는 분들이라 하면 이등자회장님서부터 이학선회장님 노홍숙 부회장님이나 아니면 이제 지금 저기 외국에 나가 계시는 김영숙사범님이나 임신자교수님도 그렇고 등 이렇게 우리 같이 활동했던 어떤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뭐
158. 면담자 1:03:21 회장님 활동하시는 동안 역대 전무님들이 누구셨죠?
159. 구술자 1:03:25 임신자교수님이 첫 번째 제가 회장을 할 때에 전무님으로 계셨고 그리고 그다음 해가 김지숙 전 회장 전무로 계셨고, 그 다음에가 광정현 교수

160. 면답자 1:03:51 그렇죠
161. **구술자 1:03:53** **계셨던 거죠.**
162. 면답자 1:03:54 그렇죠 그때 제가 사무국장이었으니까 그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연맹이 진짜 짧은 시간 동안 여성 임원으로서 회장님이랑 같은 연이 아주 깊고 그 대신 전무님들은 뭐 그렇게 계속 했던 분들이어서 초기 멤버이시고 그렇죠 회장님이 후원을 하시면서 자꾸 후원이 아니시라고 하셔서 제가 후원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너무 죄송한데 여성 지도자들이나 대외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특별하게 진행하신 프로그램들이 있으신가요?
163. **구술자 1:04:36** **특별하게 진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거 여성 호신술**
164. 면답자 1:04:47 호신술 사업
165. **구술자 1:04:49** **호신술 사업 그거가 가장 앞으로 더 핵심적으로도 지도자들이 해나가야 되는 그 프로젝트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166. 면답자 1:04:59 그거를 진행하게 된 저희는 이제 지도자일 뿐이고 임원님들이나 임직원들의 이유가 계기가 있었나요? 그거를 만드는 계기가
167. **구술자 1:05:15** **그게 여성연맹의 어찌 보면 그 자생력을 위한 그 여성연맹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168. 면답자 1:05:35 경기 단체이기때문에
169. **구술자 1:05:36** **경제단체이기 때문에 그 문화원 사업으로 인해서고 여성연맹이 자생할 수 있도록 여러 이제 그 사업을 해서 지도자들도 좋고 여성연맹도 자생력을 가졌으면 좋고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 당시에 어쨌든 제 기억으로는 고계옥 박사 임신자 교수 등 이런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거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지속성으로 이어져 가지 않은 상황이 어쨌든 어떠한 문제점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서라든 그거는 이제 죽 그렇게 가야 되기를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170. 면답자 1:06:40 그러면 이제 좀 어려운 질문은 회장님은 중간에 임기 중간에 그만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171. **구술자 1:06:53** **그거**
172. 면답자 1:06:54 돈이 없어서 후원을 못하시니까 그거는 아닌가...
173. **구술자 1:06:57**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거~ 중도의 임기 안 마치고 그만두게 되는 배경을 얘기하는 게 조금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국장님!**
174. 면답자 1:07:15 그렇습니까?(웃음) 아니 이 취임식을 했기 때문에 최초로 또 여자 회장님이 다시 여자 회장님으로 자리를 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임기 마치시고, 또 다시 남자 회장님으로 가고 지금 현재 있는 시점에서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회장은 그만두셨지만 연맹과의 후원을 하는 협력 관계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십니까?
175. **구술자 1:07:42** **협력 관계 협력을 원한다고 그러면 협조는 하겠지만, 더 이상 깊이 관여를 해가지고 뭐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지금은 없죠. 이제! 그거 맞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176. 면답자 1:08:12 저는 회장님의 입장이나 근데 워낙에 또 저희 연맹에서는 아버지 같은 입장과 그친 이등자회장님이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회장님은 또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대로 가족이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저희가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두 발 나서서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닐까요?
177. **구술자 1:08:40** **그렇게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도와드려야 되겠죠?**

178. 면답자 1:08:47 협력 관계는 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회장님! 그러면 18년 동안 후원을 하시면서 내가 이것만큼은 정말 잘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179. **구술자 1:09:03** **이것만큼은 잘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이제 그 중간중간 이제 말씀 이어 오면서 했던 것이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나 특별히 잘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180. 면답자 1:09:25 아..이거는 제가 여성태권도연맹의 과거 국장이었다던가 해서가 아니라 저는 저도 지금 현재 7단으로 여성태권도인입니다. 저도 근데 여성태권도연맹의 존재 여부는 여성태권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연맹이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성태권도인들이 더 빛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회장님 같은 분들의 후원이 뒷받침되니까 저희들이 지금 대회를 유지하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회 워크샵 그리고 저희가 항상 친밀도 높일 수 있는 친화경 친화 행사 같은 것들을 많이 해주시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런 유지들이 회장님들의 후원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이루고자 했던 거나 이제 앞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회장님 때 후원을 받았던 선수들이 지금 여성 지도자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181. **구술자 1:10:47** **글쎄 거기까지는 다 일일이 잘 모르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연맹의 임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해서서 그러한 결과들이 생긴 것이고, 그분들로 인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182. 면답자 1:11:12 그렇죠 그렇게 또 공을 저희의 임원들이나 사무국으로 돌리신다면 제가 그 회장님의 개인적인 삶과 태권도 후원 활동을 하면서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183. **구술자 1:11:31** **어떤 영향을 받았나? 그거는 연맹에 있으면서 그냥 늘 그냥 조심하고, 행동하고 존중 해주어야 되고! 뭐 하여튼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
184. 면답자 1:12:01 이제 개인적인 얼굴이 아니라 연맹의 제 얼굴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185. **구술자 1:12:07** **그렇죠! 그래서 늘 항상 어디를 가더라도 하여튼 조심하고 행동에 하여튼 엇나가는 어떤 그런 거는... 아주 삼가하고 그렇게 행동했었던 것 같은데 남들이 볼 적에는 또 어떻게 판단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186. 면답자 1:12:30 후담으로 제가 알고 있는 여담을 꺼내자면 너무 죄송스러운 게 한국여성태권도연맹의 회장이라서 좀 더 우리 회장님들 안에서 좀 더 하대를 받고, 더 입지를 못 가졌었던 걸로 해서 저는 매번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으셨어요. 회장님이 근데 내적 강인함을 그때 발의를 하셔서 정말 통쾌하게(웃음)
187. **구술자 1:13:05** **그런 그런 시기 머리가 나빠서 기억력이 없어서 그런 시기 다 잊어버렸어요.**
188. 면답자 1:13:17 안 좋은 거는 지워버리시는 게 스트레스에도 몸에도 좋으니까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이 저희 의견을 하는 의견팀도 그렇고 사무국도 그렇고 저희 부의장단을 통해서도 그런 게 항상 저희도 조심스럽고 회장님을 어떻게 잘 보필하느냐? 했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회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 저희가 제대로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89. **구술자 1:13:47** **아무튼 좋은 분들하고 연맹 생활을 활동을 해왔었던 게 저한테는 매우 소중한 어떤 그런 추억이고 자산이고 아무튼 그분들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제가 이런 인터뷰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190. 면답자 1:14:25 후원을 시작하신 때의 연령대가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191. **구술자 1:14:33** **그때 4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당시 같이 했던던 저기 임신자 교수나 그 동등등 멤버들이 30대!**
192. 면답자 1:14:49 진짜 젊으셨네요. 저보다.

193. **구술자 1:14:53** 쥬쥬! 그런데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시간이 벌써 꽤 지났잖아요. 국장님을 처음 뵈게
194. **면담자 1:15:03** 제가 25살 때 회장님을 처음 모셨습니다. 그랬어요. 회장님은 그대로세요.
195. **구술자 1:15:14** 국장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196. **면담자 1:15:16** (웃음)아닙니다. 제가 진짜 그래서 그러면 회장님이 이제 저희 연맹을 후원하시고 활동을 하시면서 좀 더 이런 부분은 이제 막 태권도계 태권도계의 정말 이런 것들은 좀 바뀌어야 되고! 그래야 좀 한다는 부분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197. **구술자 1:15:40** 그거는 하...
198. **면담자 1:15:44** 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차피 떠나셨잖아요.
199. **구술자 1:15:52** 아무래도 파벌, 지연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갈등이 저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런 것들이 전혀 그렇게 작용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에 와서도 보면 역시 그런 부분들은 변화되지 않고 있다. 그거는 반드시 변화해야 되고 물론 어느 곳을 가더라도 학연, 지연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배제를 하고 그렇게 그 지도자들이 그런 행동을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램이죠.
200. **면담자 1:16:58**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성태권도인들은 이제는 좀 많이 알고 그 관계들이 그때부터 30대부터 존속했던 분 지금 현재도 일을 하시고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성태권도인들이 좀 더 발전하고 활동할 수 있는 변화 그런 사업이나 뭐 있다면 어떤 것이 대표적으로 이루어지고 추진이 되길 원하시나요?
201. **구술자 1:17:27**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떠나서 이제 별로 고민 깊게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요.
202. **면담자 1:17:36** 그래도 회장님이 항상 도와줬던 부분이어서 저희 아가 말씀하셨던 스마트 3S는 여성들의 안전과 양성평등을 위해서 회장님과 비롯한 임원님들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그쪽을 왕성하게 했었기 때문에
203. **구술자 1:17:53**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건 어떤 형태로든지 지속 사업을 해나가야 된다 라고 이제 그건 주장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거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잘 슬기롭게 잘 풀어나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죠. 하여튼 또 아직은 그거 그 문제 문화원 문제만큼은 제가 조금은 관여되어 있으니 어떻게 해서라도 잘 화합해서 그 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거는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건 잘 되길 바랄 뿐이고 마지막으로 말씀 질문 주셨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속하지 않고 앞으로의 비전이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오실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운영을 하실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여성연맹도 변화를 할 것이고, 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오실 것이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응원 하고 있는 거죠.
204. **면담자 1:19:30** 그 응원이 크게 작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만들어서 회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요. 회장님이 여성태권도연맹에 오랫동안 몸 담으신 만큼 후원해 주신 만큼 못하신 얘기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 **구술자 1:19:54** 다 지나온 상황에서 못 한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 해서 그게 해소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냥 현재 조금은 흠어져 있는 이분들이 예전에 한마음으로 뭉쳐 있었던 그런 분들이 이제 좀 화합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좀 이렇게 끌어주셨으면 그게 제일 좋은 부탁 드리고 싶은 그런 거예요.
207. **면담자 1:20:47** 저희가 원래는 이자 회장님도 같이 모시고 싶었지만 이런 관계가 안 된 여성태권도인들을 오랫동안 후원하시면서 또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후원자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후원 활동을 고려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208. **구술자 1:21:12** 아마 기업을 하시고 계시든 어떤 위치에 계시든 아마 이렇게 후원을 하면서 여성연맹의 애정을 갖고 그렇게 바라봐 주시면 아마 또 다른 느낌을 가지실 수 있고, 연맹에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런 뭐 기분 그런 느낌을 좀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연맹의 한국여성태권도연맹이 발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신 있게 후원하고 나면, 후에 가서도 자부심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으니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209. **면담자 1:22:13** 저희 태권도는 기업 후원이 제일 없는 종목으로 대표적인데요. 회장님의 이런 인터뷰와 영상을 통해서 저희 태권도도 기업의 후원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210. **구술자 1:22:25** 제가 못 해놓은 거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요. 기회는 몇 번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그렇게 후원으로 직접 연결시키지 못했고, 그랬었던 부분들이 아마도 아쉬움으로 남는 거죠.
211. **면담자 1:22:51** 회장님이 18년 동안 후원해 주신 만큼 저희 여성태권도 선수 및 지도자들을 그리고 그 사람 비롯한 행정가들은 그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는 아니지만 제가 대표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요. 여성태권도연맹이 앞으로 좀 더 발전하는 모습이 그거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212. **구술자 1:23:23** 아무튼 어찌 보면 우리 이영림국장? 이영림박사? 아무튼 우리의 인연이 아무튼 같이 일을 하면서 활동하면서 참 제가 늘 항상 이렇게 활발하고, 그냥 그 넘치는 에너지 아이디어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여성연맹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 많아요 그거는!
213. **면담자 1:24:21** 그렇습니까? 앞으로 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 선수들이나 지도자들에게 인사나 메시지 남기고 싶은 거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214. **구술자 1:24:34** 우리 선수 지도자 이분들 항상 지금같이 해오셨던 가지고 계셨던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한 가족으로 열심히 같이 잘 되고자 노력해 주셔서 보다 나은 미래가 다가오고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15. **면담자 1:25:08** 아버지 같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6. **구술자 1:25:17** 감사합니다.

주요 색인어	가족	대회	사회	이등자	지도자협의회
	국장	문화원	스마트호신술	이사	지원
	권익	봉사	아이디어	이학선	호신술
	김영숙	부회장	여성임원	임기	회장
	남자회장	비전	연맹회장	임신자	후원
	노홍숙	사업	유치	장철모	후원자